제8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일시 2017. 10. 20(금) 09:00~17:00

장소 양재 aT센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제8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일시 2017. 10. 20(금) 09:00~17:00

장소 양재 aT센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환 · 영 · 사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가을 날 제 8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부터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출생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추적 조사하는 이 연구는, 아이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환경, 육아지원정책의 영향 등에 관한 종단 자료를 전국 단위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매년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주의 대표적 영유아 종단 연구자인 Western Australia 대학의 Stephen R. Zubrick 교수와 미국의 영유아 종단 연구자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Elizabeth Cooksey 교수를 기조강연자로 초청하였습니다. 기조강연을 통해 국외의 종단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로의 전이와 적응, 사회정서발달, 언어발달, 부모 양육, 아동의 문제행동, 종단적 접근 등 여러 분야에서 주제발표를 해주실 전문가를 모시고, 국내·외 종단연구에 대한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아동패널은 국내의 아동발달과 육아지원에 관한 종단연구의 기준을 제시하고,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아동패널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Program

시간	프로그램
09:00-09:30	**등 록**
1부 한국아동패널 개회 및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	사회: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협력실장)
09:30-09:50	**개회식** 환영사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 사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09:50-10:00	**한국아동패널 소개**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장)
10:00-10:10	**대학원생 논문 시상**
10:10-12:10	**기조 강연** Stephen R. Zubrick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Elizabeth Cooksey (The Ohio State University)
12:10-13:30	**오 찬**
2부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학술논문 발표1	
13:30-15:00	1주제: 초등학교 전이 2주제: 문제행동 3주제: 사회·정서 발달
15:00-15:20	**휴 식**
3부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학술논문 발표2	
15:20-16:50	4주제: 초등학교 적응 5주제: 부모양육 6주제: 언어 발달

제8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 (10:10 ~ 12:10)

그랜드홀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1

강연자: Stephen R. Zubrick
(Professor of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그랜드홀

Children of the 1979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47

강연자: Elizabeth Cooksey
(Professor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Session 1 (13:30 ~ 15:00)

창조룸 I

제 1 주제: 초등학교 전이

사회: 신나리 (충북대학교 교수)

1.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아동의 행복감 변화

연구자: 안수빈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은선민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토론자: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71

2.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이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김충일 (서울대학교 박사)
권윤정 (서울대학교 박사)

토론자: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94

3. 유아 및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 종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생의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 –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

연구자: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배선영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113

미래로룸 Ⅰ

제 2 주제: 문제행동

사회: 위영희 (서원대학교 교수)

1.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및 어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행동, 양육 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유아 행동문제의 구조관계

연구자: 전혜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수료)
유미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토론자: 권연희 (부경대학교 교수) **137**

2. 영아기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기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연구자: 장효은 (경북대학교 박사수료)

토론자: 문영경 (대전대학교 교수) **163**

3. 일반 유아와 빈곤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학습준비도 및 학교적응

연구자: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김미나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토론자: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96**

미래로룸 Ⅱ

제 3 주제: 사회·정서 발달

사회: 박혜원 (울산대학교 교수)

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자: 임선아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19**

5.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자: 채혜경 (부산대학교 박사수료)
제희선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토론자: 김정숙 (부천대학교 교수) **239**

6. 아동기 시간 활용의 차이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자: 손진영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토론자: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62**

Session 2 (15:20 ~ 16:50)

창조룸 I

제 4 주제: 초등학교 적응

사회: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경영지원실장)

7.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및 초등학교 적응: 성장혼합모형(GMM) 분석
연구자: 노보람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박새롬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토론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99**

8.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연구자: 한지현 (전북대학교 강사)
토론자: 신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331**

9. 학령전기의 말·언어수행이 학령기의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장종호 (나사렛대학교 석사과정)
토론자: 김경은 (남서울대학교 교수) **353**

미래로룸 II

제 5 주제: 부모양육

사회: 제경숙 (경남대학교 교수)

10.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과 우울: 부부의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자: 조규영 (동아대학교 교수)
김신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전효정 (동아대학교 교수)
토론자: 차승은 (수원대학교 교수) **385**

11.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 간의 관계: 성별 간 다집단 분석
연구자: 박지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이주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정혜민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토론자: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406**

12.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연구자: 성정혜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토론자: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432**

미래로룸 I

제 6 주제: 언어 발달

사회: 이희선 (가천대학교 교수)

13.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vocabular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Korea children at 3 and 7 years of age

연구자: 김수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지선 (Western Sydney University 교수)

토론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459**

14. 말늦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

연구자: 이수향 (나사렛대학교 교수)
홍경훈 (나사렛대학교 교수)

토론자: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481**

15. 어머니의 산전과 산후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이귀옥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찬화 (금융감독원어린이집 원장) **498**

※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아동패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 기 조 강 연 1 ◈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Prof. Stephen R. Zubrick
(University of Wetern Australia)

Zubrick 교수는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에 재직 중이며, Telethon Kids Institute의 선임연구위원, ARC Centre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호주아동종단연구 총괄 이사회 구성원으로써 호주 내 토착민족 아동들의 종단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Zubrick 교수의 관심분야는 심리학, Speech and hearing science이다.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Circumstances that chang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inform the policies of nations

Stephen R. Zubrick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Seoul, South Korea
20 October 2017

Overview of talk

- Longitudinal studies as a scientific "technology"
- The challenges of implementing longitudinal studies
- Data for early years policy: An example
- Summing up

2

Longitudinal studies as a scientific "technology"

3

Longitudinal studies

Global activity

Why do countries undertake these studies?

Longitudinal studies

Global activity

- Must be sustained over successive changes in government and staff
- A long period to produce outputs of high value
- Scientific and analytic demands are high
- Expensive!

Longitudinal studies

Global activity

Why do countries undertake these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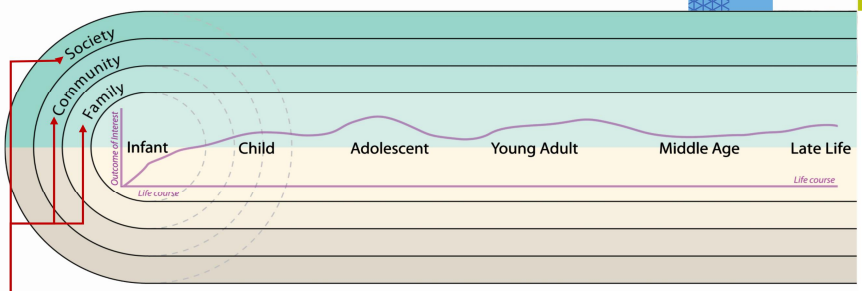
Longitudinal studies are a type of scientific "technology"

They do some things well

Longitudinal "technology"

A view of the life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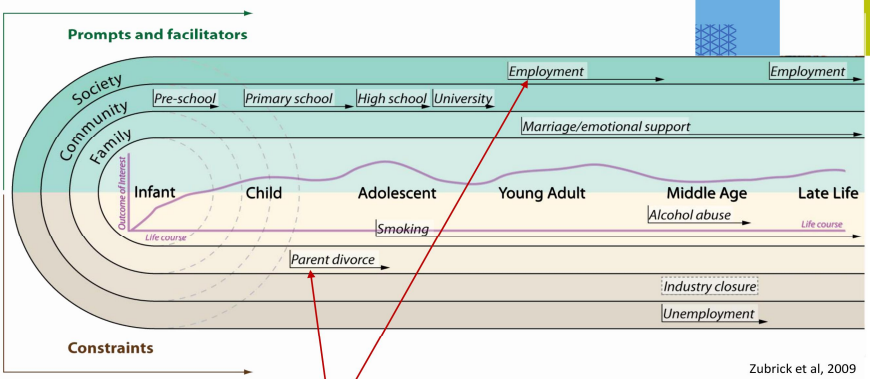
Longitudinal "technology"



Zubrick et a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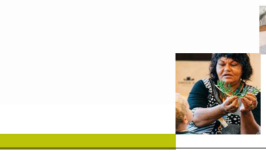
modelling multi-level effects

Longitudinal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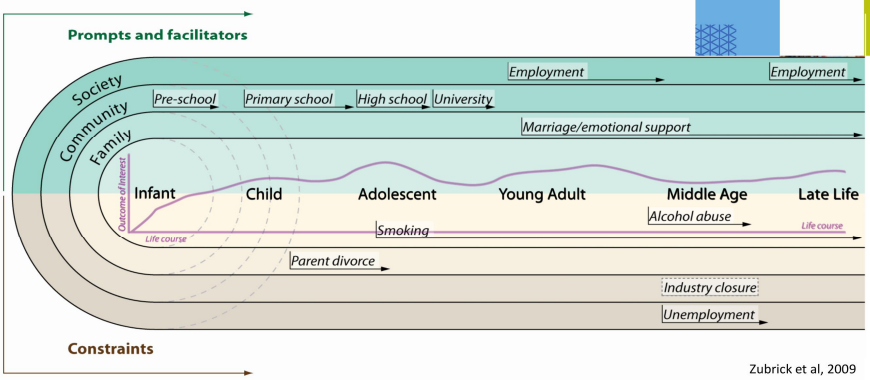


Zubrick et a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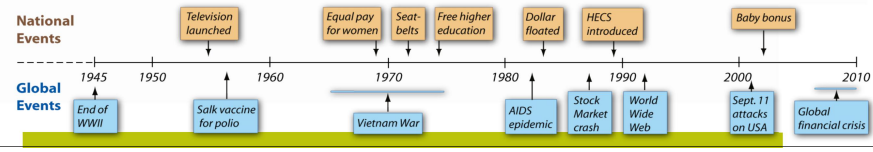
A view of causes and eff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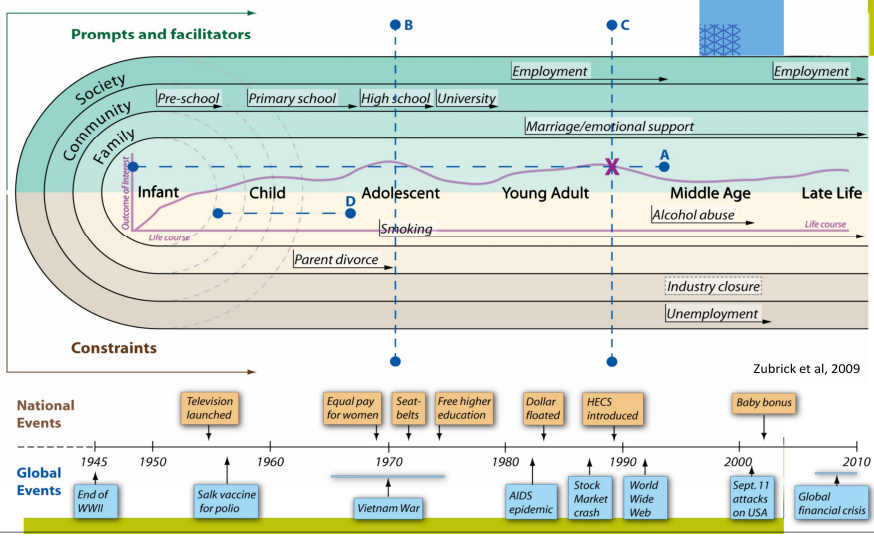
Longitudinal "technology"
Historical events can be considered



Zubrick et al, 2009



Longitudinal "technology"
Cross-sectional[B,C] & longitudinal views[A,D]



Why Australia established a longitudinal study (2001)

12

Why Australia established a longitudinal study (2001)

- "To provide integrated information for social policy in areas concerning children:

  Child c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Parenting and family relationships
  Family support and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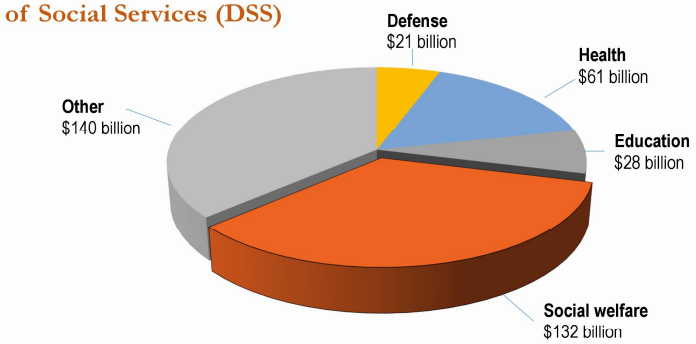
- Data will be used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strategies"

13

Study establishment

The commissioning agency for the study

Commonwealth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Source: Australian Commonwealth Budget 2012-13

Study establishment
Purpose (2001)

- Required design features included:
  - A developmental pathways approach
  - A conceptual framework that bridged government policy portfolios and academic sectors
  - Specific content domains
    - Family function
    - Health
    - Non-parental child care
    - Education
  - A data release and user support strategy

15

A pathway approach
What does this permit?

16

A pathway approach
What does this per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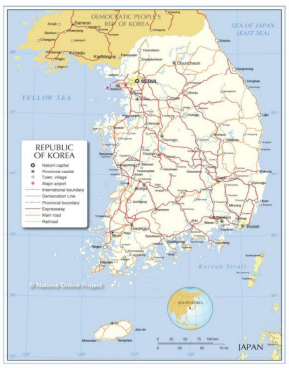
- Specification of long-range human development outcomes – "participation"
- Involvement across several government agency policy and funding portfolios
- Engagement in long-term planning, study sustainability, and translation of results
- Greater clarity in selection of study content and design

17

The challenges of imple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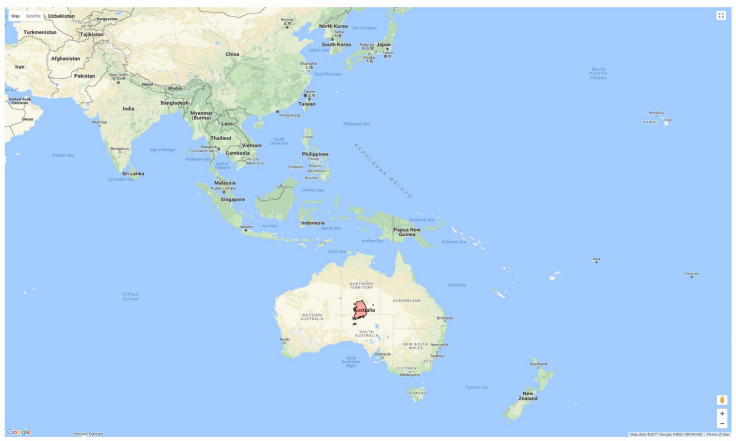
18

Some context
Australia is very large



19

Some context
Australia is very large



20

Some context

	Republic of Korea	Australia
Area	38,345^2 miles	2,900,000^2 miles
Population	51.2 million	24.1 million
Population, urban	82.5%	89.4%
Life expectancy	82.1 years	82.5 years
Median age	40.6 years	37.5 years
Human development index	0.901 (#18)	0.939(#2)

21

Features of the study design and methods

22

Study establishment
Governance

- A critical step in study success
  - Tri-partite management group
    - Commonwealth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funder, policy)
    -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design and research)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survey processes and field work)
  - Scientific guidance and leadership
    - Consortium Advisory Group (academic community, science)
- Collective decision making - Consortium
  - Monthly meetings of the consortium (phone and face-to-face)

23

Preparation
Final design and sampling frame

- A two-cohort, biennial, cross-sequential design
- Random sampling from Australian Medicare enrolments
- Required estimate precision for:
  - Nation
  - State (5) & Territory(2)
  - Urban/rural
- Indigenous population sampled in proportion to population*

(*A separate Longitudinal Study of Indigenous Study commence in 2003)

24

And now . . . .
Seventeen years later

25

LSAC longitudinal design
Cross-sequential

	WAVE 1 2004	WAVE 2 2006	WAVE 3 2008	WAVE 4 2010	WAVE 5 2012	WAVE 6 2014	WAVE 7 2016	WAVE 8 2018
B COHORT	3 – 19 months	2 – 3 years	4 – 5 years	6 – 7 years	8 – 9 years	10 – 11 years	12 – 13 years	14 – 15 years
K COHORT	4 – 5 years	6 – 7 years	8 – 9 years	10 – 11 years	12 – 13 years	14 – 15 years	16 – 17 years	18 – 19 years

26

LSAC longitudinal design
Effective sample retention

COHORT	WAVE 1 2004 N %	WAVE 2 2006 N %	WAVE 3 2008 N %	WAVE 4 2010 N %	WAVE 5 2012 N %	WAVE 6 2014 N %	WAVE 7 2016 N %	WAVE 8 2018 N
B COHORT	3 – 19 months 5107 100	2 – 3 years 4606 90.2	4 – 5 years 4386 85.8	6 – 7 years 4242 83.1	8 – 9 years 4085 80.0	10 – 11 years 3764 73.3	12 – 13 years 3381 66.2	14 – 15 years
K COHORT	4 – 5 years 4983 100	6 – 7 years 4464 89.5	8 – 9 years 4331 86.9	10 – 11 years 4169 83.6	12 – 13 years 3956 79.4	14 – 15 years 3537 70.1	16 – 17 years 3089 62.0	18 – 19 years

27

Study Informants
Who provides information?

- Study child
- Parent 1 (usually the mother)
- Parent 2 (other parent/guardian/resident partner)
- Parent Living Elsewhere
- Child's teacher/carer
- Interviewer

28

Linked administrative data
Individual and area level data

Individual level
- Medicare (health, medications, immunisations)
- NAPLAN (literacy and numeracy assessments)
- Social service benefit payments
- Australian Early Development Census

Clustered/Area level
- 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data
- School characteristics
- Census data

29

Content domains
About 4,000 variables

Benchmark demographics

Psychological Capability

Employment & Finances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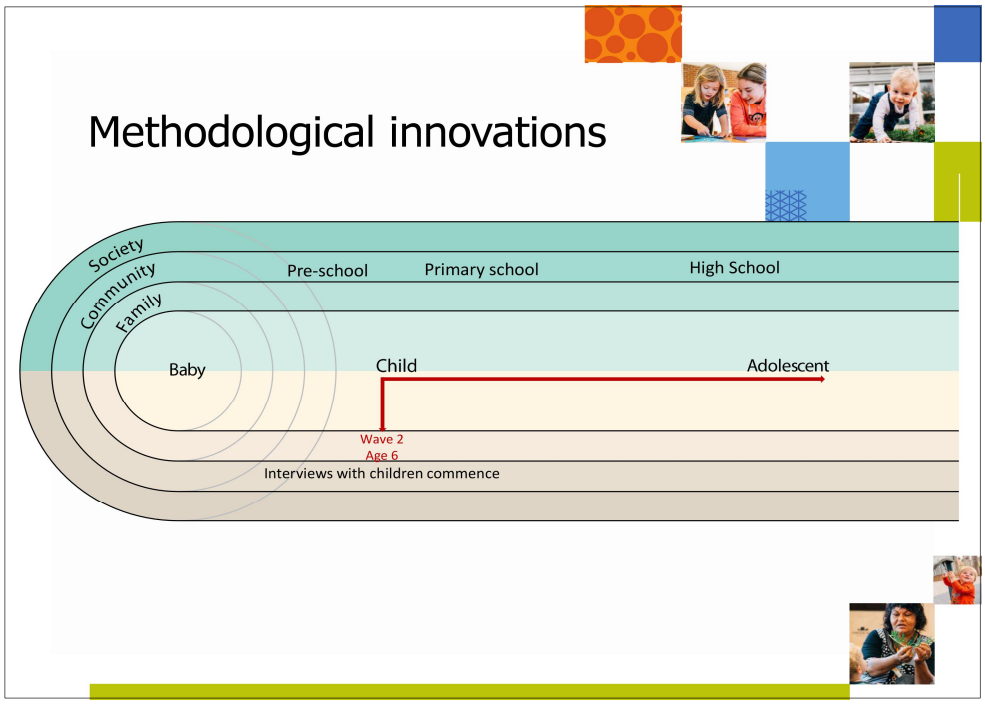
Relationships, Parenting & Family Functi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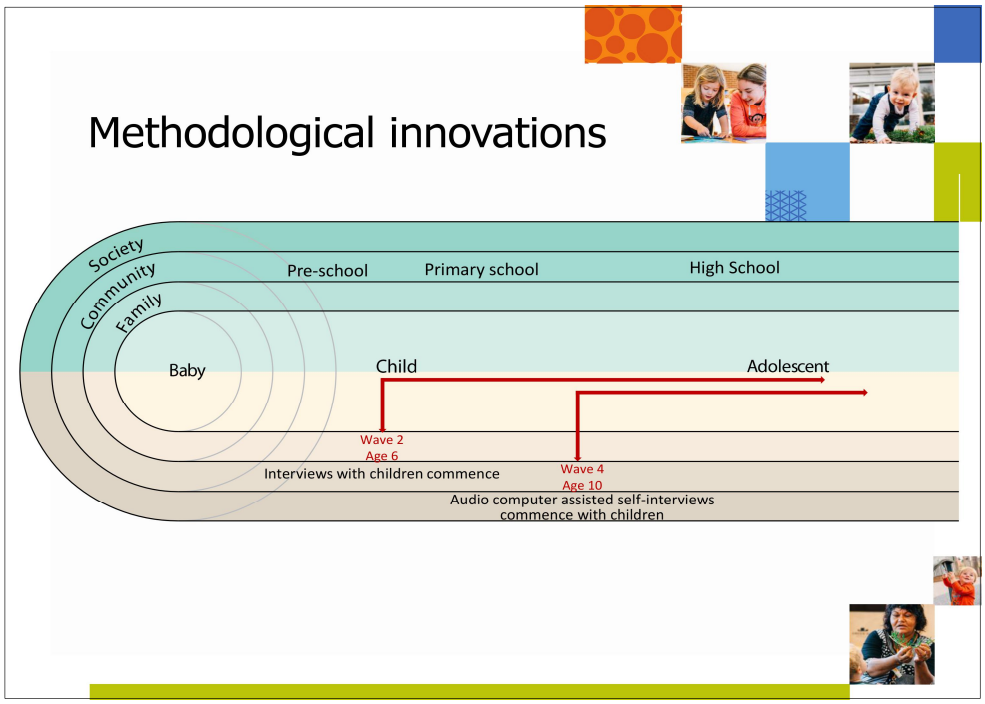
Work &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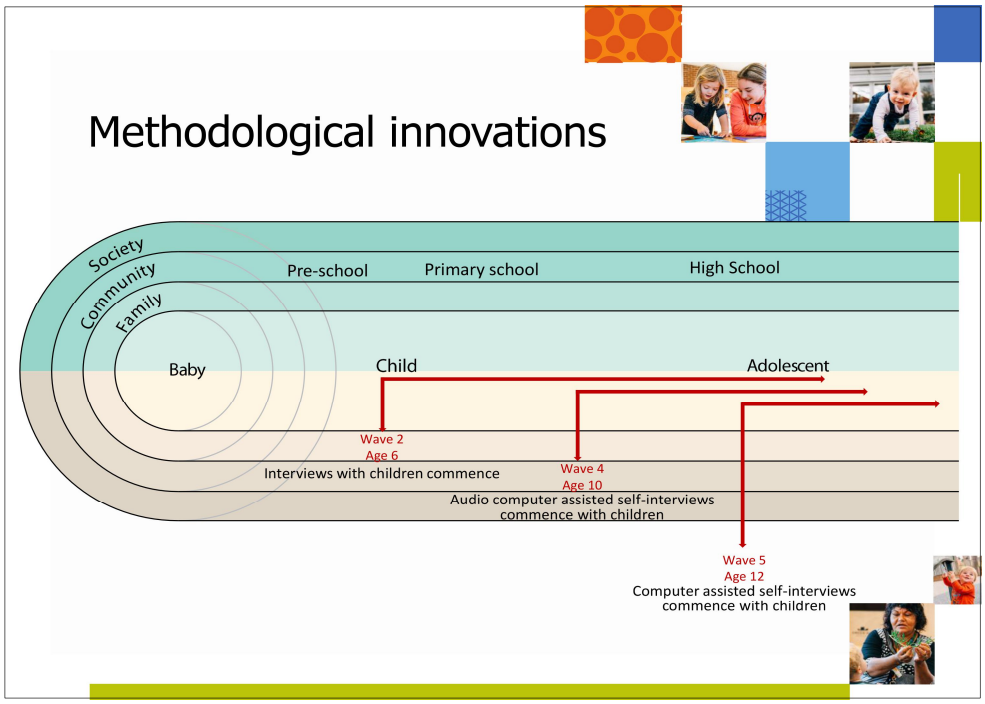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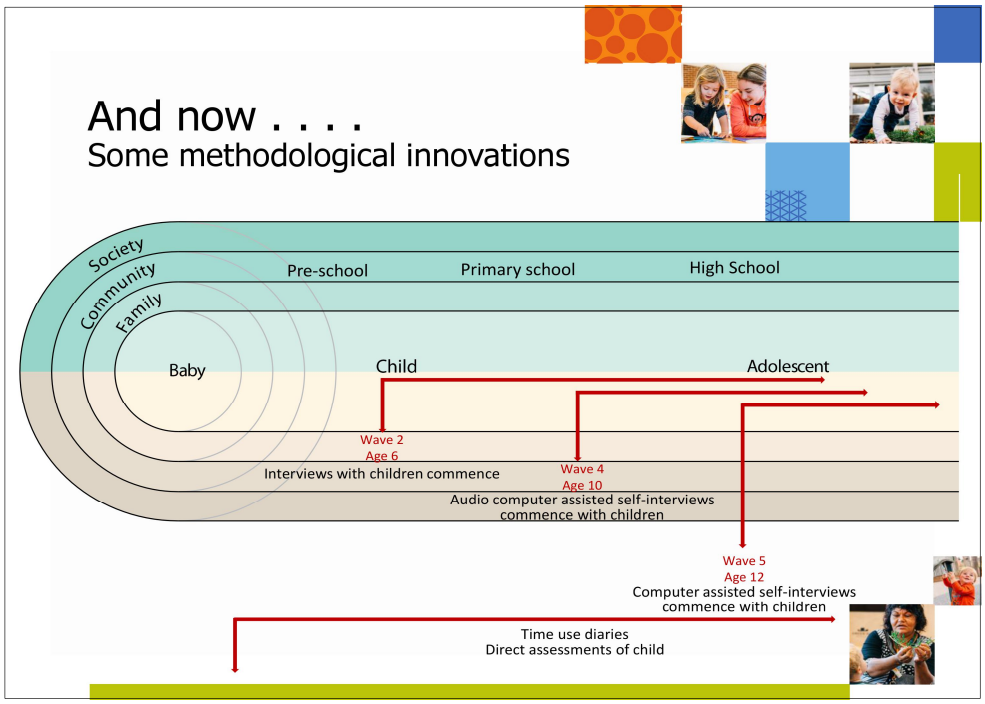
Time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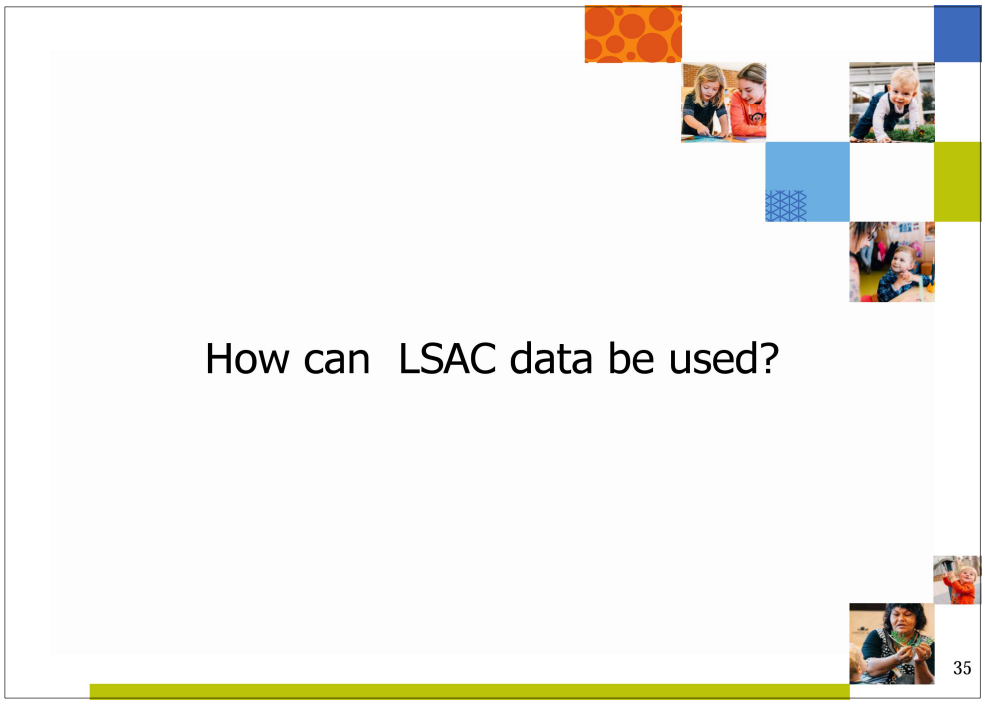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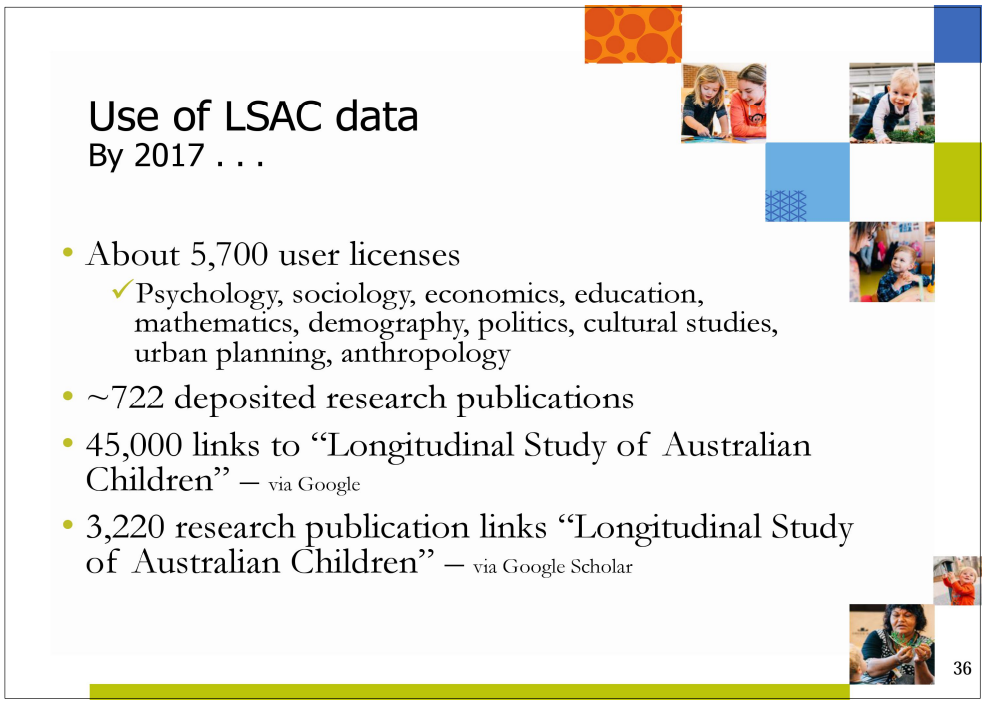

Methodological innovations
Society
Community
Family
Pre-school
Primary school
High School
Baby
Child
Adolescent
Wave 2
Age 6
Interviews with children commence


Methodological innovations
Society
Community
Family
Pre-school
Primary school
High School
Baby
Child
Adolescent
Wave 2
Age 6
Interviews with children commence
Wave 4
Age 10
Audio 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s
commence with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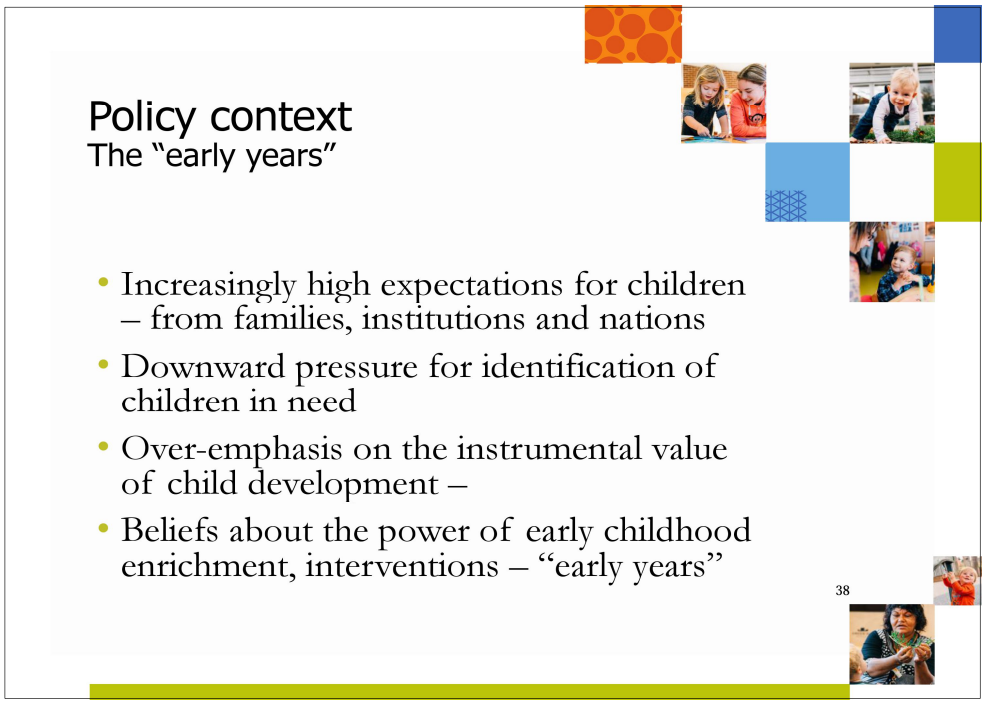

Methodological innovations
Society
Community
Family
Pre-school
Primary school
High School
Baby
Child
Adolescent
Wave 2
Age 6
Interviews with children commence
Wave 4
Age 10
Audio 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s
commence with children
Wave 5
Age 12
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s
commence with children


And now . . . .
Some methodological innovations
Society
Community
Family
Pre-school
Primary school
High School
Baby
Child
Adolescent
Wave 2
Age 6
Interviews with children commence
Wave 4
Age 10
Audio 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s
commence with children
Wave 5
Age 12
Computer assisted self-interviews
commence with children
Time use diaries
Direct assessments of child


How can LSAC data be used?
35


Use of LSAC data
By 2017 . . .
• About 5,700 user licenses
✓Psychology, sociology, economics, education, mathematics, demography, politics, cultural studies, urban planning, anthropology
• ~722 deposited research publications
• 45,000 links to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 via Google
• 3,220 research publication links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 via Google Scholar
36

Data for "early years" policy
An example
37


Policy context
The "early years"
Increasingly high expectations for children – from families, institutions and nations
Downward pressure for identification of children in need
Over-emphasis on the instrumental value of child development –
Beliefs about the power of early childhood enrichment, interventions – "early years"
38

Policy context
The "early years"

- Children grow at different rates – physically, cognitively, socially, emotionally
- There are prompts, facilitators and constraints that can change (increase or decrease) this rate of growth
- There are interventions that manipulate these prompts, facilitators and constraints that can change children's developmental growth relative to other children's growth

39

Policy context
What this actually me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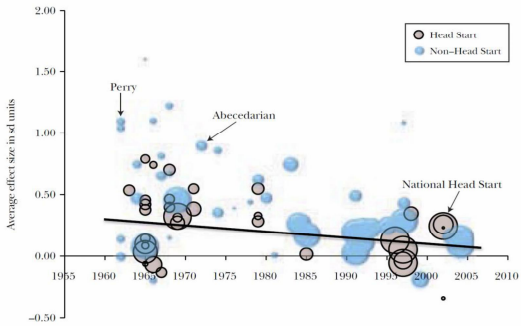
- Intervention assumes that we can help vulnerable children grow *faster* than their typically developing peers
- This requires changing one or both aspects of their growth:

Where they start their growth relative to where typical children start their growth
and/or
Their rate of growth relative to the rate of growth of typical children

40

Evidence
What are the effects of early interventions?

Average Impact of Early Child Care Programs at End of Treatment
(standard deviation units)



Duncan & Magnuson, 2013

TELETHON KIDS INSTITUTE Discover. Prevent. Cure.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Evidence
What are the effects of early interventions?

84 programs in meta-analysis

Current evidence supports the claim that developmental interventions are efficacious

But:

Average weighted effect size is 0.21 (i.e. 'small')

e.s. for programs designed by researchers = 0.39
e.s. for programs designed by non-researchers = 0.18

The gap between efficacy and effectiveness.

Duncan & Magnuson, 2013

42

Evidence
The efficacy vs effectiveness gap

How do we explain the gap between efficacy and effectiveness?

1. Program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is a contended process that reduces efficacy
2. Interventions ignore how children start their growth and the variability of the rate of this growth

43

Evidence
The efficacy vs effectiveness gap

How do we explain the gap between efficacy and effectiveness?

1. Program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is a contended process that reduces efficacy
2. Interventions ignore how children start their growth and the variability of the rate of this growth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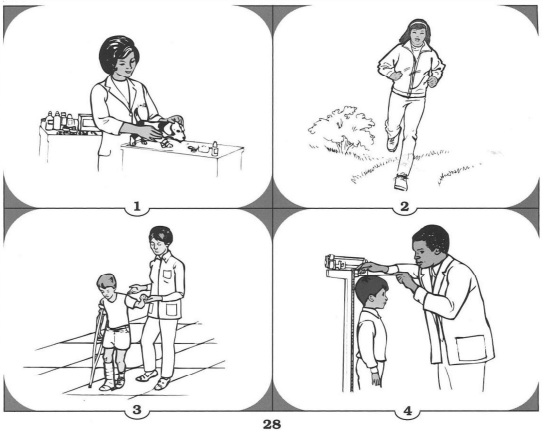
Evidence
The efficacy vs effectiveness gap

2. Interventions ignore how children start their growth and the variability of the rate of this growth

This is what we are learning from LSAC in studies of language development

45

The Adapted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PPV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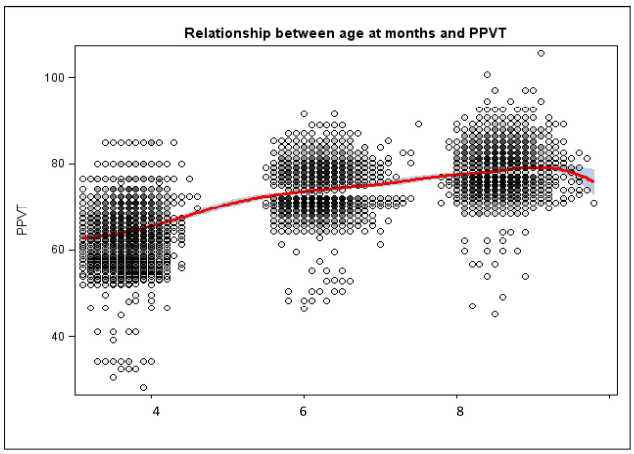


- Given at ages 4, 6, and 8
- Growth of the semantic component
- "Receptive" vocabulary
- Item response theory
- Vertical scaling to allow the measurement of growth

46

Variability in growth

LSAC Vocabulary 4-8 years (N =4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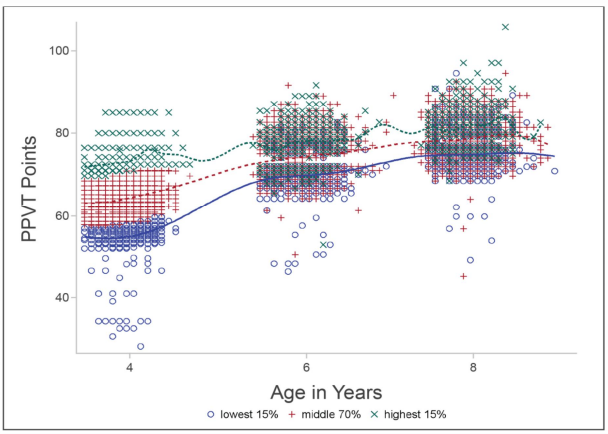


Longitudinal follow-up

Conceals positional change

Variability in growth

LSAC Vocabulary 4-8 years (N =4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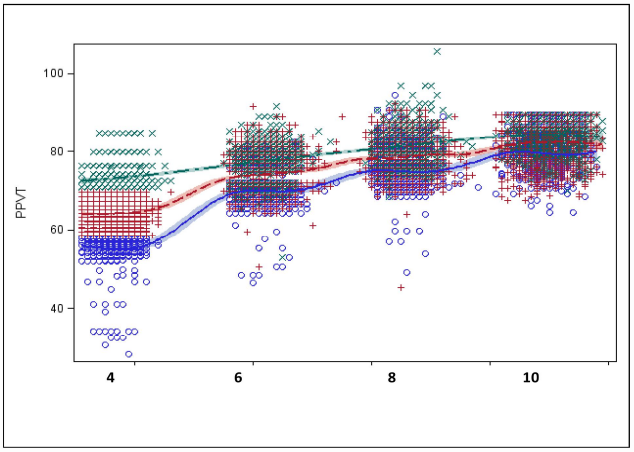


The children are changing position – there is a large level of variability in their starting positions and in their vocabulary growth

48

Variability in growth

LSAC Vocabulary 4-10 years (N =4332)



The children are changing position – there is a large level of variability in their starting positions and in their vocabulary growth

How well can we predict?

LSAC predictors of vocabulary (N =4332)

CHILD
- Gender
- Birthweight
- Aboriginal status
- Ear infections
- Persistent temperament
- Reactive temperament
- Sociable temperament
- School readiness

MATERNAL
- Age(teen)
- Education
- Work hours low
- Parenting consistency
- Parenting reasoning
- Parenting warmth
- Parenting hostility
- Smoking
- Mental health distress
- Alcohol problem

29 candidate predictors

↓

16 show growth effects

FAMILY
- Family structure
- Number of siblings
- Income
- Health care card
- Financial hardship
- Socio-economic area disadvantage
- Reading to child
- Playgroup
- Hours in care
- Non-English speaking

Typical growth 4-8 years
Predictors of vocabulary growth

Risk factors	Age 4 Months behind in language growth	Age 8 Months behind in language growth
Maternal NESB	-16	-4
Low school readiness	-15	-6
Child not read to at all	-12	-7
Siblings 4+	-10	-8
Low family income	-7	-3
Low birthweight	-6	-4
Low maternal education	-6	-6
Maternal mental health distress	-5	-0.3
Low maternal parenting consistency	-5	-2
High child temperament reactivity	-3	-2
Area socio-economic disadvantage	0.30 ns	-8

These are precision estimates of typical starting levels and rates of developmental growth

All predi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 well do they predict from age 4 to age 8? What does out model tell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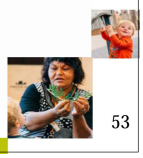
What does our model tell us?

Predicted at age 8 to be:	Actual: Low PPVT at 8 years	Actual: Not Low PPVT at 8 years	Total
Low at 8 years			1083
Not Low at 8 years			2098
Total			**3181**

52

What does our model tell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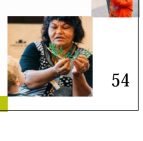
	Actual		
Predicted at age 8 to be:	Low PPVT at 8 years	Not Low PPVT at 8 years	Total
Low at 8 years	279 (true positives) 69.4% sensitivity		1083
Not Low at 8 years	123 (false negatives)		2098
Total	402		**3181**



53

What does our model tell us?

	Actual		
Predicted at age 8 to be:	Low PPVT at 8 years	Not Low PPVT at 8 years	Total
Low at 8 years	279 (true positives) 69.4% sensitivity		1083 PPV 25.8%
Not Low at 8 years	123 (false negatives)		2098
Total	402		**3181**



54

What does our model tell us?

Predicted at age 8 to be:	Actual: Low PPVT at 8 years	Actual: Not Low PPVT at 8 years	Total
Low at 8 years	279 (true positives) 69.4% sensitivity	804	1083
Not Low at 8 years	123 (false negatives)	1975	2098
Total	**402**	**2779**	**3181**

55

Poor prediction

Risk factors	Age 4 Months behind in language growth	Age 8 Months behind in language growth
Maternal NESB	-16	-4
Low school readiness	-15	-6
Child not read to at all	-12	-7
Siblings 4+	-10	-8
Low family income	-7	-3
Low birthweight	-6	-4
Low maternal education	-6	-6
Maternal mental health distress	-5	-0.3
Low maternal parenting consistency	-5	-2
High child temperament reactivity	-3	-2
Area socio-economic disadvantage	0.30 ns	-8

There is no practical utility in this model

We cannot reliably predict at age 4, who will be behind in their development at age 8

25.8% positive predictive value

Typical pattern of change

LSAC data ages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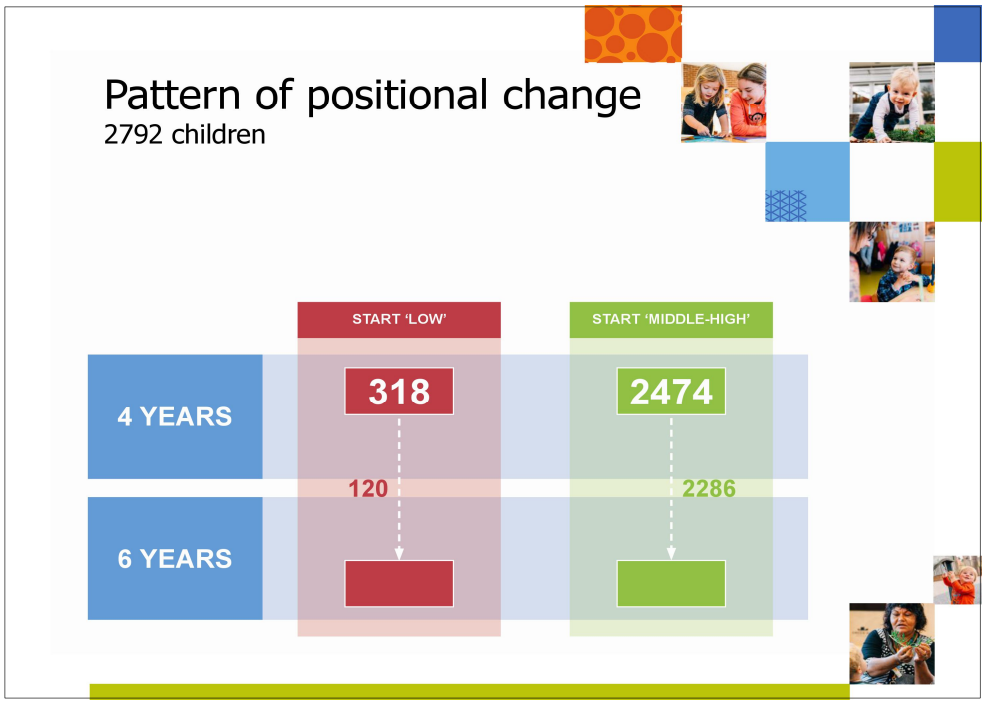
Government policy often seeks to "target" the very vulner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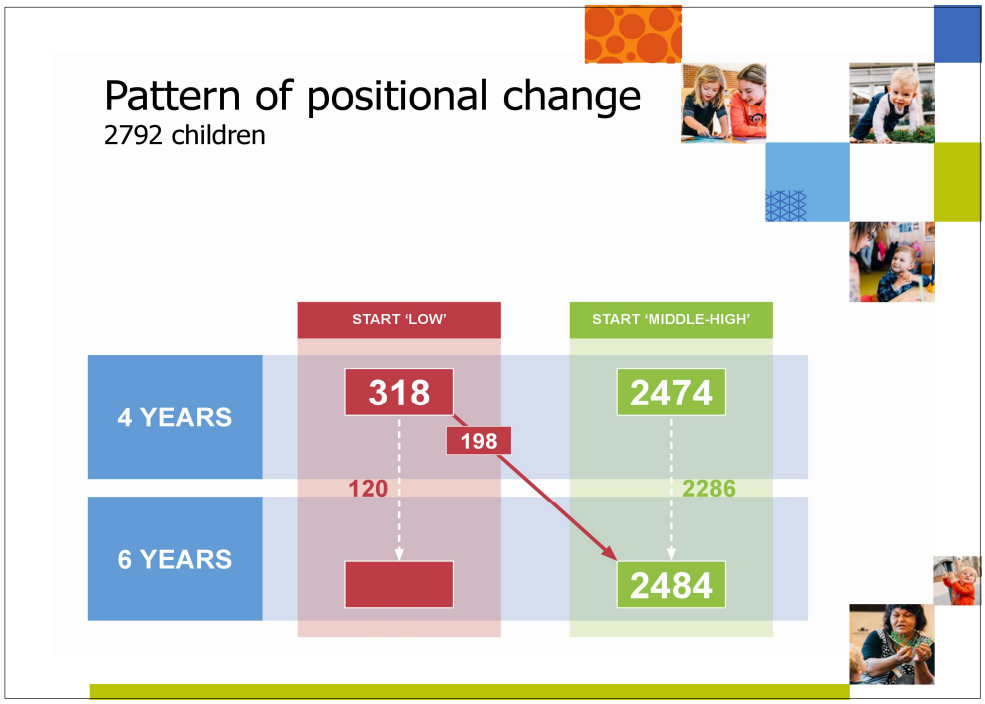
Can we predict those children who will remain <u>persistently</u>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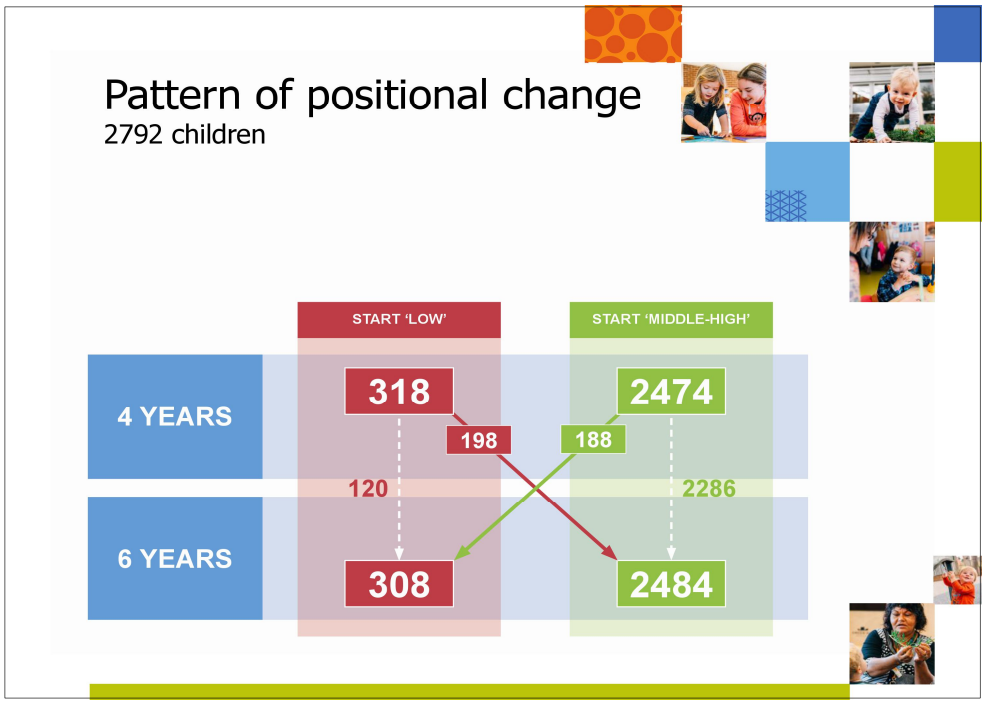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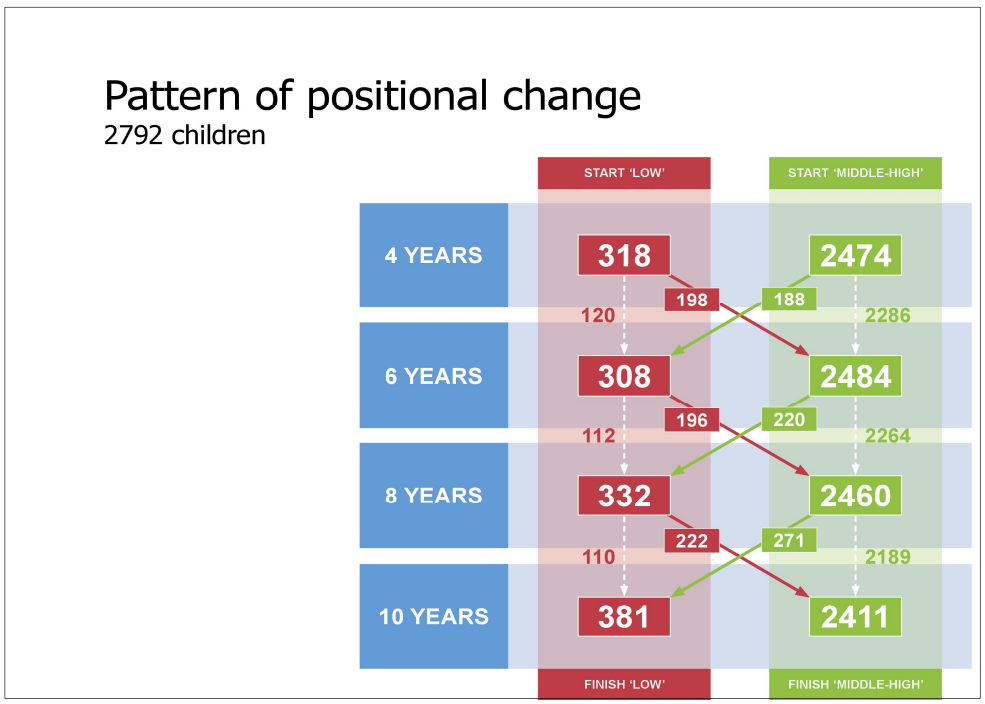
Pattern of positional change

2792 children


Pattern of positional change
2792 children
START 'LOW'
START 'MIDDLE-HIGH'
4 YEARS
6 YEARS
318
2474
120
2286


Pattern of positional change
2792 children
START 'LOW'
START 'MIDDLE-HIGH'
4 YEARS
6 YEARS
318
2474
198
120
2286
2484


Pattern of positional change
2792 children
START 'LOW'
START 'MIDDLE-HIGH'
4 YEARS
6 YEARS
318
2474
198
188
120
2286
308
2484


Pattern of positional change
2792 children
START 'LOW'
START 'MIDDLE-HIGH'
4 YEARS
6 YEARS
8 YEARS
10 YEARS
318
2474
198
188
120
2286
308
2484
196
220
112
2264
332
2460
222
271
110
2189
381
2411
FINISH 'LOW'
FINISH 'MIDDLE-HIGH'

Summary of patterns

2792 children

Examples of patterns

Age 4 Language	Age 6 Language	Age 8 Language	Age 10 Literacy
On-track	On-track	On-track	On-track
.	.	.	.
Low	Low	Low	Low

14 more variations of this

- On-track (69%)
- Improving (18%)
- Declining (12%)
- Persistently low (1%)

Our attempts to predict these groups produce poor predictive utility

Policy im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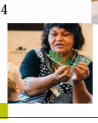
Most children (~75%) who are performing low will improve without direct intervention

Those that will struggle to improve cannot be *efficiently* identified at a *single* point in time

Some children who start on track will fall behind

How should governments arrange early year services?

64



Developmental circumstances

There are known risks for poorer child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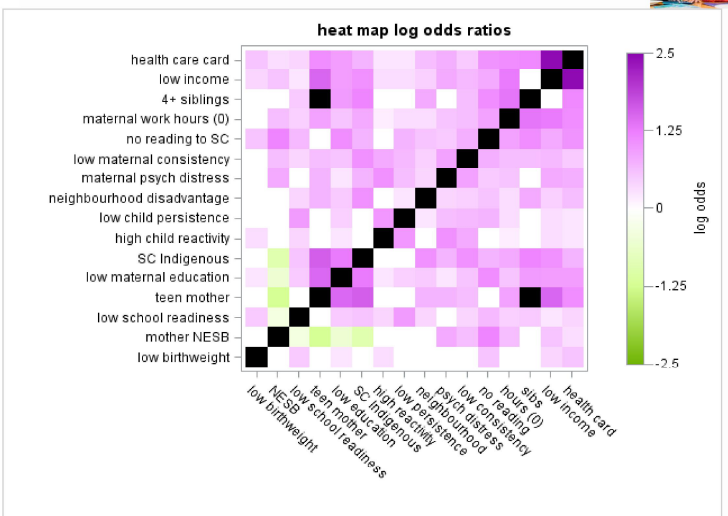
These risks occur in “bat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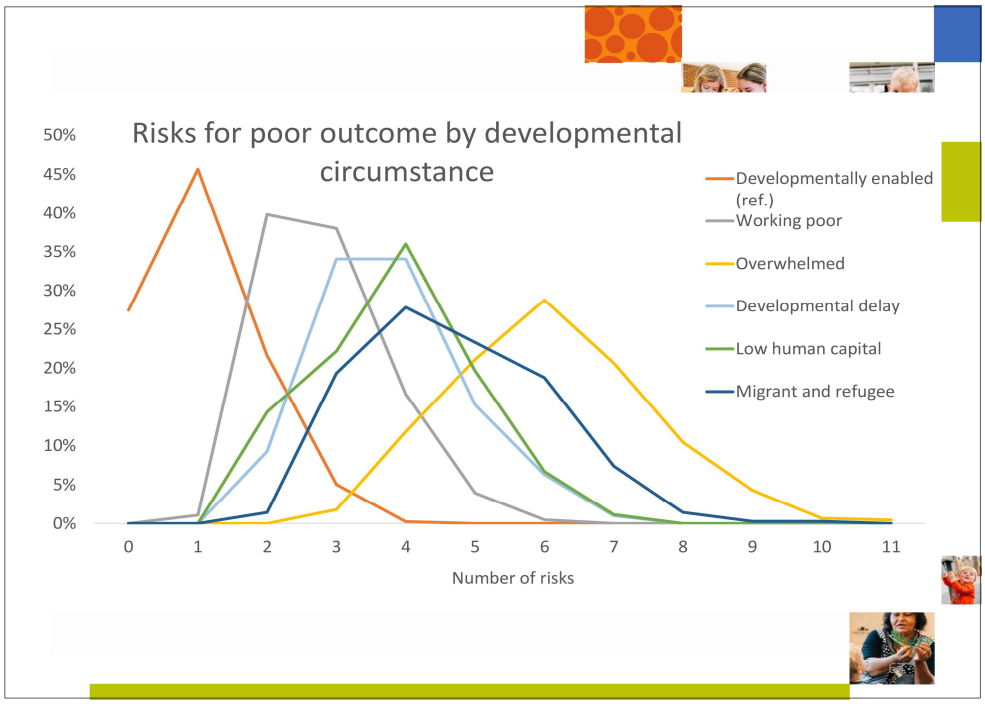
They don’t occur “one at a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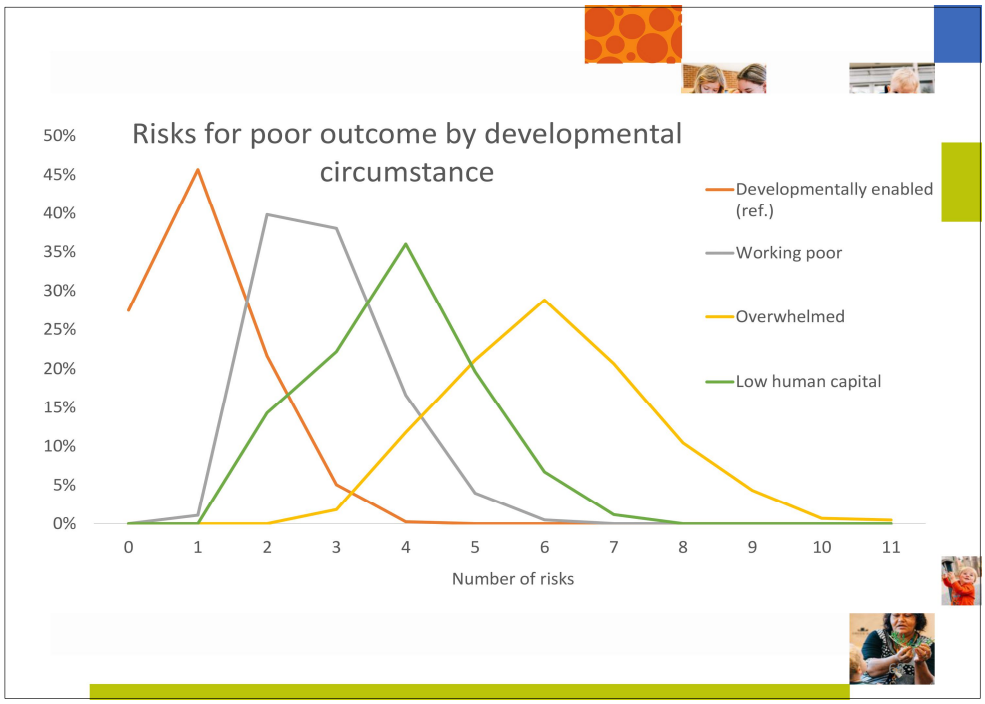
They define developmental circumst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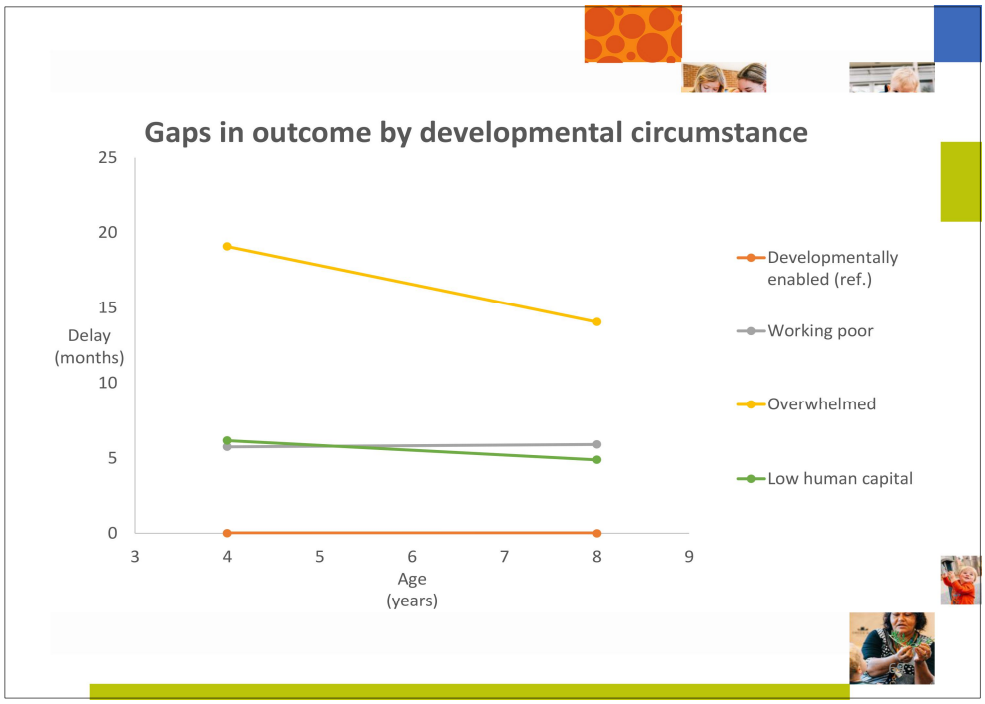
Can these circumstances offer a different way of how we think about child development poli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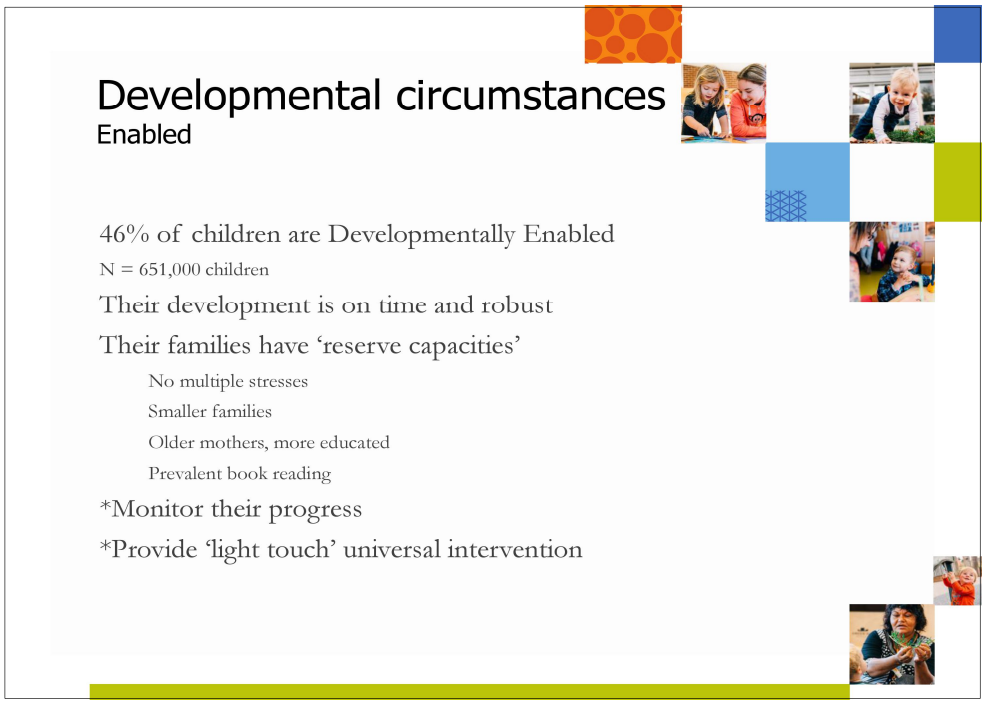
Risk circumstances




Risks for poor outcome by developmental circumstance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0
1
2
3
4
5
6
7
8
9
10
11
Number of risks
Developmentally enabled (ref.)
Working poor
Overwhelmed
Developmental delay
Low human capital
Migrant and refugee


Risks for poor outcome by developmental circumstance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0
1
2
3
4
5
6
7
8
9
10
11
Number of risks
Developmentally enabled (ref.)
Working poor
Overwhelmed
Low human capital


Gaps in outcome by developmental circumstance
25
20
15
10
5
0
Delay (months)
3
4
5
6
7
8
9
Age (years)
Developmentally enabled (ref.)
Working poor
Overwhelmed
Low human capital


Developmental circumstances
Enabled
46% of children are Developmentally Enabled
N = 651,000 children
Their development is on time and robust
Their families have 'reserve capacities'
No multiple stresses
Smaller families
Older mothers, more educated
Prevalent book reading
*Monitor their progress
*Provide 'light touch' universal intervention

Developmental circumstances
Working poor

Group	% of children	Age 4	Catch-up	Age 8
Working poor	20%	6 months behind	None	6 months beh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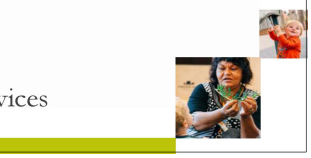
20% of children are in 'Working Poor' families

283,000 Australian children

They are typically 6 months behind the enabled children

- Larger families + low maternal education
- Parent(s) are employed – but income is low
- 45% are in 4th quintile of income ($600-999 per week)
- Area disadvantage

*Family benefit increases/better pay
*Enriched early education and child care
*Family friendly workplace arrangements and services



Developmental circumstances
Low human capital

Group	% of children	Age 4	Catch-up	Age 8
Low human capital	8%	6 months behind	None	6 months beh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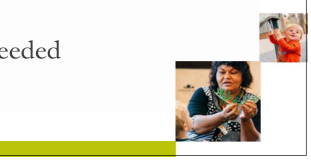
8% of children live in families with Low Human Capital

Children exhibit very slow catch-up to enabled children

113,000 Australian children

- Lowest income quintile exclusively – persistent disadvantage
- Teenage mothers
- Low maternal education, unemployed,
- Healthcare card

Deep disadvantage
*Maternal education/training opportunities are needed
*Family planning
*Enriched early education and child care



Developmental circumstances
Overwhelmed

Group	% of children	Age 4	Catch-up	Age 8
Overwhelmed	10%	19 months behind	Slow	14 months behind

10% of children are in 'Overwhelmed' families

They are at least a year behind the Enabled children

141,500 Australian children

- Excessive stress
- Low income, health care card, area poverty
- Very low maternal education, unemployment
- Maternal mental health distress
- Very low school readiness

*These families are readily identifiable

*Require early, repeated, sustained developmental support – delivered differently (e.g. Child and Family Centres)

Policy implications
What are we learning from LSAC data?

74

Policy implications
What are we learning from LSAC data?

- Helping vulnerable children develop faster than their typically developing peers is a huge task
- It requires changing two aspects of their development:
  - Where they start relative to typical children
  - How rapidly they grow relative to typical children

75

Policy implications
What are we learning from LSAC data?

- Children move from one developmental status to another – some improve, some decline, and some stay on track
- We cannot predict with any precision which children will improve or decline!

76

Policy implications
What are we learning from LSAC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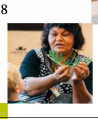
- Estimate the size of the population of children 0-4 years before you design intervention strategies for a location, region, or nation
- At any one point and place in time, some children will be doing well ("on track") and others will not

77

Policy implications
What are we learning from LSAC data?

- Policies and services have to fit the developmental patterns and circumstance of children: under- and over-servicing is inevitable
- Late rather than early identification is inevitable for children with a declining developmental pattern

78



Summing up
Looking back . . . Looking ahead

79

Summing up
Looking back

LSAC is now turning 18 – what are we learning?

- **Study governance** is critical to success: policy-to-science interface, continuity of planning, content fidelity, use and translation of data
- **Data sharing** arrangements maximises use and range of impact
- **Harmonization of data** with other studies increases relevance and permits counterfactual analysis
- Analytic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is enabled

Summing up
Looking back

LSAC – what has been difficult?

- **Measuring longitudinal *growth*:** Physical, cognitive, intellectual, social and emotional
- **Maintaining study engagement:** This requires a comprehensive strategy from the beginning
- **Studying "rare" populations:** Deeply disadvantaged are most likely to leave the study
- Greater **use of scale and item analysis** to refine and shorten measures

Summing up
Looking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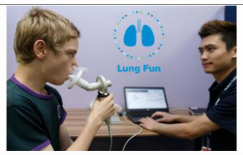
LSAC – what has been difficult?

- **Documenting the metadata!**
- **Recording the history of the study:** Longitudinal studies are sociological events – who records their history?

Summing up
Looking forward

LSAC – what is new?

- **Biomarker module: Child Health Checkpoint (Wave B)** data collected in 2015, data release i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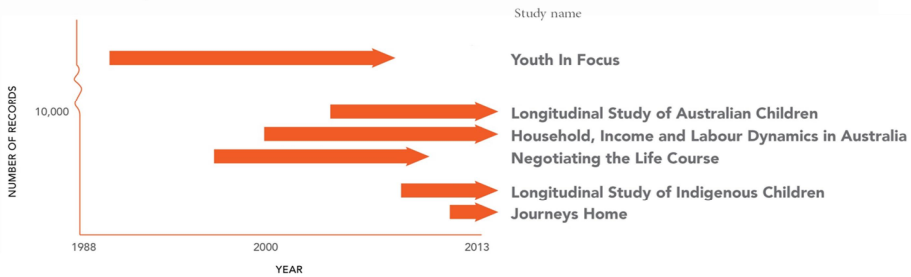
Summing up
Looking forward

LSAC – what is new?

- **Event history calendar:** A flexible method of rapidly gathering information about events between Waves
- **Next generation data:** Our study children will be having children of their own!
- **Data linkage enhancements**

Conclusion

Since 2000 Australia has commenced investing in new longitudinal studies – these investments are now changing what is known about how Australians develop and make their way in life



Conclusion

To our friends at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Growing Up in Australia

Good luck!

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ank you

All the children and families who are part of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Commonwealth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Centre of Excellence for Children and Families Across the Lifecourse

References

Zubrick, S.R. (2016) Longitudinal Research: Applications for the Design, Conduct and Dissemination of Early Childhood Research. In, Farrell, A., Kagan, SL., and Tisdall, EKM. (Eds.) The Sage Handbook of Early Childhood Research, Sage: London.

Zubrick, SR., Taylor, CL., Lawrence, D., Mitrou, F., Christensen, D., and Dalby, R. (2009) The development of human capability across the lifecourse, Australasian Epidemiologist,16(3).

Taylor, C. L., Christensen, D., Lawrence, D., Mitrou, F., & Zubrick, S. R. (2013). Risk factors for children's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from four to eight years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Plos One*, 8(9). doi: 10.1371/journal.pone.0073046

Christensen, D., Zubrick, S. R., Lawrence, D., Mitrou, F., & Taylor, C. L. (2014). Risk factors for low receptive vocabulary abilities in the preschool and early school years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Plos One*, 9(7). doi: 10.1371/journal.pone.0101476.

Zubrick, S. R., Taylor, C. L., & Christensen, D. (2015). Patterns and predictors of language and literacy abilities 4-10 years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Plos One*, 10(9: e0135612). doi: 10.1371/journal.pone.0135612

Christensen D, Taylor CL, Zubrick SR (2017) Patterns of Multiple Risk Exposures for Low Receptive Vocabulary Growth 4-8 Years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Plos One* 12(1): e016880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68804.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 기 조 강 연 2 ◈

Children of the 1979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Prof. Elizabeth Cooksey
(The Ohio State University)

Cooksey 교수는 The Ohio State University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NLSY79 책임연구원으로 미국 영유아 종단연구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인 Cooksey의 주요 관심분야는 인구사회학, 생애주기변화, 영유아발달이다.

Children of the 1979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Some Lessons Learned

Elizabeth Cooksey
The Ohio State University

October 20, 2017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OVERVIEW

History of the NLSY79 and its associated Child Study

Description of the Child Study

NLSY Child Study is NOT a COHORT study

- Implications for research
- Implications for design

Examples of research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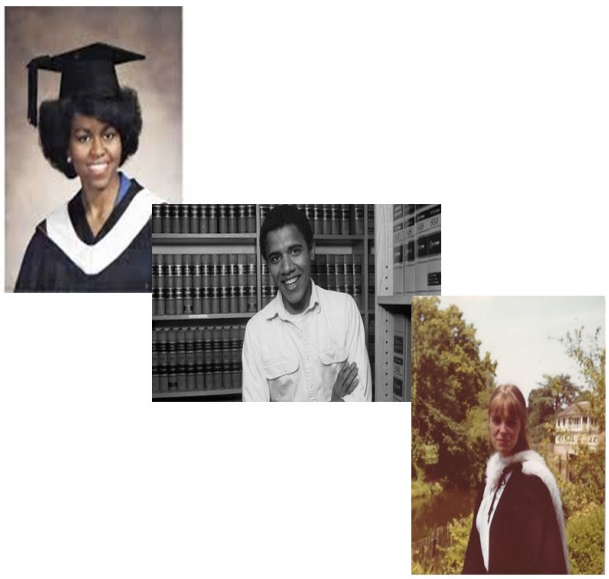
NLSY79:

- 12,686 men and women 14 to 21 as of December 1978
  All household members in age range
  Oversamples:
  Blacks, Hispanics, poor whites and military
- 1984-1985: Loss of most military oversample cases
- 1990-1991: Loss of poor white oversample cases
- 1994: Last annual interview, biennial from then on
- 2017: Interviewed over 7000 respondents
- 27 survey points covering ~100% of female childbearing
- Age in 2017: 52-60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And we even ended up running organizations!

CHRR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We had children…..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NLSY79 collected extensive data on fertility, child health & child care

In 1986 the Child Study began, assessing the children of the NLSY women every other year to age 14.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Mothers all the time √

Mothers sometimes √

Mothers never X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6

5418 NLSY79 female respondents interviewed - Ages 21-28

Of these,

2774 were mothers and 5255 children had been born in total

4971 children were interviewed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natal and Infant Care

Maternal prenatal care information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re provided by mothers which are then linked to each individual biological child.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most children:

- prenatal doctor visits
- maternal alcohol/cigarette/drug use during pregnancy
- other prenatal behaviors (vitamin intake, salt intake, etc.)
- amniocentesis
- ultrasound performed
- was child born early or late
- cesarean birth
- mother's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 child's birth length and birth weight
- length of hospital stay
- well baby/sick baby health care in first year
- breastfeeding history
- other infant feeding practices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Types & modes of assessments

Two types of assessments:

1. Established scales
2. Other indicators of child wellbeing – some scaled, some individual items

Three modes of data collection:

1. Interviewer-administrated to child (in Child Supplement)
2. Mother report (in Mother Supplement)
3. Interviewer observation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What do the assessment domains measure?

- Cognitive – memory; math & reading achievement, word reception & recognition
- Socioemotional – developmental milestones; temperament; perceived self-competence
- Behavioral – prosocial; behavior problems; peer conflicts; risk taking
- Physical Health & Development – height and weight measurements; self-reports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Child Assessments

Variable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Parts of the Body: number of body parts child can identify by common names	*	*											
Memory for Locations: how long child remembers the location of the doll	*	*											
Verbal Memory test: ability to remember and repeat word sequences	*	*	*	*	*								
SPPC: what child thinks he or she is like, how he or she thinks and feels	*	*	*	*	*	*	*	*	*	*	*	*	*
Memory for Digit Span test (WISC-R): memory for number order	*	*	*	*	*	*	*	*	*	*	*	*	*
PIAT Math subtest	*	*	*	*	*	*	*	*	*	*	*	*	*
PIAT Reading: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subtests	*	*	*	*	*	*	*	*	*	*	*	*	*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PPVT): vocabulary	*	*	*	*	*	*	*	*	*	*	*	*	*
HOME inventory	*	*	*	*	*	*	*	*	*	*	*	*	*
Temperament Scales	*	*	*	*	*	*	*	*	*	*	*	*	*
Motor and Social Development Scale (not admin. 2004)	*	*	*	*	*	*	*	*	*		*	*	*
Behavior Problems Index	*	*	*	*	*	*	*	*	*	*	*	*	*
Interviewer evaluation of testing conditions	*	*	*	*	*	*	*	*	*	*	*	*	*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Behavior Problems Index (BPI)
Mother reports

1.antisocial

2.anxious or depressed

3.hyperactive

4.headstrong

5.dependent

6.peer conflicts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The HOME-SF Mother Report

- emotional and verbal responsiveness
- maternal acceptance of and involvement with her child
- organization of the environment
- presence of materials for learning
- variety of stimulation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Repeat Interviews: Children under age 15 as of 2006

Child Age	Number of Interviews								
	1	2	3	4	5	6	7	8	Total
All Ethnicities									
<1 Year									
1 Year	16								16
2 Years	11	11							22
3 Years	4	27							31
4 Years	2	24	16						42
5 Years	5	14	59						78
6 Years	11	6	28	50					95
7 Years	3	10	18	94					125
8 Years	9	6	12	74	50				151
9 Years	10	12	17	24	144				207
10 Years	8	9	18	20	90	72			217
11 Years	12	16	14	17	37	140			236
12 Years	10	10	19	13	36	108	91		287
13 Years	12	16	16	16	19	55	199		333
14 Years	9	17	20	16	15	46	150	115	388
Total	122	178	237	324	391	421	440	115	2228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Young Adults:

- are NLSY79 Children
- Those children who turn 15 or are older in the survey year are interviewed as Young Adults
- Interviewed biennially until age 30 and every 4 years at ages 31+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Pooling Samples – Children ages 0-14			
Pooled Age Groups 1986-2006	Total Possible	Males	Females
0 year olds	2696	1408	1288
1 year olds	3092	1583	1509
2 year olds	3259	1643	1616
3 year olds	3506	1780	1726
4 year olds	3646	1851	1795
5 year olds	3785	1934	1851
6 year olds	3797	1942	1855
7 year olds	3862	1966	1886
8 year olds	3857	1934	1923
9 year olds	3770	1903	1867
10 year olds	3728	1871	1857
11 year olds	3587	1828	1759
12 year olds	3420	1746	1674
13 year olds	3277	1681	1596
14 year olds	1789	891	898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Young Adult Age at 2010 Interview by Age of Mother at Birth of Young Adult

Age of YA	Age of Mother at Child's Birth									
	11-14	15-16	17-19	20-22	23-25	26-29	30-34	35+	Total	Mean
Young Adults interviewed in 2010										
14-17	0	0	0	0	0	165	642	137	944	31.8
18-20	0	0	0	0	69	642	411	2	1124	28.7
21-25	0	0	10	359	782	817	79	0	2047	25.0
26-30	0	31	458	718	423	36	0	0	1666	21.0
31+	12	94	190	25	0	0	0	0	321	17.3
Total	12	125	658	1102	1274	1660	1132	139	6102	25.2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Young Adult Survey Content

- **Questions parallel to the current NLSY79 and NLSY97 – for example**
  - Household Record
  - Employer Supplements, Military Service and Gaps
  - Fertility
  - Income (less assets)
  - Training
  - Assessments e.g. Rosenberg Self-Esteem, and CESD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 **Continued or Parallel questions from the Child Survey**
  - Health (routine checks, accidents and injuries)
  - Dating
  - Relationship with parents
  - Some parent/child interaction
  - Risk Taking
  - School Experience and Satisfaction
  - Computer Use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 **Tailored questions for this age group**
  - Information about fathers, especially non-residential ones
  - Timing of and Reasons for leaving home
  - Contact with parents as YAs leave home
  - Marriage and Cohabitation History
  - High School and College experiences
  - Transition into the world of work
  - Current childcare usage and cost
  - Greater detail on non-normative activity such as substance use and criminal behavior
  - Greater detail on sexual activity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And over time we have continued to add questions that are relev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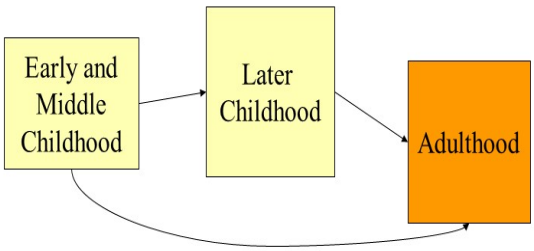
- 6 item anger scale
- Healthy activities
- Relationship and dating activities from qualitative data
- questions on height and weight of all kids
- Amount of time R spends caring for others with health problems
- Last time R had a dental check up and a routine eye exam
- Questions of parents about the behavior of their children – i.e. the grandchildren of the NLSY79 main respondents
- Perceptions of, and experiences with, discrimination
- Head injuries
- Health at age 40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Wealth · obesity · care giving · poverty · computer use · incarceration · job satisfaction · divorce · working conditions · risk preference · business ownership · child development · birthweight · job mobility · smoking · peer influence · discrimination · military experience · retirement · fertility · family income · contraception · union membership · volunteering · income · kinship patterns · labor market outcomes · school enrollment · retirement expectations · self control · parenthood · aging · cohabitation · birth order · morbidity · job training · intergenerational earnings · health insurance · parental investments · self esteem · gender roles · friendships · depression · age at first birth · maths achievement · employment benefits · reading comprehension · illness and injuries · sociability · job turnover · sexual activity · father influence · immigrants · assets · illegal activities · maternal employment · pregnancy · household structure · neighborhood quality · homeownership · educational aspirations · resilience · financial literacy · charitable giving · family size · political attitudes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Research Possibilities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Cheadle & Goosby, *Social Science Research*,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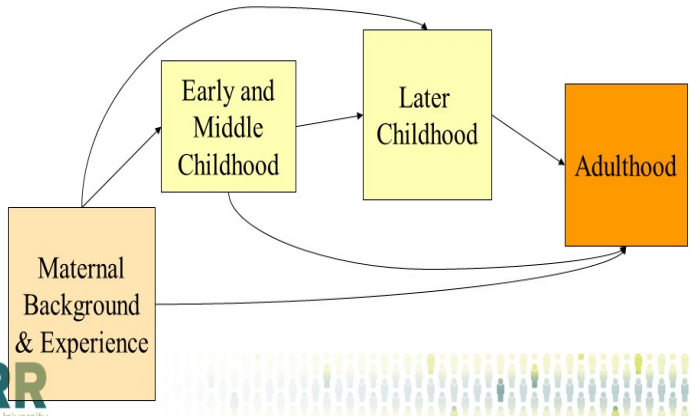
Birth weight, cognitive development, and life chances: a comparison of siblings from childhood into early adulthood.

- Lower birth weight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cognitive skills at age 5 and slower growth rates into adolescence.
- Low birth weight increased the risk of not graduating by age 19.

Conclusion: Their pattern of findings painted a picture of disadvantage that begins in the womb and extends over the life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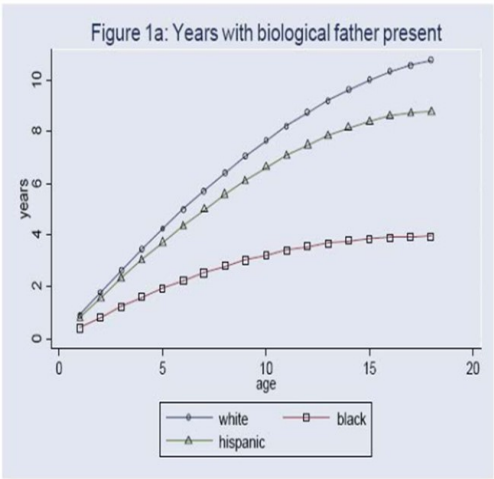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Cross-Generational Research Possibilities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David Blau and Wilbert van der Klaauw, 2006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Obesity related studies using the NLSY79 Child data

- breastfeeding versus bottle feeding
- food choices offered to young children
- family income
- parental marital disruption and divorce
- maternal prenatal behaviours such as smoking
- maternal pre-pregnancy weight
-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 parental engagement in children's daily activities
- maternal age
- maternal education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Anderson, Butcher & Levine, *Economic Perspectives*, 2003

Economic perspectives on childhood obesity.

Is increasing child obesity related to an increase in mothers working outside the home?

-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be overweight if their mothers worked more hours per week over the child's life, BUT
- it was higher socioeconomic status mothers whose work intensity was particularly deleterious for their children's overweight status.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Miller,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011

Maternal work and child overweight and obesity: the importance of timing.

- the *timing of* maternal work during a child's life mattered to the relationship and
- effects of maternal work were confined to relatively low income families and to children who grew up with single mothers.
- Pediatrician Leslie Stewart and colleagues – one of whom was a sociologist, also found that unemployment events and the type of support that a mother received during unemployment spells were related to changes in children's weight.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Stewart, Liu, and Rodriguez,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2012

Maternal unemployment and childhood overweight: is there a relationship?

- unemployment events
- type of support that a mother received during unemployment spells

Both were related to changes in children's weight.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Cooksey and Joshi – comparing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children in the US and the UK

- substantial increases in the employment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 both countries
- American mothers return to employment more quickly post birth
- Higher percentage of American mothers work full time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Arguments have been made that:

- A woman's role as producer will conflict with her role as reproducer of 'child quality'.

BUT

- Why are working fathers positive assets and role models for children and families but working mothers seen in a negative light?
- Outcomes were both cognitive and behavioral – In the NLSY we used PIAT Math and Reading Scores and the Behavior Problems Index.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Study 1:

Does full or part-time employment make a difference?

Findings: little evidence of harm to school-age children especially when employment was part time, and in the British context where several months of maternity leave is the norm.

Study 2:

Does the nature of maternal employment matter?

Findings: No evidence of an association in either the US or the UK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Thank you

CHRR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 Session 1 ◈

제 1 주제

초등학교 전이

사회: 신나리 (충북대학교 교수)

1.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아동의 행복감 변화**
   안수빈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은선민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2.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이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충일 (서울대학교 박사)
   권윤정 (서울대학교 박사)

3. **유아 및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 종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생의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
   -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아동의 행복감 변화

안수빈[1] 은선민[2]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 7차년도와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군집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전이 과정을 거치며 아동의 전체적인 행복감 수준은 유의하게 낮아졌다. 둘째, 아동의 행복감 변화유형은 높음 유지형, 상승형, 감소형, 낮음 유지형의 네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전 학교준비도, 부모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놀이행동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행복감이 감소한 유형의 아동은 다른 집단의 아동에 비해 취학 전 학교준비도가 낮았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행복감이 낮았으며, 놀이행동에서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은 낮은 반면 놀이 단절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초등학교로의 행복한 전이를 위한 지원 및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초등학교 전이, 행복감, 변화 유형, 군집분석

I. 서론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이(transition)시기는 발달과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다(Sameroff & Haith, 1996). 놀이와 비형식적 상호작용 중심의 보육 및 교육 과정에서 구조적이고 학업중심적인 초등학교 과정으로 옮겨가며, 아동은 환경의 질적 변화를 경험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유아 보육·교육 기관과 초등학교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일과 운영, 교육 내용,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에서 차이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수료

가 있다(이윤미, 2007). 아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과 기대에 맞춰 적응해야 하며, 이전과는 다른 책임감과 자립심을 키워야한다(Rimm-Kaufman & Pianta, 2000).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순조로운 이행의 지표가 되며(Broström, 2002), 이는 곧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공적인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학교 교육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인식과 이후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Pianta & Kraft-Sayre, 1999), 이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Eckert et al., 2008).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규준적 전이(normal transition) 가운데 하나이지만(Bronfenbrenner, 1979), 전이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변화로 인해 일부 아동은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이귀숙, 정현희, 2008).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만 5세 유아의 정서를 고찰한 최은정(2012)의 연구에서 유아는 성장에 대한 기대, 공부할 것에 대한 동경, 꿈에 다가가는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함과 동시에 단계별 학습에 대한 두려움, 학습 수행에 대한 부담, 낯선 교실에 대한 불안, 공격적 또래와의 만남에 대한 걱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는 학교에 입학한다는 막연한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업과 또래 관계에 대해 높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경자, 2005). 이처럼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전이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부모(김창복, 이신영, 2013; 허혜경, 2014) 또는 교사(이경민, 강정원, 2006; 이은주, 2010)의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와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의 효과성(김태은, 2011; 안영혜, 2014)을 파악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등학교 전이과정의 주체인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녕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행복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정의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최근 사회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행복에 관한 지금까지의 국내 선행연구는 아동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및 구성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정혜숙, 김영희 2014), 아동 행복감 측정 도구 개발 연구(최혜영 외, 2009),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문수경, 이무영, 2008; 이경선, 2017)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생애주기에 따른 사건을 경험하며 변화하는 아동의 행복감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

복감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이 소수(전미경, 장재숙, 2009; 조한익, 2016) 있을 뿐이다. 개인의 삶의 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애 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해 보았을 때(유태균, 반정호, 2012),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전환 사건을 경험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애 다양한 사건들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행복감 변화를 야기 할 수 있으나, 행복감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은 이질적인 패턴을 가질 수 있다. 즉,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였어도 이에 따른 행복감 변화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대상이 동질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변인중심의 연구가 아닌 맥락 속에서의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 중심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Magnusson & Stattin, 2007). 개인 중심적 연구는 특정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실제적인 개인들의 변화와 발달을 고찰하기에 보다 적절한 연구방법이다(이귀숙, 정현희, 2008). 생애 사건에 따른 변화를 개인 중심적 접근으로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은퇴라는 생애 사건을 경험한 개인을 탐색해왔다(Pinquart, Schindler, 2007; Wang, 2007; 강은나,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은퇴 전후 시기의 생활만족도, 삶의 질 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변화 양상에 따라 증가 집단, 감소 집단, 유지 집단 등으로 나뉨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의 아동의 심리정서의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달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양상을 유형 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가 초등학생이 되는 것에 대해 기대감과 더불어 걱정 및 불안과 같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최은정, 2012)를 고려해보았을 때, 초등학교에 진학하며 행복 수준이 증가한 아동이 있는 반면, 행복 수준이 감소하는 아동 또한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이 연구는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변화를 개인 내적 수준에서 분석하여 변화 양상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질(Holder et al., 2012), 이나 자아존중감(이재경, 조혜정, 2012)과 같은 아동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 요인(김도란, 김정원, 2008; 김주리, 김남희, 2014), 또래 요인(하선아, 진미경, 2014) 등 다양한 요인이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횡단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분

석하였기에 인과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초등학교 취학 전과 후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취학 전 요인을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횡단적인 시점에서 행복감과 관련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의 향상 또는 감소와 같은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복감 변화 유형별 초등학교 입학 이전 시점에 측정된 학교 준비도, 부모의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 놀이행동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해 취학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 및 다양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 언어, 사회정서능력을 포함하는 복합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Rimm-Kaufman & Pianta, 2000). 이러한 취학 전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 성취를 예측하며(Ramey & Ramey, 2004),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 부적응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인다(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학교준비도와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녕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 결과는 없으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등의 전반적인 발달영역에서 학교생활을 수행할 준비가 된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며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들 중 특히 부모 관련 변수는 다수의 연구에서 아동의 행복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어 왔다(Gherasim, Brumariu, & Alim, 2017; 김도란, 김정원, 2008; 김주리, 김남희, 2014; 이은진, 2011; 전은옥, 최나야, 2013).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과 같은 돌봄에 가까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주리, 김남희 2014), 과보호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복감과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연희, 2013). 또한 부모의 행복감과 자녀의 행복감도 높은 수준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낄수록 자녀 역시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도란, 김정원, 2008).

아동이 유아기에서 학령기가 됨에 따라 또래는 부모와 더불어 점차 아동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된다(Rubin, 1982).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개념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유아가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를 행복의 주요 개념으로 생각

하고 있음을 보고되었으며(김성숙, 2013; 김희진, 김민진, 2015). 또래 유능성이 높은 집단의 학령 전 유아가 또래 유능성이 낮은 집단의 유아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선아, 진미경, 2014).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 관계에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켜 정서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반면,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거나 거부되는 경험을 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또래 관계에서의 경험은 이후 아동의 안녕감 및 행복감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 시기의 행복감과 초등학교 1학년인 8세 시기의 아동의 행복감을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취학 전 시기의 아동의 학교준비도, 부모의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 놀이행동을 중심으로 유형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전이 과정을 겪는 아동의 행복감을 변화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등학교로의 행복한 전이를 위한 지원 및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의 아동의 행복감의 양상은 어떠하며,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부모의 양육 행동 및 행복감, 또래 놀이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수집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자료

의 7차년도(2014년)와 8차년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2,150 패널 중 7차년도와 8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4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주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753명(50.9%), 여아가 727명(49.1%)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졸업이 41.7%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졸업이 26.5%, 전문대졸업 27.8%, 대학원졸업 10.8%, 중학교 졸업이하가 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대학교졸업이 37.4%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졸업이 28.7%, 전문대졸업 27.8%, 대학원졸업 5.6%, 중학교 졸업이하가 4%로 뒤를 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7.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7%,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26.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2.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2%, 600만원 이상 12.9%에 해당했다.

2. 측정도구

가.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와 Lepper (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도구(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7점 Likert 척도이나, 응답범위를 1점에서 4점까지로 변형하고 표정카드를 제시하여 아동의 응답을 도왔다. 문항은 총 4 문항으로 구성되며 4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7차년도는 .55, 8차년도는 .70으로 나타났다.

나. 학교 준비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Murphey와 Burns (2002)가 제작한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교준비도 척도는 총 22문항이며, 사회정서발달 6문항(예;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예;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의사소통 3문항(예;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예;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으로 구성된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해당 아동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화 한다.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령 전 유아의 학교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준비도 하위영역의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77-.8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 부모의 양육행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 등(1996)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척도는 통제적 양육행동 6문항과 온정적 양육행동 6문항으로 구성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평소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을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의 하위영역에 따른 부와 모의 문항 응답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온정적인 양육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86, 통제적 양육행동은 .78로 나타났다.

라. 부모의 행복감

부모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와 Lepper (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도구(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의 행복감과 모의 행복감을 사용하였다. 부의 행복감과 모의 행복감은 각각 4 문항으로 구성되며, 분석에는 4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부의 행복감은 .88, 모의 행복감은 .87로 나타났다.

마. 또래 놀이행동

아동의 또래 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와 동료들(1998)이 개발한 척도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타당화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래 놀이행동 척도는 총 30문항이며, 놀이 상호작용 9문항, 놀이 방해 13문항, 놀이 단절 8문항으로 구성된다. 놀이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또래 놀이행동으로,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의미한다(예; “친구를 돕는다”). 반면,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은 부정적인 또래 놀이행동이다. 놀이 방해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하며(예;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놀이 단절은 위축되거나 또래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성을 의미한다(예;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해당 아동의 행동에 기초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화 한다.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각 유형에 해당하는 놀이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7차년도 또래 놀이행동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놀이 상호작용 .81, 놀이방해 .88, 놀이단절 .89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행복감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행복감 변화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아동의 행복감 평균값을 활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으로 나뉜 집단별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Dunca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가. 아동의 행복감 양상

아동의 행복감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행복감은 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구

체적으로, 취학 전 시기인 7차년도의 아동의 행복감 평균점수는 3.60점(SD = .50)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인 8차년도의 아동의 행복감 평균점수는 3.20점(SD = .54)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전이를 거치며 아동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표 1〉 아동의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변인	7차년도(7세)	8차년도(8세)	t
아동의 행복감	3.60(.50)	3.20(.54)	23.210***

***p < .001

나. 행복감 변화유형 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7차시기 아동의 행복감과 8차시기 아동의 행복감을 활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는데, 군집 1은 전체의 63.1%(934명), 군집 2는 8.6%(127명), 군집 3은 14.3%(212명), 군집 4는 14.0%(207명)를 차지하였다.

군집 1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진학 이전 시기인 7차년도와 초등학교 진학 이후인 8차년도 시기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인 집단으로, '높음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7차년도 시기에는 평균보다 낮은 행복감을 보였으나, 8차년도 시기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집단으로 '상승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7차년도 시기에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고 하였으나, 8차년도에는 전체 군집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인 집단으로 '감소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7차년도와 8차년도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이는 집단으로 '낮음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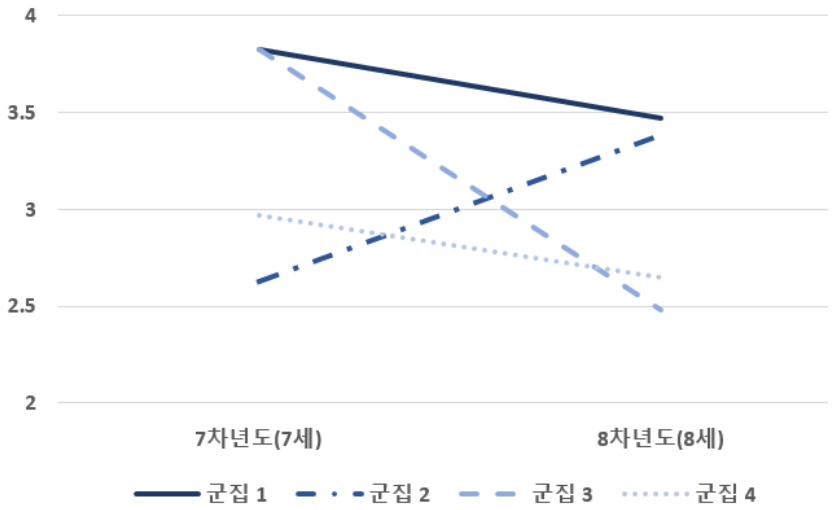
행복감 변화 유형별로 7차년도와 8차년도의 아동의 행복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F검증을 실시하여 살펴 본 결과, 유형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취학 전 시기인 7차년도에는 군집 3과 군집 1의 행복감이 다른 군집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 군집 2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인 8차년도에는 군집 1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군집 3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행복감 변화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및 군집 간 차이검증 결과

시기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전체	F	사후검증
7차년도	3.82	2.63	3.82	2.97	3.60	1081.536***	3,1>4>2

시기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전체	*F*	사후검증
(7세)	(.26)	(.40)	(.22)	(.33)	(.50)		
8차년도 (8세)	3.47 (.37)	3.38 (.34)	2.48 (.36)	2.65 (.36)	3.20 (.54)	617.408***	1>2>4>3

군집 1: 높음 유지형, 군집 2: 상승형, 군집 3: 감소형, 군집 4: 낮음 유지형
***p < .001



[그림 1] 행복감 변화유형에 대한 군집

다. 행복감 변화유형간 비교를 위한 변량분석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과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초등학교 진학 전 7세 시기의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준비도의 하위 영역인 사회정서(F=4.045, p<.01)와 학습태도(F=4.152, p<.01)에서 군집 1은 군집 3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F=4.201, p<.01)에서 군집 1과 4는 군집 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인지지식(F=5.148, p<.01)에서 군집 2, 1, 4는 군집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한 아동(군집 1)은 초등학교 전이에 따라 행복감이 감소한 아동(군집 3)에 비해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 영

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취학 전 행복감이 유사하게 높았다 할지라도 초등학교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후 행복감이 낮은 수준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른 집단 간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군집1은 군집 4, 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부모의 양육행동 중 통제적 양육행동은 군집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군집 1에 해당하는 높음 유지형 아동은 낮음 유지형 아동과 감소형 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더 온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7차년도의 부와 모의 행복감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1, 2가 군집 3, 4에 비해 7차년도의 부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행복감에서는 군집 1, 2가 군집 3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군집 1)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행복감이 증가한 아동(군집 2)은 초등학교 진학 전 부와 모의 행복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초등학교 진학 이전 시기에는 행복감 수준이 높았으나, 초등학교에 진학하며 점차 행복감이 감소한 유형의 아동(군집 3)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 시기에 부모의 행복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행복감이 횡단적 시점에서 자녀의 행복감과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김도란, 김정원, 2008), 이후 시점의 자녀의 행복감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의 변화 양상의 차이를 야기함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취학 전 7세 시기의 또래놀이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놀이행동의 하위 영역 중 친사회적이고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에 해당하는 놀이상호작용은 군집 1이 군집 3에 비해 유의하게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축되거나 또래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성에 해당하는 놀이단절은 군집 3이 군집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진학 전과 후 모두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군집 1)은 취학 전에는 행복감이 높았으나 점차 행복감이 감소하는 아동(군집 3)에 비해 취학 전 유아기에 친사회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많이 한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복감 감소 유형 아동(군집 3)은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유형의 아동(군집 1)에 비해 취학 전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거나 또래에서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경험을 더 높게 보였음이 확인되었다.

〈표 3〉 행복감 변화유형간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전체	*F*	*duncan*
학교준비도							
사회정서	3.54 (.41)	3.46 (.50)	3.43 (.43)	3.48 (.44)	3.51 (.43)	4.045**	1>3
학습태도	3.40 (.51)	3.35 (.51)	3.25 (.52)	3.34 (.51)	3.37 (.51)	4.152**	1>3
의사소통	3.55 (.54)	3.50 (.50)	3.38 (.55)	3.53 (.51)	3.52 (.54)	4.201**	1,4>3
인지지식	3.66 (.40)	3.67 (.35)	3.52 (.40)	3.66 (.39)	3.64 (.40)	5.148**	2,1,4>3
부모양육행동							
온정적	3.61 (.45)	3.54 (.49)	3.49 (.43)	3.51 (.45)	3.58 (.45)	5.862**	1>4,3
통제적	3.39 (.43)	3.42 (.42)	3.36 (.41)	3.40 (.42)	3.39 (.42)	.570	
부모행복감							
모-행복감	5.30 (1.04)	5.24 (1.13)	3.00 (1.07)	5.10 (1.07)	5.22 (1.06)	5.197**	1,2>3
부-행복감	5.38 (1.03)	5.36 (.97)	5.15 (.96)	5.13 (.95)	5.31 (1.01)	5.105**	1,2>3,4
또래놀이행동							
놀이 상호작용	3.11 (.45)	3.05 (.45)	3.00 (.45)	3.07 (.42)	3.08 (.45)	2.916*	1>3
놀이방해	1.91 (.49)	1.92 (.54)	2.02 (.56)	1.99 (.54)	1.94 (.51)	2.334	
놀이단절	1.59 (.57)	1.68 (.59)	1.77 (.60)	1.72 (.60)	1.64 (.58)	5.050**	3>1

*p < .05, **p < .01

Ⅳ.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취학 전 시기 아동의 학교준비도, 부모의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 놀이행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수행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전이 과정을 거치며 아동의 전체적인 행복감 수준은 낮아졌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아동의 행복감 점수가 낮아짐을 보고한 선행연구(이정미, 이양희, 2008; 정혜숙, 김영희, 2014)와 일치한다.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새롭게 주어진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며, 여러 가지 신체, 사회,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박희경, 강인설, 2014),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학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아동이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행복감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지원 및 학교차원의 긍정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학 전 아동의 행복감과 취학 후 아동의 행복감을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한 결과, 높음 유지형, 감소형, 상승형, 낮음 유지형의 네 집단으로 분류가 이루어졌다. 행복감의 변화 양상을 개인 내적 수준에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개인중심적 접근에 근거하여 생애 사건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양상을 유형화한 선행연구(Pinquart, Schindler, 2007; Wang, 2007; 강은나, 2013)를 통해 지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행복감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기존 연구(이재경, 조혜정, 2012)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일반적 경향만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이 감소하는 맥락 내에서도 개인별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셋째,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준비도가 달랐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진학 전, 후에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은 행복감이 감소한 아동에 비해 사회정서, 학습태도, 의사소통 및 인지지식으로 구성되는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습관련 기술이 잘 발달된 유아일수록 초등학교 진학 후 학교적응을 더 잘하고, 학업성취 또한 더 높음을 밝혀온 기존 선행연구(박희숙, 2008; Sabol & Pianta, 2012)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준비가 초등학교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읽기, 쓰기와 같은 학업관련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및 의사소통 기술을 취학 전부터 발달시켜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의 양육행동 및 행복감이 달랐다. 특히 초등학교 진학 전, 후에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의 경우,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거나 초등학교 진학 이후 행복감이 감소하는 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더 온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를 애정적이고 민감한 행동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행복감이 더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주리, 김남희, 2014; 이은진, 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도 높은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따뜻하고 온정적인 양육을 통해 아동이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과 초등학교 진학 이후 행복감이 증가한 아동은 취학 전 부와 모의 행복도가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와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지며(Corsano, Majorano, & Champretavy, 2006),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가 가정환경, 대인관계, 자아특성 등의 영역에서 지각하는 행복감 역시 높아짐을 밝힌 선행연구(김도란, 김정원,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에서의 행복감은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남궁지영, 김양분, 2015)을 시사한다.

다섯째,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또래 놀이행동 양상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의 경우 취학 전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또래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한 것에 반해 초등학교 전이와 함께 행복감이 감소한 아동의 경우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고 무시 또는 거부를 당하는 등의 놀이단절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유능하여 또래로부터 선호되는 아동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Smith, 2001; 하선아, 진미경, 2014)와 일치하며, 또래 간의 정서적 지지, 공동 활동 및 교환적 활동과 유아가 지각하는 행복감간의 정적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이진숙, 김은주,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행복감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Nickerson & Nagle, 2004). 또래와 함께하는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발달시킴으로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신수희, 이완정, 2014)하는 것이 아동의 행복감 증진 및 유지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취학 전 7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아동이 경험하는 행복감의 변화를 단기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취학 전부터 취학 후에 이르는 초등학교 전이기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변화가 이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러한 양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 후를 기점으로 한 아동의 행복감 변화 양상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

적하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아동의 주요 발달 과업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아동의 행복감 양상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아동의 행복감이 공통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존 변인중심연구에서 간과되어온 개인내적 수준의 변화를 포착하였다. 이로써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 또는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보다 개별적이며 전략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 전이기를 겪으며 증가, 감소 또는 유지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는 취학 전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행복감을 바탕으로 온정적 양육을 제공할수록, 학교관련 준비가 잘 되어있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취학 후 아동이 경험하는 행복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초등학교로의 행복한 전이를 위한 지원 및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Brostrom, S. (2002). Communication and continuity in the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school. In H. Fabian & A-W. Dunlop (Eds), *Transitions in the early years: Debating progression and continuity for children in early education* (pp. 52-63). London, Routledge-Falmer.

Corsano, P., Majorano, M., Champretavy, L.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41,* 341-353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Eckert, T. L., McIntyre, L. L., DiGennaro, F. D., Arbolino, L., Begeny, J., & Perry, L. J. (2008). Research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for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 literature review of current processes, practices, and programs. In D. H. Molina (Eds.), *School psychology: 21st century issues and challenges* (pp. 235 - 252). Hauppauge, NY: Nova Science Publishers.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 105-120.

Gherasim, L. R., Brumariu, L. E., & Alim, C. L. (2017).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Preliminary Findings from Romania, France, and Russ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8*(4), 1013-1028.

Holder, M. D., Coleman, B. & Singh, K. (2012). Temperament and happiness in children in Ind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261-274.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Magnusson, D., & Stattin, H. (2006). The person in the environment: Towards a general model for scientific inquiry.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6th ed., pp. 400 - 464). New York, NY: John Wiley.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Nickerson, A. B., & Nagle, R. J.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5-60.

Pianta, R. C., & Kraft-Sayre, M. (1999). Parents' observations about their children's transitions to kindergarten. *Young Children, 54*(3), 47-52.

Pinquart, M., & Schindler, I. (2007). Change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A latent-class approach. *Psychology and Aging, 22*(3), 442-455.

Ramey, C. T. & Ramey, S. L. (2004). Early learning and school readiness: Can

early intervention make a difference? *Merrill-Palmer Quarterly, 50*(4), 471-491.

Rimm-Kaufman, S., E., & Pianta, R. C. (2000).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A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91-511.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 (2005), School readiness: Closing racial and ethnic gaps. *The Future of Children, 15*(1), 5-15.

Rubin, K. H. (1982). Social and social-cognitiv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young isolate, normal, and sociable children. In K. H. Rubin & H. S. Ross (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pp. 353- 374). New York: Springer-Verlag.

Sabol, T. J., & Pianta, R. C. (2011). Patterns of school readiness forecast achievement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t the end of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83*(1), 282-299.

Sameroff, A. J., & Haith, M. M. (1996). *The five to seven year shift: the age of reason and responsibi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mith, M. (2001).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Contributions to young African-American children's peer acceptanc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49-72.

Wang, M. (2007). Profiling retirees in the retirement transition and adjustment process: Examining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retiree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2), 455-474.

강은나(2013).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의 다중 변화궤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잠재집단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3), 85-112.

권연희(2013). 유아의 행복에 대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2*(4), 525-537.

김도란, 김정원(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김성숙(2013).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3), 377-400.

김주리, 김남희(2014).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 간 관계. *생애학회지, 4*(1), 19-32.

김창복, 인신영(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

린이미디어연구, 12(3), 319-350.

김태은(2011). 초등학교 준비도 향상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 적응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8,* 125-146.

김희진, 김민진(2015). 다문화가정 유아가 인식한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9*(2), 143-167.

남궁지영, 김양분(2015).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2), 1-25.

문수경, 이무영(2008).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시아아동복지연구, 6*(3), 19-33.

박희경, 강인설(2014). 아동의 행복에 대한 개념 연구. *아동과 권리, 18,* 367-385.

박희숙(2008). 유아 학습관련 기술이 취학 후 아동의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 *아동학회지, 29*(6), 73-86.

신수희, 이완정(2014). 어머니,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자아개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47-62.

안영혜(2014).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생활적응 프로그램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7*, 51-82.

유태균, 반정호(2012). 중고령자 삶의 질 변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349-372.

이경민, 강정원(2006). 보육시설의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0*(4), 51-75.

이경선(2017).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305-324.

이귀숙, 정현희(2008).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변화유형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 *상담학연구, 9*(3), 1283-1296.

이윤미(2007).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경험. *초등교육학연구, 14*(2), 99-117.

이은주(2010). 유아 행복에 대한 예비 유아교사의 인식. *한국보육학회지, 10*(4), 129-146.

이은진(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재경, 조혜정(2012).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 41-71.

이진숙, 김은주(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이정미, 이양희(2008).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척도(K-MSLSS)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4), 249-268.

전미경, 장재숙(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전은옥, 최나야(2013).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2,* 103-126.

정혜숙, 김영희(2014). 아동이 지각한 행복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21*(7), 89-118.

조경자(2005). 초등학교에 대한 유아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5*(4), 81-103.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조한익(2016).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과 우울수준. *아동교육, 25*(1), 277-292.

최은정(2012).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만 5세 유아의 정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최혜영, 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 (PIPPS) 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최혜영, 신혜영, 최미숙, 조성연(2009). 한국 아동의 행복감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11.

하선아, 진미경(2014).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1), 1-15.

허혜경(2014). 유아-초등교육 전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실태. *유아교육연구, 34*(2), 435-453.

·교신저자: 은선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수료, zzbprss@snu.ac.kr

Change in children's happiness dur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Subin Ahn and Sunmin 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pattern of children's self-rated happiness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group based on school readiness, parents' parenting behavior, parents' subjective happiness and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have emerged.

1) How do children rate their level of happiness before and after entering elementary school? Is ther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level of happiness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2) What is the change pattern of children's self-rated happiness occurring before and after transitioning to elementary school?
3) Are there differences in children's school readiness, parents' parenting behavior, parents' subjective happiness and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among the subgroups of happiness change in the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process?

The authors used the 7th and 8th year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The results were derived from descriptive statistics,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corresponding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overall happiness of the children had significantly been lowered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s children enter elementary school, they may have experienced various types of physical, social, and emotional stresses in response to newly assigned roles and expectations (Park, Hee Kyung, and Kang, Inchul, 2014), and negative emotions stemming from these

stressors may have affected the children's subjective happiness. Second, a cluster analysis revealed four distinct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happiness: high-maintaining, high to low, low to high, and low-maintaining. While previous studies limit their findings to the general tendency of decreasing happiness in children during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the current study proves that within the context of decreasing happiness distinct change patterns can be identified. Third, aspects of the individual child's school readiness, parents' parenting behavior, parents' subjective happiness, and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ubgroups of change pattern. Specifically, children who experienced decreased happiness had lower levels of school readiness, lower levels of parents' affective parenting and parents' subjective happiness, lower level of positive play interactions, but higher level of play disconnection than children in other subgroups.

This study to examine aspects of change in children's happiness and its findings are significant within the context of the child transitioning to elementary school. In particular, this study captures the change at the individual level, which had been overlooked in previous literature, by proving that the subjective happiness of the children could change differently even with an exposure to the same stressors. The results are also significant for providing the theoretical rationale of an individualized interventional approach that would support children's happy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Key words: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happiness, change pattern, cluster analysis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아동의 행복감 변화” 토론문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 및 각각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별로 초등학교 취학 전 학교준비도, 부모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놀이행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은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군집 사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학교준비도, 부모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놀이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복감이 낮은 아동은 취학 전 학교준비도,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 놀이작용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아동이 전이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 및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의 변화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변화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아동패널 7-8차 데이터의 아동 행복감을 활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K-Means 군집분석의 경우 이론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사전에 군집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재계층분석은 최대우도법에 기반하여 로그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지점을 찾아 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적절한 집단의 수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적합도 지수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사전에 집단의 수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 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 집단의 수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K-Means 군집분석 보다는 잠재계층분석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행복감을 바탕으로 온정적 양육을 제공할수록, 학교관련 준비가 잘 되어있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기반한 구체적인 논

의가 더 서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가 초등학교로의 행복한 전이를 위한 지원 및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면 초등학교 전이를 위한 지원 및 개입과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이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충일[1)]　　권윤정[2)]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발달궤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6, 7, 8차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녀에게 행동적 통제를 높게 사용하였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상황에서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학업성취와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았다. 다만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자녀의 학교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부모의 행동적 통제와 함께 다른 변인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초기치와 달리 변화율은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가 학업수행과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지키고 사회적 기준을 배우도록 하는 부모의 자녀의 행동 통제지도가 자녀의 학업수행과 행복감을 증진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감

Ⅰ. 서론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애정’과 ‘통제’는 자녀의 자율성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의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박사
2)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

미 있게 연구되어 왔다. 부모의 애정과 관련된 온정적 양육태도는 자녀 발달에 있어서의 긍정적 성취와 관계가 높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하고 반응성 높게 온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과 성취에 효과적이다(Weir, 2017).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는 상반되게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 통제와 관련된 연구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어왔다.

부모의 통제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Baumrind, 1991; 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와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자기조절을 도와 발달 및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Chao, 1994; 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이후 부모 양육 행동 중 통제가 다면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Barber, Olsen, & Shagle, 1994; Gray & Steinberg, 1999),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통제의 개념을 나누어 각각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를 크게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와 행동적 통제(behavior control)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Barberm 1996; Barber, Olsen, & Shagle, 1994).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최정아, 이혜은, 2008; 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행동적 통제가 주로 부모의 자녀의 행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모의 감독(monitoring)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부모의 통제 중에서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신의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심리적 수단을 활용하여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Barber & Harmon, 2002). 부모와 지속적으로 애착을 유지하면서 성장해나가야 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기표현과 정서적 경험을 억누르게 만들고 자율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부정적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불안이나 우울, 의존심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한편 부모 통제의 다른 유형인 행동적 통제는 가족 또는 사회의 규범을 따르도록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Baumrind, 2005). 높은 수준의 수용과 엄격한 통제를 제공하는 적응적인 부모양육행동은 자아통제능력이 키워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에 의미가 있다(Goodman & Garber, 2017; 최정아, 이혜은, 2008). 최근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개선한 근거기반의 개입은 부모 양육의 행동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고 있다(Goodman & Garver, 2017). 자녀의 발달

에 효과적인 부모의 통제를 살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양육에서 행동적 통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모의 행동적 통제와 자녀의 발달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가 애정적이면서도 행동적 통제를 활용하며 심리적 억압을 적게하는 양육을 할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래애착이 높았다(김현주, 홍상황, 2015).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볼 때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학교 적응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와 자녀의 학업수행과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부모가 행동적 통제를 행사할수록, 자녀는 성취가치가 높아지고 성취가치의 발달궤적에서 중위 또는 상위집단에 위치하였다(이수현, 이강이, 2017).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에 유능성과 관계성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이러한 선행연구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자녀의 발달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로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청소년기 이전의 발달단계에 있는 자녀의 발달과 부모의 행동통제의 관계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동적 통제가 아동이 환경에서 요구되는 규칙을 따르도록 지도한다는 것임을 감한할 때,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를 통해 훈련된 자기 통제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가정이나 보육기관을 떠나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연구는 부모의 통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인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제한점이 있다.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초등 저학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의 다면적 측면 중 하나이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행동적 통제와 자녀 발달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업성취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부모의 행동통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가 행동적 통제를 적용했을 때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자녀를 위한 정말 필요한 양육의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

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이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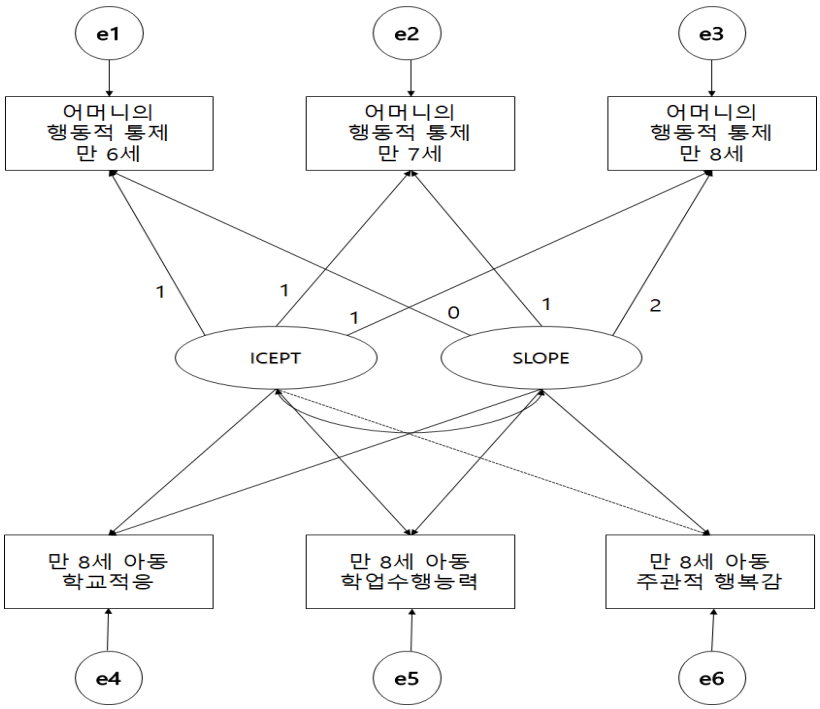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제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의

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2,150 가구를 표본으로 시작한 2008년을 조사를 기점으로 현재 2015년까지 1~8차년도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8년도의 자료 중 6(2013년), 7(2014년), 8(2015년)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6, 7, 8 차년도의 조사에 참여한 각 아동의 연령은 초등학교 1, 2, 3학년에 해당하는 만 6, 7, 8세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아동의 월령은 6차년도 아동 62.68개월, 7차년 75.14개월, 8차년 87.98개월이며, 6차년에는 1662개 가구, 7차년 1620가구, 8차년 1598 가구의 아동패널 자료가 사용되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 통제적 양육태도의 발달궤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아동패널의 6, 7,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그리고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한 행동적 통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외(1999)이 개발한 부모의 통제적·온정적 양육태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통제적·온정적 양육태도 설문지는 어머니에 의해 평정이 이루어지며, 5점 Likert(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 그렇다, 4점 = 대체로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 척도로 통제적 양육태도 6문항, 온정적 양육태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 통제적 양육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심리적 통제에 해당하는 문항인 '나는 아이가 내말에 순종하도록 한다.'라는 문항을 제외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와 관련된 문항은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6, 7, 8차년에 행동 통제적 양육태도 Cronbach`s α는 각각 .718, .684, .722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지성애, 정대현(2006)이 개발한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아동의 소속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이 이루어지며,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이다, 4점 =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이며, 학교생활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6문항)이라는 4개의 하위 영역을 포함한 총 3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수행적응 11문항, 또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6문항의 합을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아동패널 8차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Cronbach's α는 .949로 나타났다.

다. 아동의 학업수행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이은해, 김명순, 전혜정 외(2013)가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한국아동패널의 연구진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질문지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이 이루어지며, 총 10문항으로 국어 4문항, 수학 5문항, 학업수행능력 전반 1문항으로 5점 Likert(하위 20% 이내 = 1점, 하위 21~40% = 2점, 중간 50% 내외 = 3점, 상위 21~40% = 4점, 상위 20% 이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 학업수행능력에 4문항의 내용은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쓰기능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학 학업수행능력 5문항의 내용은 '수세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덧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교 능력(길이, 무게 등)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수행능력 전반 1문항의 내용은 학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의 국어 4문항, 수학 5문항, 학업수행능력 전반 1문항의 합을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수준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아동패널 8차년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Cronbach's α는 .978로 나타났다.

다.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총 4문항의 4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2점 =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3점 = 행복한 편이에요, 4점 = 매우 행복해요)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보통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산데. 00도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슬픈 일이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데. 00도 그러니?' 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패널 8차년에 아동의 전반적 행복의 Cronbach's α는 .704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0.0(SPSS Inc., Chicago, IL, USA)과 AMOS 20.0(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0.0을 사용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구성문항의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는 Cronbach α 값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6, 7, 8차년의 어머니의 행동 통제적 양육태도,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표본의 정규성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5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Kline, 2015).

AMOS 20.0을 사용해 어머니의 행동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무조건 모형의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모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행동 통제적 양육태도의 발달궤적이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그리고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이론에 따른 모형검증을 위한 잠재적 모델의 계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따라 추정하였으며. 경로모형의 적합도(Model Fit) 판단를 판단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로 표준카이자승치(Normed X^2),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NFI(Normed Fit Ind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NFI와 CFI는 .90이상, RMSEA는 .08미만이면 모형이 수용가능하다고 판단(우종필, 2012;

Hu & Bentler, 1999)된다.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6, 7, 8차년 행동적 통제의 각 평균 점수는 17.40(*SD* = 2.97)점, 17.53(*SD* = 2.43)점, 18.09(*SD* = 2.6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113.04(*SD* = 22.19)점, 38.22(*SD* = 8.02)점, 12.83(*SD* = 2.15)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 변수들은 왜도가 -1.28~-0.08로 2를 넘지 않으며, 첨도가 0.25~1.45으로 3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5).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M*	*SD*	Skewness	Kurtosis
독립	행동적 통제	6차년도	17.40	2.97	-0.08	0.25
		7차년도	17.53	2.43	-0.34	1.05
		8차년도	18.09	2.60	-0.40	1.45
종속	학교적응		131.04	22.19	-0.78	0.67
	학업수행능력		38.22	8.02	-1.28	1.26
	주관적 행복감		12.83	2.15	-0.48	0.35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모형을 위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009~.538로 나타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5). 구체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6차년은 7, 8차년의 행동 통제와 각각 r = .245(p < .001), r = .199(p < .001)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7차년은 8차년 행동 통제와도 상관관계(r = .538, p < .001)를 나타내었으며, 학업수행능력(r = .082, p < .005)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8차년은 아동의 학교적응(r = .101, p < .005)과 주관적 행복감(r = .061, p < .005)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의 학업수행능력(r = .530, p < .001)과, 주관적 행복감(r = .124, p < .0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수행능력은 주관적 행복(r = .105, p < .001)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1	2	3	4	5	6
1. 행동적 통제 6차년	1					
2. 행동적 통제 7차년	.245***	1				
3. 행동적 통제 8차년	.199***	.538***	1			
4. 학교적응	.036	.018	.056	1		
5. 학업수행능력	.062	.082**	.101**	.530***	1	
6. 주관적 행복감	.009	.049	.061*	.124***	.105***	1

**p < .005, ***p < .001

3.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의 무조건모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의 변화궤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 X^2 = 13.680(df = 1, p < .001), RMSEA = .077, NFI = .977, CFI = .979로 모든 값이 적합기준에 부합되므로 경로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그림 1>. 구체적으로 무조건모형의 성장모수치를 <표 3>과 같이 살펴보면, 행동적 통제의 초기치 평균은 어머니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M = 17.263, p < .001)가 있었으며, 행동적 통제의 변화율 평균 또한 어머니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M = .395,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행동 통제의 선호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395씩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행동 통제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각각 1.980(p < .001), 1.039(p < .0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의 변화궤적은 참여자들 간에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학년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의 수

준이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는 결과는 어머니 행동통제의 변화궤적이 다른 종속 변수(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통계적 단계인 조건 모형으로 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3> 무조건모형의 분석결과

구분	초기치(ICEPT)		변화율(SLOPE)	
	Mean	*Variance*	*Mean*	*Variance*
행동적 통제	17.263***	1.980***	.395***	1.039***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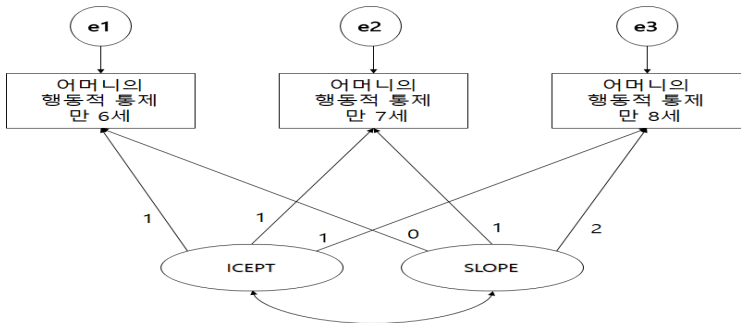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의 무조건 모형

4.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의 조건모형

어머니의 행동 통제적 양육태도 변화궤적이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X^2 = 68.500(df = 5, p < .001), RMSEA = .0.035, NFI = .930, CFI = .934로 모든 값이 적합기준에 부합되므로 경로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그림 2>. 구체적으로 <표 4>의 최종 분석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 행동 통제의 초기치는 아동의 학업수행능력(β = .598, p < .001)과 주관적 행복감(β = .079, p < .05)에서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행동 통제의 초기치는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통계적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또한 어머니 행동통제의 변화율은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행동 통제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과 아동의 주

관적 행복에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조사기간의 3년 동안 어머니의 행동 통제 변화율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 조건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B	β	S.E.	C.R.
행동적 통제 초기치	→	학교적응	.057	.745	.480	1.552
행동적 통제 초기치	→	학업수행능력	.126	.598	.173	3.457***
행동적 통제 초기치	→	주관적 행복감	.062	.079	.038	2.067*
행동적 통제 변화율	→	학교적응	.001	-.022	2.127	-.010
행동적 통제 변화율	→	학업수행능력	.025	.459	.767	.598
행동적 통제 변화율	→	주관적 행복감	.039	.190	.169	1.122

*p < .05, **p < .00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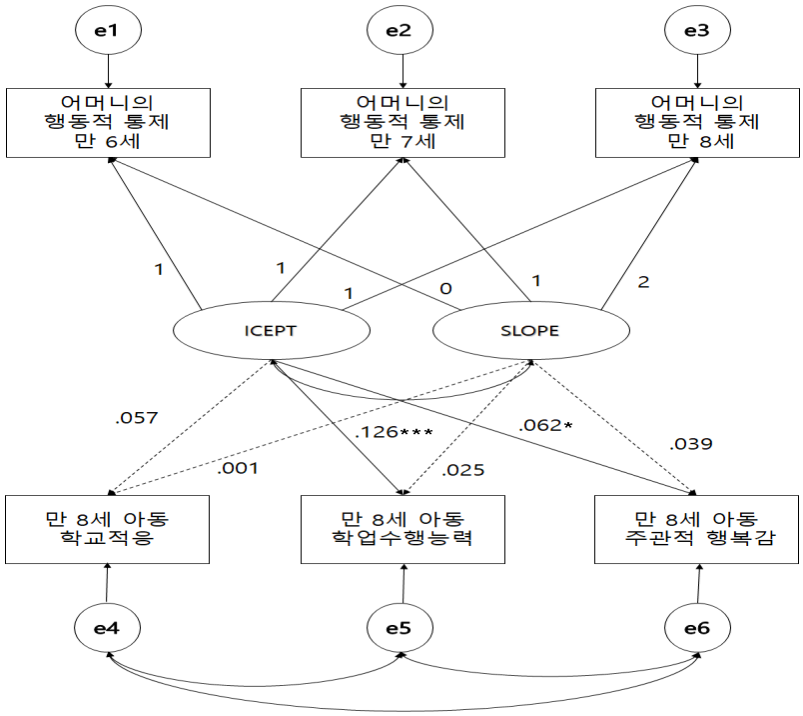


그림 3.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의 조건 모형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업성취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부모의 행동통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궤적을 살펴보고, 부모가 행동적 통제를 적용했을 때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6, 7, 8차년 자료를 이용해 초등학교에 진학 후 아동이 1학년에서 2, 3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어머니의 행동 통제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변화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 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녀에게 행동적 통제를 높게 사용하였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부모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녀가 사회적 상황에서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발달적으로 준비됨에 따라 그에 맞는 행동 통제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의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자녀의 자기조절을 도와 발달 및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결과(Chao, 1994; 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를 볼 때 학령 초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이러한 행동적 통제 발달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의 초기수준과 아동의 학년이 증가하면서 증가되는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자녀의 높은 수준의 학교 적응과 관련된다는 서구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Jacobson & Crockett, 2000). 즉, 우리나라에서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보다 다양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후속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행동적 통제 외에 부모 양육의 다른 변수, 부모의 심리적 통제나 아동의 또래애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봐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 어머니가 행동적 통제를 보다는 다른 환경적 변인들에 대한 조절 및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어머니의 행동 통제적 양육태도의 초기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와 자녀의 학업수행과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부모가 행동적 통제를 행사할수록, 자녀는 성취가치가 높아진

다는 결과(이수현, 이강이, 2017)와 일치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주었지만 변화율은 그렇지 않았다. 아동의 학년이 증가하면서 높아지는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는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특히 1학년 시기 자녀가 사회적 규율이나 환경의 요구에 맞추도록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에게 성공적인 학업수행을 기대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시기부터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여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키우도록 초등학교 진입 시기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머니 행동적 통제의 초기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자신의 자녀가 부모 및 사회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규범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회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역할로부터 나온다(Steinberg, 1990). 이는 자녀에게 일종의 관심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충일, 이강이, 2015).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으나, 조심스럽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아동에게 행사하는 행동적 통제의 내용이 달라져야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추측해본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부모가 알고 있는 여부나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의 감독(monitoring)을 주로 포함한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적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져야할 수도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부모 양육이 다면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적 통제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널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했던 부모 양육 영역에서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패널 자료의 제한된 문항을 활용하여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를 함께 고려하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바람직한 행동적 통제 방법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김충일, 이강이(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5), 503-517.

김현주, 홍상황(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우종필(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이수현, 이강이(2017). 부모의 행동적,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성취가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2), 109-134.

이은해, 김명순, 전혜정, 이정림, 이윤선, 김주혜, 조수영, 정주희(2013).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미발간.

전성희, 신미, 유미숙(2011). 부모감독,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및 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14(2), 73-87.

지성애, 정대현(2012).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최윤경, 민정원, 김기환, 이세원(2013).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정아, 이혜은(2008).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1), 295-326.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Article citationsMore>>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4), 1111-1119.

Finkenauer, C., Engels, R., & Baumeister, R. (2005). Parenting behaviour and adolescent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58-69.

Garber, J., Robinson, N. S., & Valentiner, D. (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2-33.

Goodman, S. H., & Garber, J. (2017). Evidence Based Interventions for Depressed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88*(2), 368-377.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4-587.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l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Jacobson, K. C., & Crockett, L. J. (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1), 65-97.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Steinberg, L. (1990).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cross varied ecological niches.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pment* (Kansas City, MO, April

1989).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Weir, K. (2017). Maximizing children's resilience. *Monitor on psychology,* Sep 2017, A public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교신저자: 권윤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yjkwon98@hanmail.net

The Effects of Mother's Behavior Control Trajectory on School Adjustment, studying Ability and Subjective Happiness for children

Kim Chung-il and Kwon Yu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behavior control trajectory on school adjustment, studying ability and subjective happiness for children. We used 6th, 7th, 8th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s. First, Mother's behavior control tended to increase overall as children aged. Second, the initial value of mother's behavior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udying ability and subjective happiness by children, but had not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by children. Third, the change rate of mother's behavior control had not on school adjustment, studying ability and subjective happiness by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n that mother's behavior control can be helped children's studying ability and children's subjective happiness to school age children, but can not help to children aged.

Key words: Mother's Behavior Control,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ren's Studying Ability, Children's Subjective Happiness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이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 행동적 통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는 3학년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둘째, 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행복감은 1학년에서 3학년이 되기까지 어머니의 행동통제 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있는지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자녀가 1학년 시기의 어머니 행동통제가 3학년 시기 자녀의 학업수행능력과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 진입하는 시기부터 자녀의 행동지도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애정과 통제라는 양육행동의 일반적인 두가지 유형 중에서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비롯하여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보라고 사료된다. 연구결과 또한 청소년 대상 통제적 차원의 부모양육행동과 자녀의 적응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대상 연구결과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정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도구, 분석방법,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에 몇가지 의문이 있으므로 네가지 질문과 함께 토론자의 생각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측정도구에서 통제적 양육태도 6문항 중 “나는 아이가 내말에 순종하도록 한다’라는 문항은 심리적 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고 했는데 다른 문항들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개념이 다른지 명확하지 않다. 연구자가 구인타당도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학교적응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인 학업수행적응 문항들과 학업수행 측정도구의 문항들이 내용상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다.

둘째,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연구모형은 조건모델에서 예측변수나 다른 성장모형이 초기치나 변화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인데(송태민, 2013; 정익중, 2007) 이 연구에서는 조건모델에서 초기치나 변화율이 종속변수가 아니고 예측변수로 투입되었다. 이러한 모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되면 모델 이해에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다시말해서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수준의 증감 여부가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 행복감에 영향을 줄 것 이라고 가정하게 된 이론적 배경이 제시되고 연구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조건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했다. 이는 행동적 통제 수준에 있어서 어머니들간의 개인차가 유의하고 변화율도 개인차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초기치의 개인차가 변화율의 개인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공분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기치만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1학년 시기의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가 그 이후 시기의 행동적 통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초기치는 집단내에 존재하는 개인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초기치가 아동 적응 변인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집단내에 존재하는 개인차가 아동적응 변인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6차년도의 어머니 행동통제 변인이 7, 8차 년도의 행동통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표(표2)에서 이러한 해석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8차년도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주관적 행복감은 6차년도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같은 시기인 8차년도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하고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거나 7차년도 행동적 통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더라고 계수의 크기는 8차년도에 비해 작았다.

참고문헌

송태민(2013). 패널자료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강자료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유아 및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 종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생의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희정[1)]

요 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래 놀이상호작용를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이고, 이같은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모형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또래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같은 목적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보육기관 질문지 등의 응답자들 4차부터 7차까지 4번의 또래 놀이상호작용 변인, 예측변인으로서 4차년도 교수효능감, 4차년도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부모 의사소통, 교실환경 변인과 8차년도에 보고한 또래 적응 변인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은 6차년도까지는 증가하다가 7차년도 시기에 감소하는 궤적을 나타냈다. 둘째, 또래 놀이상호작용 변화궤적의 초기값을 예측하는 변인은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교사-부모 의사소통 변인이었고, 변화율과 2차항을 예측하는 변인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인이었다. 셋째,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 모형은 8차년도인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또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제어: 또래 놀이상호작용 발달궤적, 종단적 변화,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 적응

Ⅰ. 서론

영아기와 달리 유아기와 아동기 사회적 관계는 가족이라는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영향이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1)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lkj-222@hanmail.net

중 유아기에는 학습이나 교육보다는 놀이 그 자체가 중요하며, 놀이활동은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교수의 방법으로도 간주되어진다(Von Hoom, Nourt, Scales, & Alward, 2003).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유아의 놀이란 교사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여 놀이의 수준을 높이거나 놀이활동을 정교화할 수 있고, 유아의 놀이행동을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은수, 200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사회적 관계는 또래와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교사의 민감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발달을 돕고, 사회적 지식과 기술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한은숙, 허혜경, 2016).

본 연구는 3-6세 시기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궤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아동패널의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효원(2016)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를 3년간 조사한 결과, 점차 감소하게 되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긍정적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대하여 4세 시기부터 7세 시기까지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백승희와 정혜원(2017)은 긍정적 또래 놀이상호작용은 점차 증가하고, 교수 효능감은 긍정적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진희민과 강상진(2017)은 3세부터 5세까지의 또래 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교실 내 유아의 수, 교수 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인은 만 5세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외국의 연구들(Howes, 2000; Howes, Hamilton, & Matheson, 1994; Shin, Vaughn, Kim, Krzysik, et. al., 2011) 역시 교육환경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또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부모 의사소통과 교실환경이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교수효능감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교사는 유아에 대한 기대 또는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감이 높다고 한다(서석원, 박지선, 2016).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효능감이 높은 학급의 유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또래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한은숙, 허혜경, 2016). 유아의 기질과 상관없이 교사의 효능감이 높을 경우, 교사와 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높아지고 이같은 교사와 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을 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고 하였다(심숙영, 임선아, 2017).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이예진과 윤수정(2016)은 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상호작용은 감소하며 유아-교사 상호작용은 향상된다고 하였다. 문영경과 최선녀(15)도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통하여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미란(2015)도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사와 유아의 관계에 대한 문헌들에 의하면, 교사와 유아의 관계는 유아가 사회에서 관계하는 첫 번째 대인관계이며, 그 관계의 특성은 초등학교시기까지 지속되므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wes, Phillipsen, & Peisner-Feinberg, 2000).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선경과 김효원(2016)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직접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수준이 높은 경우 또래간 놀이에서의 단절과 같은 부정적 영향력은 자발성이 낮은 유아의 경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소영, 신혜영, 2015).

본 연구에서는 교사-부모 의사소통 변인을 포함시켰는데, 사실 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정과 교육시관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은 중요하다. NAEYC에서도 협력적, 발달적으로 적합한 유아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어머니와 교사간 상호 협력을 권고하고 있다(Charlesworth, 2014). 실제로는 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경화(2001)는 많은 유아교사들이 부모와 관계 맺기를 두려워한다고 보고하였다. 만 4,5세 유아의 어머니 191명과 담임교사 14명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김유환과 김경숙(2012)에 의하면, 어머니-교사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이나 의사소통과 가치공유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고, 유아-교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교사 관계의 친밀성이 낮고 갈등과 의존이 높을수록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김보민과 박인전(2013)도 어머니-교사 관계는 교사-유아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교사 관계는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다양한 사물이나 설비, 가구 등을 배치한 교실환경은 유아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이선경, 김효원, 2016). 환경에 의해 유아들은 도전하기도 하고, 학습하기도 하며 행동을 유발하여 새롭게 지식을 형성하고 이해하며 기

술을 개발하기도 한다. 놀이가 이루어지는 교실환경에 따라 유아의 놀이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 역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이형민, 2015). 보육기관 평가인증과정에서도 교육기관의 환경에 대한 기준을 통해 효율적인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실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내에 각 연령의 교실에는 연령에 따라 그리고 영유아 수에 따라 필요한 전용면적이 다르며, 각 교실에 필요한 교재교구 수 역시 연령에 따라 기준을 갖고 있다(Charlesworth, 2014). 이는 영유아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활동영역의 크기와 사회성 발달 시기에 따른 교재교구의 공유 가능성, 그리고 발달에 따라 이루어지는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달라짐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8차년도 변인인 초등학교 시기의 또래 적응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면, 황윤세(2009)는 교사-유아의 관계는 또래 유능성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이지희와 문혁준(2010)도 교사-유아관계는 또래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Hoesw(2000) 역시 유아시기의 사회정서적 교실 분위기와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또래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궤적과 이를 예측하는 변인과 궁극적으로 이같은 모형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또래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개관한 문헌의 고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4세에서 7세까지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4세에서 7세까지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를 예측하는 교사 및 교육관련 변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4세에서 7세까지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 모형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또래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4차(2011년) ~ 8차(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변인	항목	빈도(%)
교사 연령(n=800)	19-29세	330(41.3)
	30-39세	300(37.5)
	40-49세	160(20.0)
	50-53세	10(1.3)
교사 성별(n=800)	여성	792(99.0)
	남성	8(1.0)
교사 재직기간(n=800)	8-24개월	334(49.6)
	25-48개월	173(25.7)
	49-60개월	50(7.4)
	61-84개월	46(6.8)
	85-108개월	25(3.7)
	109-240개월	44(6.5)
	241-404개월	1(0.1)
교사 학력(n=800)	고졸	106(13.3)
	전문대재학	44(5.5)
	전문대졸업	414(51.7)
	대학교재학	26(3.3)
	대학교졸업	195(5.2)
	대학원재학	8(0.4)
	대학원졸업	15(0.7)

즉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또래 놀이상호작용, 교수 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부모 의사소통, 교실환경 변인과 또래적응 변인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의 자료이며, 교사관련 4차년도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교사의 연령 중 19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이 330명(41.3%)였고, 30-39세까지의 교사는 300명(37.5%)였다. 교사는 여성이 792명(99.0%)였고, 교사의 재직기간은 8-24개월인 경우가 334명(49.6%)로 나타났다. 교사의 학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전문대졸업이었고 414명(51.7%)로 분포되어있었다.

1. 또래 놀이상호작용 4-7차년도 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또래 놀이상호작용 변인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 Fantuzzo, Sutton-Smith, Coolahan 외(1995)가 개발한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

용 도구(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국내 적용을 위해 타당화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확정한 30문항 전체를 활용하였다. 즉 놀이 상호작용 9문항, 놀이 방해행동 13문항과 놀이 단절 8문항을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또래 놀이상호작용 변인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놀이 방해 상호작용 척도의 3개년 평균 Cronbach α는 .83으로 나타났다

2. 교수 효능감 4차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교수 효능감을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활용된 교수 효능감 7문항을 활용하였다. 즉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을 잘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활동에 흥미가 적은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그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열악한 주변 환경이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3. 교사-유아 상호작용 4차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활용된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인에 관한 10문항을 활용하였다. 즉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아이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을 격려해 준다', '긍정적인 지도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되고 즐거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자유롭게 놀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마련해준다', '협동하기, 차례지키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기 같은 아이의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한다', '아이의 발달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기대한다', '아이들이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의견을 나눔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

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4. 교사-부모 의사소통 4차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측정하고자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된 4문항,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가정통신, 전화, 쪽지,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골고루 의사소통한다', '한달에 1-2번 정도는 모든 담당 영유아의 부모와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을 한다', '부모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돕는다'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실환경이 잘 구성되어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81로 나타났다.

5. 교실환경 4차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교실환경을 측정하고자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4문항, 즉 '교실 내의 공간은 유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교실 내의 자료는 유아 발달특성에 적합하다', '교실 내에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있다'와 '교실 내에 유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실환경이 잘 구성되어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81로 나타났다.

6. 또래적응 8차년도 변인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학교적응의 범주 안에 또래적응 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장난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논다', '친구를 잘 도와준다', '친구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준다',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다른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인기있는 아이이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 문항이 사용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였고,

8개의 문항으로 Cronbach α는 .8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1수준에서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수준에서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분석과정은 독립변수를 추정하지 않은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종속변수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변화의 개인차가 나타날 경우,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투입된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으로 검증하게 된다(홍세희, 2014). 본 연구에서는 첫째,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율을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변화와 개인차에 대한 함수를 추정하였다. 둘째,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개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4차년도 예측변인들과 8차년도 또래적응 변인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IBM-SPSS 20.0과 AMOS 18.0이 사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 특성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을 살펴보면, 각 변인들이 왜도와 첨도에서 비교적 적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표 4>에 의하면 관련 변인들이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즉 4차부터 7차 시기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은 서로 관련성이 높았고, 교수효능감, 교사 유아 상호작용, 교사-부모 의사소통, 교실환경과 또래적응은 관련성이 높았다.

〈표 3〉 변인 특성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또래 놀이상호작용 4차(*n*=800)	57	115	-.16	-.33	90.57	10.29
또래 놀이상호작용 5차(*n*=1018)	60	115	-.46	.14	92.83	9.57
또래 놀이상호작용 6차(*n*=1215)	63	116	-.41	-.35	93.97	9.81
또래 놀이상호작용 7차(*n*=1203)	44	117	-.66	.14	92.81	11.67
교수효능감 4차(*n*=1031)	8	40	-.75	.36	31.63	6.45
교사유아상호작용 4차(*n*=800)	10	50	-.62	2.51	42.30	4.65
교사부모 의사소통 4차(*n*=800)	4	20	-1.17	2.83	17.73	2.13
교실환경 4차(*n*= 800)	4	20	-.82	1.74	16.37	2.75
또래적응 8차(*n*=1031)	8	40	-.75	.36	31.63	6.45

〈표 4〉 변인의 상관관계

	교사효능감 4차	교사아동상호작용4차	교사부모상호작용4차	교실환경4차	또래놀이상호작용4차	또래놀이상호작용5차	또래놀이상호작용6차	또래놀이상호작용7차	또래적응 8차
교사아동상호작용4차	.064**								
교사부모상호작용4차	.031	.112***							
교실환경4차	.145***	.159***	.199***						
또래놀이상호작용4차	.149***	.263***	.225***	.426***					
또래놀이상호작용5차	.277***	.127***	.172***	.149***	.346***				
또래놀이상호작용6차	.274***	.138***	.180**	.290***	.305***	.351***			
또래놀이상호작용7차	.285***	.128***	.194***	.293***	.280***	.320***	.673***		
또래적응 8차	.131***	-.073**	-.121***	-.241***	-.347***	-.382***	-.418***	-.549***	

*p<.05, **p<.01, ***p<.001

2.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

1) 무조건 모형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4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과 2차 함수모형을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고, 선형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1,2,3으로 코딩하여 선형적인 에서 7차년도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과 2차 함수모형을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고, 선형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1,2,3으로 코딩하여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2차 함수모형은 발달궤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꺾임(curvature)을 나타내기 위한 제3의 잠재요인이 포함되며, 이차함수 요인에 대한 요인계수는 선형요인에 대한 요인계수를 제곱한 값으로 고정하게 된다(Curran & Hussong, 2003).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과 2차 함수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모형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75.7	8	.777	.822	.063
선형변화모형	41.4	5	.808	.904	.058
2차함수모형	0.4	1	1.015	1.000	.001

무변화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들과 비교할 때 χ^2값이 매우 크고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은 무변화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좋아지고 χ^2값도 줄어들었다. 2차함수모형의 경우, TLI가 .207, CFI는 .9096 RMSEA 역시 .579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최종모형은 2차함수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2차 함수변화 모형에 기초하여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초기값, 변화율과 2차항의 계수를 제시하면 표<표 6>과 같다. 또래 놀이상호작용은 초기치의 평균과 변량이 유의하였고,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초기값이 개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변화율의 경우, 평균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4차년도부터 7차년도의 시기동안에 또래 놀이상호작용은 유의하게 증가하며, 변화율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

을 나타내 주었다. 즉 4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은 평균 3.41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2차함수 변화모형에 대한 결과

변인	평균			변량			공변량		
	초기치	변화율	2차항	초기치	변화율	2차항	초기치 vs 변화율	변화율 vs 2차항	초기치 vs 2차항
또래 놀이 상호작용	90.47***	3.41***	-.87***	41.19**	12.72	.69	-12.04	-2.73	3.06

** $p < .01$ *** $p < .001$

2) 또래 놀이상호작용 변화궤적 모형이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건모형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과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인 8차년도의 또래 적응을 분석하였다. 조건모형은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합하였으며, <표 8>에서와 같이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초기값에는 교수 효능감 4차 변인, 교사-유아 상호작용 4차변인, 교사-부모 의사소통 4차년도 변인이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율과 2차항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4차년도 변인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조건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모형	15.2	13	.995	.999	.009

4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변화 궤적은 4차년도의 교수 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교사-부모 의사소통의 초기값에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변화율과 2차항은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정적 관련성이 있고 8차 시기의 또래 적응의 초기값,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므로, 교수 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교사-부모 의사소통이 4차 시기에 높을수록, 또래 놀이 상호작용은 긍정적이며, 8차 시기의 또래 적응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8〉 연구모형 분석결과

초기값을 예측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변화율을 예측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2차항을 예측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교수효능감 4차	.285(.135)*	교수효능감 4차	-.189(.187)	교수효능감 4차	.036(.065).
교사 유아상호작용4차	.261(.109)*	교사 유아상호작용4차	-.439(.157)**	교사 유아상호작용4차	.147(.054)**
교사부모 의사소통4차	.471(.190)**	교사부모의사 소통4차	-.026(.268)	교사부모의사 소통4차	-.044(.092)
교실환경 4차	.061(.146)	교실환경 4차	-.077(.202)	교실환경 4차	-.002(.070)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초기값→ 또래적응 8차		.485(.061)***			
변화율→ 또래적응8차		1.199(.360)***			
2차항→ 또래적응8차		2.447(1.441)+			

$^{+}p < .10$, $^{*}p < .05$, $^{**}p < .01$,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 및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또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 및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

본 연구를 통해서 4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 양상은 4세부터 6세 시기까지는 증가하다가 7세 시기에 감소하는 2차 함수 형태의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세부터 6세 시기까지의 증가양상은 진희민과 강상진(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김효원(2016)의 연구결과와는 상치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 조사된 또래 놀이상호작용 변인을 일반적 놀이 상호작용을 종속변인으로 보았는지, 놀이 방해행동 또는 단절행동을 따로 분석하였는지와

같이 변인 구성과 관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 상호작용과 방해행동과 단절행동을 역코딩하여 전체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이 유치원 시기인 6세까지는 증가하나,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 7세 시기에 감소되는 양상은 공식교육 시스템인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놀이보다는 학습에 보다 중점을 두는 한국적 교육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 궤적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교사와 교육환경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4세 시기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교사-부모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교수효능감(서석원, 박지선, 2016)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예진, 윤수정, 2016)과 교사-부모 상호작용(김유환, 김경숙, 2012)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실환경은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상치되고 있으나,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이선경과 김효원(2016)의 연구와는 일치되고 있다. 이는 교실특성보다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이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유아가 성장하면서 교구 중심의 양육 보다는 교사와 유아간의 대화와 의미전달을 통한 교육의 기능이 강화되므로 또래 상호작용 또한 교사-유아의 관계형성과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이선경, 김효원, 2016).

따라서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있어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교사연수를 통한 교사의 역량 신장이 더욱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2. 유아 및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 모형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또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를 통하여 4세부터 7세까지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예측모형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또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Howes, 2000;Shin, et. al.,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인데, 특히 교사-유아 관계는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초기값과 변화율 및 2차항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교사는 좋은 모델링을 제공할 것이므

로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익혀 또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응답한 교사들은 대체로 20-30대이고, 전문대 졸업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교사의 유아와의 관계는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한데, 유럽과 같이 40대 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보다는 20-30대 교사들이 더 많았다. 교사의 질적 수준이 결국 교육과 보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때, 교수 전략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많이 만드는 것도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보육교사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이직도 많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한 때의 직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준높은 교사-유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의 급여수준이나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유아와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은 교사에 의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같은 자기보고식 질문의 경우, 관찰에 의한 자료수집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보고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Matsui, 2001)이나 미국(Charlesworth, 2014)에서와 같이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여 연구하는 추세를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사용한 또래 놀이상호작용은 놀이상호작용, 방해행동과 단절행동을 모두 합산한 점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명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있어서 부정적 행동의 의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에는 사회적 유능감 변인이 교사가 평정한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측면과 부모가 평정한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와 책임성 측면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 적응 뿐 아니라 이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측면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 궤적을 4세시기부터 7세시기까지 실증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같은 또래 놀이 상호작용 모형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또래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를 살펴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고현,황정련(2013). 교사와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 형성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33(2), 213-236.

김보민, 박인전(2013). 어머니-교사 관계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구조적 관계-교사-유아 관계와 유아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7, 123-150.

김유환, 김경숙(2012). 어머니-교사관계, 유아-교사관계 및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문제 간의 관련성. 어린이미디어연구, 11(1), 87-104.

김혜경(2017). 유아의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5(2), 1-20.

김효원(2016).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발달궤적과 그 예측변인: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분석. 아동학회지, 37(6), 145-155.

문영경, 최선녀(2015).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5(2), 1-20.

백승희, 정혜원(2017).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4), 1-19.

백지숙,권은주(2017).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언어 및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99-114.

서석원, 박지선(2016).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실환경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Family & Environment Research, 54(3), 293-305.

신은수(2000). 놀이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교사와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과 유아놀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0(1), 27-42.

심숙영, 임선아(2017).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 유아 기질에 따른 차이 검증. 유아교육연구, 37(4), 353-369.

이경화(2001). 부모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이야기. 교육인류학연구, 4(3), 179-199.

이미란(2015).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191-214.

이선경, 김효원(2016). 교실환경,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인지능력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925-945.

이예진,윤수정(2016). 교사 효능감과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간의 유아-교사 상호작

용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1(1), 1-18.

이지희,문혁준(2010).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아동학회지, 31(3), 17-32.

이형민(2015).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환경, 상호작용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간의 구조적 관계. 육아정책연구, 9(2), 89-112.

진희민,강상진(2017). 만3세-5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발달곡선과 유아 및 기관의 관련 요인 탐색. 교육학연구, 55(1), 125-154.

최소영, 신혜영(2015).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11-329.

한은숙, 허혜경(2016).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교수효능감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연구. 유아교육연구, 36(2), 53-70.

황윤세(2009). 유아의 창의적 성향의 놀이행동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기질, 또래유능성, 교사-유아관계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243-267.

Boulton, M.J. (1999). Concurrent and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layground behavior and social preference, victimization, and bullying. *Child Development, 70*(4), 944-954.

Charlesworth, R(2014).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9th edi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Howes, C.(2000).Social-emotional classroom climate in child care, child-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cond grade peer relations. Social Development, 9(2), 191-204.

Howes, C., Hamilton, C.E., & Matheson, C. (1994).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aspects of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5*(1), 253-263.

Howes, C., & Lee, L. (2008). Entering a new peer group in ethnic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hildcare classrooms. *Social Development, 17*(4), 922-940.

Howes, C., & Phillipsen, L.C., & Peisner-Feinberg, E. (2000). The consistency of perceived teacher-child relationships between preschool and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 113-132.

Matsui, M. (2001). Initiation of Interactions with Peers in Play: A Longitudinal Study of Preschoolers.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9(3), 285-294.

Shin, N., Vaughn, B.E., Kim, M., Krzysik, L., Bost, K.K., McBride, B., Santos, A., Peceguina, I., & Coppola, G. (2011). Longitudinal analyses of a hierarchical model of peer social competence for preschool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57(1), 73-103.

Spinrad, T.L., Eisenberg, N., Harris, E., Hanish, L., Fabes, R.A., Kupanoff, K., Ringwald, S., & Holmes., J. (2004). The relation of children's everyday nonsocial play behavior to their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0(1), 67-80.

Von Hoom, J., Nourt P., Scales,B. & Alward, K. (2003). *Play: At the center of curriculum.* NJ: Merril Prentice.

·교신저자: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 lkj-222@hanmail.net

Trajectories of Preschoolers and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and Relations among Preschooler-Teacher Relation and Elementary Childrens' Peer Adjustmen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al pattern of preschoolers and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s from 4 years to 7 years in a nationally represented survey sample in Korea using a latent growth curve model. Teacher-reported four factors-teachers' teaching efficiency, teacher-preschoolers' interaction, teacher-mother communication, class environment-were examined. Effects of childrens' peer adjustment were also examined.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eschoolers and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s were quadretic patterns from 4 years to 7 years old period. Second, teachers' teaching efficiency, teacher-preschoolers' interaction, teacher-mother communication at the 4 year old period had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 to the initial level of preschoolers' peer play interactions and teacher-preschoolers and childrens' interaction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changes of trajectories of peer play interactions Third, the trajectories model was predicted to elementary chidlrens' peer adjustment.

Key words: preschoolers and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longitudinal trajectories, preschooler-teacher interaction, elementary childrens' peer adjustment

“유아 및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종단적 변화 궤적이 초등학생의 또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

배선영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을 4시점(4, 5, 6, 7세)에 걸쳐 종단적으로 궤적을 살피고 이는 이후 초등학교 시기 또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 및 교육 관련한 유의한 변인을 분석해내는 데 목적이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이후 시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학업능력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아동의 과업이자 부모의 관심사임.

- 이에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또래 적응을 위해 이전 시기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침을 분석해냄으로써, 또래 간 놀이상호작용이 현 시점의 놀이 진행과 놀이의 질 뿐 아니라, 이후 시기의 또래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낸 데에 본 연구결과의 의의가 있음.

□ 또래 놀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으로 기관과 관련한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부모 의사소통이 유의한 점, 또한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에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영향력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고, 교사-유아 상호작용 질이 높으며, 교사-부모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은 교실 운영뿐 아니라, 이를 통해 결국 아동의 초등학교 시 또래 적응에 영향을 미침.
-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현재 교사와 유아의 관계 뿐 아니라, 향후 초등학교 시 아동의 또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

□ 연구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다음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연구가 되기를 제언하고자 함.

- 현재 제목으로는 동일 집단에 대한 종단적 추적 연구라는 의미 전달이 약함. '유아 및 아동' '초등학생'이라는 단어 선택이 각자 다른 대상이라는 생각도 들게 함. 예를들어,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 궤적이 이후 학령기 또래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종단 연구의 의미가 잘 파악될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서론에서 변인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설정하여, 연구문제를 서술한 것은 타당하게 생각되나, 각 변인에 대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본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음.
- 연구방법 장에서는 변인에 대한 기술(P.6~8) 부분에는 번호체계가 잘못되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불편함. 6쪽에 '2. 연구변인 및 도구'가 삽입되고 현재의 번호체계는 한 단계 아래 반괄호 번호라면 좋을 듯. '1)' 또래 놀이상호작용 4~7차년도 변인 '2) 교수효능감 4차년도 변인'.....
- p.6에 본문에서 표2를 언급하고 있으나 원고에 표2는 없음.
- 변인 설명하는데 각 변인별로 마지막 부분에 잘못된 서술들이 있음.
  - p.6 또래놀이상호작용 : 마지막 부분-> 본 연구에 사용된 놀이 방해 상호작용 척도 : 방해 삭제
  - p.6 교수효능감: 마지막 부분->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긍정적~ : 교수효능감이 긍정적
  - p.7 교사- 부모 의사소통: 마지막 부분-> 교실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음을~ : 의사소통이...
- 연구 결과 부분: 현재의 번호 체계보다는 연구문제와 대응하여 번호 체계를 구성하여 결과는 제시하는 것이 연구설계의 통일성이 있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명료함.
- 용어 사용 관련: 4, 5, 6, 7세가 만 연령임을 분명히 해주면 7세가 초등 1학년으로 이해하기 수월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교사-유아 관계로 혼용하여 쓰고 있어서 혼란스러우므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으로 통일.
- 결과 논의 부분에서, 7세 초등 1학년에 또래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것은 학업 위주 학교 상황이어서 일 것이라고 논의 하였는데, 이 부분과 함께 또래 상호작용 평정을 교사가 하는 것이므로, 유아 교사와 초등 교사가 또래 상호작용에 대해

파악하는 정도가 달라서 일 수도 있을것이라 사료됨. 즉, 초등학교 운영 구조상 초등 교사가 유아교사보다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관찰 기회가 적어 평정을 정확하게 못한 것은 아닐지...도 고려해 보아야 함.

- 또한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이 교사 평정이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교사 자신에 대한 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아동의 후광효과(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또래 놀이 상호작용도 후하게 평정하는...)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관찰 방법이 또래 놀이 상호작용 평정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수집방법이지 않을까? 의 흐름이 더 적절할 것이라 생각됨.
- 논의에서 교사의 상호작용이 중요 변인이므로 이 향상을 위해 교사교육보다는 교사의 급여수준이나 직업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통해 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근속연수를 높여 질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함을 피력하였음. 그러나 이 부분은 보다 섬세하게 서술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됨. 급여를 개선하는 것이 교사의 경력을 높여 전문성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경력이 쌓인다고 질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분명히 보다 효율적인 교사교육 방법(각 연차에 적절한 주제와 내용, 방법에 있어 대집단 보다 소집단, 강의보다 교사가 직접 해 볼 수 있는 형태... 등)도 강조되어야 영유아-교사 간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직업 만족도도 높여 결국 경력을 쌓이게 할 수 있음. 즉, 교육과 급여수준 등 처우개선이 같이 가야할 문제이지 배타적인 내용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잘 서술해야 함.

□ 위의 부분이 좀 더 보완된다면, 본 연구는 종단적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초기 사회적 적응을 이전 시기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영향이 설명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밝힌 것에 의의가 큼. 또한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는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이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이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 Session 1 ◈

제 2 주제

문제행동

사회: 위영희 (서원대학교 교수)

1.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행동, 양육 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유아 행동문제의 구조관계**
   전혜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수료)
   유미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 **영아기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기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장효은 (경북대학교 박사수료)

3. **일반 유아와 빈곤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학습준비도 및 학교적응**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김미나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행동, 양육 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유아 행동문제의 구조관계

전혜진[1)]　　유미숙[2)]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의 종단자료를 적용하여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1차 연도에 측정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행동, 양육 지식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5차 연도에 측정한 아동의 행동문제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패널자료 2008~2012 자료를 바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 Growth Modeling) 및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 환경으로서 1차 연도의 부모 특징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차 연도의 부모 특징이 5차 연도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이 매개하였으며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서성 기질, 아동 행동문제, 발달 궤적, 구조모형,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Ⅰ. 서론

영유아는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McClowry, 2003). 기질은 행동 스타일 및

1)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 수료
2)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자기조절, 세상에 대한 반응 방식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하는 것(Rothbart & Bates, 2006)으로 선천적인 특성이 강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은 기질의 특성이 발현되는데 영향을 미치며(Goldsmith, Lemery, Buss, & Campos, 1999), 기질 요소에 따라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인, 박혜원, 김말경, 장유경, 최유리, 2008). 즉, 기질의 발현은 생물학적 특성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Bates, Schermerhorn, & Petersen, 2012; Shiner et al., 2012). 영아의 신호에 둔감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양육자는 유아의 기질이 정서적으로 더욱 예민하게 되도록 강화하는데, 이러한 경우 아이는 부모의 훈육에 대항하기 위해 더욱 소란을 피우고 저항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Susan, Hemphill, & Smart, 2004). 반면에 아이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강하게 하더라도 어머니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여유로운 속도로 영아의 정서 반응을 제지하면 원래의 기질에 비해 좀 더 적응적인 아동으로 발달하게 된다(Bates, maslin, & Frankel, 1985; Chess & Thomas, 1984).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머니는 아동의 흥미나 놀라움에 대해 즉각적으로 관심을 갖는 반면 아동의 불쾌정서에는 덜 반응하거나 반응을 지연하게 되는데(Malatesta et al., 1989), 이러한 경우에 부모와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아동은 불쾌정서를 덜 보이도록 훈련받게 된다(Shaffer, 2008).

기질에 대해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가들 중에 Buss와 Plomin (1984)은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모형을 제시하며 기질이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정서성 기질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초기 기질의 중요한 요소(Rothbart & Bates, 2006)로 작용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정서성 기질은 생애 첫 관계를 맺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Rothbart, 1982)을 미치고 다양한 발달 장면에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김소영·홍세희, 2015).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행동(Rothbart, Ahadi, & Hershey, 1994), 놀이상호작용(권연희, 2012), 아동기의 사회적 기술(Eisenberg, Fabes, & Murphy, 1996)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공격성, 사교성, 친사회적 행동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Russell, Hart, Robinsonr과 Olsen(2003)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Fox와 Calkins (1993)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반응성과 불안이 높은 영아는 14개월 즈음에 또래로부터 고립되고 위축될 수 있지만, 지지적인 양육을 통하여 행

동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정서성 기질은 유아의 성격발달 및 부적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인정받고 있다(Rothbart & Bates,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를 적용하여 출생 이후 해마다 아동의 정서성 기질을 측정한 자료를 통해 정서성 기질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고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으로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은 아동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영유아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김미정, 김영희, 2011; 서석원, 이대균, 2014; Easterbrooks, Raskin, & McBrian, 2014; Leidy, Schofield, & Parke, 2012; Ostberg & Hagekull, 2013; Rodriguez, 2011)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감 및 유능감(Bouchard & Lee, 2000; DeLuccie, 1996)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Lamb, 201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자로서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송연숙, 김영주, 2008). 선행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민감하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으며(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Montigny & Lacharité, 2005; 민현숙, 문영경, 2009), 자기효능감과 양육지식에 대한 Ruchala와 James(1997)의 연구에서도 유아 발달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Hess, Teti & Hussey-Gardner (2004)는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 양육능력이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Morawska, Winter & Sanders(2009)은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 자신감이 높다고 나타내고 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양육 상황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anders & Woolley, 2005). 한편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이정숙, 두정일, 2008; Ross & Mirowsky, 1988; Yogev & Brett, 1985)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부부로서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아버지를 협력적인 공동양육자로 인식하게 된다(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또한 영유아의 인지발달(Sarkadi, Kristiansson, Oberklaid, & Bremberg, 2007)과 자아존중감(Rohner & Veneziano,

2001), 정서조절능력(최미숙, 송순옥, 2014)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louri & Buchanan 200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성 기질에 대한 유아의 발달 과정과 문제행동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유아의 적응적인 발달을 지지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발달 연구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유아의 행동발달을 가장 잘 예측하는 정서성 기질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연구는 한 시점에서 변수들 간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으며 보호자 요인으로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차 연도(2008~2012)에 걸쳐 축적된 한국아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양육 환경으로서 부모의 특징 및 아동 행동문제와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여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0~4세)의 정서성 기질의 변화는 해마다 어떠하며, 이 변화 양상에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아동 행동문제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아동패널(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1차(2008)~5차(2012)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은 2008년 1차 년도 조사 당시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 중에서 분만이 이루어지는 곳을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 신생아 가구

표본을 추출하여 대표성이 확보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2,150명(남 1,091명 50.74%, 여 1,059명 49.26%)의 표본 자료가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가.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기질 척도 중 '정서성 기질'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2). EAS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성 기질의 값이 클수록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1차년도 cronbach's α= 0.58, 2차년도 cronbach's α= 0.54, 3차년도 cronbach's α= 0.55, 4차년도 cronbach's α= 0.50, 5차년도 cronbach's α= 0.57이며, 문항은 <표1>과 같다.

〈표 1〉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을 측정하는 문항

번 호	내 용
1	우리 아이는 잘 운다.
2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3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4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5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나. 보호자(母) 자기효능감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2차년도 조사(Mainieri, 2006)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한국아동패널에서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PSES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로 해외의 주요 유관 패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효능감 값이 클수록 모의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표2>와 같다.

〈표 2〉 모(母)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

번 호	내 용	cronbach's α
1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 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2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0.80
3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4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다. 보호자(母) 양육지식

아동의 발달 과정과 발달 규준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되고 표준화된 도구로 MacPhee(2002)의 양육지식(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 척도를 사용하였다. 발달원리 영역을 측정하는 13 문항을 사용하였고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정답은 1로 코딩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표3>과 같다.

〈표 3〉 양육지식을 측정하는 문항

번 호	내 용	cronbach's α
1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을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2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3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칭얼댄다면 이는 대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아기가 자라온 양육 방식은 그 아기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에 아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6	동생이 태어나면 어린 아이들은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빨게 되기도 한다.	0.82
7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결국에는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다.	
8	건강한 아기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식을 주면 익숙해 질때까지 그 음식을 대부분 뱉어낼 수 있다.	
9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는 잘 변하지 않는다.	
10	부모가 아기에게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반응하는 방식은 이후 아기가 행복하고 잘 적응된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11	아기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 함으로써 모든 언어를 배운다.
12	소음이 심하거나 볼 것이 너무 많으면 아기는 자기 주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13	정상적인 아이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 보호자(母)의 사회적 양육유형

Bornstein(1989)의 양육유형(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척도 중 사회적 양육유형을 측정하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2). PSQ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사회적 양육유형, 가르치는 양육유형, 한계설정 양육유형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양육유형의 값이 클수록 친사회적 양육 스타일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표4>과 같다

〈표 4〉 사회적 양육스타일을 측정하는 문항

번 호	내 용	cronbach's α
1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0.77
2	나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3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4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5	나는 내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6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마. 보호자(父) 양육참여

강희경과 조복희(1999)의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에 대한 측정치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

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표5>과 같다.

〈표 5〉 부(父)의 양육참여를 측정하는 문항

번 호	내 용	cronbach's α
1	우리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0.78
2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3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4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바. 아동의 행동문제

Achenbach와 Rescoral(2000)가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영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CBCL 1.5-5)를 사용하여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만 4세(평균 월령 52개월)인 5차 연도에 측정된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데이터 중 T점수를 활용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내재화 cronbach′s α= 0.87, 외현화 cronbach′s α= 0.88, 문제행동cronbach′s α=0.82 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0.95 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양육 환경으로서 부모의 특징 및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을 [그림1]에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 모형을 분석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집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SPSS 21.0과 AMOS 21.0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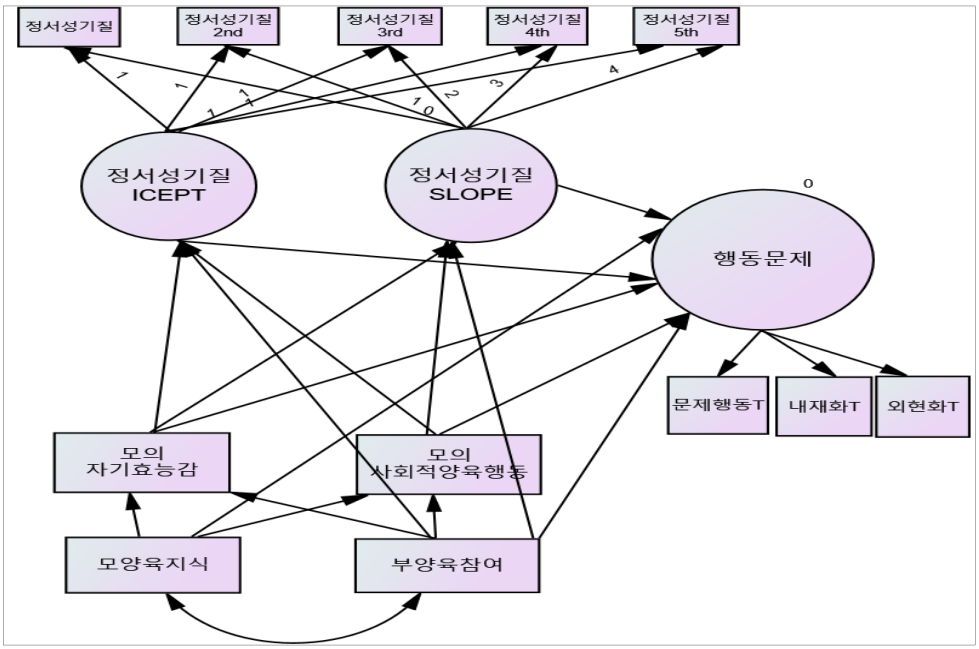
첫째,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관찰변인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양상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정서성 기질의 성장모형을 탐색하고 종단적 매개관계를 확인하고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초로 반복 측정된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으며 어떤 변인에서의 변화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한다. 또한 그 변화의 개인차가 유의한지를 검증할 수 있으며(Meredith & Tisak, 1990)며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함수가 변화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심 변인과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Raykov, 2000). 이러한 모형은 단순히 변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변인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홍세희·유숙경, 2004).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x^2값과 함께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RMSEA와 상대적합지수(reletive fit index) TLI, CFI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성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TLI와 CFI는 .90이상, RMSEA는 .50이하 좋음(close fit), 80이하 양호(reasonable fit), .10이하 보통(mediocre fit)을 기준(홍세희, 2000; Brwon & Cudeck, 1993)으로 적용하였다.



* 오차항 표기 생략됨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측정 시기별로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은 <표6>과 같다.

〈표 6〉 각 변인별 기술통계

측정 변인	연차	*N*	*M*	*SD*	*Min.*	*Max.*
영유아 정서성 기질	2008 (1차)	2,044	13.58	3.06	5.0	25.0
	2009 (2차)	1,892	13.55	3.12		
	2010 (3차)	1,766	14.22	3.07		
	2011 (4차)	1,698	14.37	3.08		
	2012 (5차)	1,670	13.99	3.20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2008 (1차)	1,851	8.87	2.74	4.0	20.0
어머니의 양육지식	2008 (1차)	676	10.08	1.61	3.0	13.0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	2008 (1차)	1,860	24.30	3.02	6.0	30.0
아버지의 양육참여	2008 (1차)	1,859	14.33	3.23	4.0	20.0
유아의 문제행동 T점수	2012 (5차)	1,694	49.31	9.86	24	86
유아의 내재화 T점수			49.85	9.59	31	90
유아의 외현화 T점수			49.41	9.53	31	84

영유아 정서성 기질 평균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1차 13.58, 2차 13.55, 3차 14.22, 4차 14.37, 5차 13.99로 2차 연도에 소폭 감소한 후 3, 4차 연도까지 증가추세가 유지되다가 5차 연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8.87, 양육지식 평균은 10.08, 사회적 양육유형 평균은 24.30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평균은 14.33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행동문제는 영역별로 49.31에서 49.85로 나타났으며, 내재화 문제가 가장 높고, 문제행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는 <표7>과 같다.

〈표 7〉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6**	1										
3	.30**	.47**	1									
4	.24**	.41**	.53**	1								
5	.23**	.36**	.50**	.57**	1							
6	-.12**	-.15**	-.10**	-.07**	-.11*	1						
7	.03	.03	.00	.00	.01	.03	1					
8	.20**	.20**	.20**	.18**	.19**	-.28**	-.10**	1				
9	-.04**	-.09**	-.08**	-.06*	-.05**	.23**	.02	-.18**	1			
10	.14**	.23**	.30**	.40**	.43**	-.12**	-.57	.14**	-.04	1		
11	.13**	.23**	.29**	.35**	.41**	-.10**	-.05	.13**	-.03	.92**	1	
12	.11**	.20**	.29**	.41**	.43**	-.14**	-.05	.13**	-.06*	.90**	.73**	1

* p<.05, ** p<.01

주1: 1. 정서성 기질 1차, 2. 정서성 기질 2차, 3. 정서성기질 3차, 4. 정서성 기질 4차, 5. 정서성 기질 5차, 6.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 7. 어머니의 양육지식, 8.어머니의 자기효능감, 9. 어버지의 양육참여, 10. 아동의 문제행동 T점수, 11. 아동의 내재화 T점수, 12. 아동의 외현화 T점수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섯 시점 모두에서 대체로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적 상관, 어머니의 낮은 자기효능감,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는 정적상관의 패턴을 보였고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직접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서성 기질의 잠재성장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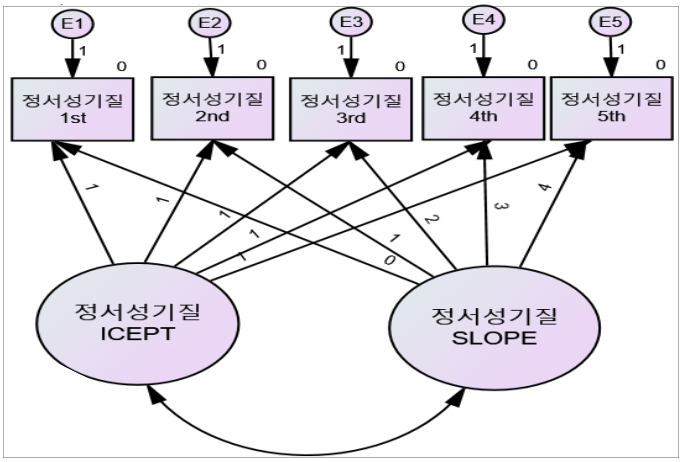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측정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을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표8>과 같다.

〈표 8〉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x^2	*df*	*p*	TLI	CFI	RMSEA
무변형 모형	554.22	17	.000	.793	.766	.121(.113-.130)
무조건모형 1 (변화율 경로계수 0 1 2 3 4)	210.78	14	.000	.959	.976	.049(.041-.057)

모형	x^2	*df*	*p*	TLI	CFI	RMSEA
무조건모형 2 (변화율 경로계수 0 1 1 2 3)	347.14	14	.000	.844	.855	.105(.096-.115)
무조건모형 3 (변화율 경로계수 0 1 1 1 2)	418.40	14	.000	.811	.824	.116(.107-.126)
무조건모형 4 (변화율 경로계수 0 1 1 1 1)	383.97	14	.000	.827	.839	.111(.101-.121)

5개 연도에 걸친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정하고자 x^2 값과 TLI, CFI, RMSEA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은 무조건모형 1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종 선택된 잠재성장모형을 [그림2]에 제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표9>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연도 정서성 기질 평균은 13.58점이고, 이는 매년 0.16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변량은 -0.57이었다. 평균과 변화율의 개인 간 변량은 모두 p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2수준 예측 변인으로서 부모의 환경적 특징 변인을 투입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변형 모형 분석에서 설명되지 않은 개인 내 잔차 변량 5.81이 무조건모형 분석에서 4.78로 줄었다. 이는 정서성의 변화율 변인 투입에 대한 변화량으로 정서성 변화의 개인 내 변량 중 17.71%가 선형적인 시간효과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정서성 기질의 잠재성장모형

$$R^2 = \frac{5.809 - 4.780}{5.809} = 0.1771$$

〈표 9〉 무조건모형의 평균과 분산

	M (SD)	*Var (SD)*	*Covar (SD)*
초기 정서성 기질 평균	13.58*** (.062)	4.78*** (.25)	-.57*** (.07)
정서성 기질 변화율	.16*** (.022)	0.40*** (.03)	

* p<.05, ** p<.01, *** p<.001

<표 10〉 무변화모형의 분산

	B	*S.D.*	*C.R.*
초기 정서성 기질	3.969***	0.17	23.57
1~5차연도	5.809***	0.98	5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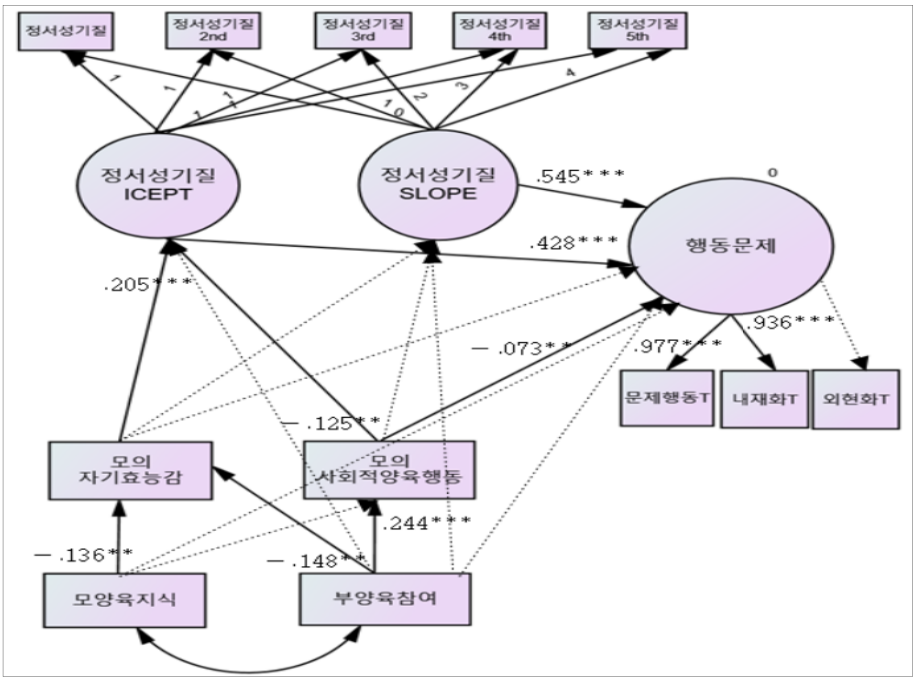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4. 정서성 기질의 변화와 부모의 특징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과 1차 연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5차 연도 아동의 행동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그림3]과 같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표 11〉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적합도

모형	x^2	*df*	*p*	TLI	CFI	RMSEA
구조모형 (정서성 기질 변화, 부모의 특징변인, 아동의 행동문제)	198.91	48	.000	.950	.969	.054(.046-.062)



* p<.05, ** p<.01, *** p<.001 * 오차항 표기 생략됨

[그림 3] 정서성 기질의 변화와 양육환경의 부모 요인 및 아동 행동문제의 구조모형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x^2=198.91(df=48, p<.000), TLC= .950, CFI= .969, RMSEA= .054로 나타나 본 자료로 해당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과 1차 연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5차 연도 아동의 행동문제는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12>에 제시하였다.

〈표 12〉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정서성 기질_ICEPT -> 행동문제	1.893***	.428	.179	10.577
정서성 기질_SLOPE -> 행동문제	8.005***	.545	.723	11.072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 -> 행동문제	-.225**	-.073	.100	-2.256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 행동문제	.039	.012	.110	.352
어머니의 양육지식 -> 행동문제		-.049	.277	-.983

경로	*B*	*β*	*S. E.*	*C. R.*
아버지의 양육참여 -> 행동문제	-.272	-.024	.091	-.744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 -> 정서성 기질_ICEPT	-.068	-.125	.030	-2.897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 정서성 기질_ICEPT	-.086**	.205	.032	4.855
아버지의 양육참여 -> 정서성 기질_ICEPT	.154***	-.034	.028	-.787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 -> 정서성 기질_SLOPE	-.022	.006	.011	.115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 정서성 기질_SLOPE	.001	.025	.012	.469
아버지의 양육참여 -> 정서성 기질_SLOPE	.006	.022	.010	.405
어머니의 양육지식 ->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004	-.136	.088	-2.603
아버지의 양육참여 ->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228**	-.148	.028	-4.546
아버지의 양육참여 ->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	-.125**	.244	.029	7.711
어머니의 양육지식 ->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	.225***	.080	.093	1.566
	.146			

* $p<.05$, ** $p<.01$, *** $p<.001$

1차 연도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을 매개로 5차 연도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1차 연도에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β=-.136, p<.01)과 영유아 정서성 기질의 초기치(β=.205, $p<.001$)를 매개로 하여 5차 연도 아동의 행동문제(β=.428,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영유아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이 낮아져서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성 기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아동기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도에 측정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β=-.148, $p<.01$) 및 사회적 양육행동(β=.244,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각각 영유아 정서성 기질의 초기치(β=.205, p<.001, β=-.125, $p<.01$)를 매개로 하여 5차 연도 아동의 행동문제(β=.428,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긍정적인 사회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쳐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성 기질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동기의 행동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연도의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은 5차 연도 아동의 행동문제(β=-.073, $p<.01$)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행동문제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정서성 기질의 증가율이 5차 연도 아동의 행동문제(β=.545,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양육 특징적 변인들이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특징적 변인들이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을 매개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문제행동(β=.977, p<.001)과 내재화(β=.936,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패널데이터의 2008년 1차 연도부터 2012년 5차 연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궤적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유형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함께 이후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종단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은 선형 모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서성 기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적이고 기분이 쉽게 나빠지거나 자주 화를 내는 등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기질적 특징은 5년 동안의 시간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차를 유발하는 고유의 특징인 기질(Buss, 1989)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발견된다는 주장과 일치하며, 신생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아이의 기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민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심화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소영·홍세희, 2015)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기질의 영아는 생소한 환경에 심하게 저항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양육자의 돌봄에도 위로받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 양육자와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Rothbart, 1982; Seifer & Schiller, 1995; Vaughn et al., 1992), 출산 초기 및 영아기에 양육자가 부모 역할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양육 환경으로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로부터 각각 영향을 받으며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받아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의 초기치가 더 높다고 인식하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사회적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어머니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덜하다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지식이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Morawska, Winter & Sanders, 2009)을 미치고, 모성역할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지적 과정으로 임산부나 산욕부에 대한 교육이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은희·이은주·김미조·박동영·이성희, 2010)와 일치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아버지를 협력적인 공동양육자로 인식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Mulsow, Caldera, Pursely, Reifman, & Huston, 2002)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자녀발달 과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Flouri, 2010; Goncey & Dulman, 2010), 영유아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Flouri & Buchanan, 2003)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 환경으로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유아의 발달 및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은 양육 환경으로서 부모의 특징이 이후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간접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친사회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직·간접 매개 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유아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보호요인(Campbell, 2002)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친사회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양육자로서 어머니 역할을 지지하고 실제적인 양육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발달 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양육 환경으로서 부모의 특징과 이후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입 변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육 환경으로서 부모 변인 외에 사회적 지지 및 아버지의 특징 변인을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양육 환경 변인으로서 아버지의 다양한 특징이 아동의 기질 변화 양상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양육 환경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이 아동의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 발달 등 전반적인 아동의 발달 영역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그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양육 환경으로서의 부모 특징 변인이 단순히 일부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신생아 및 영유아가 성장하는 가정의 양육 환경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연희(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아동연구학회, 32(2), 29-49.

강희경, 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0(2). 41-55.

김미정, 김영희(2011).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9(5), 59-70.

김소영, 홍세희(2015).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정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아동학연구회, 35(4), 301-371.

김은희, 이은주, 김미조, 박동영, 이성희 (2010).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이 임신관련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및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0(1), 78-87.

민현숙, 문영경(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타일과 영아의 발달간의 관계.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79-593.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송연숙, 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오경자·김영아(2009). CBCL 1.5-5 매뉴얼 부모용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육아정책연구소(2012). 한국아동패널2008(1차년도) 도구프로파일.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숙, 두정일(2008).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2), 1-17.

이형인, 박혜원, 김말경, 장유경, 최유리(2008). 유아 기질의 안정성 -단기종단분석-. 대한가정학회, 46(7). 47-58.

홍세희, 유숙경(2004).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18(1). 381-392.

Achenbach TM, Rescorla LA. (2000). *Manual for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niversity of Vermont.

Bates, J. E., Maslin, C. A., & Frankel, K. A. (1985). Attachment security,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 ratings at age three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67-193.

Bates, J. E., Schermerhorn, A. C., & Petersen, I. T. (2012).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Zentner & R. L. Shiner (Eds.), Handbook of temperament (pp. 425 - 441). NY: Guilford.

Bogenschneider, K., Small, S. A., & Tsay, J. C. (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5-362.

Bornstein, M. H. (1989). Between caretakers and their young: Two modes of interaction and their consequences for cognitive growth. In M. J. Bornstein & J. S. Bruner (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Behavioral and biological perspective* (pp.147-1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Inc.

Bouchard, G., & Lee, C. M. (2000). The marital context for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The role of partner support.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 37-53.

Buss, A. (1989). *Temperaments as personality traits.* In G. A. Kohnstamm, J. E. Bates and M.K. Rothbart. (Ed.), Temperament in childhood. (pp. 49-58). John Wiley & Sons Ltd.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Campbell, S. B. (2002).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2nd ed.). NY: Guilford Press.

Chess, S., & Thomas, A. (1984). *Origins and evolution of behavior*

disorders. NY: Guilford Press.

DeLuccie, M. F. (1996). Predictors of paternal involvement and satisfaction. *Psychological Reports, 79*(3), 1351-1359.

Easterbrooks, M. A., Raskin, M., & McBrian, S. F. (2014). Father involvement and toddlers' behavior regulation: Evidence from a high social risk sample. *Fathering, 12*(1), 71-93.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Flouri, E. (2010). Fathers' behaviors and children's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3), 363-369.

Flouri, E., & Buchanan, A. (2003)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ce, 26*(1), 63-78.

Fox, N. A. & Calkins, S. D. (1993). Pathways to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teractions among temperaments, attachment and regulation. K. Rubin and J.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shyness and inhibition in childhood* (pp.81-10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Goldsmith, H. H., Lemery, K. S., Buss, K. A., & Campos, J. J. (1999). Genetic analyses of focal aspects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5*(4), 972-985.

Goncey, E. A., & van Dulmen, M. H. M. (2010). Fathers do make a difference: Parental involvement and adolescent alcohol use. *Fathering, 8*(1), 93-108.

Hess, C. R., Teti, D. M., & Hussey-Gardner, B.(2004). Self-efficacy and parenting of high-risk infants: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423-437.

Lamb, M. E. (2010).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Hoboken, NJ: Wiley. Lee, C. L., & Bates, .I.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Leidy, M. S., Schofield, T. J., & Parke, R. D. (2012). Fathers' contributions to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 N. J. Cabrera, & C. S. Tamis-LeMond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151-167). NY: Routledge.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에서 2007년 2월 11일에 인출.

Malatesta, C. Z., Culver, C., Tesman, J. R., Shepard, B., Fogel, A., Reimers, M., & Zivin, G.(1989). The development of emotion expression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lif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136.

McClowry, S. G. (2003). *Your child unique temperament: Insight and strategies for responsive parenting.* Champaign, IL: Research Press.

Meredith, W., & Tisak, J.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 107-122.

Montigny, F., & Lacharité, C. (2005). Perceived parental efficac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4), 387-396.

Morawska, A., Winter, L., & Sanders, M. R.(2009). Parenting knowledge and its role in the prediction of dysfunctional parenting and disruptive child behaviour.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5*(2), 217-226.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44-956.

Ostberg, M., & Hagekull, B. (2013).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 stressors as predictors of maternal ratings of child adjustmen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4*(3), 213-221.

Raykov, T. (2000). On the Large-Sample Bias, Variance, and Mean Squared Error of the Conventional Noncentrality Parameter Estimator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A Multidisciplinary Journal, 7*(3), 431-441.

Rodriguez, C. M. (2011). Association between independent repor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atolog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5), 631-639.

Rohner, R. P., & Veneziano, R. A. (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405.

Ross, C. E., & Mirowsky, J. (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2), 127-138.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1), 21-39.

Rothbart, M. K. (1982).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A critical analysis of Thomas, Chess, and Korn. *Merrill-Palmer Quarterly*, 35-40.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M. Lerner, & M.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99-166). NY: John Wiley & Sons.

Ruchala, P. L., & James, D. C.(1997). Social suppor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and maternal confidence among adolescent and adult mother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26*(6), 685-689.

Russell, A., Hart, C., Robinson, C., & Olsen, S. (2003). Children's sociable and aggressive behaviour with peers: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7).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7*(2), 153-158.

Seifer, R., & Schiller, M. (1995). The role of parenting sensitivity, infant temperament, and dyadic interaction in attachment theory and assess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146-174.

Shaffer, D. R. (200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engage Learning.

Shiner, R. L., Buss, K. A., McClowry, S. G., Putnam, S. P., Saudino, K. J., & Zentner, M. (2012). What is temperament now? Assessing progress

in temperament research on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Goldsmith et al. (1987).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 436-444.

Susa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1), 142-170.

Vaughn, B. E., Stevenson-Hinde, J., Waters, E., Kotsaftis, A.,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463-472.

Yogev, S., & Brett, J. (1985). Perceptions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609-618.

·교신저자: 유미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msyookr@gmail.co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g Trajectories of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Parenting Traits and Child's Behavior Problems: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Jeon Hye Jin and Yoo Mee S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trajectories of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and analyz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temperament in the influence of parenting traits to child's behavior problems in early childhood. To do this, the first through fifth longitudinal panel data set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beginning at 2008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was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linear increase in the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and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 in each of two terms(intercept and slope) was found. Second, mother's self-efficacy and social parental styl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rajectories of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Third, the trajectory of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raits(1st wave) and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5th wave), and also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5th wav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Emotional Temperament, Child Behavior Problems, Trajectory, Structural Relationship, Multivariate Laten Growth Modeling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양육행동, 양육 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유아 행동문제의 구조관계” 토론문

권연희 (부경대학교 교수)

본 발표논문은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 내 요인으로써 영아기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과 대인 간 요인으로써 부모의 영향,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양육행동 및 양육지식, 그리고 아버지 양육 참여변인을 포함하여 유아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행동문제와 관련 있다고 밝혀지고 있는 정서성 기질 변인에 대해서는 패널 자료의 특징을 토대로 0세부터 5세까지의 변화양상을 살피고,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영유아기 정서성 기질과 함께 유아의 행동문제와 관련되는 부모의 양육 변인을 다각적으로 포함하는 설계를 실시한 것은 아동패널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한 것으로 유아의 행동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유아기 행동문제의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관심이 많은 토론자 역시 흥미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본 토론자가 이해하기에 구조적 관계 결과를 살펴본 연구 자료 분석 및 해석 등에서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바, 자료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의문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자께서는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그림3의 구조모형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구조적 분석을 위하여 잠재변인인 유아 행동문제의 측정변수로 문제행동 t점수, 내재화 t점수, 외현화 t점수의 3가지 측정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동패널 자료에서 CBCL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총 문제행동 점수의 경우 내재화와 외현화 점수를 포함하는 합산점수로 산출됩니다. 이 경우 연구자께서 하신 것과 같이 잠재변인인 행동문제 변인의 측정변수로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점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현화 t점수가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높은 관련성을 보이나 구조적 관계 분석 모형에서 의미 있는 관련성이 보이지 않은 결과 역시

이러한 통계적 오류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를 논의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연구자의 연구도구에 다른 설명이 없는 바 측정점수들 간의 중복으로 인한 오류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정 후 구조적 관계 분석을 재실시하여 밝혀지는 결과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영유아기 정서성 변화 양상 및 어머니, 아버지 양육관련 변인의 영향에 대한 명료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 토론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자께서 보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설계의 측면에서 그림 1 연구모형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간에는 그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실제인 양육행동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이 영유아기 정서성 기질의 변화 양상 및 유아 행동문제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여 봅니다.

세 번째는 영유아기 정서성 기질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연구자가 13쪽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정서성 기질의 변화는 개인 변량 중 17.71%가 선형적인 시간 효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표 8, 9, 10 및 17쪽 논의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변화 양상은 선형모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서성 기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성 기질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자께서는 17쪽 논의에서 정서성이 시간 변화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에서도 토론자와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연구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12쪽 표 7에서 어머니 양육지식과 아동 문제행동 총점 간 상관계수를 -.57로 제시한 것은 표기오류로 보이며, 연구 전반에서 양육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자신감 용어를 혼재하여 서술하시는 것은 가독성을 낮추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기 5년간 정서성 기질의 변화양상을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어머니 양육변인 및 아버지 양유참여와 같은 부모 역할을 함께 고려하여 5세 유아 행동문제에 어떠한 관계구조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본 연구는 그 목적과 의의는 흥미로우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료 분석 및 해석 등에서 적절성에 의문점이 생기는 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진 뒤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너무 많은 변인을 구조적 관계모형에 포함하고자 하기 보다는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중점적인 변인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 관계모형을 검증하는 것도 어떠했을지 제안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아기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기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장효은[1)]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영아 기질,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 정서문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잠재성장 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자료의 0세부터 2세까지와 5세부터 7세까지의 자료인 1차~3차 년도와 6차~8차 년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한 결과 영아 기질 초기값이 유아 정서문제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값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결과, 6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7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낮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6세 유아 정서문제가 높을수록 7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정서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세 유아 정서문제가 높을수록 7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았고, 7세 유아 정서문제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잠재성장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기질, 양육행동, 정서문제

I. 서론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말하며, 정서능력은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다양한 감정

1)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정서경험과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Saarni, 1999). 또한 다양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능력의 총칭을 의미하기도 한다(지성애, 심재연, 김승희 외, 2011). 이러한 정서능력에 문제를 가진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내적, 외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거나 타인과 비교하여 부족함을 느끼는 등의 부정적인 사고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병연(2001)은 내,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 정서적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정서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하였고, Kaufman과 Zigler(1987)은 정서적 문제란 사회적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정서문제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히 조절하거나 표현하지 못하여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의 정서문제는 학교적응, 또래관계, 학업수행,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혜진, 2014; 이원령, 2014; 이정은, 배성만, 2015). 학령초기의 정서문제는 향후 주의집중 저하, 공격성, 비행 등 다양한 증상으로 표출된다(배율미, 조광현, 2017;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또한 Rubin과 동료들(1998)은 정서문제를 가진 유아가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Garner와 Estep(2001), Eisenberg와 동료들(2001)은 정서문제를 가진 유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유치원 적응에도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Meltzer과 동료들(2000)은 유아 기능장애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서문제를 말하였다. 발달단계에서 유아기의 정서적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유아기 정서적 문제는 이후 시기의 정서적 문제를 예측하며(Ramsawh, Weisberg, Dyck, Stout, & Keller, 2011), 유아기에 정서적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여 건강한 정서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인생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Denham, 2001). 또한 유아기는 정서처리를 담당하는 우뇌와 정서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활발하고,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정서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뇌 발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Quinn과 Hennessy(2010)는 유아기의 정서문제가 학령기 우정을 예측한다고 보았고, 박희숙(2015)은 유치원 시기의 정서능력이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Pekrun(2006)은 정서문제가 초등학교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정서는 기억을 손상시키는 인지적 부담감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Denham과 동료들(2000)은 정서문제를 가진

유아는 학령기에 외현화 문제행동을 일반 아이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김유미(2006)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다루어야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함으로써 유아의 긍정적 정서발달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였고, Vallottona와 Ayoub(2011)도 정서능력이 대인관계에서의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서문제는 유아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끼치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재화 행동이라는 폭넓은 범위 안에서 다루어졌는데, 내재화 행동은 정서적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이라는 다양한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SM 진단척도 중 정서문제 부분만을 다루어 내재화 문제 중에서도 정서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다루고자 한다. Ferdinand(2008)는 CBCL의 정서문제가 DSM-IV의 주요 우울 장애 또는 우울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여 정서문제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Diamond와 Aspinwall(2003)은 정서문제가 개인 내적 변인과 개인외적 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기질, 자아개념, 성별 등이 연구되어 왔고, 개인 외적 변인으로는 양육행동,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이 연구되어 왔는데 특히 유아 개인 변인 중 기질과 환경 변인 중 양육행동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임현주, 2016; 이찬숙, 현은자,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선행하는 영아기의 개인 변인과 유아기의 환경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유아 정서문제를 예측하고자 하며, 먼저 영아기 개인 변인인 기질을 살펴보고자 한다(Nigg, 2006; Muris & Ollendick, 2005).

기질은 한 개인의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개별적인 성향이며, 독특한 행동양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주위 환경에 의해 변화 될 수 있는 성격의 한 부분이다(Thomas & Chess, 1977). Buss와 Plomin(2014)은 기질의 구성요소를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lity) 모형으로 제시하면서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 졌다고 보았다. 정서성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강도를 말하며 분노, 공포, 울음과 같은 반응은 정서성 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활동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격렬한 활동을 보이는 특성이다. 사회성은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기질은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개인의 경향성으로 성격형성 및 정서적 행동적 특성의 기초가 되어(Caspi, & Silva, 1977), 한 개인의

사회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기질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 Martin과 Holbrook(1985)은 기질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김춘경과 장효은(2016)은 기질이 친사회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영아기 기질은 이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 할 수 있고(Mathiesen, & Sanson, 2000; Gjone, & Stevenson, 1997), 사회적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Buss et al.,, 2007; Eisenberg et al., 2003). 또한 기질은 정서경험과 관련이 있고(이경희, 이훈진, 2007),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정서행동,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신애선, 김경후, 유지은, 2015; 유지현, 이경님, 2017; 김숙령, 최항준, 정경화 외, 2012; 안라리, 김희진, 2007). 이렇게 한 인간의 발달에서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이 정서문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하며, 기질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McCall, 1990; Lengua, Kovacs, 2005)에 따라 양육행동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Windle과 Lerner(1986)는 자녀의 기질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진 양육행동이 다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자녀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내는 행동 및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돌보아 주는지를 포함하는 것이다(서기남, 문혁준, 2008). 양육행동은 아동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아동의 전반적인 행동특성과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박경자, 2001; Banez & Compus, 1990)으로 자녀의 모든 긍정적, 부정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발달, 정서조절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이혜련, 최보가, 2005; 임희수, 박성연, 2001) 문제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Frosch & Mangelsdorf, 2001). 이찬숙과 현은자(2008)는 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홍계옥(2001)은 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김춘경과 조민규(2017)는 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진아와 한귀례(2014)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윤선아(2016)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양육행동에 대해 과거에는 주 양육자인 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맞벌이가구가 늘어나면서 주 양육자가 모인 가정이 줄어들게 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가정 일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하반기 고용조사에

서 맞벌이 가구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1,188만 4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33만 1천 가구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맞벌이 가정일지라도 모가 양육과 가정 일을 책임지고 부는 도와준다는 개념이였지만 최근에는 부가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닌 모와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더 확장되어 가야한다. 새로운 역할이 더해지는 아버지를 위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서툴지만 괜찮아” 맞벌이 아버지 교실이 열렸고,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버지 교육 교실 등이 그 예시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고 예방 및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로 인해 부모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배워나갈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되었지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인식 또한 마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 변인뿐만 아니라 개인변인을 함께 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부모 양육행동과 유아 문제행동 사이의 연결고리에서 지금까지는 부모의 양육행동만을 원인으로 두었는데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기질이 유아기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의 양육행동을 함께 보고자하며, 부의 양육행동에 대해 유아의 정서문제가 미치는 영향과 유아의 정서문제에 대해 부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변인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횡단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들 변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변화하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장과 발달의 변화과정을 살펴봐야 하는 변인들의 관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해당 연구 결과는 정당성에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전현정, 정혜원, 2016). 종단연구의 경우 횡단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Gollob & Reichardt, 1987).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이 있다. 두 방법은 각각 장, 단점이 있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할 경우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Curran & Bollen, 2001).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서 개인차가 유의미한 정도를 알 수 있고,

개인차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 수 있으며, 두 변수 사이에서의 변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Ducan, Duncan, Strycher, Li & Alport, 199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분석방법이며(김동하, 2015) 각 변인들을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인들 간의 교차적 관련성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즉,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변수에 대한 개인내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개인 간 차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으나 주요 변수들 간의 변화 관계에서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할 수 없고,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상호교류적 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나 개인내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김동하, 2015).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함께 활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질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부 양육행동(통제적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을 매개로 정서문제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5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은 6세 유아의 정서문제를 매개로 7세 아동을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5세 유아의 정서문제는 6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7세 아동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의 한국 아동 패널 자료(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중 1차년도(2008년)부터 3차년도(2010년)까지와 6차년도(2013년)부터 8차년도(2015년)까지의 6개

년도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자료이며, 6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는 만 5세부터 만 7세 까지의 자료에 해당된다. 분석에 사용 된 연구대상은 1,161명이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2015년)			N(%)
가구특성	거주지역	서울권	136(11.7)
		경인권	354(30.5)
		대전/충청/강원권	168(14.5)
		대구/경북권	131(11.3)
		부산/울산/경남권	215(18.5)
		광주/전라권	157(13.5)
자녀특성	성별	남아	599(51.6)
		여아	562(48.4)
	월령	84 - 86개월	237(20.4)
		87 - 89개월	757(65.2)
		90 - 92개월	167(14.4)
아버지특성	연령	30세 이하	47(4)
		31세 - 40세	558(48.1)
		41세 - 50세	543(46.8)
		50세 이상	13(1.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2(26)
		전문대 졸업	248(21.4)
		대학교 졸업	493(42.5)
		대학원 졸업	117(10.1)
전체			1,161(100)

<표 1>에서와 같이 참여 가구는 경인권(30.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성별의 경우 남아(51.6%)와 여아(48.4%)로 남아가 3.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은 87 - 89개월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연령은 31세 - 40세가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2.5%,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6%, 전문대 졸업이 21.4%, 대학원 졸업이 10.1%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정서문제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6차년도, 7차년도에서는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를 사용하였고, 8차년도에서는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를 사용하였다. 유아행동평가척도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는 오경자, 김영아(2009, 2010)가 개발하였으며, 유아행동평가 척도는 총 100문항으로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는 총 120문항으로 9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DSM 진단기준에 따라 분류된 정서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행동평가척도에서 정서문제는 외견상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거나 주변에 무관심하고 움직임이 적고 느린 행동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포함된 문항들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불행해 보이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 등과 같은 문항들로 10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에서도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는 정서문제와 관련된 문항들로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등과 같은 문항들로 13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어가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T점수의 평균 값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Buss 와 Plomin(2014)의 EAS 기질척도(The EAS -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를 사용 하였다. EAS 기질척도는 1세 영아부터 성인까지 사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세에서 9세까지 사용 가능한 부모 평정형 도구를 사용하였다. EAS의 하위영역으로는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나, 1차, 2차년도에서 사회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3차년도의 정서성과 활동성 하위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정서성 5문항, 활동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성 2번과 5번은 역채점 문항이다. 정서성은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등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서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활동성은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인 특

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본 척도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정서성(1차: .75, 2차: .74, 3차: .74), 활동성(1차: .70, 2차: .78, 3차: .78)으로 나타났다.

다.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 외(1999)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지필식 질문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통제적 양육행동과 온정적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6문항이 구성되어져 있고,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등과 같은 문항들로 6문항이 구성되어져 있다. 본 척도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통제적 양육(6차: .77, 7차: .77, 8차: .78), 온정적 양육(6차: .87, 7차: .83, 8차: .87)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영아의 기질과 부의 양육태도, 유아의 정서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내 변화 양상과 각 변인간의 변화율 관계를 확인 할 수 있고 종단자료를 활용해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박현정, 이진실, 2013). 또한 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문제 간 종단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실시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며,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잠재성장 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통계프로그램인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 처리를 위해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FIML을 활용하면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결측치가 있는 자료일지라도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Arbuckle & Wothke, 1999). 이 방법은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는 종단연구

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Enders & Bandalos, 2001).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X^2)과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 Index; (Tucker & Lewis, 1973)),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Byne, 1998))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값의 경우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05와 .08사이는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된다(문수백,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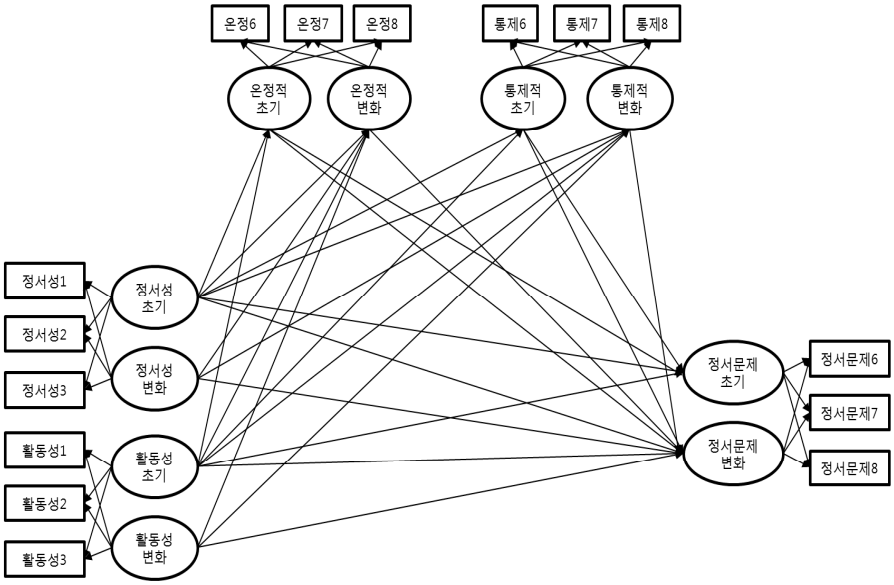
4. 연구모형

1) 잠재성장 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모형 :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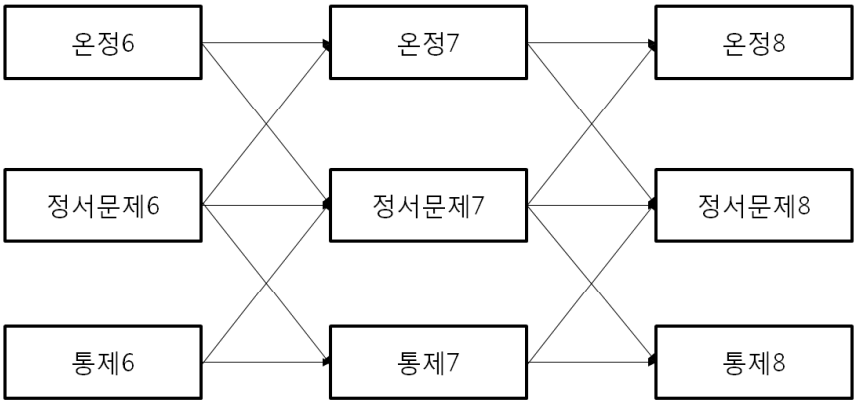
잠재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 1을 통해서는 영아기 기질(정서성, 활동성) 초기치와 변화율이 아버지의 양육행동(통제적, 온정적)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문제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모형: 연구모형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 모형 2를 통해서 5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통제적, 온정적)이 6세 유아의 정서문제를 매개로 7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또한 5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6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통제적, 온정적)을 매개로 7세 유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1



〔그림 2〕 연구모형 2

III. 연구결과

1. 요인 별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양상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과 유아의 정서문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년도에 따른 평균값을 구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해보면, 영아의 정서성은 점점 증가하여 1차년도에 평균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아의 활동성은 2차년도에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6차년도에 3.33 7차년도에 3.34, 8차년도에 3.38로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온정적 양육태도는 5차년도에 3.63, 7차년도에 3.59, 8차 년도에 3.57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했을 때, 모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20을 넘지 않아서 주요 변인들이 단변량 정규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05).

〈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정서성	1차	2.75	0.61	1.00	5.00	.468	.347
	2차	2.76	0.59	1.20	5.00	.513	.351
	3차	2.87	0.60	1.20	4.80	.240	.014
활동성	1차	3.71	0.53	1.60	5.00	-.020	-.022
	2차	3.90	0.57	1.60	5.00	-.146	-.203
	3차	3.88	0.58	1.40	4.50	-.199	-.059
통제적 양육태도	6차	3.33	0.52	1.17	5.00	-.458	-.032
	7차	3.34	0.50	2.00	5.00	.054	-.286
	8차	3.38	0.55	1.83	5.00	-.066	.037
온정적 양육태도	6차	3.63	0.59	1.33	5.00	-.154	.447
	7차	3.59	0.50	2.20	5.00	.233	-.043
	8차	3.57	0.54	1.17	5.00	-.469	.484
정서문제	6차	52.69	4.91	50	75	2.049	4.158
	7차	52.18	4.46	50	78	2.327	5.388
	8차	52.13	3.76	50	66	1.664	1.800

2. 변인별 분석모형

연구 문제 1인 영아의 기질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부의 양육태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 정서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기술통계에서 정서성,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정서문제 변인은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네 변인에는 선형변화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활동성 변인의 경우에는 무변화 모형을 적용하였다(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각 변인들이 측정시점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갖는지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각 요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N=1,161)

		x^2	TLI	CFI	RMSEA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정서성	무변화	71.094	.909	.879	.120	2.788***		.149***	
	선형변화	9.705	.953	.984	.087	2.731***	.062***	.209***	.048***
활동성	무변화	187.354	.776	.701	.199	3.837***		.132***	
	선형변화	53.270	.744	.915	.212	3.743***	.079***	.146***	.047***
통제적 양육행동	무변화	20.463	.983	.977	.060	3.349***		.131***	
	선형변화	2.928	.992	.997	.041	3.324***	.028**	.148***	.018**
온정적 양육행동	무변화	19.318	.987	.982	.057	3.592***		.151***	
	선형변화	1.286	.999	1.000	.016	3.623***	-.029***	.151***	-.013*
정서문제	무변화	112.698	.748	.663	.153	52.286***		4.977***	
	선형변화	3.401	.978	.993	.045	52.635***	-.281***	16.240***	3.702***

* $p < .05$, ** $p < .01$, *** $p < .001$

세 시점에서 정서성과 정서문제의 경우 무변화 모형에서는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형변화에 적용시킨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성과 정서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은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성은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두에서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정서성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반면, 온정적 양육행동, 정서문제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요인 별 분석모형 결과를 토대로 4가지 변인(정서성,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정서문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요인별 분석결과에서 4가지 모형 변화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네 가지 변인에 대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을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는 .938 CFI는 .960, RMSEA는 .046(HI: .054, LO: .038)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최종모형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최종모형 1의 모수추정치

모수			비표준 화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정서성 초기	→	온정적 양육행동 초기	-.129	.048	-.140
정서성 초기	→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	.156	.066	.094
정서성 초기	→	정서문제 초기	2.446	.436	.259
정서성 초기	→	정서문제 변화	-.493	.258	-.109
온정적 양육행동 초기	→	정서문제 초기	-.787	.401	-.077
정서성 변화	→	정서문제 변화	1.121	.590	.105

초기치와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첫째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유아를 양육하는 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낮아(β=-.140)졌고,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β=.094)졌다. 둘째, 영아의 정서성 기질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문제는 높아(β=.259)졌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β=-.109)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아버지의 온정

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문제는 낮아(β=.-.077)졌다. 넷째,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정서문제는 점차 증가(β=.105)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방법을 활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최종모형 1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정서성 초기 → 온정적 양육행동 초기 → 정서문제 초기	.102*

정서성과 온정적 양육행동, 정서문제 간 초기치 값에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낮아지며,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유아의 정서문제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결과

연구문제 2, 3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문제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시점에 따라 자기회귀계수(A, B, C)가 동일한지, 두 번째로 교차지연계수(D, E, F, G)가 동일한지, 세번째로 잔차공분산(H, I, J)이 동일한지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2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분석한 결과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TLI .916. CFI .941 RMSEA .079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적합도로 판단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라 교차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를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최종모형 2의 모형의 적합도

모형	X^2	*df*	TLI	CFI	RMSEA
모형1 (기본모형)	334.310	13	.868	.952	.098
모형2	335.743	14	.877	.952	.095
모형3	335.784	15	.885	.952	.092
모형4	337.722	16	.892	.952	.089
모형5	351.566	17	.895	.950	.088
모형6	352.318	18	.901	.950	.085
모형7	357.538	19	.905	.950	.084

모형	X^2	*df*	TLI	CFI	RMSEA
모형8	360.075	20	.909	.949	.082
모형9	379.923	21	.908	.947	.082
모형10	383.020	22	.912	.946	.080
모형11	388.215	23	.915	.946	.079

연구모형 2를 분석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기본모형의 적합도(모형1)를 시작으로, 모형2부터 8모형은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9모형에서 11모형에서는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1(기본모형) 값을 중심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형(2, 3, 4)과 매 시점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형(5, 6, 7, 8), 마지막으로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9, 10, 11)으로 갈수록 TLI, CFI, RMSEA에서 적합한 수치가 나타났다. 따라서 일련의 경로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통해 모형 11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 11의 각 경로계수 중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경로를 중심으로 제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최종모형 2의 모수추정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온정6	→	정서문제7	-.613	.106	-.077
정서문제6	→	온정7	-.005	.002	-.018
정서문제6	→	통제7	-.003	.001	-.030
온정7	→	정서문제8	-.613	.106	-.066
정서문제7	→	온정8	-.005	.002	-.017
정서문제7	→	통제8	-.003	.001	-.029

정서문제의 이전 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시점 온정적 양육행동이 1 더 높아질수록 다음시점 정서문제는 -.07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정적 양육행동의 이전 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정서문제가 1 더 높아질수록 다음 시점 온정적 양육행동은 -.01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통제적 양육행동의 이전 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시점 정서문제가 1 더 높아질수록 다음 시점 통제적 양육행동은 -.030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최종모형 2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온정_6차 → 정서문제_7차 → 온정_8차	.254*
정서문제_6차 → 온정_7차 → 정서문제_8차	.329*

첫째, 5세 유아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6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낮았으며, 6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낮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높을수록 6세 유아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졌으며, 6세 유아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정서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아지면 유아의 정서문제가 낮아져 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계속 높아질 수 있지만, 유아의 정서문제가 낮으면 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아져 유아의 정서문제는 계속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서문제 변인과 통제적 양육행동 변인 사이에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고, 5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6세 유아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6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동패널 1차(0세), 2차(1세), 3차(2세), 6차(5세), 7차(6세), 8차(7세) 자료를 활용하여 영아 기질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아버지 양육행동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 정서문제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 양육행동과 유아 정서문제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였다.

첫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의 통제적 양육행동, 부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문제 간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초기치 값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유아기 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낮았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유아의 정서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박현주, 안선희(2017)의 연구에서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때는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상관없이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아버지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장효은(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긍정적인 기분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서를 느끼는 순한 기질의 유아에게는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 자주 울고, 짜증내고, 보채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에게는 부모와 유아가 맺는 애착관계에서 '냉담함'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인 부정적 정서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유아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또한 최주희(2017)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내재화 문제행동 중 정서적 반응성 문제행동과 위축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2011)은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방식이 유아의 정서 불안정, 분리불안과 같은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흔히 짜증을 많이 내고 징징거림이 많고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보이는 유아에게 부모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취하기 쉬워지지만(Kyrios & Prion, 1990; Hemphill & Sanson, 2000; 류칠선, 최선녀, 최유경, 2013) 본 연구결과를 통해 그러한 부정적 양육행동의 결론이 유아기 정서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유아의 정서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아를 온정적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에게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더욱 중요함을 밝혀낸 것에서 매우 큰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인 간 직접효과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정서문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 때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유아기 정서문제에 대한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의미하며, 횡단적 선행연구(조혜진, 이기숙, 2004; 김경희, 2004; 임현주, 2015)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에 부정적 정서성을 많이 보인다면 같은 시기에 정서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영아기에 부정적 정서성을 많이 보인다면 유아기에 정서문제를 보일 확률이 다소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적 정서성을 많이 보이는 영아들이 유아기에 정서문제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이다.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본 논문에서는 부의 양육행동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연구문제 2번과 3번에 나타나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이 선행변인의 오차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선후관계를 반영한 종단적 매개

효과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유아 정서문제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보적 인과관계를 교차회귀계수를 통해 검증한 결과, 부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달리 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5세 유아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6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낮았고, 6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낮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은 자녀의 정서문제는 다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문제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횡단연구는 많았지만 종단연구는 미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낮아진 자녀의 정서문제가 다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이 선순환 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유아의 정서문제와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교차지연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정미경, 김영희, 2003; Ramchandani et al., 2008, 조옥자, 현온강, 2005). 그러나 곽소현, 김순옥(2007)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외현화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현주(2015)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내재화 문제에 모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나 여아의 내재화 문제에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보지 않아 남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아에게 미치지 않는 영향이 합쳐져 결과적으로 영향이 상쇄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인숙, 양혜정(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증가했지만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는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한인숙과 양혜정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해 훈육적 양육행동이라 표현하였으며했는데, 이는 통제적 양육행동의 문항 내용이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나는 아이의 공격행동을 제지한다',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등과 같은 문항들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반되는 선행연구들로 인해 유아의 정서문제와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종단적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5세 유아 정서문제가 높을수록 6세 유아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았고, 6세 유아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정서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높을수록 6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았고, 6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와 3에 대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문제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으로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문제가 낮은 경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아의 정서문제를 낮추는 데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5세 유아의 정서문제가 높을 때에 아버지들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높여서 유아의 추후 정서문제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모든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들만 연구되어 왔다(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최항준, 2017).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와 변인들 간의 상호 영향 방향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의 정서문제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양명재, 방희정, 2014; 유숙경, 이승희, 2012;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외, 2013)는 많았으나 인과관계에 있어 항상 부모의 양육행동만이 선행되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유아의 정서문제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아진다는 결과는 가정의 악순환 역동성을 설명한 Patterson(1982)의 ‘coercive process‘ 이론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Patterson은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은 부모와의 혐오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제적 양육행동의 문항 내용이 ‘나는 아이가 공중도덕을 지키게 한다’,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와 같은 훈육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가 자주 울고, 짜증내고 보채는 행동을 보일 때 아버지는 규칙과 규율에 대해 엄격하게 훈육을 하는 모습을 덜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연구문제 2의 결과처럼, 아버지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해서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서문제를 보이는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행동도 통제적인 양육행동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서문제를 가진 자녀를 보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행동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서 영아 기질이 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문제 간 교차지연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늘어나는 아버지 교실의 교육내용에 온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특별히 더 다루어야 하며, 그 외에 부모교육에서나 정서문제를 가진 유아를 상담할 때에도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제 행동에 선행하는 정서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유아, 학령초기 아동의 정서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아기 기질이 부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기질, 양육행동, 정서문제를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시간경과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변인들 간의 실증적 관계 및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전현정, 정혜원, 2016). 특히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좀 더 엄밀하고 정확한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횡단적 연구가 가지는 통계분석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시간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유아기 정서문제에 선행하는 영아기 변인을 확인하여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높였으며, 아버지 양육참여의 기대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아버지의 적절한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 점에서 기초자료로써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유아기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아기 기질과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행동 외에 개인 내적, 환경적 변인을 활용하여 유아기 정서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기질은 1차, 2차, 3차를 활용하였고, 유아기 정서문제는 6차, 7차, 8차를 활용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6차, 7차, 8차만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기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기의 아버지 양육행동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결과들이 있어왔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더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5세, 6세, 7세 시점 이후의 자료를 추적 조사

하여 아동기에 대한 세 변인의 종단적 양상과 유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미숙(2015).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애착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6), 783-793.

곽소현, &김순옥. (2007).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권혜진(2014). 아동의 정서문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9(3), 1-18.

김경희(2004). 아동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 및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355-373.

김동하(2015). 가구소득, 부모우울, 청소년 공격성 간의 종단적 상호교류관계 분석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매개모형을 이용하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김숙령, 최항준, 정경화, 이윤이(2012). 영아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사회,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551-575.

김유미 (2006). 뇌호흡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습능력 및 정서안정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6(1), 5-18.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2010).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1(3), 175-202.

김진아, 한귀례(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김춘경, 조민규(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6, 33-56.

류칠선, 최선녀, 최유경(2013). 영아의 기질, 영아의 발달특성,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177-196.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박경자(2001). 1세 영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Q-sort 분석. 대한가적학회, 39(1), 137-149.

박현주, 안선희(2016). 걸음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관계. 한

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83-283.

박희숙(2015). 유아기 정서능력이 취학 후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기 종단적 접근. 유아교육학논집, 19(3), 53-70.

배율미, 조광현(2017).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유아 교육학논집, 21(1), 633-653.

서기남, 문혁준(2008).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 (DAP) 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기 양육경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23-40.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과 권리, 17(1), 109-135.

신애선, 김경후, 유지은(2015).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3), 173-191.

안라리, 김희진(2007).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45(2), 133-145.

양명재, 방희정(2014). 유아의 수줍음, 인지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위축 및 불안·우울 간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363-386.

유숙경, 이승희(2012). K-CBCL 1.5-5와 Gottman의 양육방식 유형에 의한 유아의 정서행동문제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8(2), 1-22.

유지현, 이경님(2017).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277-303.

윤선아(2016).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부모 양육태도, 정서문제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910-933.

이경희, 이훈진(2007).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질과 대처양식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79-795.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이원령(2015).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변인 연구. 정서·행동 장애연구, 31(3), 401-420.

이정은, 배성만(2015). 대인관계 만족도, 인터넷 게임중독 및 정서적 문제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687-701.

이찬숙, 현은자(2008).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변인과 부모양육태도. 유아교육연구, 28(3), 51-71.

이혜련, 최보가(2005).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43(5), 1-14.

임현주(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임현주(2016). 유아의 자아개념, 어머니의 양육변인, 사회적 지원이 유아의 외현화 ·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5), 191-211.

임현주. (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임희수,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장효은(2015). 부모의 자녀 애착과 정서지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유아 기질에 따른 차이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장효은, 김춘경(2016). 부모의 자녀 애착과 정서지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미치는 영향: 유아 기질에 따른 차이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1), 127-154.

전현정, 정혜원(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15-242.

정미경,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 41(8), 123-137.

조병연(2001). 태권도 수련이 아동기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옥자, 현온강(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조혜진, 이기숙(2004).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24(4), 263-284.

지성애, 심재연, 김승희, 임성혜(2010) 유아놀이 유형과 언어 · 사회적 · 정서능력과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135-159.

최주희(2017).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방식에 따른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최항준(2017). 유아의 기질, 아버지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 및 영향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4, 23-52.

통계청(2016).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대전: 통계청.

한인숙, 양혜정(2015). 부부갈등 및 부모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 문제행동의 종단적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3), 287-317.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Arbukle, J. L., & Wothke, W. (1999). AMOS 4.0 users guide. Chicago: SmallWaters Corporation.

Banez, G. A., & Compus, B. E. (1990). Children's and parent's daily stressful event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Abonormal Child Psychology, 18(6), 591-605.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Buss, A. H., &Plomin, R. (2014). Temperament (PLE: Emotion):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Vol. 3). Psychology Press.

Buss, K. A., Dennis, T. A., Brooker, R. J., &Sippel, L. M. (2011). An ERP study of conflict monitoring in 4 - 8-year old children: Associations with temperament.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1(2), 131-140.

Byrne, B.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aspi, A.,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qualities at age three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6(2), 486-498.

Curran, P. J., &Bollen, K. A. (2001). The best of both worlds: Combining autoregressive and latent curve models.

Denham, S. A. (2001). Dealing with feelings: Foundations and consequence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5-10.

Denham, S. A., Workman, E., Cole, P. M., Weissbrod, C., Kendziora, K. T., &ZAHN - WAXLER, C. A. R. O. L. Y. N.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1), 23-45.

development of toddlers'self-regula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6(2), 169-181.

Diamond, L. M., &Aspinwall, L. G. (2003). Emotion 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An integrative perspective emphasizing self-regulation, positive affect, and dyadic process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125-156.

Duncan, T., Duncan, S., Stryker, L., Li, F., & Alpert, A. (2006).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Mahwah, NJ: Erlbaum.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Eisenberg, N., Haugen, R., Spinrad, T. L., Hofer, C., Chassin, L., Zhou, Q., ... &Liew, J. (2010). Relations of Temperament to Maladjustment and Ego Resiliency in At risk Children. Social Development, 19(3), 577-600.

Enders, C. K., &Bandalos, D. L.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430-457.

Ferdinand, R. F. (2008). Validity of the CBCL/YSR DSM-IV scales anxiety problems and affective problem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1), 126-134.

Garner, P. W., & Estep, K. M. (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29-48.

Gjone, H., &Stevenson, J. (1997). A longitudinal twin study of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common genetic or environmental influenc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6(10), 1448-1456.

Gollob, H. F., &Reichardt, C. S. (1987). Taking account of time lags in causal models. Child development, 80-92.

Hemphill, S., & Sanson, A. (2000). Relations between toddler and preschooler 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in an Australian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16th Biennial Meeting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 Development Beijing, China, July.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2), 186-192.

Kline, T.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Kyrios, M., & Prion, M. (1990). Temperament, stress and family factors in behavioral adjustment of 3-5-year-ol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 67-93.

Lengua, L. J., &Kovacs, E. A. (2005).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and the prediction of adjustment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1), 21-38.

Martin, R. P., &Holbrook, J. (1985). Relationship of temperament characteristics to the academic achievement of first-grade children.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2), 131-140.

Mathiesen, K. S., &Sanson, A. (2000). Dimensions of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from 18 to 30 month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15-31.

McCall, R. B. (1990). Infancy research: Individual differences.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141-157.

Meltzer, H., Gatward, R., Goodman, R. & Ford, T. (2000).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 in Great Britain. The Stationery Office, London, UK

Muris, P., &Ollendick, T. H. (2005). The role of temperament in the etiology of child psychopathology.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8(4), 271-289.

Nigg, J. T. (2006).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 4), 395-422.

Pekrun, R. (2006). The control-value theory of achievement emotions: Assumptions, corollaries,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8(4), 315-341.

Quinn, M., &Hennessy, E. (2010). Peer relationships across the preschool to school transitio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1(6), 825-842.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egon: Castalia.

Ramchandani, P. G., Stein, A., O'connor, T. G., Heron, J. O. N., Murray, L., &Evans, J. (2008). Depression in men in the postnatal period and later child psychopathology: a population cohort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7(4), 390-398.

Ramsawh, H. J., Weisberg, R. B., Dyck, I., Stout, R., &Keller, M. B. (2011). Age of onset,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15-year course of anxiety disorders in a prospective,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2(1), 260-264.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

Schoppe, S. J., Mangelsdorf, S. C., &Frosch, C. A. (2001). Coparenting, family process, and family structure: Implications for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526.

Thomas, A.,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Brunner/Mazel.

Tucker, L. R.,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Vallottona, C., & Ayoub, C. (2011). Use your words: The role of language in the

Windle, M.,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13-229.

Mediation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in the Influence of Infant's Temperament to Children's Affective Problems: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Jang Hyo Eun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on the influence of infant's temperament to children's affective problems and to examine systematic relationship among father's parenting behavior(control/warmth) and children's affective problems. For this purpose, latent growth modeling and autoregressive corss-lagged modeling was used and were adapted to the data taken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Wave I (0-year olds) to Wave III (2-year olds) and Wave VI (5-year olds) to Wave VII (7-year ol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tion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were significantly existed. First, the results from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showed that father's parenting behavior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infant's temperament to children's affective problems. Second, the result fro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howed that affective problems of 6-year old children was low as the parental behavior(warmth) of the father putting 5-year old children was high. And the parental behavior(warmth) of the father putting first grade student became high. Third, parental behavior(warmth) of the father putting 6-year old rose as the affective problems of 5-year old children was low. And the affective problems of first grade student became high. Moreover, the higher the affective problem of the 5-year-old children, the less parental behavior(control) of the father putting 6-year-old children. The

higher the affective problem of the 6-year-old children, the less parental behavior(control) of the father putting first grade studen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 affective problem

“영아기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기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기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토론문

문영경 (대전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기의 기질이 유·아동기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매개적인 역할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만 0-2세 시기의 기질을 정서성과 활동성으로 측정하였으며, 만 5세에서 7세 시기의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온정과 통제의 두가지 측면으로 측정하였으며, 만 5세에서 7세 시기의 DSM 4 기준의 정서문제를 측정하여 그들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 중 DSM-4의 정서문제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추출하여 측정함으로서 유아기 정서문제에 초점을 두어 다른 연구들과 차별됩니다. 또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함으로서 유아기 정서문제의 원인으로서 생애 초기의 기질의 역할 뿐 아니라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밝혀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정서문제와 아버지 양육행동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서 종단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근거하여 각 변인들의 변화양상과 변화양상 간의 관련성 그리고 변인들 간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교차적 관련성을 충실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도 눈에 띄고 있어,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몇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제목과 연구설계가 일치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주요한 연구목적을 영아기 기질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기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주제는 연구문제 1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문제 2, 3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문제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검증

하고 있어, 영아기 기질과는 무관한 두 변인들 간의 관계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의 주제와 무관하며, 오히려 patterson(1982)의 coercive process 이론을 검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2개의 주제가 한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연구의 간결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구문제 1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혹은 연구주제에 맞추어 연구문제 2, 3의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연구의 초점을 좁힌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나, 연구자의 연구초점인 정서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자는 서론에서 정서문제에 대해 사회적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며,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히 조절하거나 표현하지 못하여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Kaufman & Zigler 1987)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많은 연구자들이 유아기 문제행동으로 정의하고 연구되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중 내재화 문제행동 중 DSM-4의 정서문제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추출하여 정서문제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자가 정의한 정서문제의 개념 및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서문제의 정의의 모호성과 더불어 연구자는 서론에서 상당부분 유아의 문제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이찬숙, 현은자, 2008; 임현주, 2015)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정서문제를 연구하였다고 인용한 선행연구들(고미숙, 2015; 권혜진, 2014; 김진아, 한귀례, 2014)도 아동청소년패널에서 정의한 정서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개념에는 공격성, 주의집중, 신체적 증상, 사회적 위축, 충동성, 우울, 불안 등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하위측정요인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행동을 연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구자가 정서문제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하였다면 서론의 선행연구들은 상당히 다른 개념을 연구한 자료를 참고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는 데에서도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연구들만을 참고하여 서론과 연구의 논의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과 더불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아버지 양육행동을 관련 변인으로 선정한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선행연구의 상당부분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연구하거나, 부모를 모두 연구하고 있음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데, 왜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행동 만을 중요 변인으로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자도 논의에도 언급한 바 있으나 영아기 기질이 왜 굳이 영아기를 제외한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지 서론에서 충분하게 서술되지 않아 궁금하였습니다. 이는 패널자료의 한계성에 의한 것으로 이해가 되나 서론에서 영아기 기질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연구결과의 해석 및 논의에서 좀 더 세심하고 풍부한 논의가 기대됩니다.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을 때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도 각각의 변인은 의미있는 선형변화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기 기질인 부정적 정서성은 점차 증가하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정서문제는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변인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흥미있는 연구결과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정서문제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연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종단연구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유아의 정서문제에 있어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서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 더 의의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논문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토론자의 논의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더 나은 논문을 위한 제안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 유아와 빈곤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학습준비도 및 학교적응

이완정[1)]　　김미나[2)]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상대빈곤 경험 유아와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기 3년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잠재성장모형으로 살펴보고,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취학 전 학습 준비도와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모형으로 분석해보는 것이었다. 자료의 분석결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개인차를 보였다. 일반 유아 집단의 경우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취학 전 학습준비도를 매개로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빈곤 유아 집단의 경우 문제행동의 초기치만이 학습준비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행동의 유의한 감소가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개인별 조기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아동패널, 빈곤 유아, 문제행동 발달궤적, 학습준비도, 학교적응

Ⅰ. 서론

근래 OECD국가들은 영유아기의 조기 투자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시점의 출발선에서 지체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 ECEC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유아를 위해 누리과정제도를 도입하고, 전 연령 무상교육을 통해 특히 빈곤 아동이 출발선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영유아기 정책의 효과는 대개 아동의 취학 전 학습준비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으로 측정되어 왔다. Fantuzzo, Bulotsky-Shearer, Fusco 등(2005)에 따르면, 유아기 발달과 교육 경험이 아동기 초등

1)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2) 인하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전공 박사과정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패널 조사(예: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7)나 국가 수준의 대규모 연구(예: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에서 유아기에 사회적, 정서적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초등입학 후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쉽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부적응 문제는 일반적으로 Cicchett와 Sroufe(2000)의 '발달적 정신병리 관점'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유아기 발달 패턴을 이해하여야 이후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발달적 정신병리 시각에 따라 유아기에 문제 행동 등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Birch & Ladd, 1996; Olson & Hoza, 1993)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유아의 문제행동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이 문제행동의 개인 간 차이를 조사한 후 어떤 변인들이 개인 간 문제행동 차이를(김이영, 2014; 이순자・유수옥, 2012)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했을 뿐, 연령의 증가에 따른 문제행동의 개인내적 변화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Bub, McCartney와 Willett(2007)은 NICHD SECCYD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잠재성장 모형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초등 1학년에서의 인지 능력 및 성취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생후 24개월과 초등 1학년 시기에 개인 간, 개인 내적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후 24개월에 내재화 및 외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높았던 아동은 초등 1학년 입학 후 인지 능력이나 학업성취 점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아동패널 조사는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반복측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패널 참여 유아의 개인 내 문제행동이 어떤 발달궤적을 보이는지 잠재성장 모형으로 분석해보고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초등 입학 후 학교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의 직접적인 예측변인으로는 취학 전 학습준비도가 많이 꼽힌다. Hair, Halle, Terry-Humen 등의 연구(2006)에서 취학 전 학습 준비도는 초등 1학년의 학업성취와 신체적, 사회적 발달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Dowsett, Claessens 등(2007)은 6개의 종단연구 데이타를 메타분석 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 후의 읽기 및 수학 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유아기 학습준비도의 세 가지 요소는 인지능력, 주의집중도 및 사회정서적 기술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다른 연구(Masten & Coatsworth, 1998)에서도 취학 전 자기 통제력이 학

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 능력 등과 같은 학업관련 사회적 기술 준비 정도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들도 다수(Buhs & Ladd, 2001; Hamer & Pianta, 2001; 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있다.

우리나라 아동패널 조사에서도 취학 전 유아의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학습에 대한 태도 외에 사회정서발달과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취학 전 학습 준비도를 조사하고 있다. 취학 전 학습준비도의 다면적 측면을 감안하건대, 유아의 문제 행동은 유아의 주의 집중이나 자기 통제, 그리고 또래나 교사와의 순조로운 관계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취학 전 학습 준비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Fantuzzo, Bulotsky-Shearer, McDermott 등의 연구(2007)에 의하면, 유아기관에서 나타내는 사회정서 행동은 취학 전 학습 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문제행동은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유아의 동기, 주의집중 수준, 학습에 대한 태도(McWayne et al, 2004)나 자기 통제력, 과제 집중성(Fantuzzo et al, 2004) 등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취학 전 학습준비도는 유아기 문제행동의 궤적과 초등학교 입학 후의 학교적응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아동기 학업 성취를 방해하는 유아기 위험요소를 중재하고자 할 때 빈곤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Connell & Prinz, 2002). 성장과정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유아기 주요 발달 결과물의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것이 적절히 중재되지 않았을 때 아동의 중장기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Mallory와 Kearns(1998)에 따르면, 유아기관의 교사들은 빈곤 아동의 문제행동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이는 교사의 보고가 자칫 빈곤 아동에게 낙인을 찍는 부적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횡단연구를 통해 교사에게 유아의 문제행동을 조사하였을 때 교사는 유아 개인의 내적 특성보다는 유아들의 개인 간 차이에 영향을 받아 응답하기가 쉬우며, 문제행동의 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지 않은 유아의 개인 내 지속성이나 변화는 무시되기 쉽다. 그러므로 유아기 문제행동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잠재성장 모형을 통해 발달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문제행동의 개인 내적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유아의 취학 전 학습 준비도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유아 집단과 유아

기에 상대빈곤을 경험한 유아 집단을 구분하여 변인 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빈곤 유아를 위한 조기 중재에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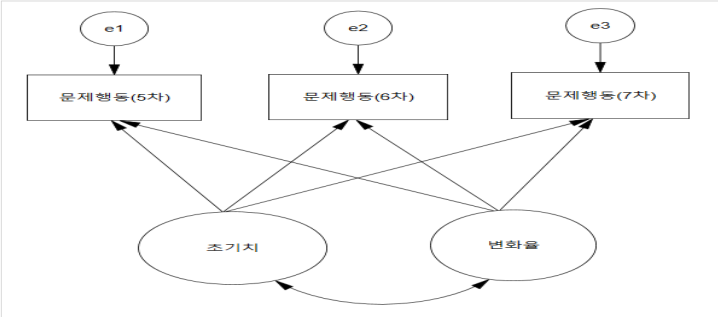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와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유아 집단의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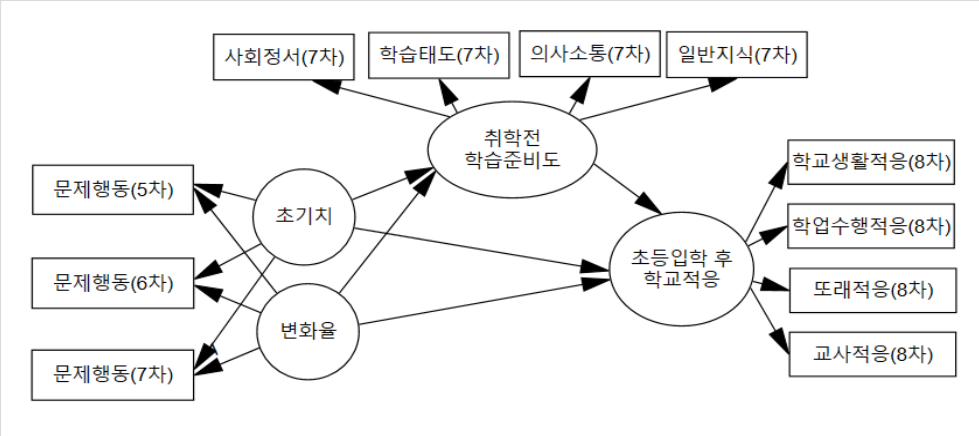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일반유아 집단에서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취학 전 학습 준비도와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빈곤경험 집단의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빈곤경험 집단에서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취학 전 학습 준비도와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모형 1] 유아기 문제행동의 잠재성장 모형



[연구모형 2]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취학 전 학습준비도와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2012(5차)년부터 2015(8차)년까지 총 4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빈곤 경험 유아와 일반 유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아기에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의 유아를 추출하였다. 상대빈곤 가구는 매해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을 아동이 포함된 전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가구 당 '균등화 처분가능소득[3]'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이는 상대적 빈곤율 추정 시 OECD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강신욱, 유진영, 이주미, 2016).

먼저, 월평균 소득은 가구 근로(사업)소득, 가구 사적이전소득, 가구 자산소득, 가구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아동패널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조사되었으므로 이 값을 사용하였고, 2012년도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계산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 때, 2012년에는 기타소득도 조사되지 않아 2011년에 기타소득이 있었던 가구(N=67)의 경우 이 값을 2012년 기타소득 값으로 사용하고, 2011년에 기타소득이 없었던 가구는 2012년에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단계에서 각 자료 값이 있는 가구는 전체 데이터 2,150가구 중 총 1,677가구가 추출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가구에 대하여 2012년, 2013년, 2014년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아동이 포함된 전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년도별 가구 당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구하였다. 그리고 각 가구의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액이 <표 1>에 제시된 중위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당해 연도 상대빈곤 가구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2014년도 77가구, 2013년도 128가구, 2012년도 95가구가 빈곤 경험 가구로 추출되었다.

〈표 1〉 각 년도 중위소득 기준 및 상대빈곤 경험 유아의 추출

	균등화 중위소득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 가구수
	전체가구	중위 50% 이하	(유효 %)
2012년	177.11만원	93.94만원	77(4.4)
2013년	183.36만원	91.63만원	128(7.5)
2014년	187.89만원	88.56만원	95(6.4)

3) 가구균등화지수 = 월평균가구소득/√¯가구원수

본 연구에서 빈곤 경험 유아는 유아기 3년 간 상대빈곤을 1회 이상 경험한 유아로 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아기 상대빈곤 경험 유아는 170명이 되었다. 이는 처음 단계에서 추출된 1,677가구의 약 10.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일반 유아 집단은 상대빈곤 경험 유아를 제외한 나머지 1,507명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따른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문제 행동

5차~7차년도(2012, 2013, 2014년도)에 걸쳐 조사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CBCL 1.5-5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CBCL 1.5-5(한국판 영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도남희, 민정원, 왕영희, 이예진, 김소아, 엄지민, 2013). 이 척도는 18개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서 관찰되는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10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과 외현화 문제행동(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문제)을 모두 포함하였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까지 총 3점 리커트 척도로 부모가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학습준비도

아동의 학습준도비는 Murphey와 Burns(2002)의 학교준비도기준(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을 한국아동패널(2014)에서 번역한 것으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된 7차년도(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습준비도 척도는 사회·정서발달 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8문항), 의사소통(3문항),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5문항) 4개 하위영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web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행동발달 질문지는 부모가 평정하였다.

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지성애, 정대현(2006)의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패널 아동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web설문지 형식으로 평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수행적응 11문항, 또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5문항의 4개 하위영역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총 2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 등 3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 측정한 8차년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및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5~7차년도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의 양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궤적에 개인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 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 유아와 빈곤경험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궤적과 취학 전 학습준비도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 유아와 빈곤경험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 학습준비도 및 학교적응 차이

일반 유아와 빈곤경험 유아 집단 간의 유아기 문제행동, 취학 전 학습준비도, 그리고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집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행동의 집단 차이는 5차년도($t=-1.94$, $p>.05$)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6차년도($t=-2.30$, $p<.05$)와 7차년도($t=-2.51$, $p<.05$)에는 집단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빈곤경험 유아 집단의 문제행동이 6차년도 48.75, 7차년도 47.59로 일반 유아 집단의 6차년도 46.84와 7차년도 45.50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일반 유아와 빈곤경험 유아 집단의 차이

		일반 유아		빈곤경험 유아		t
		M	SD	M	SD	
유아기 문제행동 (5~7차)	5차 문제행동	49.36	9.82	50.96	10.23	-1.94
	6차 문제행동	46.84	9.94	48.75	10.88	-2.30*
	7차 문제행동	45.50	9.93	47.59	10.78	-2.51*
취학 전 학습준비도 (7차)	사회정서발달	3.49	.39	3.41	.42	2.29*
	학습에 대한 태도	3.49	.40	3.38	.46	2.82**
	의사소통	3.61	.46	3.49	.52	2.68**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3.64	.39	3.51	.45	3.51**
	학습준비도 평균	3.56	.35	3.45	.40	3.59**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 (8차)	학교생활적응	4.11	.93	3.76	1.02	3.66***
	학업수행적응	3.87	.83	3.21	.92	4.11***
	또래적응	3.97	.80	3.74	.81	2.88**
	교사적응	4.01	.76	3.97	.74	.468
	학교적응 평균	3.99	.66	3.75	.71	3.59***

취학 전 학습준비도의 경우, 사회정서발달(t=-2.29, p<.05), 학습에 대한 태도(t=-2.82, p<.01), 의사소통(t=-2.68, p<.01),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t=-3.51, p<.01), 학습준비도 전체(t=-3.59, p<.01)에서 일반 유아 집단에 비해 빈곤경험 유아 집단의 학습준비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t=-3.66, p<.001), 학업수행적응(t=-4.11, p<.001), 또래적응(t=-2.88, p<.01), 학교적응 전체(t=-3.59, p<.001)에서 빈곤경험 유아 집단이 일반 유아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적응 수준을 나타내었다.

2.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학업준비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 유아 집단

가. 문제행동의 잠재성장 모형

일반 유아 집단을 대상으로 5차년도부터 7차까지 3개 시점에서 동일하게 측정된 아동의 문제행동 변화 궤적을 분석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 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모형1)과 변화모형(모형2. 선형모형) 두 개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 유아 집단의 문제행동 변화궤적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형2의 선형변화 모형이 모형1의 무변화 모형보다 χ^2 값이 낮고, 증분적합지수인 TLI=.974, CFI=.987, NFI=.985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RMSEA 역시 .065로 기준치보다 낮아 모형2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3> 일반 유아 집단의 문제행동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NFI	RMSEA
모형1. 무변화 모형	246.951	6	.807	.807	.803	.178
모형2. 선형 모형	19.176	3	.974	.987	.985	.065

채택된 선형모형의 문제행동 변화궤적의 추정치는 <표 4>와 같다. 문제행동의 초기치의 평균 49.17, 변량 57.7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문제행동 5차년도 수준이 유아들 간에 유의한 개인차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3년간의 변화율 평균 -1.93과 변량 2.72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변화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행동의 5차년도 초기치와 3년 동안의 문제행동의 증가정도(변화율) 간에는 상관계수가 .09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일반 유아 집단의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선형모형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초기치(Intercept)	49.17(.27)***	57.78(3.78)***
변화율(Slope)	-1.93(.13)***	2.72(1.15)*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	-.09	

*** $p < .001$, * $p < .05$

나. 문제행동의 변화궤적 및 학습준비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

일반 유아 집단의 문제행동 변화 궤적과 취학 전 학습준비도, 그리고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2=298.35(*df*=43, p<.001), TLI=.927 CFI=.952, NFI=.945, RMSEA=.069로 이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즉, 문제행동의 변화 궤적, 취학 전 학습준비도,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은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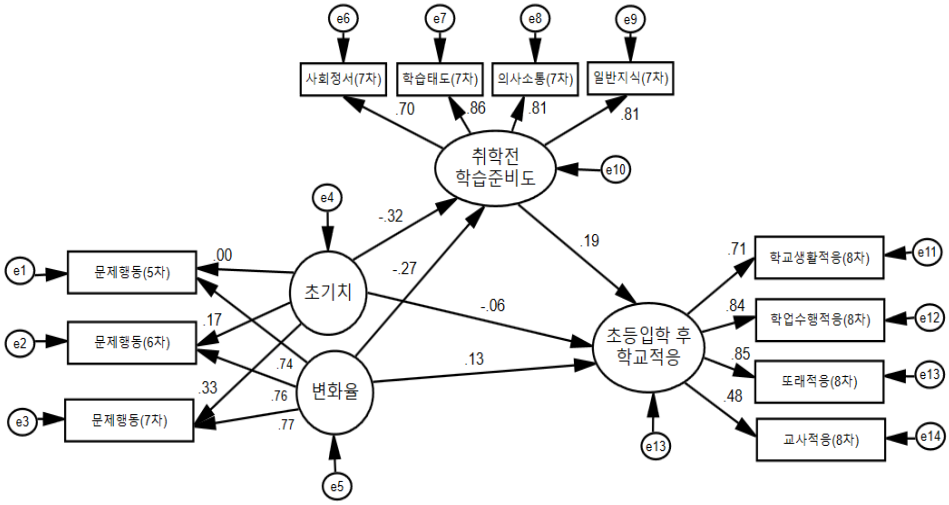
<표 5>의 하단에서 각 변인들 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행동 발달 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취학 전 학습준비도(β=-.321, p<.001와 β=-.269, p<.05)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 입학 후 학교 적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문제행동의 초기 수준이 높은 유아는 취학 전 학습 준비도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문제행동의 증가율이 감소할수록 유아의 취학 전 학습 준비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학 전 학습준비도는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3, p<.001). 이는 취학 전 학습준비가 잘 되어 있는 유아가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도 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 초기치와 변화율은 취학 전 학습준비도를 통해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 전 학습 준비도는 유아 초기 문제행동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문제행동의 감소가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었다.

<표 5> 일반 유아 집단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적합도와 추정치

모형	χ^2	df	TLI	CFI	NFI	RMSEA
구조모형 (문제행동 발달궤적, 학습준비도, 학교적응)	298.35***	43	.927	.952	.945	.069
			B	*S.E.*		β
경로						
문제행동 초기치→학습준비도			-.012***	.001		-.321
문제행동 변화율→학습준비도			-.051*	.022		-.269
학습준비도→학교적응			.464***	.137		.193
문제행동 초기치→학교적응			-.006	.004		-.063
문제행동 변화율→학교적응			.057	.062		.126
미지수						
문제행동 초기치 49.172(.264)***						
문제행동 변화율 -1.932(.131)***						

***p<.001, *p<.05



[그림 3] 일반 유아 집단의 문제행동 변화 궤적이
학습준비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모형

3.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학습준비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빈곤경험 유아 집단

가. 문제행동의 잠재성장 모형

여기에서는 빈곤경험 유아를 대상으로 5차년도부터 7차까지 3개 시점에서 동일하게 측정된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 궤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빈곤경험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 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모형1)과 선형모형(모형20 두 개의 잠재성장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빈곤경험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궤적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모형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형2의 선형변화 모형이 모형1의 무변화 모형보다 χ^2 값이 낮고, 증분적합지수인 TLI=1.014, CFI=1.000, NFI=.987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RMSEA 역시 .000으로 기준치보다 낮아 본 연구에서는 모형2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6> 빈곤경험 유아 집단의 문제행동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NFI	RMSEA
모형1. 무변화 모형	21.485	6	.898	.898	.864	.124
모형2. 선형 모형	1.940	3	1.014	1.000	.987	.000

채택된 선형모형의 문제행동 변화궤적의 추정치는 <표 7>과 같다. 문제행동의 초기의 평균 50.78, 변량 62.82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문제행동 5차년도 수준이 유아들 간에 상당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3년간의 변화율 평균은 -1.68로 유아의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고(p<.001) 있음을 보여주며, 변화율의 변량은 2.55로 개인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편, 문제행동의 5차년도 초기치와 3년 동안의 문제행동의 증가(변화율) 정도 간에는 상관계수가 .0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빈곤경험 유아 집단의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선형모형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초기치(Intercept)	50.78(.77)***	62.82(11.77)***
변화율(Slope)	-1.68(.39)***	2.55(3.73)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	.07	

*** p < .001

나. 문제행동의 변화궤적 및 학습준비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

빈곤경험 유아 집단의 문제행동 변화 궤적과 7차년도 학습준비도, 그리고 8차년도 학교적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χ^2=80.02(*df*=43, p<.01), TLI=.929, CFI=.954, NFI=.908, RMSEA=.071로 이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참조). 즉, 문제행동의 변화 궤적, 학습준비도, 학교적응은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인들 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위의 <표 8>의 하단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모형에서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 궤적의 예측평균은 초기치

(50.781)와 변화율(-1.676)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즉, 빈곤경험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율의 증가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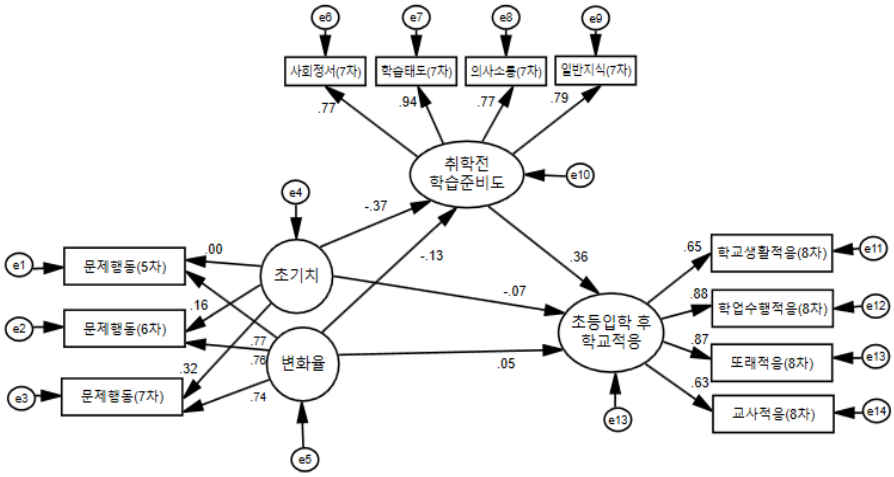
문제행동 변화 궤적 초기치는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β=.-.072,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취학 전 학습 준비도(β=-.368,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행동 변화 궤적 변화율은 학습준비도(β=-.132, p>.05)와 학교적응(β=.048, p>.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취학 전 학습 준비도는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57, p<.01), 결국, 빈곤경험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 초기치는 취학 전 학습 준비도를 매개하여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학습준비도가 유아 초기 문제행동과 초등 입학 후 학교 적응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빈곤경험 유아 집단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적합도와 추정치

모형	χ^2	df	TLI	CFI	NFI	RMSEA
구조모형 (문제행동 발달궤적, 학습준비도, 학교적응)	80.02**	43	.929	.954	.908	.071
			B	$S.E.$		β
경로						
문제행동 초기치→학습준비도			-.015***	.004		-.368
문제행동 변화율→학습준비도			-.024	.042		-.132
학습준비도→학교적응			.731**	.243		.357
문제행동 초기치→학교적응			-.006	.010		-.072
문제행동 변화율→학교적응			.018	.103		.048
미지수						
문제행동 초기치 50.781(.779)***						
문제행동 변화율 -1.676(.394)***						

*** p < .001, ** p < .01



[그림 4] 빈곤경험 유아 집단의 문제행동 변화 궤적이
학습준비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모형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패널 자료의 일반 유아와 빈곤 경험 유아 집단을 대상으로,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 궤적을 잠재성장 모형으로 분석해보고,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취학 전 학습 준비도를 매개로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모형을 분석해보는 것이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패널 자료에서 유아기 3년간 1회 이상 상대빈곤을 경험한 빈곤경험 유아 집단 170명과 비교집단인 일반 유아 1,507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 모형과 구조 모형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유아와 빈곤경험 유아 집단 모두 연령이 증가하면서 문제행동의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빈곤경험 유아는 일반 유아에 비해 6차 년도와 7차 년도의 문제행동 수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경험 유아의 취학 전 학습 준비도와 초등 입학 후 학교 적응은 일반 유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라 문제행동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은 이완정(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유아기관의 교사들이 응답하는 유아 문제행동의 정도는 대개 연령이 증가하면서 집단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빈곤 유아의 취학 전 학습준비도와 초등 입학 후 학교 적응이 낮은 결과는 선

행연구(Bierman, Torres, Domitrovich et al., 2009; Connell & Prinz, 2002)의 경향과 일관된 것으로, 빈곤 유아를 위한 조기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둘째, 유아기 문제행동은 발달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문제행동의 초기치에는 유의한 개인차가 있었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문제행동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일반 유아 집단과 빈곤 경험 유아집단에서 동일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유아기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감소 속도의 변화율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문제행동이 개인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Bub, McCartney와 Willett(2007)의 종단자료 분석에서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유의한 개인차를 보인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셋째, 유아기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취학 전 학습 준비도를 매개로 초등 입학 후의 학교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 전 학습 준비도는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 궤적과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기 사회정서 기술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Birch & Ladd, 1996; 1997; Ladd, Kochenderfer, Coleman, 1996)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문제행동의 개인 내적 속성이 유지되어 유아기 초기에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거나 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의 감소 정도가 낮은 유아는 취학 전 학습 준비도나 초등 입학 후 학교 적응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유아기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취학 전 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유아와 빈곤경험 유아 집단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일반 유아 집단의 경우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모두 취학 전 학습 준비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유아기 초기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유아는 취학 전 학습 준비도가 낮았으나, 연령 증가에 따라 문제행동의 증가 속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유아는 취학 전 학습 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빈곤경험 유아 집단의 경우 문제행동의 초기치만 취학 전 학습 준비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 초기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유아는 취학 전 학습 준비도가 낮았으며, 이외 연령 중가에 따라 문제행동의 변화가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경험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중재노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근래 강조되고 있는 '아동중심형 진학 전이모델(child-centered model fo school transition)'에서, 전문가들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양질의 취학 전 경험을 통해 획득하여야 할 인지적, 사회적 역량들을 규명

하고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배경에 따라 이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Duncan, Dowsettb, Claessens et al,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경험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율이 취학 전 학습 준비도나 초등 입학 후 학교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조기 중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데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기 문제행동 발달궤적은 변화를 보이며, 유아기 문제행동의 개인 내적 속성은 취학 전의 학습 준비도를 매개로 초등 입학 후 학교적응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 궤적이 이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일반 유아와 빈곤경험 유아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집단 비교 모델을 사용하여 집단 별 변인의 영향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욱·유진영·이주미(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이영(2014).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136-153.

도남희·민정원·왕영희·이예진·김소아·김지민(2013). 한국아동패널 2013. 육아정책연구소.

류재윤(201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빈곤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2014). 한국아동패널 2014(5차년도) 도구프로파일. 육아정책연구소.

이순자·유수옥(2012).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석-국내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6), 127-157.

이완정(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학회지, 23(1), 1-16.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Bierman, K. L., Torres, M. M., Domitrovich, C. E., Welsh, J. A., & Gest, S. D. (2009). Behavioral and Cognitive Readiness for School: Cross domain Associations for Children Attending Head Start. Social Development, 18(2), 305-323.

Birch, S. H., & Ladd, G. W. (199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school environment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The role of teachers and peers.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Bub, K. L., McCartney, K., & Willett, J. B. (2007). Behavior problem trajectories and first-grade cognitive ability and achievement skill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3), 653-670.

Buhs, E. S., & Ladd, G. W. (2001). Peer rejection as antecedent of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 examination of mediating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550-560.

Cicchetti, D., & Sroufe, L. A. (2000). The past as prologue to the future: The times, they've been a-changin'.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Special Issue: Reflecting on the Past and Planning for the Future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2(3), 255 - 264.

Connell, C. M., & Prinz, R. J. (2002). The impact of childcare and parent - child interactions on school readiness and social skills development for low-income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2), 177-193.

Duncan, G. J., Dowsett, C. J., Claessens, A., Magnuson, K., Huston, A. C., Klebanov, P., ... & Sexton, H. (2007).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28-1446.

Fantuzzo, J. W., Bulotsky-Shearer, R., Fusco, R. A., & McWayne, C. (2005). An investigation of preschool classroom behavioral adjustment problems and social - emotional school readiness competenci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3), 259-275.

Fantuzzo, J., Bulotsky-Shearer, R., McDermott, P. A., & McWayne, C. (2007). Investigation of dimensions of social-emotional classroom behavior and school readiness for low-income urban preschool children. School Psychology Review, 36(1), 44-62.

Fantuzzo, J., Perry, M. A., & McDermott, P. (2004). Preschool approaches to learning and their relationship to other relevant classroom competencies for low-income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3), 212-230.

Hair, E., Halle, T., Terry-Humen, E., Lavelle, B., & Calkins, J. (2006). Children's school readiness in the ECLS-K: Predictions to academic, health, and social outcomes in first grad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4), 431-454.

Hamre, B. K., & Pianta, R. C. (2001). Early teacher - 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72(2), 625-638.

Juvonen, J., & Wentzel, K. R. (Eds.). (1996).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25.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McClelland, M. M., Morrison, F. J., & Holmes, D. L. (2000). Children at risk for early academic problems: The role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307-329.

McWayne, C. M., Fantuzzo, J. W., & McDermott, P. A. (2004). Preschool competency in context: An investigation of the unique contribution of child competencies to early academic success. Developmental Psychology, 40(4), 633-645.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Olson, S. L.,& Hoza, B. (1993). Preschool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beginning school.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1), 60 - 67.

Raver, C. (2003). Young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and school readiness. Social policy report, 16(3), 3-19.

Rimm-Kaufman, S. (2004). School transition and school readiness: an outcom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ncyclopedia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re of Excellenc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Montreal.

Webster-Stratton, C., & Reid, M. J. (2004). Strengthening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The foundation for early school readiness and success: Incredible years classroom social skills and problem solving curriculum. Infants & Young Children, 17(2), 96-113.

·교신저자: 김미나,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meena028@hanmail.net

Trajectories of poor- or comparative-children's problem behaviors on the path to learning readiness and school adjustment

Wanjeong Lee and Meena Kim

Using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hildren with higher levels of behavior problems adjusted more poorly on 1st-grade than their peers as well as whether there was evidence of intra-individual stability in behavior problems over time. Three findings were noteworthy. First, there was evidence of both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variability in behavior problems between poor- and comparative children. Second, children with higher initial level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at 4 years had lower school readiness scores at 6 years. Finally, children with lower level of school readiness at 6 years had lower school adjustment scores in 1st grad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Child Panel, Child Poverty, Trajectory of Behavior Problems, School Readiness, School Adjustment

“일반 유아와 빈곤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학습준비도 및 학교적응” 에 대한 토론문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는 논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내용의 조직성과 가독성 면에서 매우 우수한 편으로 연구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잘 전달된다고 여겨집니다. 학술대회 이후 학술지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할 것이라 판단되지만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다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면서 먼저는 문제행동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궁금하였습니다. 연구자께서 문제행동과 학교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변인이 원래 상관이 있었는데 학습준비도 변인의 매개효과로 두 변인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이 상관관계가 없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응답자와 학교적응에 대한 응답자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지에 대한 해석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습준비도의 경우에는 교사와 부모가 모두 응답하였는데 누구의 응답값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도 궁금하였습니다.

둘째, 학습준비도 도구 설명에서 다소 모호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준비도 척도는 교사와 부모가 동일 척도 문항에 대하여 교사는 웹 설문지로 응답하였고, 부모는 지필식 설문지로 응답한 형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설문 응답 중 누구의 응답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렇게 선정한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본 연구의 논의 부분에서 논의를 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내용의 포함과 추후

연구 방향 제안도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취지였던 빈곤경험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조기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만 의의를 두고 있는데 연구자 분들이 이보다 더 발전된 보다 구체적인 중재 방향 및 방안 등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연구에서 빈곤 경험 유아를 일반 유아와 비교하여 부각시키고자 한 것에 대비하여 볼 때 이에 관한 논의 부분은 다소 미약해보입니다. 추후 더 보완하실 것이라 여겨지지만 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연동하여 향후 연구 방향도 보다 더 풍성하게 제안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본 연구의 결론은 검토자 의견으로는 학습준비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연구자분들은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연구의 결과로 비추어볼 때 학습준비도가 잘 되어 있으면 학교 적응이 무난히 잘 이루어진다고 결론을 맺는 연구 같은 인상을 받는데, 그렇다면 학습준비도가 잘 갖추어지기 위해서 영유아시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 과업 등, 부모와 교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정책적인 도움 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학습준비도에 관한 개념 정의에서도 분분한 의견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정의 내렸던 학습준비도 개념 및 도구 특성에 따른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여 이에 관한 논의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 등에 관하여도 기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활용하였던 세 변인, 문제행동, 학습준비도, 학교적응의 경우 응답자가 다른데서 야기될 수 있는 논의는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좋은 연구를 위해서 학습준비도의 매개효과를 Sobel 검증 등으로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Session 1 ◈

제 3 주제

사회·정서 발달

사회: 박혜원 (울산대학교 교수)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임선아 (전북대학교 교수)

2.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채혜경 (부산대학교 박사수료)
   제희선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3. **아동기 시간 활용의 차이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진영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임선아[1)]

요 약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는 부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자기와 상대방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역동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호역동적 영향이 결과적으로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게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패널 8차 데이터의 1,423 부모와 아동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우울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은 미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우울을 통해서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감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녀의 행복,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Ⅰ. 서론

최근 어린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바뀌며 자녀양육이 부부가 오롯이 감당해야할 책

1) 전북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학과

임이 된데 있다. 이에 더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자녀를 둔 부부들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다(송승민, 송진숙, 2007; 이주옥, 2008; 권정미, 박영준, 2014).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불편 경험을 의미한다(Deater-Deckard, 1998). 부모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은 다양하지만(Bronte-Tinkew, Horowitz, & Carrano, 2010), 모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서우경, 김도연, 2013; Hakvoort et al., 2012). 부모는 자신들의 부모역할이 바람직하거나 기능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좌절하게 되거나 우울해지기 때문에 (Anthony, Anthony, Glanville, Naiman, Wanders, & Shafferm, 2005), 부모가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과도 관련이 깊다(Bender,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는 우울증과 같은 결혼생활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으로(김미예, 박동영, 2009; Deater-Deckard, 2004; Gerdes et al., 2007),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위축하게 해서 우울감을 높인다(문영경, 2012).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부모가 겪는 우울감은 부모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모의 우울은 부모가 자녀는 대하는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장기 및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이정숙, 두정일, 2008).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겪는 우울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축소하고(Bianchi, 2000), 자녀에게 적대감을 유발시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악화시키고(이윤주・김진숙, 2012), 비효율적인 양육행동과 적은 상호작용을 유발하는(Turney, 2011)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또한 우울은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Cummings, Keller, & Davis, 2005; Renk, Roddenberry, Olivers, & Sieger, 2007), 자녀의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ane & Garber, 2004; Lewinsohn, Olino, & Klein, 2005). 우울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 보내는 일상생활에 무기력하게 행동하고 자녀에 대한 가치를 절하하는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Davis & Carter, 2008), 우울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취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Fendrich, Warner, & Weissman, 1990; Goodman & Gotlib, 1999). 따라서 우울한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를 둔 자녀보다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rber & Martin, 2002; Olfson et

al., 2003; Goodman et al., 2011). Hipwell 등(2005)은 자녀출산 후 어머니의 우울이 이후 유아기 행동문제를 예측할 정도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 우울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Doh 등(2012)은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가장 큰 직접적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통해 유아의 행동과 관련된 어머니의 정서문제 중 우울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부모의 정서적 상태는 자녀의 문제행동 뿐 아니라 유아의 행복과도 직결되는데,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도 의미 있는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연희, 2013). Lemerise와 Arsenio(2000)는 강력한 정서를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그 정서에 압도되고 몰두하여 적절한 반응을 산출하거나 평가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울한 어머니는 자신의 우울한 정서에 몰두하여 유아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유아의 욕구에 적절한 반응을 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자녀의 욕구는 충족되기 어려워지고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가 덜 행복하다고 해석 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관련 행동 및 정서적 문제가 유아의 행동 및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 중 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에 치중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겪는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즉 남편이나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역으로 아내와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최근 기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모호해 지고, 공동육아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사회가 아버지에게 양육의 분담과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아버지들이 양육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김영철, 양진희, 2014) 자녀를 둔 아버지 또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양진희, 2016; Ponnet et al..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함께 고려되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우울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대부분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우울이 어머니의 우울보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Marchand & Hock, 2003)와 더불어 양육기에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우울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Phares, Duhig, & Watkins, 2005). 이들 연구들은 아버지가 우울할 때 부-자녀 간 갈등 뿐 아니라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여종일, 2015; Kane & Garber, 2004). 이들 연구결과처럼 아버지의 우울이 어머니의 우울 못지않게 자녀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아버지의 우울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함께 고려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이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함께 고려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부모적 요인이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영역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양쪽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또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정서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 문제와 연계하여 밝히고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부모는 상호의존적이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전달되는데(Murdock et al., 2014), 특히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체계에 혼란을 주며,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Crnic & Low, 2002) 부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상대방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의 역동성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동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층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독립적 특성을 지닌 부부를 한 쌍으로 고려할 수 있는(Cook & Kenny, 2005)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양쪽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부모의 우울감이 자녀의 정서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양쪽 부모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가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상호역동적 영향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정서, 유아의 행복 간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상호의존적으로 유아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PSKC) 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로, 매년 조사를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 특성,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패널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2006년도 기준 분만건수 500건 이상의 병원을 1차 추출단위로 활용하고,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전국을 6개 권역별로 층을 나누어 비례 배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5년인 8차년도 자료는 총 1,598 가구의 부모와 자녀(아동) 그리고 아동이 참여하는 학교의 관계자들로부터 조사된 자료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문항에 충실히 응답한 대상으로 최종 1423명의 부모와 아동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사용변인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대상 8차년도(2015) 자료와 CAPI(아동용) 질문지(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대상 8차년도 자료에서는 부와 모 양육스트레스 11문항과 우울 6문항을 선택하였다. 즉, 부 양육스트레스 11문항(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모 양육스트레스 11문항, 부 우울 6문항(5점 척도; 1: 전혀 안느낌-5: 항상 느낌)과 모 우울 6문항이다. 각 측정도구의 출처와 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이 척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케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내용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취업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타인 양

육 하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하위변인 중 한국아동패널에서 발췌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 신뢰도는 아버지는 .889이며 어머니는 .8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의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Kessler 우울 척도(K6)로 총 6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6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안 느낌(1점)','별로 안 느낌(2점)', '종종 느낌(3점)', '대체로 느낌(4점)', '항상 느낌(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은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 신뢰도는 아버지는 .921이며 어머니는 .920이다.

다.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liness Scale, SHS) 척도로 Lyubomirsky와 Lepper (1999)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확정한 4개의 문항이다. 원도구는 1점에서 7점까지의 응답범위를 가진 Likert 척도이며, 응답을 돕기 위해 표정카드를 제시하였다. 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예비조사를 통해 문장을 수정하고 응답범위를 1점에서 4점까지의 2단계 질문으로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예시문항은 '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문항에 대해 ① 친구들보다 많이 행복하지 않아요 ② 친구들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친구들보다 행복한 편이예요 ④ 친구들보다 많이 행복해요'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 신뢰도는 .700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와 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인 APIM모델(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형은 본인이 보고한 자료와 상대방이 보고한 자료를 하나의 분석 모형을 통해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자기와 상대방효과의 검증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Cook & Kenny, 2005), 한 쌍의 변인이 자기 혹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연은모, 최효식, 2015). 다음으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에 종속변수로 아이의 행복감을 넣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각 배우자가 갖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아이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문항묶음(item parceling)방법을 이용하여 각 하위 문항별 평균평점을 산출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각 측정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형의 기각확률이 증가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할 수있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RMSEA는 보통 .05 이하일 경우 그 모델은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하고 .08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CFI, NNFI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일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Hong, Malik, & Lee, 2003).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값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값과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상관값을 살펴보면,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 부와 모의 우울은 서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 부와 모의 우울과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정상분포조건(왜도 ±3, 첨도 ±10이하)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나(Kline, 2005), 모든 변인들이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법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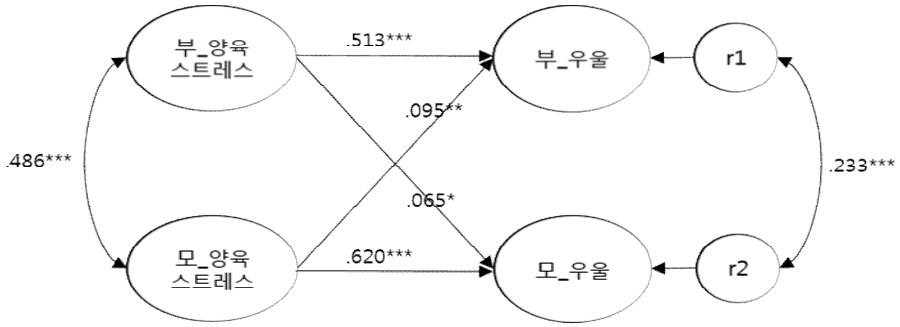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값

	부_양육 스트레스	모_양육 스트레스	부_우울	모_우울	아이행복
부_양육스트레스	-				
모_양육스트레스	.426***	-			
부_우울	.504***	.306***	-		
모_우울	.329**	.585***	.365***	-	
아이행복	-.078**	-.113***	-.063*	-.089**	-
평균	24.122	26.391	11.360	10.980	12.832
표준편차	6.862	7.455	4.163	4.403	2.140
왜도	0.082	0.246	0.715	0.861	-0.458
첨도	-0.342	0.024	0.904	0.742	0.240

* $p < .05$; ** $p < .01$; *** $p < .001$

2.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의존성 검증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성은 $\chi^2(df=48)=235.315$, TLI=.978, CFI=.984, RMSEA=.052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양육스트레스가 각각 자신의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아버지: $\beta = .513$, $p < .001$, 어머니: $\beta = .620$, $p < .001$) 자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자신의 양육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 $\beta = .065$, $p < .05$, 어머니: $\beta = .095$, $p < .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부와 모의 우울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우울, 아이이 행복의 구조관계 검증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이들의 우울감을 매개하여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 모형과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모의 우울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 두 가지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riangle\chi^2(\triangle df = 2)$는 2.927로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 5.991보다 크게 나타나 두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chi^2(df = 70)=307.360$, TLI=.975, CFI=.981, RMSEA=.0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결과(<표 2> 참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아버지 $\beta = .505$, $p < .001$; 어머니 $\beta = .616$, $p < .001$),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상대방의 우울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 $\beta = .081$, $p < .01$; 어머니 $\beta = .116$, $p < .001$). 아버지의 우울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은 미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beta = -.044$, $p > .05$),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0$, $p < .01$).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부 양육스트레스	→	부 우울	0.315	***	0.020	0.505
모 양육스트레스	→	모 우울	0.383	***	0.020	0.616
부 양육스트레스	→	모 우울	0.042	**	0.015	0.081
모 양육스트레스	→	부 우울	0.086	***	0.022	0.116
부 우울	→	아이행복	-0.028		0.022	-0.044
모 우울	→	아이행복	-0.077	**	0.028	-0.100

* $p < .05$; ** $p < .01$; *** $p < .001$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을 매개하여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우울을 통해서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감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 β = -.042, $p < .05$; 어머니 β = -.073, $p < .01$).

<표 3> 간접효과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90% C. I.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부_스트레스 →	부_우울 →	아이행복	-.003	.002	-.007	(-.016, .002)
모_스트레스 →	부_우울 →	아이행복	-.004	.002	-.008	(-.019, .003)
부_스트레스 →	모_우울 →	아이행복	-.018*	.008	-.042	(-.077, -.018)
모_스트레스 →	모_우울 →	아이행복	-.034**	.011	-.073	(-.122. -.046)

* $p < .05$; ** $p < .01$; *** $p < .001$

4. 경로의 상대적 크기 차이 검증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우울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 부모의 우울이 아이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등가제약 모형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 등가제약 경로 간 차이검증

제약	χ^2		*df*	NFI	IFI	RFI	TLI
등가제약 경로 1	2.465	*	1	0.00	0.00	0.00	0.00
등가제약 경로 2	39.037	**	1	0.00	0.00	0.00	0.00
등가제약 경로 3	2.328		1	0.00	0.00	0.00	0.00
등가제약 경로 4	2.570		1	0.00	0.00	0.00	0.00
등가제약 경로 5	133.726	***	1	0.01	0.01	0.01	0.01

* $p < .05$; ** $p < .01$; *** $p < .001$

주. 등가제약 경로1: 부 스트레스→ 부 우울 = 모 스트레스 → 모 우울

등가제약 경로2: 부 스트레스→ 모 우울 = 모 스트레스 → 부 우울

등가제약 경로3: 부 스트레스 → 부 우울 = 모 스트레스 → 부 우울

등가제약 경로4: 모 스트레스 → 모 우울 = 부 스트레스 → 모 우울

등가제약 경로5: 부 우울 → 아이행복 = 모 우울 → 아이행복

χ^2 차이검증을 통해 각 등가제약 모형과 기본모형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05$, $p < .001$; $\beta = -.616$ $p < .001$). 둘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1$, $p < .01$; $\beta = .116$, $p < .001$). 셋째, 아버지의 우울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4$, p > .05; $\beta = -.100$, $p < .01$). 정리하면, 아버지가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우울감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보다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정서적 문제가 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심리정서적 안녕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인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비독립적 특성을 지닌 부부를 한 쌍으로 고려할 수 있는(Cook & Kenny, 2005)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서의 관계를 살펴볼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양쪽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부모의 우울감이 자녀의 정서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내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또한 어머니 자신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편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이 깊다고 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며(김미예, 박동영, 2009; 문영경, 2012; Bender, 2012; Deater-Deckard, 2004; Gerdes et al., 2007), 이에 더하여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아버지의 우울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아버지의 우울이 어머니의 우울보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archand & Hock, 2003)와 아버지가 우울할 때 부-자녀 간 갈등 뿐 아니라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있다(여종일, 2015; Kane & Garber, 2004). 이들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영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며(Hossain, Field, Pickens, Malphurs, & Del Valle, 1997), 우울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 양육과정에서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비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악화되는 과정을 경험한다(Patterson, 1982). 또한 우울한 아버지는 자녀양육에서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적게 사용하며(Fendrich, Waner, & Weissman, 1990),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함으로써 자녀의 외적, 내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Kane & Garber, 2004). 따라서 아버지의 우울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으로 아버지의 우울은

어머니의 우울만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Field, 2010)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표본을 따로 분리해서 한쪽의 부모의 우울이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로 이러한 결과는 비독립적인 부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를 한 쌍으로 고려할 수 있는(Cook & Kenny, 2005)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아버지의 우울이 어머니의 우울 못지않게 자녀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지만(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두 아버지의 우울을 통해서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감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두 번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마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심리정서 문제가 자녀의 행복감에 더 비중있는 영향을 미치는 듯한 결과로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결과로 보이나, 본 연구의 세 번째 결과는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단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도 받게 되고 이러한 영향이 결과적으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의 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겪는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아내나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함께 하는 남편과 좋은 아버지'로써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아내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바로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중 한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는 배우자에게도 전달되며(Murdock et al., 2014), 특히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체계에 혼란을 주며,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Crnic & Low, 2002)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결과는 아이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머니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

스 또한 감소시키려는 노력 또한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권연희 (2013). 유아의 행복에 대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25-537.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영철, 양진희(2014).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상(像). 아시아교육연구, 15(4), 81-107.

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조수정 (2012).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33(2), 145-164.

여종일(2015). 아버지의 우울증상 및 가족관계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333-351.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5).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한국영유아보육학, 93, 1-29.

양진희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2), 439-458.

양진희, 김영철 (2016). 유아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81-106.

양진희, 김영철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인과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2), 33-57.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Pediatric Psychology Press.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pp. 243-267), London: Lawrence Erlbaum.

Garber, J., & Martin, N. C. (2002). Negative cognitions in offspring of depressed parents: Mechanisms of risk. In Goodman, S. H. & Gotlib, J. H. (Eds.),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pp. 121-15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ipwell, A. E., Murray, L., Ducournau, P. & Stein, A. (2005).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peer pla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1), 11-23.

Kane, P., & Garber, J. (2004). The relations among depression in fathers, children's psychopathology, and father-child conflict: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3), 339-360.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et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http://sonjalyubomirsky.com/subjective-happiness-scale-shs/)

Olfson, M., Marcus, S. C., Pincus, H. A., & Weissman, M. M. (2003). Parental depression, child mental health problem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Medical Care, 41(6), 716-721.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Van Leeuwen, K., Bastait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교신저자: 임선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sunahlim@jbnu.ac.kr

The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 on their children's happiness: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

Sun Ah Lim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utual dynamism of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ir children's happiness. To achieve this, this study selected a sample of 1,423 parents and their children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nd used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ctor effect between father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 were significant. Second, fathers' parenting str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others' depres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athers' depress. This result indicates a significant partner effect between fathers' and mothers'. Third, fathers' dep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happiness but its was not significant though. However, mothers' depress exer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ir children's happiness. Fourth, we found only a mediation effect of mothers' depress. That is,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exerted effects on mothers' depress and, in turn, mothers' depress had exerted an effect on children's happiness.

Key words: parenting stress, parents' depress, children's happiness,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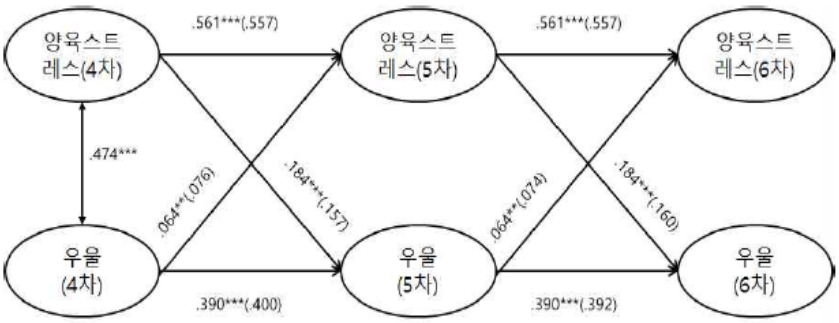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토론문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 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가 부, 모 자신 및 배우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또 그 우울을 통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입니다. 연구자는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녀의 행복감 등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공동육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미가 있는 연구로 보여집니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양육주체자로서 어머니만이 아닌 아버지를 포함하여 공동양육의 주체로서 측면에서 접근하여,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동등하게 놓고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측정한 점 등은 본 연구의 큰 의의라 생각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양육이라는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연구에서 다 고려되지 못한 가능한 변수들을 살펴보고 향후의 연구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을 만한 요소들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해서 생각해본 점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1. 먼저 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 모 모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 모 모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보았을 때, 부부가 부부의 양육에 대한 인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시기에 느끼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지만 우울은 유전적인 요소가 높은 보다 장기적인 증상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평상시 우울수준이 높은 사람이 양육이라는 고도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상황에 취약성을 드러내 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으로 인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우울증세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의 통제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최윤식 · 윤해옥 ·

연은모(2016: 69)에서는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분석한 결과, 자녀 유아기에 전년도의 아버지 스트레스와 우울이, 다음 년도의 아버지 스트레스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1참고>. 이 연구에 다르면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도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의 우울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우울을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긴 하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 )값은 표준화 계수임. $^{**}p < .01$, $^{***}p < .001$

자료: 최효식・윤해옥・연은모(2016).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련성 종단연구. 육아지원연구, p.69 그림 인용.

2. 아버지의 양육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아버지의 특징에 따라 아버지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양육참여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타변수의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들의 육아참여 정도, 아버지의 육아참여 의지, 아버지의 근무시간 및 직장문화 등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또한 아버지의 우울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김기현, 1998),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소득이 낮은 경우, 배우자가 취업모인 경우, 전문직이 아닌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최윤식・윤해옥・연은모, 2016) 이에 대한 확인과 관련변수들에 대한 고려 및 통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어머니의 경우에도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전업모의 경우 종일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타인을 통해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모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 및 낮은 양육효능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육아정책연구소, 2012: 2). 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관계 및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정도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취업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다는 보고가 있고(김기현, 1998), 이에 따라 양육참여 정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4. 또한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로 측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아이 양육에 대한 자신감,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직접 양육을 함으로써 겪는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역할 디스트레스 변인이 아동패널 데이터에서 사용가능한 변수임을 알고 있지만, '양육스트레스'라는 표현으로 실제 양육을 통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해석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모의 우울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스스로의 양육에 대한 회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부모역할 및 양육행동에 대한 고민들은 누구나 하고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감이 자녀의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조절능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남편의 양육/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아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의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부부간의 관계 관리, 부부간 서로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의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느끼는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및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담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pp. 49-62.

최효식 • 윤해옥 • 연은모(2016).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련성 종단연구. 육아지원연구, pp. 59-84.

권미경(2012). 자녀양육지원,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육아정책** Brief 제6호. 육아정책연구소.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관계

채혜경[1)] 제희선[2)]

요 약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 패널 7차 자료 중 결측값 및 이상치를 제외한 어머니와 각 유아 1416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양육태도와 가족상호작용을 완전매개하여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가 경험하는 미시적 체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질을 높여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므로, 어머니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족 내·외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행복,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

I. 서론

유아기는 가정이라는 안정적이며 지지적인 곳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때 유아는 타인들과의 갈등을 조절하거나 타협하고, 협동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술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초기 사회적 기술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유아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긍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 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유아의 바람직한 인지, 정서, 신체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유아기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적 역량과 기술을 체득하는 인

1)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2)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생의 발달과업이 처음으로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특히 중요하다.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로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유능성은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과정, 개인의 인성적 특성 그리고 인간이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정계숙, 2010)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하기 위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관련된다(서미옥, 2004, Frey, Elliott & Gresham, 2011). 즉 사회적응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사회의 규칙과 가치를 내면화 하는 능력이다(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 2017). 따라서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적응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정서와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므로 자신감과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가지고 생활한다.

사회적 유능성은 또래와의 관계를 확장시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므로 앞으로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함양되어야 할 요소이다.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내적 변인들에 따르면 유아의 인지적, 언어적 능력, 도덕성발달, 놀이성, 기질, 수줍음 등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으며(김미숙, 2017; 송지윤, 최미숙, 2014; 이용주, 2016; 최미숙, 2011; 최연아, 2011; 홍예지, 안혜령, 이순형, 2017 외적 변인들의 경우 부모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수용적인 양육태도, 신뢰에 기반한 가족상호작용이 높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김영선, 이숙, 2015; 김정희, 문혁준, 2004; 박서영, 박성연,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아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인지적, 정서적 발달도 중요하지만 유아가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질, 즉 환경이 사회적 유능성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기술과 경향성은 자연스럽게 내면화되고 체화됨으로써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성은 특히 유아가 가장 자주 상호작용하는 가족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Cambell, Shaw, & Gilliom, 2000)

한편 가족체계 안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관계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요소로서 어머니의 건강한 정서적 상태는 전반적인 양육신념과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어머니의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 및 행복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김민정, 김정원, 2010; 조부월, 2017; 전

은옥, 최나야, 2013),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 부정적 변인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경은, 2011; 최옥주, 2016) 유아기는 어머니라는 외부 환경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큰 시기로 어머니가 구성하는 행복 의미는 유아기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최은아, 정계숙, 2015), 가족구성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게 된다. 행복한 어머니는 자녀 및 가족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정계숙,김미정,하은실, 2012),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통해 유아를 더 행복하게 하므로(권연희, 201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편 행복한 어머니의 긍정적 상태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상호작용방식과 관련하여 행복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체계 내에서 행복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전염되어 영향을 주므로 가족 내 상호작용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Olson(2011)은 가족상호작용을 응집성과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가족 유연성은 가족의 역할, 관계와 관계의 규칙, 가족 리더십에서의 변화의 양으로 정의된다. 즉 응집성이 높은 가족은 서로 간에 깊고 끈끈한 감정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정적 교류가 이루어지며, 유연성이 높은 가족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역할이나 규칙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은 특히 중요하며(Reiss, Collins, Berscheid, 2000) 특히, 유아에게 가족은 매우 중요한 발달적 맥락이 된다. 유아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가족 간의 안정적이고 적응적인 상호작용은 발달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강병재, 2010). 가족상호작용이 유연하고 응집적인 경우 유아는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정지나, 2017), 이는 유아가 경험하는 가족 내의 유연한 문제해결 방식, 지지적이며 신뢰로운 정서적 관계는 유아가 가장 처음으로 사회적 기능을 획득하고 연습할 수 있는 모델이자 장이 되므로 가족 외 체계에의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행복한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은 물론 정서적 여유를 가지므로,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나 행동의 표출을 비난하거나 통제하려하기 보다는 수용하며 유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

특성을 보이는데(김주리, 김남희, 2014; 박서영, 박성영, 2007)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가 양육태도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행동양식이자 양육신념이며, 교육과 훈련 등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전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박은미, 이석순, 2016). Baumrind(1971)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였는가에 대한 온정성과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얼마나 확고한 규칙과 기준을 가지는가에 관한 통제의 정도를 연구하고, 그에 따라 민주적 부모, 권위적 부모, 허용적 부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김미진, 2016). 즉 정서적 지지와 자율성, 명확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정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양육태도는 유아가 자신과 사회의 욕구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발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태도는 의사를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지지와 자율성을 부과하는 온정적인 양육방식, 사회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적 양육방식과 관련된다. 선행연구들은 부정적이며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사회적 유아의 낮은 사회적 적응과 행동문제에 관련되며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는 높은 사회적 능력을 가지는데 도움이 됨을 밝혔다(문순옥, 2013; 차지은, 홍상환, 2017; Thompson, Hollis, Richards, 2003; Synder, Cramer, Afrank & Patterson 2005). 즉 온정적인 부모의 태도는 유아가 가정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안전감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유아는 이를 바탕으로 더 넓은 사회적 관계의 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내 상호작용 방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중요성과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부정적인 심리적 변인에 맞추어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부모의 우울(양진희, 2016), 양육스트레스(권수진, 2017),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이선경, 최영숙, 강상, 2014), 부부갈등(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 2017)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신념과 연합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긍정적 상태가 부정적 정서 상태와 동일한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개념이 아님을 제시하였다(Lopez. 2011). 즉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소거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서 상태인 행복과는 그다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복과 관련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 뿐 아

니라 행복감이 양육태도와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인식되는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적 행복감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 하에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행복감, 가족상호작용, 양육태도, 사회적 유능성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PSKC) 7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란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육아지원 정책 특성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연구이다. 7차년도 자료는 우편조사, 가구방문 면접조사, 우편/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7차년도 자료의 총 표본 2412가구 중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변인의 결측값 및 이상치를 제외하고 총 141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인들은 아래의 도구들로 측정되었다.

1) 어머니의 행복감

어머니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 S.와 Lepper, H. S. (1999)의 개인 홈페이지에 있는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실시 한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7점)로 평가하는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점은 4점에서 2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의 어머니 양육행동도구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8문항과 통제적 양육태도를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및 통제적 양육태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어머니 가족상호작용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David와 Olson(2010)의 가족상호작용도구(Family Adaptability and Cohension Evalution Scales Ⅳ)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문항을 확정하였다. 가족상호작용은 가족리더십, 역할 관계와 관계에 따른 역할들 속의 변화성을 설명하는 응집성의 균형과 가족들 간의 감정적 결합을 설명하는 유연성의 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집성 7문항과 유연성 7문항의 총 14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응집성, 건강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SSRS)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 과 Elliot(1990)의 도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검토/수정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문항을 확정하였다. 행동발달질문지는 총 32문항으로 주장성(11문항), 협력성(6문항), 자기통제(7문항), 책임성(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영역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평소행동에 기초하여 그 부모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3점)으로 평정하는 3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한 후 관련 측정변수를 점검하고 연구모형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통해 결측치를 제거하고, Z점수와 마할라노비스 거리 방법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해 이상치를 제거하고 정상성을 점검하였다. 더불어 연구모형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변인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았으며,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변인의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고나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χ^2 , GFI(적합도지수), TLI(터커-루이스 지수), CFI(비교적합지수), NFI(표준적합지수), RMSEA(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확정한 모형에서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고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자료 점검 및 측정모형의 적절성

1) 측정자료의 점검

(1) 측정자료의 결측치

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에서 본 연구에서 필요한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 가족상호작용,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변인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2412의 가족 데이터에서 940개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1416개의 측정자료로 축소되었다.

⑵ 일변량 및 다변량 이상치

측정변수들에 대하여 일변량 이상치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변수를 Z점수로 전환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Z점수가 ±3이상이면 이상치로 간주하기에(우종필, 2012) 12개의 이상치를 삭제하여 가족 데이터가 1460개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다변량 이상치 점검을 위해 마할라노비스 거리 방법을 이용한 결과 44개의 이상치가 발견되어 삭제하여 최종 1416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⑶ 일변량 및 다변량 정상성

연구모형의 측정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및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West, Finch, & Curran(1995)에 따르면, 측정변수의 왜도가 2를 넘지 않고, 첨도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경우 왜도는 모두 2이하, 첨도는 모두 7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 측정모형의 적절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배병렬(2017)에 따르면 측정모형의 분석 과정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적합의 원인이 측정인지 모형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⑴ 신뢰도

각 변인에 대한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일관성 검정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에 이용될 잠재변수는 총 4개이며,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복감 .78, 어머니의 양육온정적 태도 .73, 어머니의 양육 통제적 태도 .76,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응집성 .72,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 유연성 .72, 유아의 자기통제 .74, 협력성 .75, 책임성 .74, 주장성 .75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수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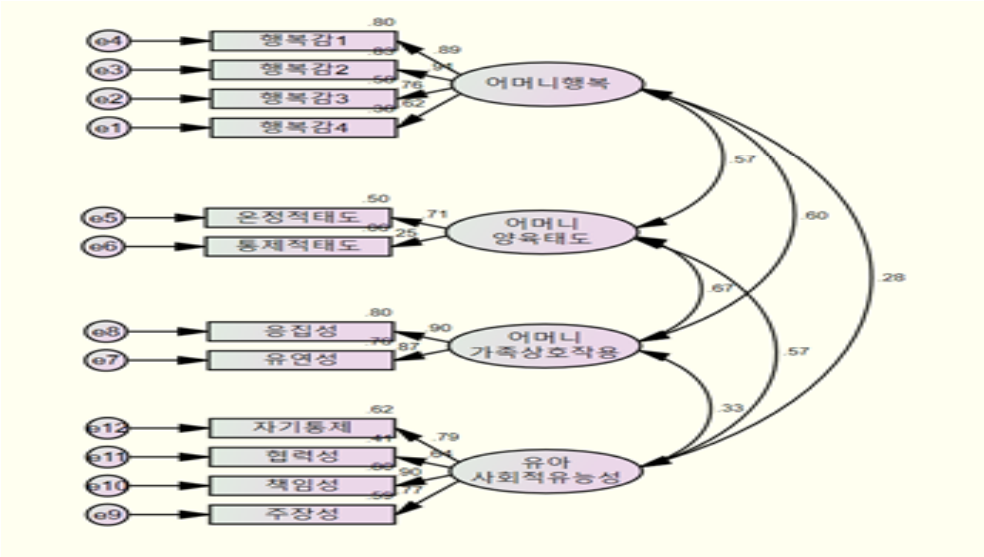
⑵ 타당도

각 연구단위에 대하여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3.0을 사용하여 구성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중 χ^2 값이 113.24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값은 모형의 복잡성과 표본 크기 등

에 민감한 검증 방법이기에 검증 방법으로 쉽게 기각될 수 있다(허준, 2016). 이에 명확한 해석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NFI, TLI, CFI, GFI가 모두 수용 기준이 .09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도 .31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표 1〉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p*	GFI	NFI	TLI	CFI	RMSEA
모형	113.24	48	.000	.99	.99	.99	.99	.03
수용기준			>.05	>.90	>.90	>.90	>.90	<.05
		기각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2. 어머니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본 연구의 변인인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 가족상호작용,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	1.00	.39**	.11**	.51**	.48**	.25**	.17**	.29**	.20**
2		1.00	.18**	.41**	.43**	.35**	.27**	.36**	.27**
3			1.00	.15**	.14**	.14**	.12**	.12**	.13**
4				1.00	.78**	.26**	.18**	.26**	.24**
5					1.00	.22**	.21**	.25**	.20**
6						1.00	.52**	.70**	.61**
7							1.00	.58**	.46**
8								1.00	.70**
9									1.00

** $p < .01$, * $p < .05$

주: 1. 어머니 행복감 2. 온정적 태도 3. 통제적 태도 4. 응집성 5. 유연성 6. 자기통제 7. 협력성 8. 책임성 9. 주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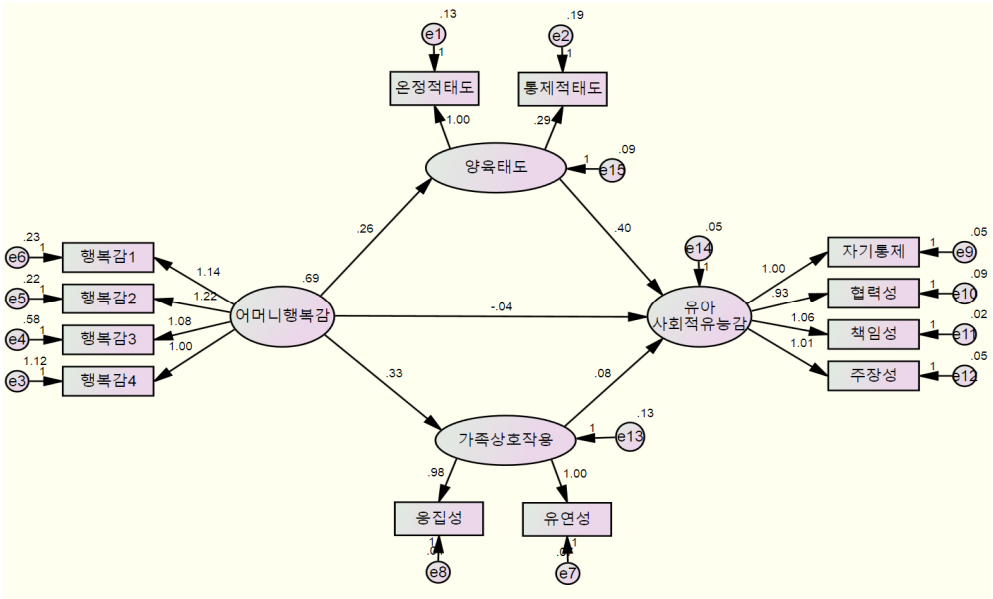
어머니 행복감과 온정적 태도, 통제적 태도, 응집성, 유연성 및 자녀의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주장성과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 상관관계는 .11~.78로 나타났고,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3. 어머니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구조적 관계

가설적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머니의 행복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가족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양육행동,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NFI, TLI, CFI, GFI가 모두 수용기준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도 .04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표 3). 이에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 가설 모델의 적합도

적합도지수	χ^2	*df*	*p*	GFI	NFI	TLI	CFI	RMSEA
모형	234.40	48	.000	.98	.97	.97	.98	.04
수용기준			<.05	>.90	>.90	>.90	>.90	<.05
		기각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그림 2〉 구조모형

구조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 =.-.11, p<.01). 어머니의 행복감이 양육태도(β =..58, p<.01)과 가족상호작용(β =.61, p<.01)에는 유의미한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β =.56, p<.01),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도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3, p<.01). 어머니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양육태도와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어머니 행복감 →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04	.02	-1.30	-.11
양육태도 → 사회적 유능감	.40	.10	4.03***	.56
가족상호작용 → 사회적 유능감	.08	.02	3.54***	.13
행복감 → 양육태도	.26	.01	14.43***	.58
행복감 → 가족상호작용	.33	.01	17.37***	.61

*** $p < .001$, ** $p < .01$, * $p < .05$

그리고 본 연구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에 대한 결과를 bootstrapping을 통해 살펴보았다.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매개효과)를 합한 값이며,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같다는 것은 매개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변수들 간의 효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행복감이 가족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61이고, 어머니의 행복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56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 행복감 -> 가족상호작용	.61**		.61**
어머니 행복감 -> 양육태도	.58**		.58**
어머니 행복감 -> 유아 사회적 유능감	-.11	.40**	.29*
가족상호작용 -> 유아 사회적 유능감	.13**		.13**
양육태도 -> 유아 사회적 유능감	.56*		.56*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 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어머니의 행복감이 양육태도와 가족 상호작용을 매개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은 양육태도와 가족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행복이 개인 및 미시, 거시적인 체계와 관련하여 특히 자녀와의 행복한 삶, 관계 속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선형, 2017; 고예진, 2011; 정계숙, 유미숙, 박수홍, 최은실, 2012). 즉, 행복한 어머니는 자녀의 개별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양육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아이와의 갈등을 이해하므로 자녀와의 신뢰로운 유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스스로 설정하고 실천한다. 이는 양육과정에서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면서도 더 넓은 사회문화 속에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설명해주는 양육태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행복한 어머니는 가족체계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연하게 서로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어머니는 상황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을 서로 밀착이 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족 내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의 순환이 일어나도록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특히나 중요한 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근화, 2006; 김명숙, 2008; 손남숙, 이숙희, 2008; 조금숙, 2005, 허묘연, 2000).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는 어머니의 따뜻한 정서적 지지와 보호, 자신이 가치롭게 수용된다고 생각되는 감정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초석이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유아들은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타인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 즉 타인들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무엇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에게 무의식적으로 체화되어 어머니와 비슷한 사회적 전략을 사용하게 되므로,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유아는 가족 체계 내 어머니로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다양한 사회적 기술 및 습관을 획득한다. Perlman과 Ross(2005)는 어머니가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일관적인 태도로 상호작용할수록 자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 쉽게 적응하며 사회에 수용되기 쉽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통제적 태도 역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유아가 순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전달하며 동시에 감정적 공감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양육태도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한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박정덕, 2013).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이 원하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상대방이 자신이 의도한 의견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다양한 사회적 전략(한애희, 2009)인 사회적 힘과 관계있다. 유아의 사회적 힘은 특정한 관련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보다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오승주, 1992), 특히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어머니(박주희, 2001)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 안의 모든 사람들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 즉 부부, 형제, 부모자녀 등이 하나의 체계로서 가족 내에서 기능을 하며 이들이 주축이 되어 전체로서의 가족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김희태, 이임순, 2009). 가족 내의 유연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체계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훗날 더 복잡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가족 내 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 결과이다(이은정,2000).

한편 본 연구에서 역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가족 상호작용보다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가족간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이지현, 2000)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으나 유연하고 응집적인 가족 내 분위기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은 유기체적인 체계로서 상호영향을 받으며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히 유아가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정서상태 뿐 아니라 어머니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과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나 이보다 더 거시적인 체계에서 그러한 양육태도가 나타나게 한 가족적 상호작용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행복감은 양육태도와 가족 상호작용을 완전 매개하여 영향을 주었으며 직접적으로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적 유능성의 특징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은 집단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간이 사회와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는 유아가 특정한 환경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판단해야 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행복이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어머니의 행복감이 자녀들과의 상호작용 방식,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는 이러한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함으로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모형은 어머니의 행복감은 단순히 개인적 의미를 넘어서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여러 발달적 요소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양육태도와 가족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양육태도와 가족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태도와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강력한 모델로써 작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상태인 행복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긍정적 정서 상태를 지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 행복감을 확인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족 내·외적 자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밝힌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행복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연구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병재(2010).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의 또래상호작용 및 사회적 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 4, 93-110.

고예진(2011).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수진(2017).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교육, 26, 1, 181-196.

권연희(2010). 아동의 기질,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정서 표현 행동의 매개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57-280.

권연희(2013).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234-235.

김경은(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 4, 1-17.

김근화 (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숙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과 유아의 사회성 간의 고나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진(2016).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의 유형 차이 분석: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중심으로 =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 2, 239-262.

김민정, 김정원(2010).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4, 2, 5-28.

김선형 (2017).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척도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선, 이숙(2015).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 1, 163-185.

김정희, 문혁준(200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 42, 10, 23-38.

김주리, 김남희(2014).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 간 관계. 생애학회지, 4, 1, 19-32.

김희태, 이임순(2009).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과 또래 유능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 1, 10-21

문순옥(2013). 아버지-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2017).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적용한 종단매개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 11, 1, 51-79.

박서영, 박성연(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 2, 29-51.

박은미, 이석순(2016). 유아기 자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보육복지연구, 20, 2, 239-262.

박은정(2000). 맞벌이 가정의 가족 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덕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수용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병렬(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 (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 2, 223-242.

손남숙, 이숙희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만 4세-6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 15, 2, 49-77.

송지윤, 김미숙(2014). 아동의 수줍음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질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0, 2, 143-154.

양진희(2016).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와 어머니의 우울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 3, 1053-1077.

오승주(1992). 유아교육기관의 아버지 인식 및 참여에 관한 연주.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Amos 5.0-20.0 공용.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유정원, 김형모(2007). 학대경험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1, 3, 361-387.

유진희(2006). 부모역할이 유아의 정서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경, 최영숙, 강상(2011). 어머니의 애정적, 거부적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간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 1, 90-113.

이은정(2000).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교우관계가 아동의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2000). 맞벌이 가정의 가족 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은옥, 최나야(2013).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2, 103-126.

정계숙(2010). 만 2-3세 유아용 사회적 유능성 척도. 유아교육연구, 30, 6, 223-244.

정계숙, 김미정, 하은식(201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 1, 73-97.

정계숙, 유미숙, 박수홍, 최은실 (2012). 자녀 생애 주기별 어머니의 행복조건에 대한 인식 경향. 아동학회지, 33, 4, 69-89.

정지나(2017). 어머니 우울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가족상호작용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6, 4, 283-296.

조금숙 (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부월(2017). 어머니의 정서지능 및 행복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 1, 91-115.

차지은, 홍상황(2017).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자기자비를 통한 우울의 매개된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6, 3, 261-284

최미숙(2014). 유아 사회적 유능성의 변화양상 및 관련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3, 1, 221-240

최연화(2011). 남녀 유아의 놀이성,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구. 육아지원연구, 6, 2, 147-164.

최옥주(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유아 사회성 간의 종단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36, 3, 128-150.

최은아, 정계숙(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행복 의미 구성 과정.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 5, 261-292.

한애희 (2009). 유아의 기질, 언어능력 및 대인관계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예지, 안혜령, 이순형(2017).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사회적 유능감의 종단적 관계에서 언어 · 인지발달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5, 217-217.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encyclopedia of adolescent. by R. rerner, A peterson, J. brooks-gunn(eds.), 746-762. N. Y.: Garland Pubilishing Company.

Campbell, S. B., &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3, 467-488.

David Olson(2011).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 validation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1, 64 - 80.

Flora, D. B. & Curran, P. J(2004). An empirical evaluation of alyernative methods of estimation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ordinal data. psychological mothods, 9, 4, 466-491.

Frey, J. R., & Elliott, S. N., & Gresham, F. M.(2011). Preschoolers' Social Skills: Advances in Assessment for Intervention Using Social Behavior Ratings. School mental health, 3, 179-190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American Guidance

Lopez, S. J. (2011). 인간의 번영 추구하기(권석만, 임영진, 신우승 역). 서울:학지사(원저: Positive psychology : exploring the best in people. v. 4)

Olson. D.(2011).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Validation Study.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37, 1, 64-80.

Perlman, M., & Ross, H.S. (2005). If-then contingencies in children's sibling conflicts. Merrill-Palmer Quarterly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1(1), 42-66.

Reiss, H. G. T., & Collins, W. A., & Berscheid, E.(2000). The relationship context of human behavior an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6(6), 844-872.

Snyder, J., & Cramer, A., & Afrank, J., & Patterson, G. R. (2005). The contributions of ineffective discipline and parental hostile attributions of child misbehavior to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at home and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30.

Thompson, A., & Hollis, C., & Richards, D. (2003). Authoritarian parenting attitudes as a risk for conduct problem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 (2), 84-9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other's happiness, parenting behavior, family interaction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ae Hye Kyoung and Je hui 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mother's happiness, parenting behavior, family interaction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as established and analyzed to estimate the path from mother's happiness to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mediat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family interaction. For the analysis of SEM, 2014 years Data that collected by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 AMOS 23.0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happiness had no direct effect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ut had sta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mediat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family interaction. second, since mother's happiness is important to improv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upporting system for mother's happiness is required to promote children development.

Key words: mother's happiness, parenting behavior, family interacti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토론문

김정숙 (부천대학교 교수)

본 고는 유아 발달에 주요 관련 요인 중 하나인 부모 및 가정 변인을 토대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그동안 대부분 연구들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상태인 우울, 스트레스 등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인의 삶과 관련하여 웰빙, 안녕, 행복, 삶의 질, 삶의 만족이라는 용어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관련 분야에서도 2005년 이후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 유아의 행복, 부모의 행복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행복(감)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양육태도와 유아발달, 가족 상호작용과 유아발달에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여 긍정적 측면인 어머니의 행복감을 함께 고려하여 양육태도, 가족 상호작용과 유아의 발달 간 관련성을 알아보았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론 첫째 문장에서 유아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유아기는 가정이라는 안정적이며 지지적인 곳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영아기부터 기관 이용을 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상황을 고려 할 때 과연 유아기가 처음으로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에서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시기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에 사회적 역량과 기술에 관한 요구가 있는 시기라는 논지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서론의 중간 쯤에서 보다보면 행복한 어머니라는 용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과연 행복한 어머니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행복감은 윤

리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학문분야에 따라 개념정의가 다르며, 얼핏보면 행복감은 주관적 측면인 것 같지만, 행복감에는 객관적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객관적 행복감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리적, 물질적 요소(예, 경제적 자원, 주택 등)와 관련되며 well-being, 즉 삶의 질이라고 제시되는 반면,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비물질적 요소로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이라고 제시된다(박승규, 박진경 조창덕, 2015:24-25). 또한 주관적 행복감인 경우에도 주관적 안녕감(subject well-being)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행복감의 판단기준 및 구성요소가 다르다. 즉, 학자들에 따라 행복감에 대한 개념이 상이함으로 본 연구가 어머니의 행복감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측정했는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행복감 측정도구가 4문항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불명확함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더불어 본문을 읽다보면 사회적 유능성과 사회적 유능감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social competence'를 사회적 유능성이라 보고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개인이 자신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사회의 규칙과 가치를 내면화 하는 능력(박새롬 외, 2017),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과정, 개인의 인성적 특성, 그리고 인간이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정계숙, 2010)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유능감은 집단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간이 사회와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개념정의가 유능감과 매우 비슷합니다. 국내연구의 경우 'social competence'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사회성, 사회적 적응능력, 사회적응능력, 사회적 역량,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감으로 다양하게 명명하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론적 관점, 진화론적 관점,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이 다르며, 사회적 유능성의 경우에도 통합적/발달론적 관점에서의 사회 적응 측면도 있을 수 있으며,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 유능성과 사회적 기술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정의 위주로 단순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본 연구의 핵심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일부는 측정도구에서 제시한 특정 개념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어떤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 개념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심층적인 이론적 고찰이 연구의 필요

성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자가 어떤 측면에서 그 개념을 바라보고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토대로 나온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내릴 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논의 및 결론 부분의 경우에는 둘째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양육에 있어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한 연구(박정덕, 2013)과 일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온정적, 민주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통제적, 권위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박정덕(2013)의 연구에서 양육태도를 단순히 권위적 양육태도로 한정하여 제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양육태도 측정 도구를 애정적-거부적 태도, 자율적-통제적 태도, 민주적-권위적 태도, 의도적 무관심-과잉보호적 태도, 일관성-비일관성 태도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제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결과를 논의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 상호작용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하지만 가족 내 분위기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므로 이보다 더 거시적 체계에서 그러한 양육태도가 나타나게 한 가족적 상호작용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가 맥락적으로 논리적 관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함으로 이를 단순히 가족 상호작용의 특징으로만 한정하여 살펴본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언부분에서 아버지의 행복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유아 발달과 관련하여서는 부모 변인이 중요하나 가정 상황에 따라 부모보다는 할머니, 또는 제 3의 양육자가 유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모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속한 가정상황에 따라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 즉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기 시간 활용의 차이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진영[1)]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하루 시간 활용 패턴의 차이가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지 능력의 경우 아동의 시간 활용 패턴에 영향을 받으며, 가정 내 교육활동이 인지 능력 향상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지적 능력의 경우, 특정 활동에 대한 시간 투입보다는 부모의 통제적 또는 온정적 양육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시간 활용, 아동 발달, 인지 능력, 비인지 능력

Ⅰ. 서론

한 개인의 아동기 또는 유년기에 측정된 인적자본 수준이 해당 개인의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Keane & Wolpin(1997)은 유년기의 인적자본 수준이 향후 해당 개인의 직업 선택과 임금수준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Heckman, J.J., Stixrud, J. & Urzua, S(2006)는 인적자본의 범위를 확장하여, 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비인지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후 비인지적 인적자본의 영향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미취학 아동들 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역량 격차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된 바 있다[2)].

아동기 인적자본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증연구들은 아동기 인적자본 수준을

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2) 참조할 만한 연구로 Feinstein(2003), Cunha & Heckman(2007; 2008), Cunha, F., Heckman, J.J. & Schennach, S.M.(2010) 등이 있다.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였다. 관련하여 가구 소득, 가족의 형태, 부모의 학력 수준, 모(母)의 근로 여부, 학교의 질, 거주지 주변 환경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왔다.(Del Bono, E., Francesconi, M., Kelly, Y. et al., 2016).

한편 기존의 많은 연구가 인적자본을 내재화하는 아동의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에서야 아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대개 아동이 수행하는 활동에 집중하여, 인적자본 형성에 가장 효율적인 활동이 무엇인지에 밝혀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Fiorini & Keane(2014)은 호주의 아동패널데이터(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를 활용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Fiorini and Keane(2014)과 유사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서구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3] 또한,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각 나라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와 기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 간 양육 방식의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활동을 주요 변인으로 아동의 인적자본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국내 연구는 저자가 아는 한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를 활용하여 아동의 시간 활용 차이가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이 답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아동의 시간 활용 차이가 실제 아동의 인지적, 비인지적 인적자본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이는 서로 다른 활동에 대한 시간 투자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인지적, 비인지적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만약 아동의 시간 활용 차이가 인적자본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인지적, 비인지적 인적자본 간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다. 이는 인지적 인적자본 생산함수와 비인지적 인적자본 생산함수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저자가 아는 한 처음으로 국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의 시간 활용 차이가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3) 예를 들어 Del Bono, E., Francesconi, M., Kelly, Y. et al.,(2016)은 영국 데이터로, Del Boca, D., Monfardini, C., & Nicoletti, C.(2017)은 미국 데이터로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의의가 있다. 또한, Sandra E. Black, Paul J. Devereux & Kjell G. Salvanes(2007)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의 출생 시 초기조건은 인적자본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외국 연구 문헌의 경우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경우 한국아동패널데이터의 1차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추정의 정확성을 더욱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정모형의 측면에서 기존에 주로 활용되던 모형에 더해 추가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추정의 강건성(robustness) 역시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의 특성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요 변수에 관해 설명한다. 이후 3장에서는 6가지 추정 모형을 제시하고 개별 추정 모형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추정 결과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 논지에 대해 요약 및 정리한다.

Ⅱ. 자료

한국아동패널데이터는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종단면조사이다. 1차연도 조사에는 총 2,078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가장 최근 9차연도 조사에는 1,525명 참여하였다. 다만 본 연구를 위해 8차연도 조사까지만 자료가 공개된 관계로 본 연구에서도 1차연도부터 8차연도까지 자료만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데이터는 아동의 발달수준뿐만 아니라 가구 및 지역사회의 특성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유일한 국내자료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bias)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가능한 한 모두 통제변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아동패널데이터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자료는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 시간일지(Time Use Diaries)

한국아동패널데이터는 개별 아동의 시간일지를 제공한다. 시간일지란 아동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특정 활동에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기록되어 있다. 조사대상이 되는 아동의 나이가 많지

않은 관계로 주로 주 양육자인 모(母)가 작성한다.

1차연도와 2차연도 조사의 경우 시간일지가 제공되지 않는데, 영유아 시기는 절대적으로 수면시간이 많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차연도부터 8차연도 조사의 경우, 조사 차수에 따라 시간일지 내 활동 구분 기준이 다소 상이하다. 분석을 위해서는 단일한 기준으로 활동을 분류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7개의 활동으로 재정리하였다.

① 수면 시간(낮잠 포함)
② 육아지원기관(유치원, 복지관 등) 및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③ 가정 내 교육 활동 시간(책 읽는 시간, 혼자 숙제하는 시간 등)
④ 실내놀이 활동시간(TV 시청, 장난감 놀이, 인터넷 및 게임기 사용 등)
⑤ 외출 및 실외 활동시간
⑥ 식사, 세면, 옷 입기 등 기본생활 시간
⑦ 기타 시간

2. 표본 탈락(Attrition)과 표본 선택(Selection)의 문제

다른 패널데이터와 같이 한국아동패널데이터도 조사 차수가 지남에 따라 표본 탈락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표본이 명시적으로 탈락하지 않더라도 실제 분석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설문이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특성에 대한 설문은 참여하였으나, 가구의 특성에 관한 설문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다. 한국아동패널데이터는 어느 한 설문에만 참여하면 표본이 유지(retention)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실제 이와 같은 자료는 종속변수 또는 주요 독립변수가 누락된 상태로 분석에 이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아동, 가구 그리고 지역사회 중 어느 한 분야라도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작성된 시간일지가 불일치(inconsistent)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하루 활동 시간 총합이 36시간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시간일지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특히 3차연도와 4차연도 자료의 경우, 시간일지에 기재된 시간의 총합이 정확히 24시간이 되지 않는 자료가 대다수였다. 이는 시간일지 조사 초기, 시간일지 응답에 익숙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시간일지에 기재된 시간의 총합이 24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동들의 시간 활용 차이인 만큼, 대부분의 시간일지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3차연도와 4차연도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표1>은 1차연도 및 5차연도부터 8차연도까지 자료에 대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표본 탈락 사유를 반영한 후, 남은 표본의 수를 차수별로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표 1〉 차수별 불완비/불일치 표본 제거 후 표본 수

	1차(08)		5차(12)		6차(13)		7차(14)		8차(15)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설문 참여자 수	2,078	-	1,703	-	1,662	-	1,620	-	1,598	-
불완비/불일치 표본 수	269	13%	99	6%	134	8%	153	9%	148	9%
선택 표본 수	1,809	87%	1,604	94%	1,528	92%	1,467	91%	1,450	91%

註: 1) 비율 수치는 각 차수별 설문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2) 회귀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수 관련 설문에 미응답한 경우 불완비한 표본으로, 시간일지에 기재된 시간의 총합이 24시간이 아닌 경우 불일치한 표본으로 간주함.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연도 자료 대비 선택 표본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문제는 불완비/불일치 표본의 발생과 차수가 거듭되며 나타나는 설문 참여자의 감소가 임의(random)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아동패널데이터가 최초 설계될 때는 표본이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되었을 것이나, 실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들은 선택 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표본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빗(probit)모형을 활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1차연도의 인구학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을 독립변수로 두고, 각 차수별로 특정 표본이 선택된 경우 종속변수에 1을 부여하고 아닌 경우 0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정 인구학 특성이 표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것이다. <표2>는 프로빗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2>에 따르면 6차연도와 8차연도 자료[4]를 기준으로, 1차연도 조사 시 아동의 월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될 확률이 높

4) 후술(後述)하겠으나 본 논문의 주요 대상이 되는 차수는 6차연도 조사와 8차연도 조사이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6차연도의 경우, 아동이 장남 또는 장녀가 아니고 1차연도 조사 당시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선택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계수 값이 크지 않고, 유사 결정계수(Pseudo R-squared) 역시 크지 않아 정량적으로 표본 선택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차수별 프로빗 모형 추정치

	5차연도	6차연도	7차연도	8차연도
성별(여아)	-0.018	-0.021	-0.014	-0.010
월령(개월)	-0.025***	-0.020**	-0.027***	-0.022**
모(母) 나이(세)	0.000	-0.002	-0.002	-0.002
부(父) 나이(세)	-0.002	-0.003	-0.002	0.000
부모 동거 여부	-0.002	-0.006	-0.041	-0.013
핵가족 여부	0.063**	0.051*	0.048*	0.045
아동 첫째 여부	-0.058***	-0.051**	-0.040*	-0.026
부모 교육연수 최댓값	0.003	0.003	0.003	0.009*
대도시 거주 여부	-0.054***	-0.062***	-0.033	-0.018
월 가구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모(母) 근로 여부	0.005	0.052**	0.034	0.027
출생시 체중(그람)	0.000	0.000	0.000	0.000
유사 결정계수 (Pseudo R-squared)	0.025	0.020	0.015	0.013

註: 1) 표에 제시된 추정치 값은 각 변수의 평균에서 나타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의미함. 단, 성별 등 가변수(dummy)의 경우, 가변수의 값이 1일 때의 한계효과임.

2) *** $p < 0.01$, ** $p < 0.05$, * $p < 0.1$

3) 가변수 설명: 부모 동거 여부 변수는 부모가 모두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1, 이외의 경우 0을 부여함. 부모 교육연수 최대값은 Max{모의 교육연수, 부의 교육연수}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모가 전업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 근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3. 주요 변수

가. 기초통계량

본 장의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아동패널데이터는 아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구 및 지역사회의 특성까지 포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표3>은 아동 및 가구의 특성에 관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값을 정리한 것이다. 주지할 점은 <표3>에 제시된 변수들이 기존의 연구에서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주장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근거하여 <표3>에 제시된 변수들을 추정 모형의 기본 통제변수로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표3>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全) 조사연도에 걸쳐 남아와 여아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아동이 태어나던 시점에 부모의 연령은 30대 초반이며, 부가 모보다 약 2.5세 정도 나이가 많다. 부모의 교육연수 최댓값은 약 15.3년 정도이며, 대다수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덧붙여 약 90% 정도의 설문 대상 가구가 핵가족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대상 가구의 대도시 거주 비율은 약 40% 정도 수준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母)가 직장에서 근로하는 비중이 5차연도 이후 조사에서 1차연도 조사대비 약 12% 정도 상승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육아 부담이 경감됨과 동시에 양육비 부담 등에 따른 경제적 이유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진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 차수별 인구학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1차(08)		5차(12)		6차(13)		7차(14)		8차(1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여아)	0.49	0.50	0.49	0.50	0.49	0.50	0.49	0.50	0.49	0.50
월령(개월)	5.57	1.20	51.03	1.22	62.65	1.33	75.09	1.45	87.94	1.58
모(母) 나이(세)	31.33	3.66	34.82	3.68	36.10	3.59	36.84	3.65	37.90	3.68
부(父) 나이(세)	33.82	4.05	37.30	3.95	38.56	3.93	39.30	3.96	40.38	3.96
부모 동거 여부	0.95	0.23	0.96	0.19	0.97	0.18	0.97	0.16	0.96	0.19
핵가족 여부	0.78	0.42	0.90	0.30	0.91	0.29	0.91	0.29	0.89	0.31
아동 첫째 여부	0.48	0.50	0.46	0.50	0.46	0.50	0.46	0.50	0.47	0.50
부모 교육 연수 최댓값	15.34	2.39	15.34	2.33	15.33	2.34	15.34	2.34	15.38	2.35
대도시 거주 여부	0.40	0.49	0.38	0.49	0.41	0.49	0.42	0.49	0.42	0.49

〈표 3〉 계속

	1차(08)		5차(12)		6차(13)		7차(14)		8차(1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월 가구소득(만원)	321.8	149.7	478.3	472.2	435.0	215.1	452.3	210.1	464.1	200.3
모(母) 근로여부	0.30	0.46	0.42	0.49	0.43	0.50	0.45	0.50	0.44	0.50
출생시 체중(그람)	3,258	408.7	-	-	-	-	-	-	-	-
표본수	1,809		1,604		1,528		1,467		1,450	

註: 1) 가변수 설명: 부모 동거 여부 변수는 부모가 모두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1, 이외의 경우 0을 부여함. 부모 교육연수 최대값은 Max{모의 교육연수, 부의 교육연수}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모가 전업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 근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나. 각 활동별 시간 배분

본 장의 1절에서 시간일지를 바탕으로 아동의 하루를 7개의 활동으로 분류한 바 있다. <표4>는 이러한 분류 기준에 맞춰 차수별로 아동들의 시간 활용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자료이다. <표4>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수면시간이 줄고 전반전인 활동시간이 늘어난다. 둘째, 육아지원기관 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7차연도 조사까지는 증가하다, 오히려 8차연도 조사에서 감소한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8차연도), 오전 수업 후 하교하는 데 반해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에서는(7차연도 이전) 오후까지 시간을 주로 보내기에 나타나는 역전 현상으로 보인다. 셋째, 7차연도 이전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아동 간 표준편차가 차수가 지남에 따라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상이하나 특정 연령대가 되면 거의 모든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아동의 연령이 낮을 때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있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대다수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감소하는 것이다. 넷째, 가정 내 교육활동 시간은 그 절대적 크기와 아동 간 표준편차가 차수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구 간 아동에 대한 교육활동 투자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생활 시간 또는 기타 시간의 경우, 차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표 4〉 차수별 시간 활용 기초통계량

단위 : 분(minute)

활동	5차연도				6차연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면	604.9	51.8	390.0	840.0	595.5	44.7	420.0	780.0
육아지원/학교	413.6	112.0	0	780.0	428.8	86.8	0	720.0
가정 내 교육활동	86.2	43.4	0	360.0	98.4	46.6	0	330.0
실내놀이 활동	159.0	61.0	15.0	450.0	144.7	55.4	0	480.0
외출 및 실외활동	70.2	51.4	0	360.0	68.8	47.9	0	300.0
기본생활	77.4	37.7	0	300.0	82.7	36.2	30.0	240.0
기타	28.7	52.3	0	330.0	21.1	37.4	0	180.0
활동	7차연도				8차연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면	588.5	42.0	420.0	750.0	577.5	37.8	420.0	720.0
육아지원/학교	454.0	74.6	0	810.0	386.1	64.7	30.0	660.0
가정 내 교육활동	92.1	39.3	0	300.0	139.5	53.1	0	360.0
실내놀이 활동	129.5	50.0	0	330.0	172.6	74.2	0	600.0
외출 및 실외활동	64.9	43.0	0	360.0	68.9	54.9	0	300.0
기본생활	82.8	34.9	30.0	180.0	79.6	30.1	30.0	240.0
기타	28.3	45.6	0	180.0	15.7	32.7	0	180.0

註: 1) 표본수 5차 = 1,604, 6차 = 1,528, 표본수 7차 = 1,467, 6차 = 1,450

다. 인지적, 비인지적 아동발달지수

한국아동패널데이터는 조사연도마다 아동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수행검사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동이 직접 문제를 풀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이를 흔히 수행검사라고 한다. 다른 방법은 주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가 아동의 행동 또는 특성 등을 관측하여 설문에 응하면, 해당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발달수준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행검사 중 하나인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를 사용하였고, 아동의 비인지적 발달수준에 대한 지표로는 설문조사로 진행되는 '유아행

동평가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활용하였다. 각 검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란 다양한 품사별 어휘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검사이다. 검사는 쉬운 어휘부터 질문을 시작하여 기준점(기초선)을 확립한 후, 어휘의 난도(難度)를 계속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난도 이상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최고한계선이 결정되며, 이에 근거하여 원점수가 산출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원점수 자료를 표준화(standardization)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유아행동평가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

유아행동평가척도는 보호자의 설문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도구이다. 응답자는 '늘 하던 일과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와 같은 질문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 내에서 응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아행동평가척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증후군 중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란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불안, 신체 증상 등이 내재화되어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참고로 유아행동평가척도에는 내재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총 36개 존재한다. 다른 한편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란 주의력이 떨어지고, 공격적인 행동 등 스스로 통제가 부족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설문지 내 관련 문항이 총 24개 존재한다. 유아행동평가척도 역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와 같이, 제공되는 원점수를 표준화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단, 원래 제공되는 원점수의 경우 그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문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나, 본 논문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문제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라. 양육 방식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부모를 상대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다. 부

모가 아동을 대할 때, 취하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예를 들어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와 같은 설문 문항이 제시되고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로 답하게 된다. 부모의 아동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측면, 즉 온정적 측면과 통제적 측면에서 평가되는데, 각 항목에 대해 6개의 질문이 제시된다. 총점은 두 평가 요소에 대한 설문의 응답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또는 통제적 양육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온정적 양육 평가 척도에서 1점이 더 높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모호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두 항목 모두에 대해 합산 점수가 18점(6개 문항에 모두 '보통이다'를 선택한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1을 부여하고 아닌 경우 0을 부여하는 가변수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Ⅲ. 추정 모형

추정 모형은 Todd & Wolpin(2007)이 인적자본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제시한 다섯 가지 모형을 원용하되, 한 가지 모형을 추가하였다. Todd & Wolpin(2007)이 제시한 추정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아동 i의 나이가 a일 때, 인적자본 수준 Y가 다음과 같이 선형(linear)으로 근사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Y_{ia} = X'_{i(K\times a)}\beta_{i(K\times a)} + \gamma_a\mu_i + \epsilon_{ia} \quad (1)$$

이때 행렬 X'는 인적자본 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K개의 요소의 a세 때까지 투입량을 나타내며, μ_i는 선천적인 능력을 나타낸다. 간단히 설명하면 앞의 항은 후천적인 자원투입으로 형성된 인적자본을 의미하며, 뒤의 항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적자본 수준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아동의 특정 활동에 대한 시간 투입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식(1)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Y_{ia} = TI'_{i(K\times a)}\beta_{i(K\times a)} + PB'_{i(G\times a)}\delta_{i(G\times a)} + \epsilon_{ia} \quad (2)$$

이때 행렬 TI'는 K개의 활동에 대해 a세 때까지 매기 투입한 시간의 규모를 나타내며, 행렬 PB'는 아동 및 부모의 인구학 특성 등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식(1)을

식(2)와 같이 변형하는 과정에서 행렬 PB'는 대리변수(proxy)로서 식(1)의 행렬 X'과 스칼라 μ_i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추정을 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식별하기 어려울 뿐더러, 모두 식별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에 의한 편의(bias)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2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가능한 한 모두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아동패널데이터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자료는 추정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의 출생 시 체중과 같은 중요 변수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는 해당 연구들이 사용한 아동패널데이터가 아동의 출생 시점부터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한국아동패널데이터는 출생 시점부터 해당 아동 및 부모의 특성을 조사해온 관계로, 아동의 출생 시 조건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고, 이는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 문제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시간이라는 점에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생각해보자. 한 아동이 학습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해당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아서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하는 시간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은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계량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여섯 가지의 추정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 모형은 나름의 가정에 근거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내생성을 처치한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추정 모형을 사용한 결과, 강건성(robustness)을 보이는 특정 활동이 있다면, 제한적으로나마 인과성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하의 절에서는 간략히 여섯 가지 모형의 특성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Contemporaneous Model (CT)

각종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모형이다. 모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기에 나타나는 인적자본 수준은 이번 기에 투입된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

하는 모형이다. 위와 같은 모형이 합리화될 수 있는 상황은 매기 특정 활동에 대한 시간 투입과 아동 관련 변수들이 크게 변하지 않을 때이다. 이 모형은 데이터가 패널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모형으로서, 본 모형의 추정치는 다른 모형들과 비교의 기준점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Y_{ia} = TI'_{ia(K)}\beta_{ia(K)} + PB'_{ia(G)}\delta_{ia(G)} + \epsilon_{ia} \quad (3)$$

2. Value Added Model (VA)

이 모형은 CT모형에 $\lambda_a Y_{i,a-1}$ 항을 하나 추가한 모형이다. CT모형의 경우, 행렬 PB'를 선천적 능력을 나타내는 μ_i를 비롯한 관측되지 않는 요소(unobserved inputs)의 적절한 대리변수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VA모형의 경우, 직접적으로 선천적 능력인 μ_i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의 인적자본 수준을 시차변수(lagged variable)로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Y_{ia} = TI'_{ia(K)}\beta_{ia(K)} + PB'_{ia(G)}\delta_{ia(G)} + \lambda_a Y_{i,a-1} + \epsilon_{ia} \quad (4)$$

3. Fixed Effect Model (FE)

패널데이터라는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흔히 말하는 (개체 내) 고정효과 모형이다. 이 모형은 VA모형이 시차변수를 반영하여 타고난 능력인 μ_i를 통제하는 것과 달리, 1차 차분을 통해 μ_i를 추정식에서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모형은 관측 가능한 요소, 즉 아동의 시간 투입과 아동의 특성 등이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기 같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triangle Y_{ia} = \triangle TI'_{ia(K)}\beta_{ia(K)} + \triangle PB'_{ia(G)}\delta_{ia(G)} + \triangle\epsilon_{ia} \quad (5)$$

4. Cumulative Time Model (CU1)

본 모형은 Todd & Wolpin(2007)의 논문에 제시되지 않은 모형으로, 저자가 새롭게 고안한 모형이다. 모형의 핵심 가정은 한 기의 시간 선택은 내생적으로 결정될지 모르

지만, 장기간에 걸쳐 특정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외생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CT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시간변수만 해당 기까지 특정 활동에 투자한 시간을 모두 합하는 형태로 변형하여 추정한다.

$$Y_{ia} = \sum_{j=1}^{a} TI'_{ij(K)}\beta_{ia(K)} + PB'_{ia(G)}\delta_{ia(G)} + \epsilon_{ia} \quad (6)$$

5. Contemporaneous + Lagged Inputs (CU2)

이 모형은 CT모형과는 반대로 이번 기에 나타나는 인적자본 수준은 이번 기까지 투입한 각 기의 모든 투입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특정한 활동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매기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 역시 μ_i에 대해서는 행렬 $PB'_{ia(G\times a)}$가 대리변수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Y_{ia} = TI'_{i(K\times a)}\beta_{i(K\times a)} + PB'_{i(G\times a)}\delta_{i(G\times a)} + \epsilon_{ia} \quad (7)$$

6. Contemporaneous + Lagged Inputs + Lagged Test (CV)

본 모형은 CU2모형에 전기의 인적자본 수준 $Y_{i,a-1}$을 시차변수로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CT모형을 VA모형으로 확장한 것과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Y_{ia} = TI'_{i(K\times a)}\beta_{i(K\times a)} + PB'_{i(G\times a)}\delta_{i(G\times a)} + \lambda_a Y_{i,a-1} + \epsilon_{ia} \quad (8)$$

Ⅳ. 추정 결과

3장에서 설명한 여섯 가지 모형 중 CT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모형은 추정을 위해 단일 조사 차수가 아닌 복수의 조사 차수 자료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가 아동발달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매년 상이한 검사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각 조사 차수의 검사 결과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데 큰 제한이 있었다. 다행히 6차연도 조사와 8차연도 조사가 공통적으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와 유아행동평가척도 설문을 시행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당 두 차수를 기본 분석 자료로 활용하

였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모형의 독립변수에는 7개의 활동에 대한 개별 시간 투입량이 포함된다. 이때 7개의 열벡터를 합한 열벡터는 각 원소의 값이 모두 24이므로, 절편 벡터와 다중공선성(perfect multicolinearlity) 문제를 일으킨다. 이 경우 추정을 위해 하나의 열벡터를 제외할 수밖에 없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정 내 교육활동'을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표5>~<표8>의 시간 투입 관련 회귀계수를 해석할 때는 가정 내 교육활동 1분 줄이는 대신 해당 활동에 1분 더 투입했을 경우 나타나는 상대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한다.

1. 인지적 능력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표5>는 수용 어휘력 검사 결과를 종속변수로 여섯 가지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표5>는 '가정 내 교육활동' 대비 다른 활동의 상대적 효율성만 보여줄 뿐, 여타 다른 활동 간 관계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실내놀이 활동시간과 수면시간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 알 수 없다. 이를 보완하고자 <부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7개 활동을 한 번씩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정을 반복하여, 시간 변수 관련 회귀계수 교차 분석표를 작성하였다. 행(row)과 열(column) 모두 인적자본 형성에 가장 효율적인 활동부터 가장 비효율적인 활동 순으로 나열된 것이며, 특정 칸의 값은 열의 활동을 1분 줄이는 대신 행의 활동을 1분 늘렸을 때 얻게 되는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표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정 내 교육활동' 또는 가정에서 주 양육자와 보내는 '기본생활' 시간이 인지적 인적자본 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5>에서는 시간 관련 변수의 계수가 대부분 음수로 나타나며, <부표1>에서는 두 활동이 거의 모든 모형에서 가장 상위에 표기된 것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모든 모형에서 기타 시간이 인지적 인적자본 형성에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약 기타 시간이 특별한 목적성 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반영하고 있다면, 아동기에는 다양한 자극을 통해 아동의 발달이 촉진된다는 점에서 해당 결과를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의 외출 및 실외활동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육아지원기관/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아동기 시간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다른 인구학 특성 변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T모형에 의하면 아동

이 하루에 게임, TV 시청 등으로 1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가정 내에서 독서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1시간을 더 투자한다면, 대략 0.12SD 정도의 REVT(수용 어휘) 점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모의 교육연수 최댓값이 약 2.7년 증가했을 때 기대되는 증가분의 크기와 같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경우, 부모의 교육연수 최댓값이 크고, 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의 인지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교육 투자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잘 부합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의 양육 방식이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값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부모의 통제적 양육 방식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6>과 <부표2>는 표현 어휘력 검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현 어휘력 검사의 회귀분석 결과는 수용 어휘력 검사 회귀분석 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단, '기타 시간'이 아닌 '실내놀이 활동시간'이 REVT(표현 어휘) 점수 향상에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 어휘력 검사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차연도 표현 어휘력 검사의 경우, 심층 조사 대상자만 실시하여 표본 수가 현저히 적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비인지적 능력 (유아행동평가척도)

<표7>과 <표8>은 각각 유아행동평가척도의 내재화 문제 변수와 외현화 문제 변수를 종속변수로 아동의 비인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된 결과는 앞 절의 인지적 능력 추정치와 매우 상이하다. 특히, 특정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는 내재화 문제 변수와 외현화 문제 변수와 관련된 비인지적 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아행동평가척도의 경우, <부표1>과 같은 교차 분석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내재화 문제의 경우, 아동이 첫째인 경우 해당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미하지만 높은 월 가구소득은 내재화 문제 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온정적일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 점수가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 교감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정서불안, 소극적 행동, 불안 및 우울 등의 문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해당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화 문제와 달리, 아동이 첫째인지 여부는 외현화 문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외현화 문제 역시, 부모의 양육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통제적 양육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반대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수용 어휘력 검사 회귀분석 결과

	CT	VA	FE	CU1
수면	-0.001**(0.001)	-0.002***(0.001)	-0.000(0.001)	-0.001***(0.001)
육아지원/학교	-0.001***(0.000)	-0.002***(0.001)	-0.001(0.001)	-0.001***(0.000)
실내놀이 활동	-0.002***(0.000)	-0.002***(0.001)	-0.001(0.001)	-0.002***(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0(0.001)	-0.001**(0.001)	-0.000(0.001)	-0.001*(0.000)
기본생활	-0.001(0.001)	0.001(0.001)	-0.001(0.001)	0.000(0.001)
기타	-0.003***(0.001)	-0.003***(0.001)	-0.003***(0.001)	-0.002***(0.001)
성별(여아)	0.223***(0.042)	0.046(0.053)		0.148***(0.053)
월령(개월)	-0.003**(0.001)	0.007(0.016)	-0.002(0.005)	0.027(0.018)
모(母) 나이(세)	0.008(0.008)	0.001(0.010)	0.010(0.032)	0.002(0.010)
부(父) 나이(세)	0.006(0.008)	0.008(0.009)	-0.014(0.068)	0.010(0.010)
부모 동거 여부	0.235**(0.101)	0.160(0.123)	0.141(0.110)	0.252**(0.119)
핵가족 여부	-0.154***(0.060)	-0.038(0.089)	-0.048(0.098)	-0.066(0.086)
아동 첫째 여부	0.141***(0.045)	0.187***(0.055)	0.329(0.528)	0.215***(0.058)
부모 교육연수 최댓값	0.044***(0.009)	0.026**(0.011)	-0.004(0.053)	0.040***(0.013)
대도시 거주 여부	0.025(0.042)	-0.046(0.049)	0.163(0.155)	-0.047(0.053)
월 가구소득 (만원)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모(母) 근로 여부	0.037(0.044)	0.032(0.054)	0.099(0.065)	0.029(0.058)
출생시 체중 (그람)	0.000(0.000)	0.000**(0.000)		0.000*(0.000)
통제적 양육 > 18	0.091*(0.051)	0.242***(0.064)	0.116*(0.062)	0.197***(0.073)
온정적 양육 > 18	0.095(0.066)	-0.067(0.083)	-0.024(0.078)	-0.008(0.092)
이전기 인적자본 수준		0.388***(0.042)		
관측치 수	2,903	1,355	1,312	1,361
결정계수 (R-Squared)	0.065	0.216	0.019	0.079

註: 1) 괄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 오차임. 다중공선성 문제로 '가정 내 교육활동'를 제외함. 단, 그러므로 시간 투입 관련 회귀계수는 가정 내 교육활동 1분 줄이는 대신 해당 활동에 1분 더 투입했을 경우 나타나는 상대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함.
2) 모든 시간변수의 단위는 분(minute)임. 3) *** $p < 0.01$, ** $p < 0.05$, * $p < 0.1$

〈표 5〉 계속

	CU2		CV	
	8차연도	6차연도	8차연도	6차연도
수면	-0.003***(0.001)	0.000(0.001)	-0.002***(0.001)	0.000(0.001)
육아지원/학교	-0.001*(0.001)	-0.000(0.001)	-0.002***(0.001)	-0.000(0.001)
실내놀이 활동	-0.002***(0.001)	0.000(0.001)	-0.002***(0.001)	0.000(0.001)
외출 및 실외활동	-0.001*(0.001)	0.000(0.001)	-0.001**(0.001)	-0.000(0.001)
기본생활	0.001(0.001)	0.001(0.001)	0.000(0.001)	0.001(0.001)
기타	-0.002**(0.001)	-0.000(0.001)	-0.002***(0.001)	0.001(0.001)
성별(여아)	0.136***(0.052)		0.016(0.049)	
월령(개월)	0.035*(0.018)		0.011(0.016)	
모(母) 나이(세)	0.002(0.010)		0.001(0.010)	
부(父) 나이(세)	0.013(0.010)		0.008(0.009)	
부모 동거 여부	0.241**(0.122)		0.170(0.119)	
핵가족 여부	-0.048(0.080)		0.030(0.076)	
아동 첫째 여부	0.219***(0.056)		0.183***(0.051)	
부모 교육연수 최댓값	0.046***(0.012)		0.029**(0.011)	
대도시 거주 여부	-0.031(0.053)		-0.053(0.049)	
월 가구소득 (만원)	0.001***(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모(母) 근로 여부	0.001(0.059)		0.029(0.054)	
출생시 체중 (그람)	0.000*(0.000)		0.000*(0.000)	
통제적 양육 > 18	0.163**(0.077)	0.071(0.066)	0.219***(0.067)	0.042(0.059)
온정적 양육 > 18	-0.010(0.094)	0.120(0.086)	-0.044(0.081)	0.058(0.077)
이전기 인적자본 수준				0.421***(0.034)
관측치 수	1,330		1,324	
결정계수 (R-Squared)	0.096		0.247	

註: 1) 괄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 오차임. 다중공선성 문제로 '가정 내 교육활동'를 제외함. 단, 그러므로 시간 투입 관련 회귀계수는 가정 내 교육활동 1분 줄이는 대신 해당 활동에 1분 더 투입했을 경우 나타나는 상대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함.
2) 모든 시간변수의 단위는 분(minute)임. 3) *** $p < 0.01$, ** $p < 0.05$, * $p < 0.1$

〈표 6〉 표현 어휘력 검사 회귀분석 결과

	CT	VA	FE	CU1
수면	-0.002**(0.001)	-0.001(0.001)	-0.000(0.001)	-0.002**(0.001)
육아지원/학교	-0.001*(0.001)	-0.001(0.001)	-0.000(0.001)	-0.001**(0.000)
실내놀이 활동	-0.003***(0.001)	-0.002**(0.001)	-0.001(0.001)	-0.002***(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1(0.001)	0.000(0.001)	-0.001(0.001)	-0.000(0.000)
기본생활	0.000(0.001)	0.001(0.002)	0.002(0.001)	0.000(0.001)
기타	-0.002**(0.001)	-0.000(0.001)	0.000(0.001)	-0.001**(0.001)
성별(여아)	0.147***(0.052)	0.100(0.091)		0.135**(0.054)
월령(개월)	0.000(0.002)	0.065**(0.025)	0.005(0.008)	0.050***(0.017)
모(母) 나이(세)	0.003(0.009)	0.026*(0.014)	0.032(0.042)	0.006(0.010)
부(父) 나이(세)	0.011(0.009)	-0.010(0.012)	-0.094(0.105)	0.011(0.009)
부모 동거 여부	0.188(0.129)	-0.116(0.141)	0.104(0.198)	0.235*(0.124)
핵가족 여부	-0.022(0.076)	-0.057(0.130)	-0.338(0.207)	-0.008(0.081)
아동 첫째 여부	0.252***(0.053)	0.042(0.084)	0.643***(0.087)	0.225***(0.056)
부모 교육연수 최댓값	0.055***(0.012)	-0.017(0.019)	-0.105(0.093)	0.053***(0.013)
대도시 거주 여부	0.036(0.052)	-0.108(0.087)	0.144(0.189)	-0.010(0.054)
월 가구소득 (만원)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모(母) 근로 여부	-0.030(0.058)	0.021(0.096)	0.069(0.126)	-0.022(0.062)
출생시 체중 (그람)	0.000**(0.000)	0.000(0.000)		0.000(0.000)
통제적 양육 > 18	0.121*(0.063)	0.154(0.101)	-0.034(0.103)	0.106(0.068)
온정적 양육 > 18	-0.013(0.069)	-0.227**(0.115)	-0.108(0.123)	-0.062(0.078)
이전기 인적자본 수준		0.615***(0.048)		
관측치 수	1,715	346	337	1,294
결정계수 (R-Squared)	0.091	0.471	0.035	0.100

註: 1) 괄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 오차임. 다중공선성 문제로 '가정 내 교육활동'를 제외함. 단, 그러므로 시간 투입 관련 회귀계수는 가정 내 교육활동 1분 줄이는 대신 해당 활동에 1분 더 투입했을 경우 나타나는 상대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함.
2) 모든 시간변수의 단위는 분(minute)임. 3) *** $p < 0.01$, ** $p < 0.05$, * $p < 0.1$

〈표 6〉 계속

	CU2		CV	
	8차연도	6차연도	8차연도	6차연도
수면	-0.002**(0.001)	-0.001(0.001)	-0.000(0.001)	-0.003(0.002)
육아지원/학교	-0.001**(0.001)	-0.000(0.001)	-0.001(0.001)	-0.002*(0.001)
실내놀이 활동	-0.003***(0.001)	-0.001(0.001)	-0.002*(0.001)	-0.003*(0.001)
외출 및 실외활동	-0.001(0.001)	-0.000(0.001)	0.001(0.001)	-0.001(0.001)
기본생활	0.000(0.001)	0.000(0.001)	0.001(0.002)	-0.003*(0.002)
기타	-0.002*(0.001)	-0.001(0.001)	0.000(0.001)	-0.002(0.002)
성별(여아)	0.148***(0.054)		0.110(0.093)	
월령(개월)	0.062***(0.018)		0.072***(0.027)	
모(母) 나이(세)	0.005(0.010)		0.024*(0.014)	
부(父) 나이(세)	0.013(0.009)		-0.012(0.013)	
부모 동거 여부	0.262**(0.132)		-0.112(0.160)	
핵가족 여부	-0.021(0.085)		-0.051(0.141)	
아동 첫째 여부	0.236***(0.056)		0.011(0.090)	
부모 교육연수 최댓값	0.053***(0.013)		-0.022(0.019)	
대도시 거주 여부	0.006(0.056)		-0.092(0.094)	
월 가구소득 (만원)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모(母) 근로 여부	-0.022(0.064)		0.020(0.102)	
출생시 체중 (그람)	0.000(0.000)		0.000(0.000)	
통제적 양육 > 18	0.063(0.072)	0.119*(0.068)	0.129(0.106)	0.065(0.118)
온정적 양육 > 18	-0.161*(0.086)	0.245***(0.087)	-0.238*(0.133)	0.087(0.153)
이전기 인적자본 수준				0.611***(0.052)
관측치 수	1,263		341	
결정계수 (R-Squared)	0.119		0.477	

註: 1) 괄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 오차임. 다중공선성 문제로 '가정 내 교육활동'를 제외함. 단, 그러므로 시간 투입 관련 회귀계수는 가정 내 교육활동 1분 줄이는 대신 해당 활동에 1분 더 투입했을 경우 나타나는 상대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함.
2) 모든 시간변수의 단위는 분(minute)임. 3) *** $p < 0.01$, ** $p < 0.05$, * $p < 0.1$

〈표 7〉 유아행동평가척도 내재화 문제 회귀분석 결과

	CT	VA	FE	CU1
수면	0.000(0.001)	-0.000(0.001)	0.001(0.001)	-0.000(0.001)
육아지원/학교	0.000(0.000)	-0.001(0.001)	0.000(0.000)	0.000(0.000)
실내놀이 활동	-0.001(0.000)	-0.000(0.000)	-0.001(0.001)	-0.000(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0)
기본생활	-0.000(0.001)	-0.000(0.001)	-0.001(0.001)	0.000(0.001)
기타	-0.000(0.001)	-0.002**(0.001)	-0.001(0.001)	-0.000(0.001)
성별(여아)	-0.022(0.042)	-0.049(0.044)		-0.048(0.050)
월령(개월)	0.002(0.001)	0.004(0.015)	0.001(0.005)	0.002(0.016)
모(母) 나이(세)	0.005(0.008)	0.002(0.008)	-0.012(0.025)	0.003(0.009)
부(父) 나이(세)	-0.015**(0.007)	-0.008(0.008)	0.012(0.063)	-0.015*(0.009)
부모 동거 여부	-0.065(0.102)	-0.004(0.126)	0.002(0.180)	-0.070(0.142)
핵가족 여부	0.041(0.065)	0.134(0.091)	-0.018(0.086)	0.120(0.095)
아동 첫째 여부	-0.299***(0.046)	-0.083*(0.049)	0.159***(0.052)	-0.240***(0.055)
부모 교육연수 최댓값	-0.007(0.009)	-0.002(0.010)	0.044(0.042)	-0.007(0.011)
대도시 거주 여부	0.022(0.042)	0.028(0.045)	0.187(0.165)	0.028(0.052)
월 가구소득 (만원)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1***(0.000)
모(母) 근로 여부	0.059(0.043)	0.021(0.048)	0.087(0.061)	0.007(0.055)
출생시 체중 (그람)	0.000***(0.000)	0.000(0.000)		0.000**(0.000)
통제적 양육 > 18	-0.042(0.049)	0.025(0.061)	0.010(0.055)	0.003(0.071)
온정적 양육 > 18	0.307***(0.061)	0.107(0.071)	0.049(0.074)	0.241***(0.080)
이전기 인적자본 수준		0.428***(0.028)		
관측치 수	2,962	1,396	1,358	1,405
결정계수 (R-Squared)	0.052	0.247	0.012	0.046

註: 1) 괄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 오차임. 다중공선성 문제로 '가정 내 교육활동'를 제외함. 단, 그러므로 시간 투입 관련 회귀계수는 가정 내 교육활동 1분 줄이는 대신 해당 활동에 1분 더 투입했을 경우 나타나는 상대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함.
2) 모든 시간변수의 단위는 분(minute)임. 3) *** $p < 0.01$, ** $p < 0.05$, * $p < 0.1$

〈표 7〉 계속

	CU2		CV	
	8차연도	6차연도	8차연도	6차연도
수면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1(0.001)
육아지원/학교	-0.001(0.001)	0.000(0.001)	-0.001(0.001)	0.000(0.000)
실내놀이 활동	-0.001(0.001)	-0.001(0.001)	-0.000(0.000)	-0.000(0.001)
외출 및 실외활동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1)
기본생활	-0.000(0.001)	0.001(0.001)	-0.000(0.001)	0.001(0.001)
기타	-0.002**(0.001)	0.001(0.001)	-0.002**(0.001)	0.001(0.001)
성별(여아)	-0.060(0.050)		-0.048(0.045)	
월령(개월)	0.003(0.017)		0.003(0.015)	
모(母) 나이(세)	0.001(0.009)		0.001(0.008)	
부(父) 나이(세)	-0.013(0.009)		-0.008(0.008)	
부모 동거 여부	-0.109(0.148)		-0.016(0.132)	
핵가족 여부	0.105(0.097)		0.135(0.094)	
아동 첫째 여부	-0.240***(0.056)		-0.090*(0.050)	
부모 교육연수 최댓값	-0.006(0.011)		-0.001(0.010)	
대도시 거주 여부	0.024(0.054)		0.012(0.049)	
월 가구소득 (만원)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모(母) 근로 여부	0.012(0.056)		0.015(0.050)	
출생시 체중 (그람)	0.000**(0.000)		0.000(0.000)	
통제적 양육 > 18	0.044(0.076)	-0.070(0.068)	0.042(0.066)	-0.038(0.058)
온정적 양육 > 18	0.202**(0.086)	0.117(0.078)	0.104(0.078)	0.022(0.070)
이전기 인적자본 수준				0.422***(0.028)
관측치 수	1,375		1,371	
결정계수 (R-Squared)	0.056		0.246	

註: 1) 괄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 오차임. 다중공선성 문제로 '가정 내 교육활동'를 제외함. 단, 그러므로 시간 투입 관련 회귀계수는 가정 내 교육활동 1분 줄이는 대신 해당 활동에 1분 더 투입했을 경우 나타나는 상대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함.
2) 모든 시간변수의 단위는 분(minute)임. 3) *** $p < 0.01$, ** $p < 0.05$, * $p < 0.1$

〈표 8〉 유아행동평가척도 외현화 문제 회귀분석 결과

	CT	VA	FE	CU1
수면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0)
육아지원/학교	-0.000(0.000)	-0.000(0.001)	-0.000(0.000)	0.000(0.000)
실내놀이 활동	-0.001*(0.000)	-0.000(0.000)	-0.001*(0.001)	-0.000(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0(0.000)	-0.001(0.001)	-0.001**(0.001)	-0.000(0.000)
기본생활	-0.000(0.001)	-0.000(0.001)	-0.002***(0.001)	0.001**(0.001)
기타	-0.000(0.001)	-0.000(0.001)	-0.001(0.001)	0.000(0.001)
성별(여아)	0.201***(0.042)	0.069(0.044)		0.176***(0.050)
월령(개월)	0.001(0.001)	-0.021(0.014)	0.006(0.005)	-0.019(0.016)
모(母) 나이(세)	0.005(0.008)	0.013(0.008)	-0.032(0.029)	0.009(0.010)
부(父) 나이(세)	-0.008(0.008)	-0.007(0.008)	-0.036(0.059)	-0.011(0.009)
부모 동거 여부	-0.058(0.078)	-0.090(0.094)	-0.029(0.171)	-0.168(0.107)
핵가족 여부	0.062(0.070)	0.137(0.092)	0.058(0.078)	0.124(0.101)
아동 첫째 여부	-0.167***(0.046)	0.048(0.049)	-0.197(0.202)	-0.076(0.055)
부모 교육연수 최댓값	0.016*(0.009)	0.010(0.010)	0.045(0.058)	0.016(0.011)
대도시 거주 여부	0.038(0.042)	0.068(0.046)	0.118(0.135)	0.059(0.052)
월 가구소득 (만원)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모(母) 근로 여부	0.006(0.043)	-0.104**(0.049)	0.031(0.059)	-0.109*(0.057)
출생시 체중 (그람)	0.000***(0.000)	0.000(0.000)		0.000**(0.000)
통제적 양육 > 18	-0.117**(0.047)	-0.105*(0.063)	-0.101*(0.058)	-0.096(0.070)
온정적 양육 > 18	0.455***(0.062)	0.225***(0.084)	0.223***(0.081)	0.414***(0.091)
이전기 인적자본 수준		0.459***(0.027)		
관측치 수	2,962	1,396	1,358	1,405
결정계수 (R-Squared)	0.061	0.280	0.029	0.061

註: 1) 괄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 오차임. 다중공선성 문제로 '가정 내 교육활동'를 제외함. 단, 그러므로 시간 투입 관련 회귀계수는 가정 내 교육활동 1분 줄이는 대신 해당 활동에 1분 더 투입했을 경우 나타나는 상대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함.
2) 모든 시간변수의 단위는 분(minute)임. 3) *** $p < 0.01$, ** $p < 0.05$, * $p < 0.1$

〈표 8〉 계속

	CU2		CV	
	8차연도	6차연도	8차연도	6차연도
수면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1)
육아지원/학교	-0.001(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0)
실내놀이 활동	-0.000(0.001)	-0.000(0.001)	-0.000(0.000)	0.001(0.001)
외출 및 실외활동	-0.000(0.001)	0.000(0.001)	-0.001(0.001)	0.001(0.001)
기본생활	-0.000(0.001)	0.002**(0.001)	-0.000(0.001)	0.002***(0.001)
기타	-0.001(0.001)	0.001(0.001)	-0.001(0.001)	0.001(0.001)
성별(여아)	0.170***(0.050)		0.078*(0.045)	
월령(개월)	-0.016(0.016)		-0.020(0.014)	
모(母) 나이(세)	0.009(0.010)		0.012(0.008)	
부(父) 나이(세)	-0.009(0.009)		-0.007(0.008)	
부모 동거 여부	-0.202*(0.110)		-0.130(0.096)	
핵가족 여부	0.102(0.101)		0.144(0.094)	
아동 첫째 여부	-0.073(0.055)		0.046(0.049)	
부모 교육연수 최댓값	0.019*(0.011)		0.012(0.010)	
대도시 거주 여부	0.055(0.055)		0.041(0.049)	
월 가구소득 (만원)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모(母) 근로 여부	-0.113*(0.058)		-0.103**(0.051)	
출생시 체중 (그람)	0.000**(0.000)		0.000(0.000)	
통제적 양육 > 18	-0.048(0.076)	-0.099(0.067)	-0.094(0.066)	-0.034(0.058)
온정적 양육 > 18	0.375***(0.100)	0.112(0.089)	0.262***(0.092)	-0.076(0.080)
이전기 인적자본 수준				0.461***(0.027)
관측치 수	1,375		1,371	
결정계수 (R-Squared)	0.068		0.285	

註: 1) 괄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 오차임. 다중공선성 문제로 '가정 내 교육활동'를 제외함. 단, 그러므로 시간 투입 관련 회귀계수는 가정 내 교육활동 1분 줄이는 대신 해당 활동에 1분 더 투입했을 경우 나타나는 상대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함.
2) 모든 시간변수의 단위는 분(minute)임. 3) *** $p < 0.01$, ** $p < 0.05$, * $p < 0.1$

Ⅴ.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아동의 하루 24시간 활용 패턴의 차이가 아동의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와 Todd and Wolpin(2007)이 제시한 추정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인지적 능력의 경우, 아동의 하루 시간 배분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가정 내 교육활동이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특별한 목적 없이 보내는 시간이나 TV 시청 또는 게임기 등을 통한 실내놀이 활동은 인지 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지적 능력의 경우, 아동의 특정 활동에 대한 시간 투입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의 통제적 양육 태도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나 외현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반대로 온정적 양육 태도는 외현화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능력에 대한 추정 결과와 종합하여 생각해본다면, 인지적 능력에 대한 인적자본 생산함수와 비인지적 능력에 대한 인적자본 생산함수가 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서구 문화권에서 수행된 Fiorini & Keane(2014) 등의 기존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본 논문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시간 활용 패턴과 아동의 인적자본 수준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아동의 출생 시 초기 조건까지 통제함으로써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에 대한 지표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결과와 유아행동평가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아동 발달은 여러 방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동일한 모형을 활용하더라도 다른 발달 지표를 종속변수로 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아동패널데이터 내에는 수리능력이나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 등 다양한 검사 및 조사 결과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는 단기 추정 결과인 만큼, 장기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적자본 형성 과정 및 아동기 인적자본 수준의 장기 영향을 추적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아동패널데이터의 경우, 성인기인 2027년까지 조사 예정된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장기 분석 역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기에 결정된 인적자본 수준은 장기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의 많은 연구는 취학 후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가 궁극적으로 큰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아동기 인적자본의 형성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며, 그러한 연구가 갖는 함의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향후 국내 자료에 기반을 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Cunha, F. & Heckman, J.J. (2007), The technology of skill 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7(2), 31-47.

Cunha, F. & Heckman, J.J. (2008), Formulating and estimating the technology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 form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43(4), 738-778.

Cunha, F., Heckman, J.J. & Schennach, S.M. (2010), Estimating the technology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 formation, *Econometrica*, 78(3), 883-931.

Del Boca, D., Monfardini, C., & Nicoletti, C. (2017), Parental and child time investments and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5(2), 565-608.

Del Bono, E., Francesconi, M., Kelly, Y. & Sacker, A. (2016), Early maternal time investment and early child outcomes, *The Economic Journal*, 126, 96-135.

Feinstein, L. (2003), Inequality in the early cognitive development of british children in the 1970 cohort, *Economica*, 70(277), 73-97.

Fiorini, M. & Keane, M.P. (2014), How the allocation of children's time affects cognitive and non-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32(4), 787-836.

Heckman, J.J., Stixrud, J. & Urzua, S. (200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3), 411 - 82.

Keane, M.P. & Wolpin, K.I. (1997), The career decisions of young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3), 473 - 522.

Sandra E. Black, Paul J. Devereux & Kjell G. Salvanes, From the cradle to the labor market? the effect of birth weight on adult outcom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1), 409-439.

Todd, Petra El, & Wolpin. K.I. (2007), The production of cognitive achievement in children: home, school, and racial test score gaps, *Journal of Human Capital*, 1(1), 91 - 136.

·교신저자: 손진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jinyeong.son7@gmail.com

〈부표 1〉 수용 어휘력 검사 시간 변수 관련 회귀계수 교차 분석표

CT	가정 내 교육활동	외출 및 실외활동	기본생활	육아지원/학교	수면	실내놀이 활동	기타
가정 내 교육활동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0	0.000					
기본생활	-0.001	-0.000	0.000				
육아지원/학교	-0.001***	-0.001**	-0.000	0.000			
수면	-0.001**	-0.001	-0.001	-0.000	0.000		
실내놀이 활동	-0.002***	-0.002***	-0.001**	-0.001**	-0.001	0.000	
기타	-0.003***	-0.003***	-0.003***	-0.002***	-0.002***	-0.001**	0.000

VA	기본생활	가정 내 교육활동	외출 및 실외활동	실내놀이 활동	육아지원/학교	수면	기타
기본생활	0.000						
가정 내 교육활동	-0.001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2**	-0.001**	0.000				
실내놀이 활동	-0.003***	-0.002***	-0.000	0.000			
육아지원/학교	-0.003***	-0.002***	-0.001	-0.000	0.000		
수면	-0.003***	-0.002***	-0.001	-0.000	-0.000	0.000	
기타	-0.004***	-0.003***	-0.001	-0.001	-0.001	-0.000	0.000

FE	가정 내 교육활동	외출 및 실외활동	수면	기본생활	실내놀이 활동	육아지원/학교	기타
가정 내 교육활동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0	0.000					
수면	-0.000	-0.000	0.000				
기본생활	-0.001	-0.000	-0.000	0.000			
실내놀이 활동	-0.001	-0.001	-0.001	-0.000	0.000		
육아지원/학교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기타	-0.003***	-0.002***	-0.002***	-0.002*	-0.002***	-0.002**	0.000

〈부표 1〉 계속

CU1	기본생활	가정 내 교육활동	외출 및 실외활동	육아지원 /학교	수면	실내놀이 활동	기타
기본생활	0.000						
가정 내 교육활동	-0.000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1**	-0.001*	0.000				
육아지원 /학교	-0.002***	-0.001***	-0.000	0.000			
수면	-0.002***	-0.001***	-0.001	-0.000	0.000		
실내놀이 활동	-0.002***	-0.002***	-0.001*	-0.000	-0.000	0.000	
기타	-0.002***	-0.002***	-0.001*	-0.001	-0.000	-0.000	0.000

CU2	기본생활	가정 내 교육활동	육아지원 /학교	외출 및 실외활동	실내놀이 활동	기타	수면
기본생활	0.000						
가정 내 교육활동	-0.001	0.000					
육아지원 /학교	-0.002*	-0.001*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2*	-0.001*	-0.000	0.000			
실내놀이 활동	-0.003***	-0.002***	-0.001**	-0.001*	0.000		
기타	-0.003**	-0.002**	-0.001	-0.001	-0.000	0.000	
수면	-0.003***	-0.003***	-0.002**	-0.002*	-0.001	-0.001	0.000

CV	기본생활	가정 내 교육활동	외출 및 실외활동	육아지원 /학교	실내놀이 활동	수면	기타
기본생활	0.000						
가정 내 교육활동	-0.000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2*	-0.001**	0.000				
육아지원 /학교	-0.002**	-0.002***	-0.000	0.000			
실내놀이 활동	-0.002**	-0.002***	-0.001	-0.000	0.000		
수면	-0.002**	-0.002***	-0.001	-0.001	-0.000	0.000	
기타	-0.003**	-0.002***	-0.001	-0.001	-0.001	-0.000	0.000

<부표 2> 표현 어휘력 검사 시간 변수 관련 회귀계수 교차 분석표

CT	기본생활	가정 내 교육활동	외출 및 실외활동	육아지원/학교	수면	기타	실내놀이 활동
기본생활	0.000						
가정 내 교육활동	-0.000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1	-0.001	0.000				
육아지원/학교	-0.001	-0.001*	-0.001	0.000			
수면	-0.002**	-0.002**	-0.001*	-0.001	0.000		
기타	-0.002**	-0.002**	-0.001*	-0.001	-0.000	0.000	
실내놀이 활동	-0.003***	-0.003***	-0.002***	-0.002***	-0.001	-0.001	0.000

VA	기본생활	외출 및 실외활동	가정 내 교육활동	기타	수면	육아지원/학교	실내놀이 활동
기본생활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0	0.000					
가정 내 교육활동	-0.001	-0.000	0.000				
기타	-0.001	-0.000	-0.000	0.000			
수면	-0.001	-0.001	-0.001	-0.000	0.000		
육아지원/학교	-0.002	-0.001	-0.001	-0.001	-0.001	0.000	
실내놀이 활동	-0.003	-0.002**	-0.002**	-0.002	-0.002	-0.001	0.000

FE	기본생활	기타	가정 내 교육활동	수면	육아지원/학교	외출 및 실외활동	실내놀이 활동
기본생활	0.000						
기타	-0.002	0.000					
가정 내 교육활동	-0.002	-0.000	0.000				
수면	-0.002	-0.000	-0.000	0.000			
육아지원/학교	-0.002	-0.000	-0.000	-0.000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3*	-0.001	-0.001	-0.001	-0.001	0.000	
실내놀이 활동	-0.003**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부표 2> 계속

CU1	기본생활	가정 내 교육활동	외출 및 실외활동	육아지원 /학교	기타	수면	실내놀이 활동
기본생활	0.000						
가정 내 교육활동	-0.000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1	-0.000	0.000				
육아지원 /학교	-0.001*	-0.001**	-0.001	0.000			
기타	-0.001*	-0.001**	-0.001	-0.000	0.000		
수면	-0.002**	-0.002**	-0.001*	-0.000	-0.000	0.000	
실내놀이 활동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0.000

CU2	기본생활	가정 내 교육활동	외출 및 실외활동	육아지원 /학교	기타	수면	실내놀이 활동
기본생활	0.000						
가정 내 교육활동	-0.000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1	-0.001	0.000				
육아지원 /학교	-0.002*	-0.001**	-0.001	0.000			
기타	-0.002	-0.002*	-0.001	-0.000	0.000		
수면	-0.002**	-0.002**	-0.001	-0.001	-0.000		
실내놀이 활동	-0.003***	-0.003***	-0.002***	-0.001***	-0.001	-0.001	0.000

CV	기본생활	외출 및 실외활동	기타	가정 내 교육활동	수면	육아지원 /학교	실내놀이 활동
기본생활	0.000						
외출 및 실외활동	-0.000	0.000					
기타	-0.001	-0.000	0.000				
가정 내 교육활동	-0.001	-0.001	-0.000	0.000			
수면	-0.001	-0.001	-0.001	-0.000	0.000		
육아지원 /학교	-0.002	-0.001	-0.001	-0.001	-0.000	0.000	
실내놀이 활동	-0.002	-0.002**	-0.002	-0.002*	-0.001	-0.001	0.000

How the time allocation in early childhood affects children's development

Jin-yeong S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the time allocation in early childhood affects children's cognitive and non-cognitive development by using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ata and the estimation models suggested by Todd and Wolpin(2007). From the estimation results, I have found that time spent in educational activities at home is the most productive for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case of non-cognitive development, time allocation is of no importance. Instead, they are highly affected by parents' parenting styles such as discipline or warmth.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duction functions for cognitive skills and non-cognitive skills are likely to consist of different components. And these estimat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by Fiorini and Keane (2014).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ime allocation patterns and their human capital accumulation focusing on Korean data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I have improved the accuracy of estimations by controlling children's characteristics at the time of birth, which has not been done for most of previous literatures and hence pointed out as limitations of those literatures.

Key words: Time allocation, Child development,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Human capital accumulation

“아동기 시간 활용의 차이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토론문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총평

❍ 본 논문은 2008년 시작된 아동패널데이터조사 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패널분석과 시간사용(Time Use)을 동시 수행, 아동패널데이타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연구 분석과 연구 결과를 도출

- 국가통계조사로 5년의 주기로 수행되고 있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1차 조사로 시작, 2014년 5차 조사까지 완료.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간일지 작성. 10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시간사용, 시간배분은 아동패널조사가 유일

❍ 본문에 저자가 인용한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아동의 인지발달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Fiorini & Keane(2014)의 연구결과는 연구 결과를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함. 단.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과 예측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규명해 내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라고 생각함

❍ 한국의 초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도래에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임.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아동의 인지적 능력의 경우, 가정 내 교육활동이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반대로 특별한 목적 없이 보내는 시간이나 TV 시청 또는 게임기 등을 통한 실내놀이 활동은 인지 능력 발달을 저해”는 맞벌이가 필수인 한국 취업모 중 자녀가 아동기인 경우 정시 퇴근 혹은 부부의 육아휴직 교차 사용을 통해 실질적인 가정 내 교육활동을 부모가 담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매우 유의미함

■ 아동 인적자본추정 함수

❍ 분석변수

- 종속변수

① 인지적아동발달지수,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② 비인지적아동발달지수

- 독립변수

● 아동의 시간배분

① 수면 시간(낮잠 포함)

② 육아지원기관(유치원, 복지관 등) 및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③ 가정 내 교육 활동 시간(책 읽는 시간, 혼자 숙제하는 시간 등)

④ 실내놀이 활동시간(TV 시청, 장난감 놀이, 인터넷 및 게임기 사용 등)

⑤ 외출 및 실외 활동시간

⑥ 식사, 세면, 옷 입기 등 기본생활 시간 ⑦ 기타 시간

● 통제변수 : 출생시 몸무게(2008년), 부모 나이 및 교육년수, 양육 방법, 이전기 인적자본 수준 등

❍ 분석시점 :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유아행동평가척도가 모두 시행된 6차(2013년), 8차(2015년)

❍ 저자는 Todd & Wolpin(2007)의 인적자본 생산함수 5개 외에 저자자 고안한 모형을 포함하여 6개 모형으로 인지적, 비인지적 아동발달지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① Contemporaneous Model (CT) : 이번기에 투입한 요소

② Value Added Model (VA) : 종속변수에 이전 시점 인적자본수준 추가

③ Fixed Effect Model (FE) : 패널테이터 고정효과 모형

④ Cumulative Time Model (CU1) : 시간변수 해당기까지 합산(저자 고안 함수)

⑤ Contemporaneous + Lagged Inputs (CU2) : 이번기까지 투입한 각 기의 투입요소

⑥ Contemporaneous + Lagged Inputs + Lagged Test (CV) : CU2 모형에 전기 인적자본 수준 추가

- 본인은 아동발달 분석 시점까지 누적한 시간의 합을 인적자본 결정의 요인으로 정한 저자의 연구 모형(CU1)과 전기의 인적자본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형(VA)에 동의하며 분석 결과 또한 유의미하였다고 봄

■ 제안

❍ 부모

-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아닌 양부모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모형에 따라 부모 변수에서 부모 동거여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부모 변수를 양부모와 한부모(싱글맘, 싱글대디)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는 것을 제안드림.
- 부모의 근로여부는 모의 근로만을 분석에 활용, 모형에 따른 모의 근로가 아동발달에 (-) 영향을 미침.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한국 사회에서 아동발달에 모성만이 책임을 지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음. 부는 모두 취업자인 것을 가정한 모형인 것지, 아동발달에 모의 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 근로가 강조된 것일 수도 있으나 '모의 근로여부' 변수외에 '부의 근로시간' 변수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아동 건강 : 아동 건강 관련 변수로 출생시 몸무게를 사용할 수 있는 아동패널만의 특장점임. 나아가 장애여부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을 제안함. 아동발달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차이는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분석에서는 장애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분석대상 아동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의 비율을 제시하여 그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낮다는 든지에 대한 분석 대상 아동의 장애 여부를 추가로 서술해 주는 것을 제안함

❍ 가정내 교육활동 결정 요인 : 아동의 인지적 능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내 교육활동에 대해 역으로 가정내 교육활동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향후 분석으로 제안드림.

❍ 인적자본 함수를 6개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각각의 함수 특성별로 추가 설명해 주는 것을 제안함.

◈ Session 2 ◈

제 4 주제

초등학교 적응

사회: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경영지원실장)

1.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및 초등학교 적응: 성장혼합모형(GMM) 분석**
   노보람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박새롬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2.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한지현 (전북대학교 강사)

3. **학령전기의 말·언어수행이 학령기의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종호 (나사렛대학교 석사과정)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및 초등학교 적응: 성장혼합모형(GMM) 분석

노보람[1)]　　박새롬[2)]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1)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궤적이 질적으로 다른 복수의 유형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2) 변화 유형의 차이를 유아의 개인 요인(기질, 성별) 및 어머니 양육 요인(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3)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KCPS)의 5~8차년도(2012~2015년) 1,655가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한 잠재계층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계층은 3개의 유형('하위유지형', '중위증가형', '상위감소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하위유지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위증가형'과 '상위감소형'의 궤적은 만 5세 시점에서 교차하였다. 둘째,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계층에 대한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하위유지형'보다 '중위증가형'과 '상위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남아인 경우 '하위유지형'보다 '중위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하위감소형'보다 '상위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 전체 수준 및 하위요인(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에서 '하위유지형'이 '중위증가형' 및 '상위감소형'에 비해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성장혼합모형,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초등학교 적응, 한국아동패널연구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dplum11@snu.ac.kr

Ⅰ. 서론

유아기는 태내기와 영아기 다음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적응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기관에 재원하는 유아 중 부적응을 경험하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인숙・이정숙, 2008). 이러한 유아기의 특성과 변화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및 공격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이 개인 내부를 향하는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Achenbach & Rescorla, 2000). 문제행동을 개별적인 증상에 한정하기보다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로 보다 넓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아동의 문제행동을 다룰 때 유용한데, 유아기와 아동기는 성인기와 달리 문제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발달 단계별로 그 양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강지현・오경자, 2011; Costello & Angold, 2000).

최근에는 문제행동을 임상적 관점의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유아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접근하기도 한다. 일반 유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임상 수준 미만의 문제행동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부적응의 정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문영경, 2010),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기의 가장 흔하고 지속되는 성격의 부적응이다(Campbell, 1995).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그 자체로도 문제적이지만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할 경우 빈도와 심각성이 점점 증가하여 이후 학업문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비행 등 장기적인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Cairns & Cairns, 1994; Campbell, 2002).

아동은 발달의 과정선상에 있기 때문에 외현화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양상 및 빈도는 측정시점에 따라 가변적이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측정한 횡단연구 결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Kraemer, Yesavage, Taylor, & Kupfer, 2000). 따라서 외현화 행동은 발달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Costello & Angold, 2000). 서구의 종단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아동의 경우 2세에서 9세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Miner & Clarke-Stewart, 2008). 네덜란드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9세에서 17세 시기 외현화 문제행동(공격행동, 반항행동 등)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펴본 연구(Lahey et al., 2000)에서 공격행동은 점차 증가하다 13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저항행동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다. 좀 더 어린 연령을 포함하여 4세에서 18세의 네덜란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종단적으로 접근한 또 다른 연구(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4) 결과 중 유아기(4세~6세)에 주목해보면, 공격행동의 경우 여아는 낮게 유지되고, 남아는 높다가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반항행동은 남녀 모두 공격행동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고, 여아는 반항행동 수준이 유지되고 남아는 감소하는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과 성차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연구(Keenan & Shaw, 1997)에 따르면 4세까지는 공격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 시기 이후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의사소통 발달이 빠르고 이로 인해 더 쉽게 사회화되기 때문에 공격행동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단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동을 대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1년의 간격을 두고 문제행동을 추적 조사한 연구(윤현수 · 강지현 · 오경자, 2011)에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었고,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여아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았다. 한편 3세에서 5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추이를 횡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강지현 · 오경자, 2011)에서 남녀 모두 3세보다 4세, 4세보다 5세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고, 모든 연령에서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통해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 때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는지 혹은 횡단연구와 서구의 종단연구 결과처럼 감소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분석 방법으로 다층모형이 도입되면서 종단적 변화 궤적에서 질적인 차이에 주목하는 사람중심 모형(person-centered model)을 적용한 연구가 가능해졌으며(Nagin, 1999), 아동과 청소년기 외현화 문제행동을 대상으로 서로 간 질적으로 구분되는 하위집단의 변화양상에 주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격행동 변화궤적(Brame et al., 2001)과 반항행동 변화궤적(Nagin & Tremblay, 1999)의 하위 집단은 4개로 구분되었다. 공격행동과 반항행동 간 집단 유형은 유사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행동 수준이 계속 높은 집단, 아동기에 높다가 청소년기에 감소하는 집단, 아동기에 낮다가 청소년기에 사라지는 집단, 그리고 한 번도 문제행동을 저지른 적이 없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유아 자신의 개인 요인과 양육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직접

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요인으로는 기질과 성별을 들 수 있다. 기질은 유아가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정서 반응을 보이며 후일의 성격과 행동장애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기질은 Thomas와 Chess(1977)의 뉴욕종단연구(NYLS)를 통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은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로 구분되었다. 까다로운 기질은 높은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 위축되고 낮은 적응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적응을 나타낼 때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양육이 제안되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다수의 연구에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성미영, 2016; 이진숙・한지현・박혜원, 2016; 한지현・이진숙, 2016; Rothbart et al., 1994).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가정과 보육·교육기관에서 집중하여 한 가지 활동에 몰두하지 못하거나 과잉행동 등의 문제를 보였으며(성미영, 2016),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할수록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Rothbart et al., 1994).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가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발달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Kerns, Contreras, & Neal-Barnett, 2000)이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한다(Abidin, 1990, 1992).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유발하여 아동의 적응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ater-Deckard, 1998; Guajardo, Snyder, & Petersen, 200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주의집중 및 공격행동 등 외현화 문제행동에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한지현・이진숙, 2016)가 보고되었다.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자 행동에 대한 경향성으로(Fishbein & Ajzen, 1975, 유영신・유연옥, 2015에서 재인용),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여겨진다(문상희, 2011, 유영신・유연옥, 2015: 채경진・유연옥, 2015; 최미숙・공진희・박은영, 2012). 어머니의 양육이 자율적이고 애정적이면 유아의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아지고(김보영, 2005), 어머니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이고 엄격하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진다(김보영, 2005; 김은경, 2009). 반면에 어머니가 유아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거나 통제가 부족할 때 공격적이고 집중력이 부족한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문상희, 2011; 정인선, 2006; 유영신・유연옥, 2015).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지현과 오경자(2011)의 연구에서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낮추지만 남아에게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남아들은 어머니 양육행동보다는 기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아동의 개인 요인 중 까다로운 기질과 성별이 남아인 것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부적응과 가혹하고 반응성이 낮은 양육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Miner, & Clarke-Stewart, 2008). 본 연구에서는 유아 개인 요인으로 기질 및 성별, 어머니 양육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기 문제행동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의 삶의 맥락은 놀이와 활동 중심인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에게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 학교에서는 고정된 자리에서 교과중심의 수업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학교규칙을 배우고 학습활동에 적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맥락도 변화해서 새로운 또래 및 선생님과의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은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형성과 앞으로의 학교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다(이진숙, 2004). 초등학교 적응으로 인한 학교, 학업, 또래, 교사 스트레스는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최보윤・곽노의, 2006),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 및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들어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또는 생태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연구로 유아의 성장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집단 차이 등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유아가 성장하면서 외현화 문제행동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만 4세부터 만 6세까지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 유형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구분된 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인 변수 중심적 접근법과 달리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중심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적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가 아닌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계층별 특성을 파악하고, 계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관계를 통해 각 계층별 외현화 문제행동의 특성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해결책 모색 및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의 변화 유형에 있어 잠재계층은 몇 개이며 각 잠재계층의 변화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의 변화에 있어서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개별 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의 5~8차년도(2012~2015년) 2,150가구의 자료 중 5~7차년도에 조사된 유아행동평가척도(CBCL 1.5-5)에 2개년도 이상 응답한 1,655가구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데이터는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패널을 구축하여 패널 아동이 만 0세부터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표본 유지율

은 2015년 현재 74.3%이다(한국아동패널, 2017). 이 중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5~7차년도에 어머니가 매년 응답한 3개년도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5차년도에 조사된 유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과 성별 및 어머니 양육특성(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그리고 8차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응답한 학교적응(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이다.

〈표 1〉 연구대상자 및 가구 특성

(N = 1655)

구분		부(%)	모(%)
연령	30세 이하	62(3.7)	166(10.0)
	31세-35세	458(27.2)	794(48.0)
	36세-40세	776(46.9)	539(32.6)
	41세-45세	254(15.3)	96(5.8)
	46세 이상	43(2.6)	6(.4)
	합계	1593(96.3)	1601(96.7)
	결측	62(3.7)	54(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5(26.3)	474(28.7)
	전문대학교 졸업	311(18.8)	432(26.1)
	대학교 졸업	680(41.1)	614(37.1)
	대학원 졸업	167(10.1)	81(4.9)
	합계	1593(96.3)	1601(96.7)
	결측	62(3.7)	54(3.3)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	150(9.1)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391(23.6)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434(26.2)	
	4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310(18.7)	
	500만원 초과	324(19.6)	
	합계	1609(97.2)	
	결측	46(2.8)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및 학업(휴직 및 휴학 포함)	769(41.0)	
	미취업 및 미학업	914(55.2)	
	합계	1593(96.3)	
	결측	62(3.7)	
자녀성별	남	849(51.3)	
	여	806(48.7)	
	합계	1655(100.0)	

5차년도 기준 연구대상자 및 가구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36세 이상 40세 이하의 비율이 46.9%로 가장 높고, 어머니는 31세 이

상 35세 이하의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의 비율이 각각 41.1%와 37.1%로 가장 높았다. 가계소득은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의 비율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여부는 미취업 및 미학업인 상태가 55.2%로 취업 및 학업상태보다 약간 더 높았다. 패널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따른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CBCL 1.5-5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CBCL 1.5-5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취학 전 연령인 18개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서 관찰되는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정서적 반응성,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문제 총 8개의 하위척도 점수와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3점 척도(0: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유아의 어머니가가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7차년도에 조사된 외현화 문제행동 총점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문제 5문항, 공격행동 19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72점이다.

나. 기질

유아의 기질은 EAS 기질척도(Buss & Plomin, 1984)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EAS 기질 척도는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유아의 어머니에 의해 평정되었다. 부정적 정서성은 부정적 정서를 빈번하게 나타내는 정도, 활동성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성, 사회성은 타인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수줍음이 적은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에 조사된 기질의 하위영역을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5 미만인 19번 문항(사회성 9번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신뢰도 Cronbach α는 정서성(5문항) .752, 활동성(5문항) .758이 사회성(9문항) .858이었다.

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 지표를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 등을 측정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던 1문항을 제외하고 총11문항으로 조사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에 조사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5 미만인 8번 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 α는 .887이었다.

라. 어머니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및 권희경(1999)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된 양육스타일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온정적 양육 6문항과 통제적 양육 6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 .5 미만인 통제적 양육의 6번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양육스타일을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은 양육자가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행동을,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규칙을 강조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에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온정적 양육행동(6문항) .863, 통제적 양육행동(5문항) .779이었다.

마. 학교 적응

학교 적응은 8차년도에 처음 조사되었으며, 지성애와 정대현(2006)의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총 4개의 하위영역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하위 영역별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은 유아교육보육 기관보다 엄격해진 학교의 규칙 및 질서에 대한 적응, 학업수행적응은 학교 수업활동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정도, 또래적응은 또래관계에서의 친사회성과 상호작용, 교사

적응은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학교 적응 전체(35문항) .964, 학교생활적응(11문항) .959, 학업수행적응(11문항) .944, 또래적응(8문항) .943, 교사적응(5문항) .834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 분석을 통하여 전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를 우선 추정하고, 이후에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 분석을 통하여 전체 집단 내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 하위 잠재성장계층을 추정하였다. GMM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종단연구에 적용한 분석방법으로 각 계층별로 서로 다른 성장요인을 추정할 수 있으며, 개별 관측값이 계층에 속할 확률에 근거하여 계층을 구분한다(조아미・신택수, 2012).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을 추정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GMM 구조 수립 시 몇 가지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신택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성장요인(변화율)의 분산을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의 복잡성을 낮추고 수렴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 분석은 M-plus 6.0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 변화에 몇 개의 하위계층이 존재하는지 최적의 잠재계층 수 결정하기 위해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Wickrama et al., 2016). 적합도는 정보준거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계층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 지수, 경쟁모형과 상대적 적합의 통계검증을 나타내는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그리고 계층의 최소비율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정보준거지수는 모형의 복잡성과 작은 사례 수에 패널티를 부과하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Wickrama et al., 2016). Entropy지수는 계층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며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고, 0.6은 중간 수준, 0.8은 높은 수준의 분류의 질을 의미한다(Clark & Muthén, 2009). LMR LRT은 인접한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하여 p값이 유의할 경우 잠재계층 수가 k개인 모형이 k-1개인 모형보다 적합도가 우수함을 의미한다(Lo, Mendell, & Rubin, 2001). 표본 대비 계층의 최소비율은 특정 계층의 비율이 너무 낮을 경우 비교 자체가 불가하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의 적정 최소비율의 기준으로 5%(Jung &

Wickrama, 2008)를 설정하였다. 끝으로 해석 가능성은 분류된 잠재계층의 변화 궤적이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계층의 성장요인의 평균이 유의한지 그리고 잠재계층 간 계층의 특성이 명료하게 구분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한 뒤, 각각의 잠재계층 소속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계층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승산비(odds ratio; OR)를 제공하는데, 승산비는 승산(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간의 비율)의 증가배수이다(홍세희, 2005).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3가지 이상이므로 승산을 알기 위해 준거집단을 설정하고, 준거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각각 대비시킨다. 승산비가 1인 경우 준거집단과 비교집단 간 속할 승산에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승산비가 1보다 큰 경우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승산비가 1보다 작을 경우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이 감소하고 준거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 변인인 기질(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과 성별 및 어머니 양육변인(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중 어떤 변인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잠재계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아기 동안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원배치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일원배치 변량분석은 PSA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특성과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평균값은 5차년도(만 4세) 7.85, 6차년도(만 5세) 6.36, 7차년도(만 6세) 5.66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만 4세에 조사된 유아의 기질 평균은 부정적 정서성 2.81, 활동성 3.76, 사회성 3.57로 유아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

이 가장 낮고 활동성 수준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만 4세에 조사된 어머니 양육요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2.64, 온정적 양육행동 3.66, 통제적 양육행동 3.46으로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는 다소 낮게,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은 다소 높게 지각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 결과를 보면, 학교적응 전체 평균은 3.9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 별로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4.08, 교사적응 4.02, 또래적응 3.95, 학업수행적응 3.83 순서로, 상대적으로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고 학업수행적응 수준이 낮았다.

〈표 2〉 측정변인의 특성

측정변인		*N*	*Min*	*Max*	*M*	*SD*	왜도	첨도
아동 외현화 문제행동 (5~7차년도)	외현화 문제행동 5차(4세)	1605	0	32	7.85	5.86	.75	.10
	외현화 문제행동 6차(5세)	1632	0	32	6.36	5.52	1.05	.79
	외현화 문제행동 7차(6세)	1591	0	36	5.66	5.30	1.25	1.59
아동 기질 (5차년도)	부정적 정서성	1586	1	5	2.81	.64	.19	.09
	활동성	1582	1.60	5	3.76	.60	-.21	-.02
	사회성	1579	1	5	3.57	.58	-.21	.37
어머니 양육 (5차년도)	양육스트레스	1587	1	4.80	2.64	.68	.14	-.08
	온정적 양육행동	1589	1.83	5	3.66	.54	-.03	.16
	통제적 양육행동	1587	1	5	3.46	.56	-.30	.41
아동 학교적응 (8차년도)	학교적응 전체	1018	1.34	5	3.96	.70	-.71	.23
	학교생활적응	1018	1.09	5	4.08	.94	-1.07	.29
	학업수행적응	1018	1	5	3.83	.85	-.62	-.03
	또래적응	1018	1	5	3.95	.80	-.75	.38
	교사적응	1018	1.40	5	4.01	.76	-.80	.44

주요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3개년도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 및 활동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 사회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도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어머니 양육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3개년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교사적응을 제외한 학교적응 전체 및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585***	1												
3	.550***	.651***	1											
4	.437***	.352***	.334***	1										
5	.087**	.059*	.061*	-.034	1									
6	-.096***	-.111***	-.066*	-.224***	.657***	1								
7	.303***	.280***	.299***	.375***	-.059*	-.185***	1							
8	-.260***	-.257***	-.253***	-.267***	.908***	.211***	-.565***	1						
9	-.008	-.022	-.025	.031	.115***	.110***	-.036	.219***	1					
10	-.144***	-.173***	-.145***	-.058	-.056	.002	-.055	.065*	.024	1				
11	-.119***	-.167***	-.138***	-.022	-.129***	-.071*	-.023	.041	.015	.844***	1			
12	-.116***	-.132***	-.110***	-.078*	.008	.058	-.064*	-.072*	.042	.885***	.583***	1		
13	-.163***	-.176***	-.156***	-.065*	-.052	-.020	-.072*	.067*	.004	.861***	.638***	.706***	1	
14	-.045	-.039	-.027	-.012	.057	.096**	-.015	.017	.005	.536***	.223***	.479***	.403***	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외현화 문제행동 4세, 2: 외현화 문제행동 5세, 3: 외현화 문제행동 6세, 4: 부정적 정서성 기질 4세, 5: 활동성 기질 4세, 6: 사회성 기질 4세, 7: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4세, 8: 어머니 온정적 양육 4세, 9: 어머니 통제적 양육 4세, 10: 학교적응 전체 7세, 11: 학교생활적응 7세, 12: 학업수행적응 7세, 13: 또래적응 7세, 14: 교사적응 7세

2. 잠재성장혼합모형(GMM)을 통한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의 잠재계층 분석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 양상의 잠재계층을 추정하기 위해서 전체 모집단에 적합한 성장모형을 설정한 후 하위계층의 성장요인의 평균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먼저 만 4세부터 만 6세까지 3개 시점에서 측정된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런 다음 선택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고, 각 잠재계층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가.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3개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잠재성장모형으로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고, 선형모형은 일정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두 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 결과 선형이 무변화 모형보

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선형모형은 CFI .992, TLI .977, RMSEA .088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예측평균이 모두 유의하였다. 초기치의 예측평균 7.678(p<.001), 변화율의 예측평균 -1.058(p<.001)로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술통계의 추이와도 일치한다. 성장요인의 예측평균뿐 아니라 초기치(20.728, p<.01), 변화율(1.871, p<.01)의 분산도 유의하게 나타나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 궤적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 간 공분산(-1.826, p<.01)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전제 집단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검증 결과

모형	무변화 모형	선형모형
평균성장		
초기치	6.412***	7.678***
변화율	-	-1.058***
분산 및 공분산		
초기치	18.374***	20.728**
변화율	-	1.871**
초기치 ↔ 변화율	-	-1.826**
모형적합도		
χ^2	272.503***	13.832***
df	4	1
CFI	.837	.992
TLI	.878	.977
RMSEA(90% *CI*)	.201(.181-.222)	.088(.051-.132)

나.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의 잠재계층 결정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의 잠재계층 탐색을 위하여, 2계층부터 5계층까지 계층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며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잠재계층의 수는 연구방법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통계적 적합성과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정보준거지수인 AIC, BIC, 그리고 SABIC는 낮은 값을 나타낼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Entropy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제시된 4개의 모형 모두 비교적 좋은 분류율을 보였으며, 4계층 모형과 5계층 모형의 Entropy지수가 높았다. 또한 모형의 비교검증을 의미하는 LMR LRT의 경우 현재 계층(k)과 하나 적은 계층(k-1) 비교의 유의수준을 제공하며, 4계층 모형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대비 계층의 최소비율은 4계층 모형까지 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4계층 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4계층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4계층 모형의 경우 4개의 잠재계층 중 성장요인(변화율)의 예측평균이 유의하지 않은 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해당 잠재계층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4계층 모형을 제외하였을 때, 5계층 모형은 정보준거지수, Entropy 지수가 우수하지만 LMR LRT 결과가 유의하지 않고, 계층의 최소비율 역시 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3계층 모형의 경우 정보준거지수, Entropy 지수가 양호한 수준이었고, LMR LRT 결과가 유의하였으며, 계층의 최소비율 역시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3개 잠재계층 모두의 성장요인 예측평균이 유의하였으며, 잠재계층 간 계층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의 모형으로 3계층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분석은 3계층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표 5〉 성장혼합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분류율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정보준거지수	*AIC*	28365.352	28216.715	28087.121	28026.086
	BIC	28414.056	28281.654	28168.294	28123.494
	SABIC	28385.465	28243.532	28120.642	28066.311
분류의 질	Entropy	.809	.796	.812	.816
모형 비교 검증	*LMR LRT* *p*-value	.0013	.0086	.0018	.0522
분류	계층 1 n(%)	.19275	.78308	.69305	.65438
	계층 2 n(%)	.80725	.12749	.14864	.07915
	계층 3 n(%)		.08943	.10514	.01450
	계층 4 n(%)			.05317	.12085
	계층 5 n(%)				.13112

다.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계층별 특성

성장혼합모형에 의해 분류된 3개의 잠재계층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계층별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값과 사례수를 제시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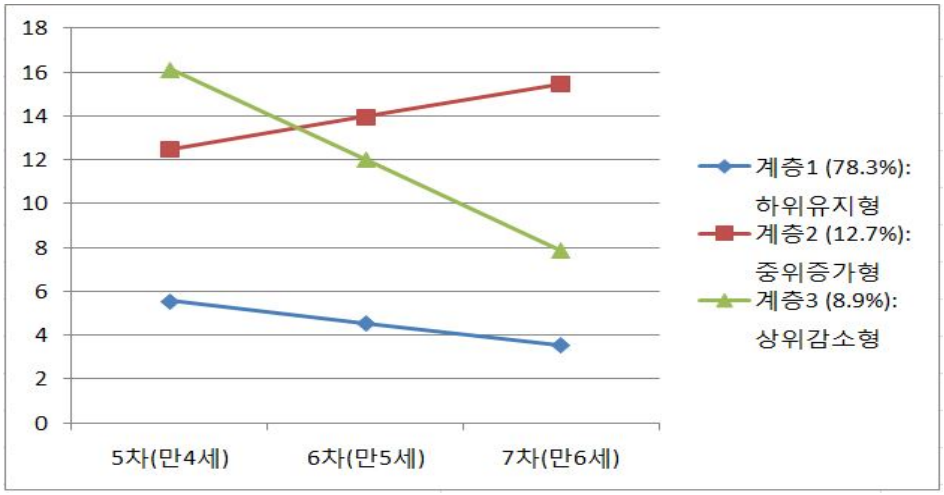
(<표 6> 참조), 이러한 계층의 변화궤적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을 분석한 결과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궤적에 따른 각 계층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계층 1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다른 두 계층에 비해 가장 낮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이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가장 많은 78.3%의 유아가 이 계층에 속하며 '하위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의 경우 초기치는 세 개의 잠재계층 중 중간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여 만 5세와 만 6세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 12.7%의 유아가 이 계층에 속하며 '중위증가형'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가장 높지만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가장 적은 8.9%의 유아가 이 계층에 속하며 '상위감소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6〉 잠재계층 별 평균 성장요인의 모수 추정치

모수	구분	n(%)	초기치		변화율	
			M	*SE*	*M*	*SE*
계층1	하위유지형	1296(78.3)	5.557***	.169	-1.006***	.089
계층2	중위증가형	211(12.7)	12.506***	.856	1.470*	.597
계층3	상위감소형	148(8.9)	16.141***	.634	-4.130***	.689

* $p < .05$, *** $p < .001$



〔그림 1〕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의 형태

3.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잠재계층의 예측요인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양상에 따라 확인된 3개의 잠재계층의 구분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예측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계층의 크기가 가장 큰 하위유지형(계층 1)으로 설정하고, 계수가 유의한 경우 독립변수가 준거집단에 비해 상대집단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승산비(OR)을 통해 살펴보았다. 승산비(OR)가 1보다 크면 준거집단보다 상대집단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하며, 1이면 독립변수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측변인으로 유아 개인요인인 기질과 성별, 어머니 양육요인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을 투입한 모형의 분석결과 적합도는 χ^2=300.947(p<.001), Pseudo R2=.236으로 나타났으며, <표 7>과 같다. 먼저 준거집단인 하위유지형을 기준으로 비교집단인 중위증가형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OR*=3.283)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OR*=1.739)가 높을수록, 남아(*OR*=1.932)일수록 하위유지형보다 중위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OR*=.583)이 높을수록 하위유지형보다 중위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하위유지형보다 중위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을 때 3.2배, 남아일 때 1.9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때 1.7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4배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위유지형을 기준으로 비교집단인 상위감소형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OR*=3.794), 활동성(*OR*=2.052) 기질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OR*=1.595)가 높을수록 하위유지형보다 상위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OR*=.549)이 높을수록 하위유지형보다 상위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하위유지형보다 상위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때 3.8배, 활동성이 높을 때 2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때 1.6배, 그리고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4배의 순서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은 하위유지형과 나머지 계층에 속할 확률의 차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었고, 유아의 성별은 하위유지형과 중위증가형,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하위유지형과 상위감소형에 속할 차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표 7〉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

예측변인		계층2(중위증가형)			계층3(상위감소형)		
		B	*SE*	*OR*	*B*	*SE*	*OR*
아동 요인	절편	-6.557	1.163		-6.669	1.361	
	부정적 정서성 기질	1.189***	.146	3.283	1.333***	.169	3.794
	활동성 기질	.322	.168	1.380	.719***	.195	2.052
	사회성 기질	.008	.174	1.008	-.339	.194	.713
	성별	.695***	.170	1.932	.367	.195	1.443
어머니 양육 요인	양육스트레스	.553***	.149	1.739	.467**	.174	1.595
	온정적 양육	-.540***	.188	.583	-.599**	.218	.549
	통제적 양육	.010	.154	1.010	-.103	.177	.902
χ^2		300.947***					
Pseudo R^2 (Nagelkerke)		.236					

주: 하위유지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

** $p < .01$, *** $p < .001$

4. 변량분석을 통한 잠재계층에 따른 초등학교적응의 차이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 양상에 따라 분류된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학교적응 전체 그리고 4개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적응, 학업생활적응, 그리고 또래적응 등 3개 하위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하위유지형이 중위증가형 및 상위감소형에 비해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적응 전체 수준에서는 하위유지형(M=4.01, SD=.69)이 중위증가형(M=3.77, SD=.73) 및 상위감소형(M=3.78, SD=.76) 두 계층 모두에 비해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F=9.811, p<.001). 전반적으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던 아동이 중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아동 또는 높은 수준에서 감소했던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대체로 더 잘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변화 양상에 차이는 있지만, 하위유지형에 비해 유아기 동안 전반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던 중위증가형 및 상위감소형 두 계층 간에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적응 하위 요인을 보면, 먼저 학교생활적응 수준에서는 하위유지형(M=4.13, SD=.93)이 중위증가형(M=3.86, SD=.94) 및 상위감소형(M=3.89, SD=.9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F=6.727, p<.01),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하위유지형과 중위증가형 간에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아동이 중간 수준에서 계속 증가했던 아동에 비해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초등학교 일과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생활적응 수준에서도 하위유지형(M=3.88, SD=.84)이 중위증가형(M=3.68, SD=.87) 및 상위감소형(M=3.62, SD=.90)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F=5.891, p<.01),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하위유지형과 상위감소형 간에서 나타났다.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아동에 비해 유아기 초기에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던 아동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업 참여나 과제 준비 등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또래적응 수준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하위유지형(M=4.02, SD=.79)이 중위증가형(M=3.70, SD=.84) 및 상위감소형(M=3.73, SD=.88) 두 계층 모두에 비해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F=12.511, p<.001). 유아기 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진학 후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교사적응에서는 계층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계층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

구분	*M(SD)*			*F*	*Scheffé*
	계층1 하위유지형[a] (n=802)	계층2 중위증가형[b] (n=130)	계층3 상위감소형[c] (n=86)		
학교적응 전체	4.01(.69)	3.77(.73)	3.78(.76)	9.811***	a>b, c
학교생활적응	4.13(.93)	3.86(.94)	3.89(.94)	6.727**	a>b
학업수행적응	3.88(.84)	3.68(.87)	3.62(.90)	5.891**	a>c
또래적응	4.02(.79)	3.70(.84)	3.73(.88)	12.511***	a>b, c
교사적응	4.03(.76)	3.89(.73)	3.97(.75)	2.094	

** p < .01, ***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일반적으로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재원하는 만 4세에서 만 6세까지의 유아기에는 부모와 교사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행동의 보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행

동을 통해 비교적 쉽게 관찰 가능한 외현화 문제행동은 구조화된 교육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과 높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 시기 학교적응 및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유아기 전반에 걸친 외현화 문제의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하여 만 4~6세까지의 유아기 동안 어머니가 평가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이러한 발달궤적이 개인차에 따라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기 외현화 문제의 서로 다른 발달궤적은 어떠한 예측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 개인 요인(아동의 기질, 성별)과 환경 요인(양육 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외현화 문제의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논의를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잠재계층을 분류한 결과, 3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도출되었다. 계층 1은 대부분의 유아가 포함되는 '하위유지형(78.3%)'으로,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가 가장 낮고 시간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유아기 동안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일반적인 집단이다. 계층 2는 '중위증가형(12.7%)'으로,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가 두 번째로 높고 유아기 동안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다. 계층 3은 '상위감소형(8.9%)'으로,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가 가장 높았으나 시간에 따라 비교적 빨리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중위증가형은 지속적으로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는 반면 상위감소형은 감소폭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지막 시점인 만 6세 때 중위증가형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선별적 평가가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위증가형과 상위감소형은 하위유지형에 비해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만 4세 시점에서 대부분의 유아들과 구별되는 문제행동을 보이며 이후 궤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위증가형은 만 4세 때 관찰되는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조기에 적절한 개입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상위감소형의 경우 만 4세 때의 높은 문제행동 수준이 성숙과 학습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개별적 중재를 통하여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잠재계층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변인으로 아동 요인(기질, 성별)과 어머니 양육 요인(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을 설정하여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 요인 중에는 정서성 및 활동성 기질과 성별이, 어머니 양육 요인 중에는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이 집단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 요인의 결과를 보면,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하위유지형보다 중위증가형 및 상위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고,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하위유지형보다 상위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의 빈도와 강도가 더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만 4세 때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고 이후의 변화 양상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 모두 존재하였으나, 유아기 동안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유아가 움직임이 많고 활동적일수록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만 4세 때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를 종합하면, 유아의 기질 특성 중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이 유아기 동안의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까다로운 기질일수록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던 선행 종단연구(Thomas & Chess, 1977)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활동성 및 사회성 기질에 비해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함으로써,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공격성 및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성미영, 2016; 이진숙 외, 2016; Nelson et al., 1999; Rothbart et al., 1994)를 확장하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의 경우에 중위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가 더 높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성별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였으며(Miner & Clarke-Stewart, 2008), 만 4세 경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남을 밝혔다(Keenan & Shaw, 1997). 또한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남아는 기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여아는 양육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강지현 · 오경자, 2011)를 고려하면, 성별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예측변인들

(예: 기질,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환경 변인으로 어머니 양육 관련 요인의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하위유지형보다 중위증가형 및 상위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고,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중위증가형 및 상위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더 낮았다. 즉, 어머니가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만 4세 때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고 이후의 변화 양상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 모두 존재하였으나, 유아기 동안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엄격하고 제한적인 양육행동보다는 온정적이고 친밀하며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아동의 주의집중문제 및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예측하며(한지현・이진숙, 2016; Creasey & Reese, 1996),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양육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보영, 2005)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엄격하게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보다는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 전체 수준 및 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그리고 또래적응 수준에서 하위유지형이 중위증가형 및 상위감소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 동안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았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초등학교에 진학한 후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일과에 더 잘 적응하였으며,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과잉행동문제 및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초등학교 진학 후 경험하게 되는 학업 및 또래적응 문제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는 횡단연구 결과(최보윤・곽노의, 2006)와 일치하며 나아가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아행동평가척도(CBCL 1.5-5) 외현화 문제의 하위 척도는 통제능

력의 부족에서 기인되는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이었으며(오경자 · 김영아, 2009), 책상에 앉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것, 더 많은 또래 친구들과 원만하게 어울리는 것 등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학교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요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교적응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변화 양상은 다르지만 유아기 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던 중위증가형과 상위감소형 간에는 학교적응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만 4세부터 유아기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조기 선별과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교적응 하위 요인 중 교사적응 수준에서는 3개 계층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다른 하위 요인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교사의 적절한 중재와 도움이 학교적응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 4세부터 만 6세까지 유아기 동안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하여 질적으로 서로 다른 3가지 변화 유형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결과는 좀 더 이른 시기인 유아기에 나타나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유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개별적이고 세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문제행동 변화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 선별과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건강한 초기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횡단 연구들에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아동 변인(기질, 성별)과 어머니 양육 변인(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여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아동의 기질과 성별,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변인 중 성별은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성별을 조절 변인으로 투입하여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변화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 살펴본다면 더욱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아버지 양육 관련 요인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Guajardo et al., 2009),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중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아동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 간의 구조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고인숙, 이정숙 (200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 문제행동의 경향 및 유아 문제행동의 일반적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6**(9), 33-45.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보영 (2005). 어머니 양육태도, 영아의 성(性), 보육기관에 따른 영아의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경 (2009).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3**(3), 35-45.

문상희 (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기질 및 문제행동의 경로모형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영경 (2010).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미영 (201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 간 관계에서 행동문제의 매개적 역할: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3), 1-17.

신택수. (2010). 종단프로파일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오경자, 김영아 (2009). **CBCL 1.5-5 매뉴얼 개정판**. 서울: 휴노컨설팅.

오경자, 김영아 (2013). **유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HUNO.

유영신, 유연옥 (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3), 123-140.

윤현수,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안정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617-627.

이진숙 (2004). 취학 전 시기의 모-자녀관계, 교사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333-357.

이진숙, 한지현, 박혜원 (2016). 유아의 기질과 지능, 문제행동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7**(5), 117-128.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조아미, 신택수 (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3**(2), 161-184.

정인선(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채경진, 유연옥 (2015).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1), 19-34.

최미숙, 공진희, 박은영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4**(2), 33-52.

최보윤, 곽노의 (2006).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스트레스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지, 10**(2), 137-163.

한국아동패널 (2017). 한국아동패널 표본유지율. http://panel.kicce.re.kr/kor/inquiry/01.jsp에서 인출(2017. 09.10).

한지현, 이진숙 (2016).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6-217.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파주: 교육과학사.

Achenbach,T. M., & Rescorlar, L. A. (2000). *Mannual for the ASEABA Pre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Psychiatry.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4).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xternalizing Behavi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5), 1523 - 1537.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Erlbaum.

Cairns, R. B., & Cairns, B. D. (1994). *Lifelines and risks: Pathways of youth in our tim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pbell, S. B.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113 - 149.

Campbell, S. B. (2002).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Clark, S.,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Unpublished paper available at www.statmodel.com/download/relatinglca.pdf.

Costello, E. J., & Angold, A. C. (2000). Developmental epidemiology: A framewor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A. J. Sameroff & M. Lewis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nd ed., pp. 57 - 73).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 314-332.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Guajardo, N. R., Snyder, G., & Petersen, R. (2009).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practices, parental stress, child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8*(1), 37-60.

Jung,T, and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Keenan, K. & Shaw, D. S. (1997). Developmental and social influence on young girls' early problem behavior. *Psychological Bullentin, 121*, 95-113.

Kerns, K. A., Contreras, J. M., & Neal-Barnett, A. M. (2000).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Greenwood Publishing Group.

Kraemer, H. C., Yesavage, J. A., Taylor, J. L., & Kupfer, D. (2000). How can we learn about developmental processes from cross-sectional studies, or can w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163 - 171.

Lahey, B. B., Schwab-Stone, M., Goodman, S. H.,Waldman, I. D., Canino, G., Rathouz, P. J., et al. (2000).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oppositional behavior and conduct problems: A cross-sectional household study of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88 - 503.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8.

Miner, J. L., & Clarke-Stewart, K. A. (2008).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 2 to age 9: Relations with gender, temperament, ethnicity, parenting, and r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4*(3), 771-786.

Nagin, D. S.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 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 139 - 157.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ar Quarterly, 40*(1), 21-39.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Wickrama, K. A. S., Lee, T. K., O'Neal, C. Walker., & Lorenz, F. O. (2016). *Higher-order growth curves and mixture modeling with Mplus: A practical guid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

·교신저자: 박새롬,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dplum11@snu.ac.kr

Classifying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 during Early Childhood, Predictors, and School Adjustment: An Application of Growth Mixture Modeling

Boram No and Saerom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 determine classes of developmental trajectory of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 during early childhood, (b) examine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 of child(temperament, gender) and parenting factors of mother(parenting stress, parenting) on the classification, and (c) analyze differences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mong classes in the first grade. A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655 households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d one-way ANOVA. The samples were originated from 5th(2012) to 8th(2015)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collect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ree distinct latent growth classes of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during early childhood were found; Low-maintain group, medium-increase group, and high-decrease group. Low-maintain group showed highest rates among the three classes, and the trajectories of medium-increase group and high-decrease group crossed at the age of 5. Second, the results of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e influential factors across three classes. The higher negative emotionality temperament, higher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lower affective parenting wer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higher probability that a child belongs to low-maintain group than that of the other two classes. Boys were more likely to classified into medium-increase group than low-maintain group. Higher activity level of child predicted the higher chance of being

included in high-decrease group than low-maintain group.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mong the three classes in the first grade. The low-maintain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adaptation at the total score of school adjustment and three subscales such as school routine, academic performance, and peer relation than the other two classes.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Growth Mixture Modeling,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in early childhoo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PSKC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및 초등학교 적응: 성장혼합모형 (GMM) 분석” 토론문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님의 양육환경을 비롯한 아동을 둘러싼 환경 특성과 아동의 개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연구자는 한발 더 나아가 아동의 발달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외현화 문제 행동을 종단 연구 수준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 변화(발달궤적)를 기준으로 아동을 ‘하위유지형’, ‘중위증가형’, ‘상위감소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집단의 발달궤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환경적, 특히 양육과 관련된 변인과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발달궤적의 차이가 아동이 초등학교 적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 궤적은 아동의 기질, 성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에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외현화 행동의 문제 행동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집단(하위유지형)은 외현화 행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이(중위증가형)나 연령에 따라 증가하긴 하지만 만 4세 때 이미 수준이 높았던 집단(상위 감소형)보다 상대적으로 여아일 확률이 높고, 아동이 부정적이거나 활동성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온정적 양육을 하였을 확률이 높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초등학교 적응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외현화 문제 행동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인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을 확인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달궤적이 종국에 초등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에 대한 후속연구와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연구의 경제성(parsimony) 부분입니다. 연구자께서는 외현화 문제 행동 변화유형을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3계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연구자가 나눈 하위유지형, 중위증가형, 상위감소형 중 하위유지형을 제외하고 중위증가형과 상위감소형이 이후 다항로지스틱 분석과,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분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즉, 2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결과의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층이 반드시 3개를 유지해야 한다면 상위감소형과 중위증가형에 차이에 대한 부분이 논의 부분에 충실히 서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위감소형과 중위증가형의 차이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부분은 아동요인 중의 활동성 기질이었습니다. 활동성 기질 높은 아동이 레퍼런스 집단인 하위 유지형보다 상위감소형이 속할 확률이 높고, 중위증가형과 하위 유지형을 구분하는데 영향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아동의 활동성 기질이 외현화 문제 행동을 줄여주는 요인일 수도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성 기질이 높은 아동이 외현화 행동을 공격적인 방법과 같은 문제 행동으로 표출하는 대신 활동적인 예체능으로 표출하여 외현화 문제 행동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논의들이 서술된다면 연구 내용이 더 풍부해 질 것 같습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분석 결과도 아쉬웠습니다. 횡단연구와 비교하여 연구자분께서 분석한 결과가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었으면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발달궤적에 영향을 주었던 변인들과 초등학교 적응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궤적 유형과 초등학교 적응의 분석은 통제변인이 투입하여 공변량 분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가구소득, 형제자매 수 등 기본적인 변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러한 부분을 통제 하지 않더라도 각 발달궤적에 해당하는 집단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또한 초등학교 적응 분석을 하였을 때는 분석 사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각 집단의 사례 수가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의 성별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아동패널의 학교적응 측정 척도는 교사가 응답합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분위기가 아동의 외향적인 행동에 유아교육기관보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아의 학교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이 실제 학교에 어떻게 적응했는지와 다

르게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으면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측정한 학교 적응 수준, 아동의 행복 수준 등을 함께 분석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의 환경적 분절시기인 초등학교 입학시기의 적응을 외현적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부분에서 그 의의가 큰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외현적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내현적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상호작용 효과, 기타 양육환경과 초등학교 적응과의 관계성 등 다양한 연구주제로 확장시킨다면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한지현[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부모의 부모공동양육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1,552명의 자료였으며, 분석변수는 부모공동양육, 아동의 행복감, 학교생활, 문제행동 척도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공동양육에 있어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배우자에게 가족통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양육에 있어 더 배우자를 비난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선정되었으며,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중간갈등형', '높은갈등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합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학업수행적응이 높고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부모공동양육, 잠재프로파일분석, 심리사회적 적응

Ⅰ. 서론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 공동의 양육참여가 당연시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참여여부와 소요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 남편은 평균 9.8시간, 아내는 23.2시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2.4배 많은 시간을 자녀양육에 할애하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10). 이

1)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처럼 부부의 공동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편중된 양육실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의 공동양육을 고려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양육에 대한 여러 개념이 있는데, Minuchin(1974)은 가족 구조 안에서 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고 가족의 통솔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McHale(1995)은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가치, 참여, 사고, 그리고 정서 등에 대해 서로 지지하고 공유하며 파트너로서 서로의 양육을 심리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부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Feinberg, 2003)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부모공동양육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눈에 보이는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McHale, Rao, & Krasnow, 2000).

실제 부모공동양육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혼 부부들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위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 후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일치되고 갈등이 적을수록, 자녀들이 긍정적인 발달을 경험하고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Belsky, Cmic, & Gable, 1995; Maccoby, Depner, & Mnookin, 1990). 이후에는 이혼 가족 뿐 아니라 양친 가족의 경우까지 확장되어 부모공동양육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국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aril, Crouter, & McHale, 2007; Feinberg, Kan, & Hetherington., 2007; McHale et al., 2000; Scrimgeour, Blandon, Stifter et al., 2013; Solmeyer, Feinberg, Coffman et al., 2014). 국내에서는 최근 부모공동양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모공동양육의 관련 변인을 밝힌 연구(김수진·도현심, 2001)에서부터 부모공동양육태도의 일치여부에 따른 부부공동양육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거나(박잎새·남은영, 2015; 임지영·이윤정·배윤진, 2015) 부모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이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들(김순임, 2014; 박잎새·남은영, 2015; 이미나·차기주·정미라, 2016; 최미경·도현심·김민정 외, 2013)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모두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부모공동양육과 아동의 적응 관련 변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공동양육을 각각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거나 유형화를 시도한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하였다. 집단을 분류할

때 기존의 변수 중심적(variable-oriented) 접근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이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관찰대상자중심(person-oriented)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Bergman & Magnusson, 1997).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발견된 집단들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집단의 심리사회적 적응 양상은 어떠한지 규명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으로는 아동의 행복감을 살펴보았는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전반적 행복감을 다양한 방향으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부모공동양육과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없지만, 부모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았으며(문민정,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돌봄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지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진,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공동양육태도는 아동의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전환되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장이 가정에서 벗어나 이웃과 학교로까지 확대되는 시기로 아동에게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화를 이루는 중요한 환경이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아동의 현재의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의 중·고등학교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들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증가하고(정은진, 2002), 아버지가 자율적, 합리적, 애정적일수록, 또한 어머니가 합리적, 성취적일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애옥, 2008). 부모의 개별 양육태도에서 더 나아가 부모공동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가족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공동양육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버지-어머니-자녀, 즉 3자간의 독특한 맥락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된다(Jouriles, Murphy, Faris et al., 1991).

아동의 적응 변인의 또 다른 측면으로 문제행동을 들 수 있는데,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크게 내면화, 외현화 문제로 구분되며(Achenbach, 1991), 내면화문제는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과잉통제 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 불안, 위축을 비롯하여 신체증상, 주의집중문제 등이 포함된다. 반면, 외현화 문제는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 등의 증상을 뜻한다(Achenbach, 1991). 선행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Hale et al., 2000). 실제로, 협력적인 부모공동양육은 자녀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켰다(Abidin & Brunner, 1995). 반면에, 가족의 지지와 조화수준이 낮고 적대적-경쟁적 부모공동양육을 보일 때 자녀의 정서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cHale & Rasmussen, 1998). 또한, 부부간의 일치가 적고 서로가 갈등적인 관계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과잉행동,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냈다(Shoppe-Sullivan, Magelsdorf, & Frosch, 2001). 국내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이 높고,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이 낮을수록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미경 외,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갈등적 부모공동양육과 애정적 부모공동양육이 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미쳤고, 갈등적 부모공동양육과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이 유아의 품행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순임, 2014).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공동양육은 아동기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부모공동양육을 유형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공동양육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수로는 행복감, 학교적응, 문제행동을 고려하였다.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공동양육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공동양육에 따라 유사한 집단을 유형화할 때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셋째,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전국에서 태어난 2,150명의 신생아 패널로 시작된 한국아동패널연구는 1년을 주기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연구 착수 당시 신생아였던 패널은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쳐 201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학령기에 들어섰다. 초등학교 입학은 많은 변화를 동반하는데 국가 의무교육과정인 형식교육을 처음 접하게 되고, 생활반경이 학교로 확대됨에 따라 또래관계의 규모와 중요성도 커진다. 또한 이 시기 아동의 인지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등은 이전 시기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된다. 구체적 사물에 대해 정신적 활동을 통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자의식적 정서에 대한 이해 및 내면화, 조절 등이 발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 발달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김은설·배윤진·조숙인 외,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패널(2,150명)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행동 문항을 비롯하여, 이 연구에서 관심 있는 주요 변수에 성실히 응답한 1,5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아동, 교사의 응답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최종 분석 대상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7세 3개월이었다.

<표 1> 분석대상특성

변수			N (%)	변수		N (%)
아동	성별	남	788 (50.8)			
		여	764 (49.2)			
아버지	연령	20대이하	3 (0.2)	학력	고졸이하	411 (26.9)
		30대	650 (41.9)		전문대졸	306 (19.7)
		40대	845 (54.4)		대졸	644 (41.5)
		50대이상	30 (1.9)		대학원졸	166 (10.7)
		무응답	24 (1.5)		무응답	25 (1.6)
어머니	연령	20대이하	18 (1.2)	학력	고졸이하	450 (29.0)
		30대	1053 (67.8)		전문대졸	428 (27.6)
		40대	473 (30.5)		대졸	583 (37.6)
		50대이상	6 (0.4)		대학원졸	89 (5.7)
		무응답	2 (0.1)		무응답	2 (0.1)
전체			1552 (100.0)			

2. 분석변수

가. 부모공동양육

부모공동양육은 McHale(1997)이 개발한 공동양육척도(Coparenting Scal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동양육척도는 가족통합(Famliy Integrity) 7문항, 비난(Disparagement) 3문항, 갈등(Conflict) 2문항, 훈육(Reprimand) 4문항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16문항의 척도이다. 가족통합은 가족 간의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부모의 시도를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배우자에게 아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비난은 배우자의 권위와 신뢰에 대한 비난이나 무시를 반영하며(예: 자녀에게 배우자에 관한 나쁜 말이나 배우자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 갈등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부모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배우자와 말싸움을 한다). 훈육은 부모의 제한설정을 나타내는 문항이다(예: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할 때 배우자보다는 내가 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아버지의 경우 가족통합이 .89, 비난이 .39, 갈등이 .78, 훈육이 .14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가족통합이 .84, 비난이 .47, 갈등이 .81 훈육이 .10으로 훈육에 있어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훈육요인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양육척도를 활용한 잠재집단 분석에서는 비교적 신뢰도가 양호하게 나타난 어머니가 보고한 공동양육척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나.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이 보고한 주관적 행복감과 전반적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뒤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한 문항으로 총 4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 행복감은 MCS(Millennium Cohort Study, 2008)에서 사용한 척도로 일상생활의 각 영역(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행복감을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주관적 행복감이 .66, 전반적 행복감이 .67이었다.

다. 아동의 학교생활

아동의 학교생활은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수행적응 11문항, 또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5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35문항의 척도이다. 각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유아의 평소 습관이나 행동 등에 대해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83~.95로 나타났다.

라.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Child Behavior Check List for Ages 6-18: CBCL 6-18)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chenbach와 Rescorla(2001)이 개발한 CBCL을 오경자·김영아·하은혜 등(201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척도이다. 총 120문항으로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며 9개의 하위척도(증후군 척도 8개, 기타 척도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아동의 전반적인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문제행동 심각도의 경우 동일한 점수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점수 대신 T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관찰변수들이 유사한 값을 가질 사후확률에 근거하여 개인들을 보이지 않는 하위집단, 즉 잠재집단으로 구분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변수들의 관계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기존의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과 달리,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을 기반으로 한다(Bergman &

Magnusson, 1997). 따라서 다소 임의적인 기준 점수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는 군집분석과 달리, 모형을 설정한 뒤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집단의 수를 결정하며, 확률을 이용하여 해석이 용이한 결과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Magidson & Vermunt, 2002). 본 연구에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Mplus 7.11을 활용하였다. 또한 잠재 집단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수 특성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 참여자 1,552명의 동일한 가정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공동양육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하위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배우자에게 가족통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양육에 있어 더 배우자를 비난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공동양육 차이

(N=1,552)

부모공동양육	아버지 *M(SD)*	어머니 *M(SD)*	*Paired* t
가족통합	5.15 (.02)	5.36 (.91)	8.02***
비난	3.07 (.95)	3.00 (1.07)	-2.12*
갈등	2.78 (1.29)	2.71 (1.38)	-2.02*

*p <.05, ***p <.001

다음으로 아동의 행복감, 학교적응, 문제행동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행복감은 주관적 행복감과 전반적 행복감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학교적응도 평균 3.83에서 4.08가지 범위를 이루며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은 T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문제행동 척도의 준임상 범위가 60점 이상임을 감안할 때 평균이 49점에서 51점 사이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수의 평균

(N=1,552)

주요변수		*M(SD)*	범위
아동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3.20 (.53)	1-4
	전반적 행복감	3.25 (.47)	1.5-4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4.08 (.94)	1.09-5
	학업수행적응	3.83 (.85)	1-5
	또래적응	3.94 (.80)	1-5
	교사적응	4.00 (.75)	1.4-5
문제행동	총문제행동	49.81 (9.30)	30-99
	내재화문제	49.70 (.8.63)	37-100
	외현화문제	51.00 (8.88)	37-99

2.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여전히 공동양육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난 어머니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을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수를 늘려가며 산출되는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AIC, BIC, Adjusted BIC, LMR-LRT, BLRT, Entropy이다.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LMR-LRT와 BLRT값이 유의미하고 Entropy값이 높을수록 모델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보는데,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잠재프로파일 수를 2개와 3개로 하였을 때 LMR-LRT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들 중에서 AIC와 BIC값이 더 작은 3개 계층 모형이 부모공동양육유형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사례수를 고려해본 결과 3개 집단이 실재적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는 각 집단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의 비율이 최소한 1%이상 되어야한다는 요건(Jung & Wickrama, 2008)을 충족하였다.

<표 4>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적합도

(N=1,552)

잠재 집단수	AIC	BIC	Adjusted BIC	LMR-LRT	BLRT	Entropy	잠재집단별 사례수
1	13564.09	13612.22	13583.62				1552
2	13410.32	13479.84	13438.54	156.44***	161.76***	.713	1018+534
3	13280.07	13370.97	13316.97	133.70***	138.25***	.812	845+594+113
4	13264.67	13376.96	13310.25	22.63	23.40***	.845	7+590+116+839
5	13225.24	13358.92	13279.50	40.39	41.76***	.815	688+6+70+334+454

***p <.001

부모공동양육 잠재프로파일별 비율과 표준화된 평균점수를 제시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 번째 프로파일은 가족통합 평균이 가장 높고 비난과 갈등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사례 중 54.4%(845명)가 이 유형에 속했다. 따라서 이 프로파일은 '통합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가족통합이 낮으며(M=-0.40), 비난(M=0.38)과 갈등(M=0.71)은 다른 집단에 비해 중간 정도로 나타나 '중간갈등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38.3%(594명)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세 번째 프로파일은 가족통합의 평균이 낮으며 비난과 갈등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사례 중 7.3%(113명)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이 프로파일은 '높은갈등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프로파일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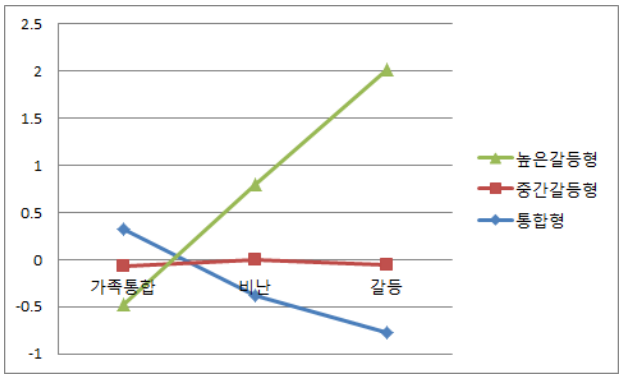
<표 5> 부모공동양육 잠재프로파일별 평균

(N=1,552)

잠재계층	통합형 (n=845, 54.4%)	중간갈등형 (n=594, 38.3%)	높은갈등형 (n=113, 7.3%)	F (Scheffe)
가족통합	0.33	-0.40	-0.40	124.23*** (c1>c2,c3)
비난	-0.38	0.38	0.80	174.78*** (c1<c2<c3)
갈등	-0.77	0.71	2.07	3832.41*** (c1<c2<c3)

주 : 최종군집의 표준화된 Z점수(M=0, SD=±1)를 제시함.

***p <.001, c1: 통합형 집단, c2: 중간갈등형 집단, c3: 높은갈등형 집단



[그림 1]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3.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공동양육 잠재프로파일별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

(N=1,552)

구분		부모공동양육 잠재프로파일			*F* (Scheffe)
		통합형 M (SD)	중간갈등형 M (SD)	높은갈등형 M (SD)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3.23 (.52)	3.16 (.53)	3.15 (.60)	2.73†
	전반적 행복감	3.25 (.46)	3.24 (.49)	3.31 (.40)	1.01
학교 적응	학교생활적응	4.08 (.94)	4.06 (.94)	4.11 (.90)	.13
	학업수행적응	3.88 (.84)	3.76 (.86)	3.77 (.85)	2.54†
	또래적응	3.97 (.81)	3.91 (.80)	3.95 (.74)	.69
	교사적응	4.01 (.73)	3.98 (.77)	3.99 (.84)	.25
문제 행동	총문제행동	48.57 (8.94)	51.28 (9.45)	51.37 (9.80)	16.69*** (c1<c2,c3)
	내재화문제	48.77 (8.28)	50.81 (8.97)	50.89 (9.41)	10.86*** (c1<c2,c3)
	외현화문제	50.03 (8.25)	52.14 (9.59)	52.24 (8.74)	11.03*** (c1<c2,c3)

$^{\dagger}p$ <.1, $^{***}p$ <.001 c1: 통합형 집단, c2: 중간갈등형 집단, c3: 높은갈등형 집단

먼저, 아동의 심리사회적 변인 중 아동의 행복감은 주관적 행복감에서 잠재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3, p<.10). 통합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학업수행 적응에서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통합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F=2.54, p<.10).

다음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은 각 문제행동 척도에서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통합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총문제행동(F=16.69, p<.001), 내재화 문제행동(F=10.86, p<.001), 외현화 문제행동(F=11.03, p<.001)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부모의 부모공동양육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공동양육에 있어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배우자에게 가족통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양육에 있어 더 배우자를 비난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다른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지지와 비난을 받는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는데, 지지적 공동양육 수준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난적 공동양육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지영 외, 2015). 아버지가 배우자로부터 공동양육에 대한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가족통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지영 등(2015)의 연구에서 보호나 양육이 위주가 되는 유아기 자녀의 돌봄에 아버지의 실제적인 양육 참여수준이 높지 않아 배우자인 아내로부터 좀 더 협조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유도했을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의 아동기 부모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더 이끌어내기 위한 어머니의 개입적인 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배우자를 더 비난하고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비난하고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젠더규범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공동양육에 대한 의식이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에 있어서 주책임자인 어머니가 남편의 양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난이나 갈등을 표현하는 대신 가족통합적인 행동을 통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 수준에 대한 지각정도를 비교한 것이므로 실제적인 공동양육 수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양육참여시간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관찰이나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 자료 수집을 통해 부모가 지각하는 공동양육 수준과 실제적 공동양육 수준을 비교하고 그 기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선정되었으며,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중간갈등형', '높은갈등형'으로 명명하였다. 부모공동양육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54.4%)을 보인 '통합형'은 가족통합 평균이 가장 높고 비난과 갈등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나 바람직하고 기능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두 집단은 가족통합 평균이 같았으며 비난과 갈등의 정도가 더 심한 정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이에 집단을 구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을 명명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부모공동양육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 하위요인의 일치 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연구(박잎새·남은영, 2015)가 있었다. 지지와 비난행동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지지적 유형과 비난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지지적 일치, 비난적 일치,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 어머니만 지지적 불일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다소 임의적인 기준점수에 의한 집단 구분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설정한 뒤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여 집단수를 결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학교적응 중 학업수행적응에서 통합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통합형 집단은 부모공동양육 하위요인 중 가족통합 점수가 가장 높고 비난과 갈등이 가장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집단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이 기능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문민정, 2009), 부모가 돌봄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진 연구결과(이은진,

2011)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증가하고(정은진, 2002), 아버지가 자율적, 합리적, 애정적일수록, 또한 어머니가 합리적, 성취적일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이애옥, 2008)와 유사한 연구결과로 보인다. 부모공동양육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McHale et al., 2000)임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보다 다양한 측면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중간갈등형과 높은갈등형 집단이 통합형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시 자녀 앞에서 배우자의 권위와 신뢰에 대해 비난이나 무시를 하고 부모 간에 갈등을 보일수록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과 외현화 행동문제이 높았다. 이는 가족의 지지와 조화수준이 낮고 적대적-경쟁적 부모공동양육을 보일 때 자녀의 정서적 불안감이 커졌으며(McHale & Rasmussen, 1998), 부부간의 일치가 적고 서로가 갈등적인 관계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과잉행동,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냈다(Shoppe-Sullivan et al, 2001)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도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이 유아의 불안과 과잉행동, 또한 품행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김순임, 2014; 최미경 외, 2013)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에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의 불안 등의 문제행동이 청소년 및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연구(Cartwright et al., 2004)에 근거할 때, 유아기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있어서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부모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동양육척도는 하위요인에서 훈육요인이 척도의 내적일치도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척도는 McHale(1997)이 개발한 공동양육척도(Coparenting Scal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척도이다. 예비조사를 실시했을지라도 한국판의 타당화를 위해 척도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김수진과 도현심(2001)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갈등적, 애정적, 지지적,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요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구성되는 문항도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를 활용한 다른

논문(최민경, 2017)에서는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아동패널자료 7차(2014년)자료에서 조사된 공동양육 척도의 내적일치도 신뢰도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 분석 결과에서도 훈육요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과 관련된 문항이 우리나라 연구대상 부모들이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상호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여 부모의 공동양육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변인을 탐색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갓 접어든 시기로 아직 과도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아동패널자료가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분류를 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부모공동양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부모공동양육이 자녀의 발달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양육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수진·도현심(2001). 부모-간 양육행동 (Coparenting) 의 관련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01-114.

김순임(2014). 유아의 기질과 부모공동양육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2016(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35. p.15-16.

문민정(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 수용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잎새·남은영(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8(4), 135-153.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보고서. 서울 : 여성가족부.

오경자·김영아·하은혜·이혜련·홍강의(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CBCL

6-18. 서울: 휴노컨설팅.
이미나·차기주·정미라(2016).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229-251.
이애옥(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진(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지영·이윤정·배윤진(2015). 양친가정 내 공동양육이 부모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의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3), 65-92.
정은진(200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자아개념·학교적응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최미경·도현심·김민정·신나나(2013). 부모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25-39.
최민경(201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부모공동양육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idin, R. & Brunner, J.(1995). Development of a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31-40.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101*, 213-232.
Baril, M. E., Crouter, A. C., & McHale, S. M. (2007). Processes linking adolescent well-being, marital love, and co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645.
Belsky, J., Crnic, K., & Gable, S. (1995). The determinants of coparenting in families with toddler boys: Spousal differences and daily hassles. *Child development, 66*(3), 629-642.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291-319.
Cartwright. H., Roberts, P., Fothergill, & Harrington, S. (2004). Systematic review f the efficacy of cognitive behavior therapies for childhoo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43(4)*, 421-436.
Feinberg, M. E. (2003). The interm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 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Feinberg, M. E., Kan, M. L., & Hetherington, E. M. (2007).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coparenting conflict on parental negativity and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687-702.

Jouriles, E., Murphy, C. M., Farris, A. M., Smith, D. A., Richters, J. E., & Waters, E. (1991). Marital adjustment, parental disagreements about childrearing and behavior problem in boys: Increasing the specificity on the marital assessment. *Child Development, 62*(6), 1424-1433.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Maccoby, E., Depner, C., & Mnookin, R. (1990). Coparenting in the second year after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141-155.

Magidson, J., & Vermunt, J.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 37-44.

McHale, J. & Rasmussen, J.(1998). Coparental and family ground-level dynamics during infancy: Early family precursors of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during pre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39-59.

McHale, J. P. (1995). Co-parenting and triadic interactions during infancy: The roles of marital distress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85-996.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McHale, J. P., Rao, N., & Krasnow, A. D. (2000). Constructing family climates: Chinese mothers' reports of their co-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1), 111-118.

MCS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Surveys+and+documentation 에서 2015년 1월 21일 인출.

Minuchin, S. (1974).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choppe-Sullivan, S. J., Mangelsdorf, S. C., & Frosch, C. A. (2001). Coparenting,

family process, and family structure: Implications for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526-545.

Scrimgeour, M. B., Blandon, A. Y., Stifter, C. A., & Buss, K. A. (2013). Cooperative coparenting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3), 506-511.

Solmeyer, A. R., Feinberg, M. E., Coffman, D. L., & Jones, D. E. (2014). The effects of the family foundations prevention program on co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A mediation analysis. *Prevention Science, 15*(2), 213-223.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type of coparenting through analysis of latent profile

Jihyeon 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ofiles of coparenting using the 8th(2015) data of the Korea Child Panel through the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classified type. The participants were 1,552 first grade children. The analysis variables were coparenting, children's happiness, school adaptation, and problem behavior scal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parental coparenting. Mothers reported more integrity behaviors to their spouses than fathers, and fathers were more likely to disparage their spouses and feel conflicts in parenting than their mothers. Second,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three coparenting profiles were identified: 'integrity', 'moderate conflict', and 'high conflict'.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latent profiles of coparenting, the integrated group showed higher subjective happiness and academic adaptation of children and less problematic behavior than the other groups

Key words: coparenting, latent profile analysis,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토론문

신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요즘 미디어를 통해 심심치 않게 ‘독박육아’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는 남편 또는 아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이르는 신조어(1)이다. 독박육아는 2012년 즈음 온라인상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최근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예외가 있기는 하나 독박육아의 주체는 대부분 어머니로 이는 우리 사회의 자녀양육이 아직까지 어머니가 주 역할자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현대사회 가족구조의 변화로 자녀양육은 더 이상 여성 고유의 역할이 아닌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공동역할로 인식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연구자들은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아동발달은 가족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3). 이에 기초한 ‘부모공동양육’ 혹은 ‘부부공동양육’ 개념은 그간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선행 변인을 검증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특히 앞서 발표한 연구는 유아기에서 학령기로의 전환기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부모공동양육’의 경험적 증거를 누적시키고 주목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간 연구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2자 측정에 근거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망한 경우가 많았고, 부모공동양육에 관심을 둔 연구들도 주로 변인 중심의 결과치를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3자 관계(부-모-자녀)를 통해 부모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변인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의 접근을 기초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앞서 발표된 내용을 상기하면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사항을 첨언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제한점에서도 일부 언급된 바와 같이 부모공동양육의 도구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부모공동양육 측정도구는 거의 국외의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적절성 여부와 함께 우리사회의 부모공동양육 개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부모공동양육은 부부가 함께 자녀양육의 원칙, 육아분담에 대해 의논하며 자녀양육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4). 이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의 요인으로 가족통합, 비난, 갈등, 훈육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도 부부공동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공동양육의 문제는 육아분담과 같은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만 3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 시간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50%가 취업모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평일 44분, 주말에는 3시간 41분, 어머니는 평일 4시간 50분, 주말에는 6시간 30분으로 나타났다(2). 이에 근거해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녀양육에서 자녀양육분담 비율이나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사회 부모공동양육의 개념은 이러한 구조적인 면이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국내 측정도구 개발이나 국외의 측정도구 수정, 보완 시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발표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자료를 토대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수집된 아버지 자료를 추가 분석해봄으로써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관련 연구결과의 누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공동양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로 문제행동, 행복감, 학교적응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간 다수 연구들에서 부모공동양육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였고,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여 관련 연구결과의 누적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모공동양육은 아동의 행복감이나 학교적응에 유의도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복감 측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응답하기에 적절한 도구였는지, 행복감 측정을 위한 요인들이 다양하게 도구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교적응의 경우 측정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 중 또래적응나 교사적응보다는 학업수행적응이 경계선상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진 것에 대한 논의를 추가해 본다면 연구의 시사점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네이버어학사전(2017).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B%8F%85%EB% B0%95%EC%9C%A1%EC%95%84&query=%EB%8F%85%EB%B0%95%EC%9C% A1%EC%95%84&target=dic&query_utf=&isOnlyViewEE=에서 인출.
2. 이영환(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471-495.
3. 장미연, 최미경(2015).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동양육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3(5), 567-580.
4. Laxman, D. J. Jessee, A., Mangelsdorf, S. C., Rossmiller-Giesing, W., Brown, G. L, & Schoppe-Sullivan, S. J. (2013). Stability and antecedents of coparenting quality: The role of parent personality and child tempera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6(2), 210-220.

학령전기의 말·언어수행이 학령기의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종호[1)]

요 약

학령전기의 말·언어문제는 삶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영역을 알고 총제적인 중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의 말·언어문제가 학령기의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각의 항목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말·언어문제 동반 집단, 말문제 집단, 언어문제 집단, 일반 집단 각각 15명씩 총 6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을 비교하고 말·언어 요인과 학업수행,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업수행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고 말·언어문제 동반집단이 학업수행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말소리능력은 문해력과 관련된 읽기, 쓰기 부분에서 상관을 보였으며 언어능력은 학업수행의 모든 영역과 상관이 있었다.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적응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말·언어능력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말·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은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학교적응에서는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지만 초기 학령기 시기임을 감안할 때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주제어: 말소리장애, 언어장애, 학업수행능력, 학교적응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사소통문제는 학령전기의 아동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학령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출현한다(McLeod & Harrison, 2009; Harrison, McLeod, Berthelsen, &

1)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치료학과

Walker, 2009). 의사소통장애는 크게 언어장애와 말소리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말의 산출,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 등 의사소통 기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일부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장애는 다운증후군이나 자폐성장애와 같은 진단과 함께 나타나며 심한 청력손실이나 신경학적 손상과 같은 구조적 또는 기능적 장애의 2차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많은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다른 진단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SLI(단순언어장애)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말소리장애와 같이 임상적으로 나타난다(Shriberg & Kwiatkowski, 1988). 의사소통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개별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국외의 대규모 종단연구에 따르면, 4세에서 5세에 의사소통장애가 있었던 아동은 7-9세에 학령기에 들어서 지식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의사소통, 대인관계, 주요 생활 분야에서 모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에 비해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cCormack, Harrison, McLeod, & McAllister, 2011). 따라서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아동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알고, 이에 따른 중재 목표를 수립하여 총체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학령전기에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학업문제를 겪을 위험이 있다(Bernthal, Bankson, & Flipsen Jr., 2009; McCormack et al., 2011). 말소리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반 문제의 유무나 특성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질적인 집단이다. 말소리장애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지, 심리, 사회적인 분야 등에 영향을 미치며, 언어 문제를 가장 빈번하게 동반하고, 어휘, 음운인식, 문해기술 등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김수진, 김민정, 하승희, 하지완, 2015; 서은영, 고유경, 오경아, 김수진, 2017). 말소리장애가 있는 아동의 일부는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자동이름대기 및 음운생성을 포함하여 음운적인 처리에 어려움을 보인다(Kamhi & Catts, 2012). 또한 이후 단어해독과 관련된 음운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Lewis, Avrich, Freebairn, Hansen, Sucheston, Kuo, Taylor, Iyenger, & Stein, 2011). 음운적 처리의 결함이 있으면 음운인식능력이 떨어지고 언어적 단기기억이 약하며 어휘 찾기가 느려질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문해력 발달에 필수적이다(Wagner & Torgesen, 1987). 문해력은 단순히 읽기능력뿐만 아니라 학령기에 학업수행을 위한 필수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말소리 장애 아동에 대한 국외의 대규모 종단연구에서는 학령전기에 말·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학령기에 문해력에서 어려움을 보

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Catts, Fey, Tomblin, & Zhang, 2002; Lewis, Freebairn, Tag, Ciesla, Iyengar, Stein, & Taylor, 2015). 또한 5세에서 6세에 말소리 장애를 보일 경우 학령기가 되어서도 읽기장애, 학습 문제,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Bishop & Adams, 1990; Lewis et al., 2015; Pennington, Shriberg, & Boada., 2009).

국외에서는 학령기에 들어서 보이는 읽기와 학업수행 및 사회성 등에 대한 말소리 장애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아동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음운인식 등에 대한 비교 및 상관연구는 진행되었으나 학령전기의 말소리장애가 실제적으로 학령기의 학업문제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적연구는 전무하다. 최근의 국내 연구에 의하면 6세의 아동 중 약 9%가 말소리장애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김수진, 고유경, 서은영, 오경아, 2017). 이처럼 학령전기에 말소리장애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아동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6세까지 말소리장애가 남아있는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학령기에 들어 학업수행과 학업적응에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학령전기의 말소리장애 집단(언어문제가 함께 있는 집단과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 언어문제만 있는 집단, 일반아동 집단은 학령기에 학업수행 및 학교적응에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학령전기의 말소리능력(조음평정치, 오류자음)과 언어능력(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은 학령기의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과 상관이 있는가?

3. 이론적 배경

가. 일반아동의 말 · 언어발달과 학업수행 및 학교적응

1) 말·언어발달

아동은 생후 24개월이 지나면서 음운, 의미, 형태, 구문 등 언어의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달을 보이고 약 5, 6세가 되면 우리말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습득하고 숙달하게 된다(배소영, 1996). 말소리발달의 경우에도 1세경 첫 낱말 출현 이전의 옹알이 시기

와 첫 낱말 출현부터 문장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2세경의 초기 음운 발달기,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학령기 직전까지의 후기 음운 발달기를 거쳐 6세경에는 우리말소리를 모두 산출할 수 있게 된다(김수진, 2015). 문자의 습득 및 읽기와 관련된 음운인식능력은 단어, 음절, 음소 등의 말소리 단위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음운인식능력은 5세 후반에서 6세까지 단어인식, 음절인식 단계는 확립이 되나 음소인식단계의 경우에는 6세 이후까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김선정, 김영태, 2006; 홍성인, 전세일, 배소영, 이익환, 2002). 언어발달의 경우에도 학령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의사소통의 주요 환경이 학교가 되면서 보다 복잡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주제 운용능력이나 토론이나 설명과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의사소통 기능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말하기나 듣기뿐만 아니라 보다 상위의 언어학습을 위해 상위언어기술이나 문어 기술도 중요해진다(이윤경, 2006). 진연선, 권유진, 이윤경(2008)의 문헌연구에 의하면 의미영역에서는 어휘적 측면에서 속담이나 숙어와 같은 비유적 언어가 발달해가며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 어휘가 중요해짐에 따라 어휘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 확장이 이루어진다. 문법영역에서는 구와 절이 다양하게 포함된 복문 이해 및 표현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화용영역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습상황에서의 구어적 협력행동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또한 학령기에는 아동의 경험 밖에 있는 것에 대한 탈문맥적 이야기나 담화영역이 중요한 부분이 되며 이야기의 구성능력, 이야기 이해 및 산출 등에서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위한 읽기와 쓰기 같은 문해력도 발달하게 되는데, 문해력 발달의 습득에는 교육, 가정 및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개인과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Chall, 1987).

2) 학업수행

본 연구의 학업수행은 언어영역과 관련이 가장 밀접한 국어과 영역을 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으며 초등학교 1~2학년은 2017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교육부(2015)에 의하면 국어의 하위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나누며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각 영역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듣기·말하기영역에서는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초적인 듣기·말하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자신 있게 말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말하기의 습관과 태도를 바르게 형성한다. 읽기영역에서는

한글을 익히고 읽는 활동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며, 글자라는 약속된 기호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 글자를 읽으려는 태도를 길러 읽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쓰기영역에서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학습 결과를 문자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쓰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며, 글자를 바르게 쓰고, 자신의 생각을 문장이나 짧은 글로 쓰면서 쓰기에 흥미를 갖고 부담 없이 쓰는 태도를 기른다. 문법영역에서는 기초 문식성을 습득하여 학교에서의 국어생활에 원활이 적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한글을 해득하고 낱말과 문장,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하며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문학에서는 문학에 대해 친밀감과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재미있는 발상과 표현이 담긴 작품을 활용하여 말의 재미를 느끼거나 작품에 묘사된 인물이나 사건을 상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문학에 입문하도록 한다.

3) 학교적응

학령기에 접어들면 아동은 초등학교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환경적, 또래 및 교사관계, 교육과정, 학교규범 등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은 학교에 대한 만족 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사회, 정서 발달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김수정, 곽금주, 2010) 학교적응은 학교의 규범, 질서를 준수하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적절하고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정윤, 이경아, 2004). 아동의 학교적응은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높으며(이정윤 외, 2004),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반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낮다(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또한 또래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회피하며 학교 선호도와 참여도가 낮아지는 등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과 관련된 학교준비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또래친구, 부모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며(Mashburn & Piata, 2006), 또한 협력성, 자기주장, 자기조절, 과제수행행동 등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초기 학교 적응과 학업수행에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김선영, 안선희, 2006).

나. 말 · 언어장애 아동의 말 · 언어발달, 학업수행 및 학교적응

1) 말·언어발달

말·언어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은 음운, 의미, 형태, 구문, 화용 등의 영역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다. 말·언어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나타내는 음운특성은 음운 산출과 음운인식, 음운기억에서 지연을 보인다(김수진, 신지영, 2015; Leonard, 2014). 5세 후반에서 6세까지 초기 문해기술 습득 시점에 말소리 산출에 필요한 음운기술이 발달 되지 않은 경우 문해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데(Bishop & Adams, 1990; Lewis et al., 2015), 최근의 국내 연구에 의하면 말소리장애를 가진 아동의 66%가 일반아동보다 음운인식 또는 어휘력에서 지연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영 외, 2017).

의미 영역에서 언어장애 아동들은 어휘의 이해 및 표현이 제한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며 낱말의 뜻을 정의하는 데도 어려움을 보인다(Leonard, 2014). 또한 낱말찾기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며(이윤경, 김영태, 2002)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보인다(허애경, 임종아, 황민아, 2012). 이는 화용적인 면에서 의사소통 맥락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문 영역에서는 일반아동들에 비해 구문구조가 단순한 형태의 구문을 사용하며 구문오류율도 높다(이현정, 김영태, 윤혜련, 2008). 화용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의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적절한 반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를 보일 수 있다(김정미, 김영태, 2006; 윤혜련, 김영태, 2005). 또한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거나 적절하게 전환시키는데 문제를 보인다(허현숙, 이윤경, 2012).

2) 학업수행

학업은 많은 경우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 중의 상당수는 학업에 문제를 보일 수 있다. 5~6세경에 지속적으로 말·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령기에 들어서 읽기장애, 학업 문제,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ishop & Adams, 1990; Lewis et al., 2015; McCormack et al., 2011; Pennington, Shriberg & Boada., 2009). 언어장애 아동들은 구어, 이야기 능력, 음운인식, 철자 지식, 소리-철자 지식, 맞춤법 지식, 낱말 인식 등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이러한 전읽기 기술의 결함으로 인해 읽기 학습을 준비하기 어렵다(Justice, Invernizzi, & Meier, 2002). 읽기는 언어활동으로, 언어의 음운, 의미, 구문 및 화용적 측면의 지식에 크게 의존하며 언어의 한 영역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 결함이 있다면 읽기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Kamhi & Catts, 2012). 따라서 언어장애와 말소리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일반아동들

에 비해 읽기장애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다(Catts, Fey, Tomblin, & Zhang, 2002; Anthony, Aghara, Dunkelberger, Anthony, Williams, & Zhang., 2011). 말·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의 일부는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자동이름대기 및 음운생성을 포함하여 음운적인 처리에 어려움을 보인다(Kamhi & Catts, 2012). 또한 이후 단어해독과 관련된 음운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Lewis, Avrich, Freebairn, Hansen, Sucheston, Kuo, Taylor, Iyenger, & Stein, 2011). 음운적 처리의 결함이 있으면 음운인식능력이 떨어지고 언어적 단기기억이 약하며 어휘 찾기가 느려질 수 있다(Wagner & Torgesen, 1987). 음운적 단기 기억에서의 결함은 작업 기억으로의 정보 전달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듣기와 읽기이해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Gathercole & Baddeley, 1990). 또한 음운인식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초기 문해 기술에 문제를 보일 수 있는데(Catts, Fey, Zhang, & Tomblin, 1999; Preston, Hull, & Edwards, 2013), 말소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 말소리장애 아동들이 높은 비율로 일반아동에 비해 음운인식과 어휘능력의 지연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은영 외, 2017) 국내의 말소리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문해력 발달에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쓰기는 글의 구성, 손으로 쓰기, 철자대기, 집행기능, 기억 과정 등의 여러 과정들로 구성된다(Berninger, 2000). 언어장애 아동들은 거의 모든 쓰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인다(Graham, Harris, Macarthur, & Schwartz, 1991).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4-5세 사이에 말·언어장애를 가졌던 아이들이 7-9세가 되었을 때 쓰기에서 일반아이들보다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McCormack et al., 2011).

김선영 외(2006)의 연구에서는 협력성, 자기주장, 자기조절, 과제수행행동 등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학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장애 아동은 협동적 학습상황에서 구어적 표현이 적고(Brinton, Fujuki, & Higbee, 1998), 감정통제와 사회적 능력에 결함을 보이며(Fujiki, Spackman, Brinton, & Hall, 2004) 발화 이해능력과 상호지식의 이용능력 등에도 어려움을 보이는데, 이러한 화용적 이해능력의 결함은 추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읽기 이해에도 부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김정미, 김영태, 2006).

3) 학교적응

말·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사소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때 좌절하고 움츠리거나 화를 내고 흥분하는 등 감정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Fujiki et al., 2004; McCormack, McLeod, Harrison, &

McAllister, 2010). 또한 언어장애 아동들은 맥락을 이용해야 하는 화용적 이해와 관련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적 이해뿐 아니라 화용적 이해가 요구되는 실제 의사소통과정에 어려움을 가지고(김정미 외, 2006), 협동적 학습상황과 놀이상황 등에서 사회적 기술이 일반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inton et al., 1998; Fujuki et al., 2004).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담화가 중요시되는 학령기의 학교 상황에서 교우,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아동의 25%가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등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장애아동 중 20%가 학급친구들이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었다(McCormack et al., 2011). 또한 언어문제가 있는 아동은 학급친구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 될 수 있으며 따돌림을 더 많이 겪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Savage, 2005). 반면에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아동과 일반아동의 따돌림 받는 비율이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indsay, Dockrell, & Mackie, 2008).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6~8차년도(2013~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조사대상 중 60명을 선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네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단은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15명의 집단, 말소리문제만 가지고 있는 15명의 집단, 언어문제만 가지고 있는 15명의 집단, 말소리와 언어에 문제가 없는 15명의 일반집단으로 나누었다.

각 집단을 나눈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는 6차년도(5세)의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er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7차년도(6세)의 발화능력검사(놀이동산 따라 말하기 선별검사; 김수진, 2016), 8차년도(7세)의 학업수행 능력(이은해, 김명순, 전혜정, 이정림, 이윤선, 김주혜, 조수영, 정주희, 2008),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 오경자, 김영아, 2010)의 학업수행 부분, 학교적응(지성애, 정

대현, 2006)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로 청각장애나 만성중이염, 다른 신경학적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총 90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7차년도 발화검사에서 말소리장애 의심 또는 말소리장애로 평정되었으며 6차년도 수용어휘력검사에서 백분위점수 20%ile 미만으로 나타난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아동은 15명이었고 발화검사에서 말소리장애 의심 또는 말소리장애로 평정되었으며 수용어휘력검사에서 백분위점수 20%ile이상으로 나타난 말소리문제만 가진 아동은 50명, 발화검사에서 말소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정되고 수용어휘력검사에서 백분위점수 20%ile미만으로 나타난 언어문제만 가진 아동은 89명, 발화검사와 어휘력검사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나타난 일반아동은 750명이었다. 통계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집단의 수를 일치시켰고,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가 함께 있는 15명의 집단의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각각의 집단에서 15명씩 무선표집 하여 총 6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네 집단의 연령, 성별, 조음평정치, 오류자음 수,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는 <표-1>과 같다.

〈표-1〉 대상아동의 성별, 조음평정치, 오류자음 수, 수용어휘력 정상성규준,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의 평균(표준편차)

그룹	성별 (남:여)	말		언어
		조음평정치	오류자음 수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
SSD+LI	6:9	2.33(0.48)	6.33(3.26)	1.53(0.51)
SSD only	9:6	2.07(0.25)	4.73(2.63)	7.87(2.29)
LI only	10:5	0.60(0.50)	0.60(0.82)	1.33(0.48)
TD	7:8	0.67(0.48)	1.07(1.22)	8.53(1.68)
total	32:28	1.42(0.90)	3.18(3.26)	4.82(3.70)

SSD+LI=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 동반 아동, SSD only=말소리문제만 가진 아동, LI only=언어문제만 가진 아동, TD=일반아동, 조음평정치와 오류자음 수는 7차년도 발화검사의 결과이며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는 6차년도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의 결과임.

2. 도구

가. 발화검사

아동의 말소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7차년도(6세)에 수집된 '놀이동산 따라 말하기 선별검사(김수진, 2016)' 결과를 사용하였다. 놀이동산 따라 말하기 선별검사는 학령전기 아동의 조음영역과 언어영역의 발달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도구이다. 연습문항 1문장, 본 문항 3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문항은 총 18어절로, 64개의 자음을 포함한다. 조음영역의 경우 평가는 조음평정과 발음오류어절, 오류자음 빈도 세기의 방

식으로 진행되며 언어영역의 경우 모방오류어절빈도 세기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의 집단 구분을 위해 오류자음빈도와 4점 척도로 이루어진 조음평정치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임(0점)'과 '약간 오류는 있으나 일반적 수준(1점)'으로 나타난 아동을 말소리문제가 없는 집단으로, '심화검사 권유(2점)'과 '조음음운장애 의심(3점)'으로 나타났으며 오류자음수가 2개 이상인 아동을 말소리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결과 분석에는 조음평정치와 오류자음 수를 사용하였다.

나. 어휘검사

아동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6차년도(5세)에 수집된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er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결과를 사용하였다. REVT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휘력 검사도구로 수용어휘검사와 표현어휘검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을 구분하기 위해 6차년도에 실시된 수용어휘력 검사 결과 중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는 10%ile간격으로 1점부터 11점으로 측정되었고,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가 20%ile미만인 아동을 언어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결과 분석에는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를 사용하였다.

다. 학업수행능력

아동의 학령기 학업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8차년도(7세)에 수집된 아동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web 설문지를 통해 응답한 학업수행능력(이은해, 김명순, 전혜정, 이정림, 이윤선, 김주혜, 조수영, 정주희, 2008) 점수와 부모가 응답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 오경자, 김영아, 2010)의 적응척도 중 학업수행 점수를 사용하였다. 담임교사가 응답한 학업수행능력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국어 4문항, 수학 5문항, 전반 1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4문항과 전반 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국어영역에서는 4문항의 각각의 점수와 4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아동의 읽기능력,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듣고 이해하는 능력, 학업 수행의 전반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있다. 1점은 하위 20%이내, 2점은 하위 21%~40%, 3점은 중간 50%내외, 4점은 상위 21%~40%, 5점은 상위 20% 이내를 나타낸다.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935로 나타났다. 학업수행능력의 세부항목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의 학업수행 점수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로 부모가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점수를 활용하였으며 0점은 '부진(하위 20%이하)', 1점은 '보통 이하(하위 20~40%)', 2점은 '보통(40~60%)', 3점은 '보통 이상(상위 60-80%)', 4점은 '매우 잘함(상위 80-100%)'을 나타낸다.

라.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8차년도에 수집된 학교적응 척도 점수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아동의 소속 학급담임교사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를 나타낸다.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학교생활적응의 세부항목으로는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여 잘 듣는다.'등의 1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고 학업수행적응의 세부 항목으로는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등의 1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또래적응의 세부 항목으로는 '친구를 잘 도와준다.',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등의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고 교사적응의 세부 항목으로는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등의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의 하위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958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세부항목은 <부록-2>에 제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6, 7,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6차년도의 어휘력 검사결과와 7차년도의 발화검사 결과로 각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8차년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Tukey HSD를 실시하여 각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후 학령전기의 말소리능력(7차년도 발화검사의 조음평정치, 오류자음 수)과 언어능력(6차년도 REVT검사의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이 학령기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Spearma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집단별 학업수행과 학교적응 차이

가. 집단별 학업수행능력 결과

집단 별로 학업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읽기($F_{(3,56)}$=3.615, p<.05), 말하기($F_{(3,56)}$=5.997, p<.01), 쓰기($F_{(3,56)}$=4.090, p<.05), 듣고 이해하기($F_{(3,56)}$=5.461, p<.01), 국어영역 평균($F_{(3,56)}$=5.315, p<.01), 학업수행 전반($F_{(3,56)}$=4.222, p<.01), CBCL 국어성적($F_{(3,56)}$=4.278, p<.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 유무에 따른 집단별 학령기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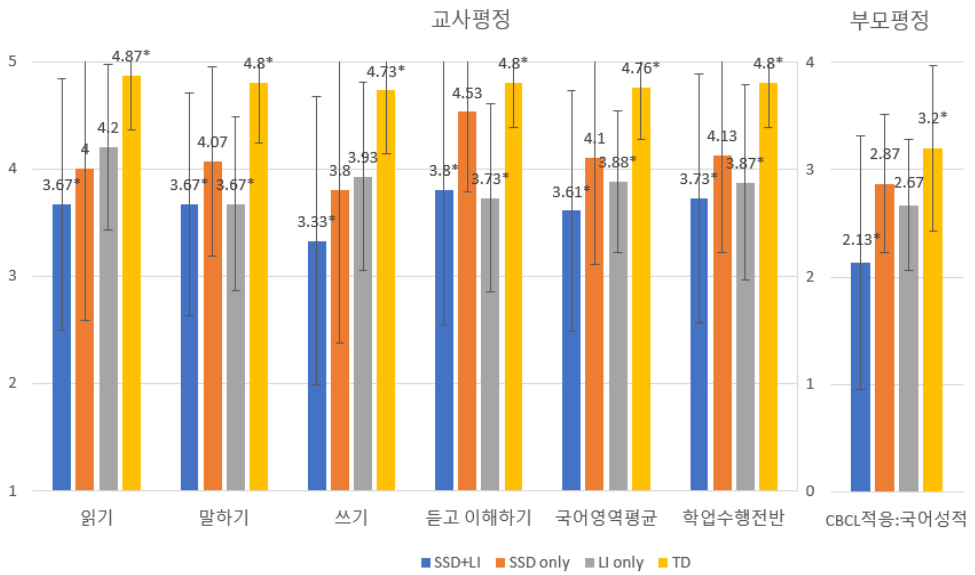
〈표-2〉 각 집단별 학업수행능력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 결과

	SSD+LI		SSD only		LI only		TD			
	M	*SD*	*M*	*SD*	*M*	*SD*	*M*	*SD*	*F*	Post hoc
읽기	3.67	1.17	4.00	1.41	4.20	0.77	4.87	0.51	3.615*	1<4
말하기	3.67	1.04	4.07	0.88	3.67	0.81	4.80	0.56	5.997**	1<4, 3<4
쓰기	3.33	1.34	3.80	1.42	3.93	0.88	4.73	0.59	4.090*	1<4
듣고 이해하기	3.80	1.26	4.53	0.73	3.73	0.88	4.80	0.41	5.461**	1<4, 3<4
국어영역 평균	3.61	1.12	4.10	0.99	3.88	0.66	4.76	0.49	5.315**	1<4, 3<4
학업수행 전반	3.73	1.16	4.13	0.91	3.87	0.91	4.80	0.41	4.222**	1<4, 3<4
CBCL 적응:국어 성적	2.13	1.18	2.87	0.64	2.67	0.61	3.20	0.77	4.278**	1<4

1=SSD+LI(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 동반 아동), 2=SSD only(말소리문제만 가진 아동), 3=LI only(언어문제만 가진 아동), 4=TD(일반아동), * p<.05, **p<.01

각 영역별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읽기영역에서는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진 집단이 일반집단과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고(p<.05), 말하기영역에서는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진 집단과 언어문제를 가진 집단이 일반집단과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p<.01). 쓰기영역에서는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진 집단이 일반집단과 유의미한 평균 차

이를 보였고(p<.01), 듣고 이해하기영역에서는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진 집단(p<.05)과 언어문제를 가진 집단(p<.01)이 일반집단과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국어영역평균에서는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진 집단(p<.01)과 언어문제를 가진 집단(p<.05)이 일반집단과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고 학업수행전반영역에서는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진 집단과 언어문제를 가진 집단이 일반집단과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p<.05). 마지막으로 CBCL적응의 하위영역인 국어성적에서는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진 집단이 일반집단과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p<.01). 결과를 정리해보면,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진 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읽기와 말하기, 쓰기, 듣고 이해하기, 국어영역평균, 학업수행전반, CBCL의 적응 하위영역인 국어성적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고, 언어문제만 가진 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국어영역평균, 학업수행전반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학업수행의 모든 영역에서 말소리장애만 가진 집단은 일반집단보다 평균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사후분석 결과에 따른 영역별 각 집단의 평균그래프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학업수행 하위영역별 그룹 평균치(*p<.05)

나. 집단별 학교적응 결과

집단 별로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수행적응($F_{(3,56)}$=4.03, p<.05), 교사적응($F_{(3,56)}$=3.357, p<.05)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영역($F_{(3,56)}$=1.944, p>.05)과 또래적응영역($F_{(3,56)}$=.397, p>.05)에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령전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 유무에 따른 집단별 학령기 학교적응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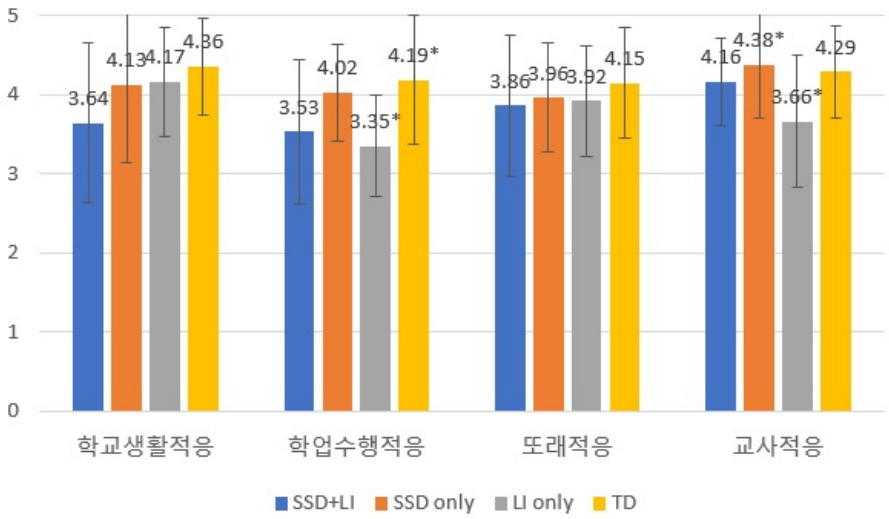
〈표-3〉 각 집단별 학교적응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 결과

	SSD+LI		SSD only		LI only		TD			
	M	*SD*	*M*	*SD*	*M*	*SD*	*M*	*SD*	*F*	Post hoc
학교생활 적응	3.64	1.01	4.13	0.98	4.17	0.69	4.36	0.61	1.944	
학업수행 적응	3.53	0.91	4.02	0.61	3.35	0.64	4.19	0.82	4.030*	3<4
또래적응	3.86	0.89	3.96	0.69	3.92	0.70	4.15	0.70	0.397	
교사적응	4.16	0.56	4.38	0.68	3.66	0.84	4.29	0.58	3.357*	2>3

1=SSD+LI(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 동반 아동), 2=SSD only(말소리문제만 가진 아동), 3=LI only(언어문제만 가진 아동), 4=TD(일반아동)

* p<.05

각 영역별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수행적응영역에서 언어문제만 가진 집단이 일반집단과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고(p<.05), 교사적응영역에서는 말소리문제만 가진 집단과 언어문제만 가진 집단이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p<.05). 나머지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결과를 정리해보면, 언어문제만 가진 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학업수행적응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말소리문제만 가진 집단에 비해 교사적응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후분석 결과에 따른 영역별 각 집단의 평균그래프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사회성 하위영역별 그룹 평균치(*p<.05)

2. 말소리 및 언어능력과 학업수행,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가. 말소리 및 언어능력과 학업수행의 상관관계

말소리 및 언어능력과 학업수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4>와 같다. 조음평정치와 읽기(r=-.325, p<.05), 쓰기(r=-.330, p<.01), 국어영역평균(r=-.269, p<.05) 간에는 음의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오류자음과 읽기(r=-.285, p<.05), 쓰기(r=-.314, p<.05) 간에 음의 상관이 나타났다.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와 읽기(r=.293, p<.05), 말하기(r=.364, p<.01), 쓰기(r=.256, p<.05), 듣고 이해하기(r=.378, p<.01), 국어영역평균(r=.340, p<.01), 학업수행전반(r=.321, p<.05), CBCL의 적응 하위척도 국어성적(r=.364, p<.01) 간에 양의 상관이 나타났다. 즉, 조음문제가 의심될수록 읽기, 쓰기, 국어영역평균 점수가 낮아졌으며 오류자음수가 많을수록 읽기와 쓰기 점수가 낮아졌다. 또한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가 높을수록 읽기, 말하기, 쓰기, 듣고 이해하기, 국어영역평균, 학업수행전반, CBCL 적응 국어성적 점수가 높아졌다.

〈표-4〉 말소리 및 언어능력과 학업수행의 상관관계

	조음 평정치	오류 자음	읽기	말하기	쓰기	듣고 이해 하기	국어 영역 평균	학업 수행 전반	CBCL: 국어 성적
조음평정치	1	.882**	-.325*	-.230	-.330**	-.075	-.269*	-.243	-.207
오류자음	.882**	1	-.285*	-.160	-.314*	-.009	-.221	-.207	-.235
수용어휘 백분위수	-.027	-.064	.293*	.364**	.256*	.378**	.340**	.321*	.364**

* p<.05, **p<.01

나. 말소리 및 언어능력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말소리 및 언어능력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5>와 같다. 말소리 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는 학업수행적응(r=.293, p<.05)과 교사적응(r=.364, p<.01) 간에 양의 상관이 나타났다. 즉, 수용어휘력 백분위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수행적응과 교사적응이 좋았다.

〈표-5〉 말소리 및 언어능력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조음평정치	오류자음	학교생활 적응	학업수행 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조음평정치	1	.882**	-.177	-.022	-.124	.105
오류자음	.882**	1	-.100	.093	-.030	.133
수용어휘 백분위수	-.027	-.064	.183	.318*	.044	.396**

* p<.05, **p<.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에 말·언어장애를 가졌던 아동이 학령기에 들어서 일반아동과 학업수행 및 학교적응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학령전기의 말과 언어능력이 학령기의 학업수행 및 학교적응과 관련이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업수행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령전기에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진 집단은 학령기 학업수행의 모든 결과에서 다른 집단보다 어려움을 보였으며 일반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좋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이후 문해력과 학업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국외의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Lewis et al., 2015; McCormack et al., 2011) 국내의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함께 가진 학령전기 아동도 학령기에 학업수행에서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업수행의 결과에서 말소리문제만 가진 집단과 언어문제만 가진 집단을 비교해볼 수 있는데, 이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일반집단에 비해 학업수행의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세부영역에서의 결과에는 차이가 있는데, 말소리문제만 가진 집단은 언어문제만 가진 집단에 비해 문해력과 관련이 큰 읽기, 쓰기영역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고, 듣고 이해하기, 국어성적에서는 더 높은 수행을 보였다. 반면에 언어문제만 가진 집단은 말소리문제만 가진 집단에 비해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국어성적에서 더 낮은 수행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읽기와 쓰기에서는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 결과는 말소리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음운적인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문해력에 더 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수행평가를 주관적으로 평정하도록 한 결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수행평가에 근거하여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말소리문제를 가진 아동과 언어문제만 가진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간에 평균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말소리문제의 여러 유형과 심각도,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문해력발달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집단별 학교적응의 결과에서는, 언어문제만 가진 아동이 학업수행적응과 교사적응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적응에서는 집단간 평균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국외의 연구결과에서 학령전기에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아동이 학령기에 들어서 학업 및 학교에서의 적응과 또래, 교사와의 관계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와 대조적이다(Fujuki et al., 1996; McCormack et al., 2011). 또한 또래적응에서 말·언어문제를 가진 아동과 일반 아동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것은 Lindsay 등(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교적응의 전반적인 점수가 집단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아동의 나이와 말·언어장애의 심각도와 유형,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 유무,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도구, 아동의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학령기의 초기에는

집중적인 중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말·언어문제가 회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쉬운 커리큘럼으로 인해 학교적응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기에 언어장애를 가졌던 아동이 일시적인 회복을 보이더라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시 또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낮은 언어능력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Plante & Beeson, 2012), 학령전기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하는지에 대해 보다 긴 기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학령전기의 말·언어능력과 학령기의 학업수행이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말소리영역의 조음평정치는 읽기와 쓰기, 국어영역평균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말소리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해질수록 읽기와 쓰기, 국어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오류자음수도 읽기 및 쓰기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Lewis 등(2015)의 연구결과에서 말소리 문제가 문해력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언어영역에서 수용어휘백분위수는 학업수행의 모든 영역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어휘력에 문제가 있을수록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결과는 Catts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말·언어능력과 학업수행간의 상관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언어문제의 지속 유무와 유형, 심각도, 사회경제적 지위, 지능 등의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령전기의 말·언어능력과 학령기의 학교적응이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에서, 말소리능력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언어영역의 수용어휘 백분위점수가 학업수행적응영역과 교사적응 영역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용어휘력이 낮을수록 학업수행적응과 교사적응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cCormack 등(2011)의 결과에서 학업수행과 교사적응의 부분적인 결과와 일치하며, 나머지 학교적응 및 또래적응의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수용어휘력과 학업수행적응 및 교사적응 영역에서의 상관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선행연구와의 대조적인 결과는 말·언어문제의 지속 유무와 유형, 심각도, 사회경제적 지위, 지능 등의 다른 요소에 의한 것일 수 있고,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초기 학령기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와 의사소통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외와 사용하는 언어와 학교의 환경이 다른 국내에서 학령전기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아동이 학령기에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에서 어떠한 수행을 보이는지 살펴본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령전기에 말·언어문제를 가진 아동은 학령기에 들어서 학업수행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언어문제가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진 아동의 중재에서 말·언어문제뿐만 아니라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조기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하는지에 대해 더 장기적으로 보고 종단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학령기의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지위, 지능, 비언어성 지능, 언어중재의 유무, 학령기 시기의 말·언어문제의 해결유무, 말·언어문제의 심각도 및 유형 등의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관계성이 고려되어 연구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김선영·안선희(2006). 초등학교 1 학년 아동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초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183-197.

김선정·김영태(2006). 음운생략과제를 통한 5~6 세 아동의 음운인식 발달 및 음운처리 능력과의 상관도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1*, 16-28.

김수정·곽금주(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37.

김수진(2016). 말소리장애 선별검사 개발 및 6세 아동의 출현율 조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1*(4), 580-589.

김수진·고유경·서은영·오경아(2017). 우리나라 6세 아동의 말소리장애 출현율.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2), 309-317.

김수진·김민정·하승희·하지완(2015). 임상현장의 말소리장애 현황.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0, 133-144.

김수진·신지영(2015). **말소리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미·김영태(2006). 학령기 단순언어장애아동의 화용적 이해.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1*, 90-105.

서은영·고유경·오경아·김수진(2017).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과 어휘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2), 318-327.

윤혜련·김영태(2005). 학령기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이야기 이해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0*, 41-56.

이윤경(2006). 학령기 아동언어장애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질적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1*, 30-50.

이윤경·김영태(2002). 단순언어장애아동의 낱말찾기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7*, 65-80.

이은주·심현섭(2003). 무의미 음절 따라말하기를 통한 단순조음음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음운기억 수행능력 비교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8*, 127-145.

이정윤·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진연선·권유진·이윤경(2008). 학령기 언어발달 및 언어장애 문헌연구: 국내· 외 언어병리학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3*, 594-620.

허애경·임종아·황민아(2012). 단순언어장애아동의 비유적 표현의 이해. **언어치료연구, 21**, 209-225.

허현숙·이윤경(2012). 언어학습부진아동의 대화차례 주고받기 및 주제운용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7*, 66-78.

홍성인·전세일·배소영·이익환(2002). 한국 아동의 음운인식 발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7*, 49-64.

Anthony, J. L., Aghara, R. G., Dunkelberger, M. J., Anthony, T. I., Williams, J. M., & Zhang, Z. (2011). What factors place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at risk for reading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20*(2), 146-160.

Bankson, N. W., Bernthal, J. E., Flipsen Jr, P., & Flipsen, P. (2009).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6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Berninger, V. W. (2000). Development of language by hand and its connections with language by ear, mouth, and eye.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20*(4), 65-84.

Bishop, D. V., & Adams, C. (1990). A prospec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phonological disorders and reading retard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7), 1027-1050.

Brinton, B., Fujiki, M., & Higbee, L. M. (1998). Participation in cooperative learning activities by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1*(5), 1193-1206.

Catts, H. W., Adlof, S. M., & Weismer, S. E. (2006). Language deficits in poor comprehenders: A case for the simple view of reading.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9*(2), 278-293.

Catts, H. W., Fey, M. E., Tomblin, J. B., & Zhang, X. (2002).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reading outcomes in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5*(6), 1142-1157.

Catts, H. W., Bridges, M. S., Little, T. D., & Tomblin, J. B. (2008). Reading achievement growth in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1*(6), 1569-1579.

Chall, J. S. (1983).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 New York, NY: McGraw-Hill.

Fujiki, M., Spackman, M. P., Brinton, B., & Hall, A. (2004). The relationship of language and emotion regulation skills to reticence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3), 637-646.

Gathercole, S. E., & Baddeley, A. D. (1990). Phonological memory deficits in language disordered children: Is there a causal connec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9*(3), 336-360.

Graham, S., Harris, K. R., MacArthur, C. A., & Schwartz, S. (1991). Writing and writing instruction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Review of a research program.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14*(2), 89-114.

Harrison, L. J., McLeod, S., Berthelsen, D., & Walker, S. (2009). Literacy, numeracy, and learning in school-aged children identified as having speech and language impairment in early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1*(5), 392-403.

Justice, L. M., Invernizzi, M. A., & Meier, J. D. (2002).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Early Literacy Screening ProtocolSuggestions for the Speech-Language Pathologist.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3*(2), 84-101.

Kamhi, A. G., & Catts, H. W. (2012). *Language and reading disabilities.* 3rd ed. New York, NY: Pearson.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Leonard, L. B. (2014).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MIT press.

Lewis, B. A., Avrich, A. A., Freebairn, L. A., Hansen, A. J., Sucheston, L. E., Kuo, I., ... & Stein, C. M. (2011). Literacy outcomes of children with early childhood speech sound disorders: Impact of endophenotyp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4*(6), 1628-1643.

Lewis, B. A., Freebairn, L., Tag, J., Ciesla, A. A., Iyengar, S. K., Stein, C. M., & Taylor, H. G. (2015). Adolescent outcomes of children with early speech sound disorders with and without language impairment.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24*(2), 150-163.

Lindsay, G., Dockrell, J. E., & Mackie, C. (2008). Vulnerability to bullying in children with a history of specific speech and language difficulties.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23*(1), 1-16.

Mashburn, A. J., & Pianta, R. C. (2006).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readines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151-176.

McClelland, M. M., Morrison, F. J., & Holmes, D. L. (2000). Children at risk for early academic problems: The role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307-329.

McCormack, J., Harrison, L. J., McLeod, S., & McAllister, L. (2011).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of the association between communication impairment at 4 - 5 years and children's life activities

at 7 - 9 yea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4*(5), 1328-1348.

McCormack, J., McLeod, S., Harrison, L. J., & McAllister, L. (2010). The impact of speech impairment in early childhood: Investigating parent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perspectives using the ICF-CY.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3*(5), 378-396.

McLeod, S., & Harrison, L. J. (2009). Epidemiology of speech and language impair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4-to 5-year-old childre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2*(5), 1213-1229.

Peterson, R. L., Pennington, B. F., Shriberg, L. D., & Boada, R. (2009). What influences literacy outcome i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2*(5), 1175-1188.

Plante, E. M., & Beeson, P. M. (2012).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disorders: a clinical introduction*. Pearson Higher Ed.

Preston, J. L., Hull, M., & Edwards, M. L. (2013). Preschool speech error patterns predict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awareness outcomes in children with histories of speech sound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22*(2), 173-184.

Savage, R. (2005). Friendship and bullying patterns in children attending a language base in a mainstream school.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21*(1), 23-36.

Shriberg, L. D., & Kwiatkowski, J. (1988). A follow-up study of children with phonologic disorders of unknown origi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3*(2), 144-155.

Verhoeven, L., & Van Leeuwe, J. (2008). Prediction of the development of reading comprehension: A longitudinal stud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2*(3), 407-423.

Wagner, R. K., & Torgesen, J. K. (1987). The nature of phonological processing and its causal role in the acquisition of reading skills. *Psychological bulletin, 101*(2), 192.

·교신저자: 장종호,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치료학과, jhj0221@gmail.com

The Effects of Speech/Language Impairment on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Jong Ho Chang

The speech and language problems in preschool age can affect various parts of life, and it is necessary to know the problematic areas and to provide total interven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what speech and language problems in preschool age are related to academic performance and to school adjustment, and to see if there are differences among groups in each item (sub-item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daptation). This study used a prospective longitudinal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60 children, with 15 children in each group. Groups were divided based on the following standards: speech sound disorders with comorbid language impairment(SSD+LI), speech sound disorders only(SSD only), language impairment only(LI only), and typical development(TD). This study compared the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djustment of each group, and analyzed the correlations among speech and language factors,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daptation. As a resul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groups in academic performance. Groups with speech and language problems showed lower results in all areas of academic performance. Speech ability correlated with reading and writing, which were related to literacy, and language ability correlated with all areas of academic performance. School adjustment and peer adaptation did not find differences among groups and showed no correlation with speech / language ability. Children with speech / language impairments are more likely to have difficulty in studying and do not have much difficulty in adapting to school. However, the result suggests that longer-term observation is needed, given the study was based on early school-ages.

Key words: Speech, Language, Academic performance, School adjustment

〈부록-1〉 학업수행능력 문항내용

문항내용 ○○(이)는 급우들에 비해...	하위영역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어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쓰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전반

〈부록-2〉 학교적응 문항내용

문 항 내 용	하위영역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실외활동시간에 질서를 잘 지킨다. 주어진 상황에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한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자기 물건 정리를 잘하고 교실의 물건을 잘 정리한다. 선생님의 안내(지시)와 요구에 잘 따른다.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듣는다.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학교생활 적응
매사에 의욕적이다.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학교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분위기)를 주도한다. 사고하고 탐구하려는 의욕이 많다.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표정이 밝으며 쾌활 명랑하다. 모둠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학업수행 적응
장난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논다. 친구를 잘 도와준다. 친구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가져 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준다.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다른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아이이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	또래적응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교사적응

“학령 전기의 말언어수행이 학령기의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

김경은 (남서울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언어장애 유형을 말소리장애와 언어장애로 세분화하여 학령 전기에 언어장애를 갖는 아동들이 이후 학령기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점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고, 유아기 언어문제가 이후 학령기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이 결과가 갖는 교육적 함의도 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서, 이와 더불어 학령 전 언어문제가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의 핵심키워드인 말·언어수행, 말소리·언어장애, 말소리·언어문제 등과 같은 용어의 통일과 이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에게는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도, 혹은 같은 용어를 다르게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비전문가들에게는 각각의 용어가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왜 다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론 부분에 의사소통장애를 언어장애와 말소리 장애로 구분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의 증상만 제시되어 있어 언어장애와 말소리장애가 어떤 기준에서 구분되는지 모호하다. 또한 측정도구에서 발화검사를 통해 말소리 장애를 구분하고, 어휘검사를 통해 언어장애를 구분하였으나, 이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수행, 언어수행능력과 관련하여, 6차년도의 수용·표현어휘력검사 결과치, 7차년도의 발화검사 결과치를 각각 언어장애, 말소리 장애의 기준으로 삼았다. 아동패널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6차년도, 7차년도에 모두

수용·표현어휘력검사, 발화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왜 각기 다른 기준년도의 측정치를 사용했는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유아기 언어이해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선행연구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본 연구의 제목과 본 연구의 실질적 의의를 살리고자 한다면 연구설계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말소리, 언어장애집단에 따른 학업수행과 학교생활에서의 차이 비교, 말소리능력, 언어능력과 학업수행 및 학교생활 간의 관계 탐색이라는 두 가지 연구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연구문제는 자료분석 방법에서의 차이일 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도출된 결과 또한 유사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가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언어문제 집단 간 학업수행과 학교생활 차이비교인지, 말소리·언어능력이 이후 학업수행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인지를 염두에 두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풍부한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예로, 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아동의 언어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성별 혹은 사회계층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함으로써 언어장애유형과 성별 혹은 사회계층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종단연구를 시행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수용·표현어휘력검사는 4차년도부터, 발화검사는 6차년도부터 실시되어, 각각 3시점 이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학령 전기(유아기)에서 초기 학령기까지의 말소리능력, 언어능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말소리능력, 언어능력 초기치와 변화율이 학교수행과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예측한대로 말소리문제와 언어문제를 동시에 가진 아동들이 일반아동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학업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말소리문제를 가진 집단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은 말소리 문제만 가진 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 간에는 학업수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언어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일반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학업수행에 있어 언어이해능력이 필수적인 요건임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서 언어이해능력이 언어표현능력보다 먼저 발달하고, 언어이해능력이 언어표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언어이해능력이 낮은 영유아들에 대한 조기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업수행을 국어과 영역의 수행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학업수행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적응에서도 언어문제만 가진 집단이 일반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소리 문제만 있는 아동집단에 비해 언어이해만 떨어지는 집단의 아동들이 학업수행 적응이나 교사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흥미롭다. 연구자가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측정자(보고자), 연구대상자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외생변인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패널 자료에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기 언어능력과 이후 학령기의 발달 간의 관계 연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자께 감사를 드린다.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 Session 2 ◈

제 5 주제

부모양육

사회: 제경숙 (경남대학교 교수)

1.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과 우울: 부부의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조규영 (동아대학교 교수)
   김신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전효정 (동아대학교 교수)

2.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 준비도와 실행기능 간의 관계: 성별 간 다집단 분석**
   박지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이주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정혜민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3.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성정혜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과 우울: 부부의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조규영[1)] 김신경[2)] 전효정[3)]

요 약

본 연구는 부부의 일가족 양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APIM(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살펴보았다. 일가족 양립은 양육을 중심으로 하여 일양육 이점과 일양육 갈등을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8차년도 한국아동패널(2015년 조사)을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총 606쌍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의 일양육 이점은 자신과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일양육 이점은 자신(남편의 자기효과) 뿐 아니라, 아내의 우울(남편의 상대방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경우에만 일양육 이점이 높을수록 자신과 아내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내의 일양육 갈등은 자신(아내의 자기효과) 뿐 아니라, 남편의 우울(아내의 상대방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일양육 갈등은 자신(남편의 자기효과) 뿐 아니라, 아내의 우울(남편의 상대방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와 남편 모두 일양육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질 뿐 아니라, 배우자의 우울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일가족 양립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와 성공적인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제어: 일가족 양립, 우울, 한국아동패널, APIM,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Ⅰ. 서론

결혼과 출산, 고된 영유아 자녀 양육을 거친 직장여성들이 다시 한 번 휴직 또는 퇴

1)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신저자, kyu1731@dau.ac.kr
2) 육아정책연구소
3)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직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이다.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걱정, 이른 하교 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중에서 자녀가 초등학생인 가구는 51.6%를 차지하며, 이 시기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취학 전에서 만 8세,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까지 확대 개정된 것은 2014년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이나 학교체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유아기 자녀를 키우던 때 이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다중역할의 어려움이 초등학령기 시기에 과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송혜림, 2014; 전명숙·양난미, 2013; Barnett & Garies, 2006).

앞선 통계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5.8시간 많은 46.7시간으로 집계되었다. 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은 30대가 가장 많았는데, 남자 1시간 5분, 여자 4시간 2분으로 나타났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남녀 모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자녀양육을 하는데 있어 한정된 시간으로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진출을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규범이 되었다. 가계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자기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일은 개인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생활 및 양육의 병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 경험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있게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일-가정 양립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며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Greenhaus와 Beutell(1985)은 일과 가족 영역에서 양립할 수 없는 역할 간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이라고 보았다. 개인은 한 영역에서 맡은 역할로 인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갈등은 시간과 긴장, 행동에서 기인한다. 이후 다시 Greenhaus와 Powell(2006)은 '일-가족 갈등'과 양방향적인 개념을 제시하며 '일-가정 향상(work-family enrichment)'을 정의하였다. 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역할 경험이 다른 영역에 긍정적으로 전달되어 그 역할 경험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높은 수준의 수행이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중역할로 인한 유익과 해로움을 동시에 다룬 연구들은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어도 개념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Marshall과 Barnett(1993)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려면 시간과 에너지의 제한으로 인해 긴장을 야기하는 것은 일-가정 '긴장(strains)', 역할에서 얻는 보상이 다른 역할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쇄하는 것은 '만

족(gratifications or gains)'이라고 하였다. Grzywacz와 Marks(2000)는 일-가정 갈등과 같은 '부정적 전이(negative spillover)'와 일-가정 향상과 같은 '긍정적 전이(positive spillover)'를 설명하며, 동일한 형태지만 정반대에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 개별의 차원에 속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경험하며 느끼는 갈등과 만족은 개인의 심리내적 속성에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심리적 속성 가운데 부정적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우울은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직장에서 귀가하는 시간과 자녀가 하교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방과 후 돌봄에 대해 우려하게 된다(Barnett &, Garies, 2006). 여기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비롯한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전명숙·양난미, 2013). 송혜림(2014)의 질적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들은 여가시간을 뒤로 한 채 자녀양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어 일-가정 생활의 균형이 깨지는 데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오히려 유아기 때보다 불충분하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에서 유아기를 지나 초등학령기로 진입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열악한 상황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일-가정 양립을 둘러싼 우울을 고찰함으로써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을 지각하는 데 있어, 갈등이든 만족이든 간에, 필연적으로 성차를 담고 있는데, 이는 성역할 태도 자체에 남녀간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Marshall & Barnett, 1993). 선행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일과 가족 사이의 역할갈등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다고 보고하지만(김필숙·이윤석, 2015; 손영빈·최은영, 2009; 하현숙·김득성, 1996), 남녀간 역할갈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었다(황혜원·신정이, 2009). 일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속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성차 자체가 미미한 효과라고 여기는 시각도 존재한다(Barnett, Marshall, Raudenbush, & Brennan, 1993). 그러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들이 맞벌이 부부라는 이인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쌍으로 표집된 부부 수준에서도 연구되기 때문에, 여전히 성차는 중요한 예측요인이라 할 수 있다(Barnett & Hyde, 2001).

일가족 양립과 우울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가족 갈등이 우울의 주된 요인이지만(김보은·조영일·유지영·최은실·김혜영,2016; 김재엽·최수찬·최보라·김혜영, 2009), 일-가정 영역에서 경험하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차원 모두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가족 갈등은 우울을 증가시키고, 일-가

족 향상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김소정, 2016), 두 차원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가지 차원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조윤진과 유성경(2012)은 취업여성들이 일-가족 갈등보다는 일-가족 향상을 더 높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공통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역할 갈등과 동시에 직업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변인도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경애·황혜원, 2010; 김성국·박수연·이현실, 2017; 최규련, 1993). 취업모들이 심리적 안녕감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는 양가적 속성(이수미·이숙현, 2010)을 기반으로, 하여진(2017)은 역할갈등이 낮더라도 긍정적인 만족 역시 낮으면 우울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즉, 일과 가정생활 간 긍정적인 전이와 부정적인 전이가 낮은 수준인 집단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전이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맞벌이 부부가 일-가정 양립 시 경험하는 이점과 갈등은 개인의 우울감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 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우울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되기도 하는데, 선행연구들은 맞벌이 부부 가운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경애·황혜원, 2010; 이주희·이은희, 2000; 최규련, 1993). 이주희와 이은희(2000)의 연구에서 남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사분담 뿐이었으나, 여성들은 가사분담과 자녀양육갈등, 직무역할갈등/모호성, 직무과부하가 모두 우울과 관계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차를 기반으로 이은희와 이종목(2000)은 한쪽 배우자의 높은 수준의 일-가족 갈등이 다른 배우자의 일-가족 갈등 수준을 예측한다는 교차가설을 지지하였다. 나아가 일-가족 갈등과 향상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유의하게 나타나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보고되고 있다(Hammer, Cullen, Neal, Sinclair, & Shafiro, 2005; Liu & Cheung, 2015)..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일과 가족생활 두 영역에서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바가 다를뿐더러, 두 영역에서의 경험은 자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의 긍정과 부정, 양가적 측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 간 상대적 효과와 크기 측면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Hammer, Cullen, Neal, Sinclair, & Shafiro, 2005; Liu & Cheung,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우울의 관계를 부모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PIM: The Actor -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사용하

여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양육 이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2) 일양육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의 8차년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전국을 단위로 표집하여 매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아동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교사, 조사원으로부터 응답을 얻음으로써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과 우울간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있어, 본 패널자료는 아내의 남편의 응답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합하다. 연구대상은 부모 모두 취업중이라고 응답한 맞벌이 부부 총 606쌍이다. 연구대상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N=606

		아내	남편
		N(%)	
연령	20대	7(1.2)	1(0.2)
	30~34세	80(13.2)	37(6.1)
	35~39세	344(56.8)	226(37.3)
	40~44세	151(24.9)	248(40.9)
	45세 이상	24(4.0)	90(14.9)
	M(*SD*)	37.94(3.54)	40.39(4.07)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2(0.3)	3(0.5)
	고등학교 졸업	143(23.6)	142(23.4)
	전문대 졸업	164(27.1)	127(21.0)
	대학교 졸업	249(41.1)	269(44.4)
	대학원 졸업	48(7.9)	61(10.1)

		아내	남편
		N(%)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않음	4(0.7)	5(0.8)
	건강하지 않음	80(13.2)	61(10.1)
	보통임	241(39.8)	248(40.9)
	건강한 편임	254(41.9)	275(45.4)
	매우 건강함	26(4.3)	17(2.8)
	M(*SD*)	3.36(0.78)	3.39(0.73)
(가구의)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1(5.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8(14.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9(19.6)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61(26.6)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91(15.0)	
	700만원 이상	113(18.6)	
	M(*SD*)	(월 평균) 526.60(196.94)만원	

주. 각 변수의 기술통계에 대한 N수는 결측값으로 인해 전체 N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

2. 연구도구

가. 일가족 양립

아내와 남편의 일가족 양립 시 나타나는 이점과 갈등(Work-family strains and gains)은 Marshall과 Barnett(199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 4가지 중 양육과 관련된 것을 선정하여, 일과 양육에서 느끼는 이점(4문항) 및 갈등(6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였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일양육 이점은 아내 Cronbach's α = .821, 남편 Cronbach's α = .883, 일양육 갈등은 아내 Cronbach's α = .877, 남편 Cronbach's α = .847로 나타났다.

나. 우울

우울은 Kessler, Andrew, Gople, Hiripi, Mroczek, Normand 등(2002)이 사용한 우울을 측정하는 축약형 문항으로 지난 30일동안 얼마나 자주 문항 내용을 느끼는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6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안 느낌(1점)', '별로 안 느낌(2점)', '종종 느낌(3

점)', '대체로 느낌(4점)', '항상 느낌(5점)'의 범위에서 응답된다. 어머니의 Cronbach's α = .910, 남편의 Cronbach's α = .915로 나타났다.

다.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아내와 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의 총소득을 사용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 교육수준은 '무학(1점)' ~ '대학원 졸업(7점)',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혀 건강하지 않음(1점)' ~ '매우 건강함(5점)', 가구의 총소득은 월 평균 금액으로 측정되었다.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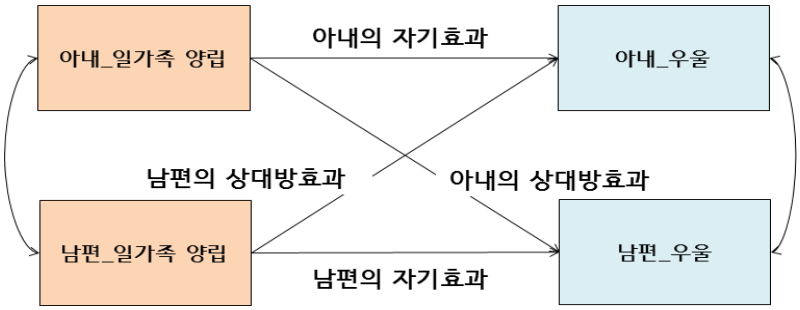
〈표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M(*SD*)

		아내(*N*=606)	남편(*N*=606)
일가족 양립	일양육 이점	3.50(0.61)	3.74(0.68)
	일양육 갈등	2.80(0.70)	2.30(0.65)
우울		1.81(0.69)	1.88(0.66)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2015년)를 활용하여, APIM(The Actor -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그림 1]. APIM은 부부자료를 비롯한 이인자료 분석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 동시에 아내와 남편의 예측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Kenny, 1996). 자기효과는 자신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이 자신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고, 상대방효과는 자기효과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자신의 어떠한 측면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일가족 양립은 아내와 남편 각 개인의 독립된 경험이 아니라, 가족체계안에서 부부단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본 통계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각 효과들 간의 크기를 등가제약(equality constraint)을 통해서 비교하여(Kenny & Cook, 1999),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본 분석은 Mplus 7.21을 사용하여 결측처리 방식을 ML로 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1] 부부의 일가족 양립과 우울의 APIM 설명

Ⅲ. 연구결과

1. 일가족 양립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본 연구는 부부의 일가족 양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APIM을 활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살펴보았다. 예측변수인 일가족 양립은 일양육 이점, 일양육 갈등으로 측정되었고, 종속변수로는 우울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아내와 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의 총소득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는 예측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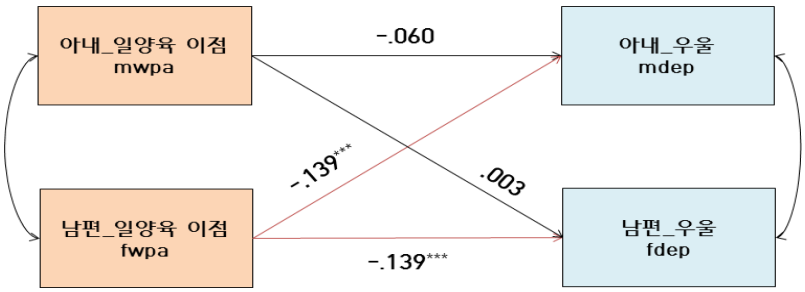
분석에 앞서 모델에 포함되는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변수 중 가구의 총소득은 왜도 -13.314, 첨도 183.205로 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정상분포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변수를 로그변환 후 분석에 포함하였고, 최종적으로 총소득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각 -0.740, -0.011으로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왜도 0.534 ~ 0.768, 첨도 0.980 ~ 1.298로 보고되어 분석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부부의 일양육 이점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부의 일양육 이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모델 적합도는 $\chi^2(26) = 35.483(p > .05)$, CFI = .965, TLI = .974, RMSEA = .025, SRMR= .034로 나타나 적합도가 잘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일양육 이점은 자신과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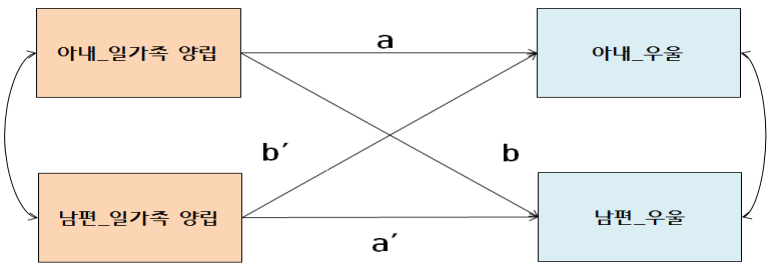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일양육 이점은 자신(남편의 자기효과) 뿐 아니라, 아내의 우울(남편의 상대방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경우에만 일양육 이점이 높을수록 자신과 아내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부부의 일양육 이점과 우울의 APIM

다음으로 부부의 일가족 양립과 우울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 경로에 대한 등가제약모델을 설정하였다. 4가지 경우의 등가제약 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뒤, 기본모델과 등가제약모델간의 χ2 차이검정을 통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경우 효과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enny & Cook, 1999).

4개의 등가제약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3]. 일가족 양립이 우울에 미치는 아내와 남편의 자기효과 비교(a=a'), 일가족 양립이 우울에 미치는 아내와 남편의 상대방효과 비교(b=b'),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일가족 양립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a=b'), 남편의 우울에 미치는 일가족 양립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a'=b)이다.



[그림 3] 부부의 일가족 양립과 우울의 등가제약모델

다음으로 부부의 일양육 이점과 우울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 경로에 대한 등가제약모델을 설정하였다<표 3>.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β = -.060)와 남편(β = -.139)의 자기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아내(β = .003)와 남편(β = -.139)의 상대방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일양육 이점이 남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했을 때, 남편의 일양육 이점이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양육 이점의 자기효과(β = -.060)와 상대방효과(β = -.139)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양육 이점의 자기효과(β = -.139)와 상대방효과(β = .003)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일양육 이점이 남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했을 때, 남편의 일양육 이점이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일양육 이점과 우울에 대한 기본모델과 등가제약모델 간 χ^2 차이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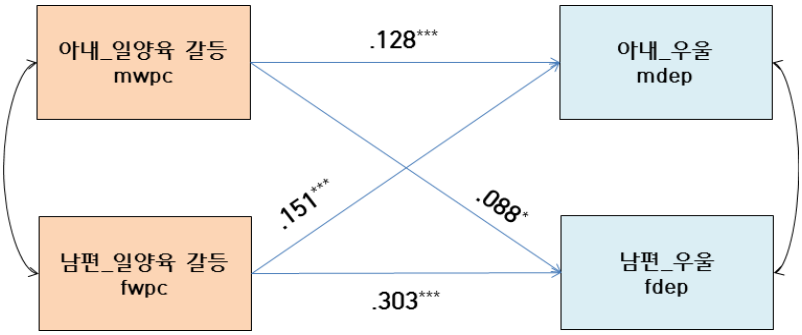
모델	χ^2	*df*	CFI	TLI	RMSEA	SRMR	χ^2 차이검정
기본모델	35.483	26	.965	.974	.025	.034	
자기효과 등가제약(a=a')	36.923	27	.963	.974	.025	.034	$\chi^2(1)=1.440$
상대방효과 등가제약(b=b')	41.784*	27	.945	.962	.030	.035	$\chi^2(1)=6.301^*$
아내의 우울에 대한 등가제약(a=b')	37.053	27	.963	.974	.025	.034	$\chi^2(1)=1.570$
남편의 우울에 대한 등가제약(a'=b)	41.159*	27	.948	.963	.030	.035	$\chi^2(1)=5.676^*$

*$p < .05$

나. 부부의 일양육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부의 일양육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6]. 모델 적합도는 $\chi^2(26) = 23.055(p > .05)$, CFI = 1.000, TLI = 1.007, RMSEA = .000, SRMR= .029로 나타나 적합도가 잘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일양육 갈등은 자신(아내의 자기효과) 뿐 아니라, 남편의 우울(아내의 상대방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일양육 갈등은 자신(남편의 자기효과) 뿐 아니라, 아내의 우울(남편의 상대방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와 남편 모두 일양육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질 뿐 아니라, 배우자의 우울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부부의 일양육 갈등과 우울의 APIM

다음으로 부부의 일양육 갈등과 우울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 경로에 대한 등가제약모델을 설정하였다<표 4>.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β = .128)와 남편(β = .303)의 자기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일양육 갈등이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했을 때, 남편의 일양육 갈등이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내(β = .088)와 남편(β = .151)의 상대방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양육 갈등의 자기효과(β = .128)와 상대방효과(β = .151)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양육 갈등의 자기효과(β = .303)와 상대방효과(β = .088)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일양육 갈등이 남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했을 때, 남편의 일양육 갈등이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일양육 갈등과 우울에 대한 기본모델과 등가제약모델 간 χ^2 차이검정

모델	χ^2	*df*	CFI	TLI	RMSEA	SRMR	χ^2 차이검정
기본모델	23.055	26	1.000	1.007	.000	.029	
자기효과 등가제약(a=a')	35.088	27	.975	.983	.022	.033	$\chi^2(1)=12.033^{***}$
상대방효과 등가제약(b=b')	25.166	27	1.000	1.004	.000	.029	$\chi^2(1)=2.111$
아내의 우울에 대한 등가제약(a=b')	23.453	27	1.000	1.008	.000	.029	$\chi^2(1)=0.398$
남편의 우울에 대한 등가제약(a'=b)	40.553**	27	.959	.971	.029	.033	$\chi^2(1)=17.498^{***}$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가 일가족 양립 시 경험하는 이점과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그동안 영유아기에 치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가 초등학생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일가족 양립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양육 이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는 남편의 경우에만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일가족에서 긍정적 전이와 아내의 우울 간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Hammer et al., 2005; Liu & Cheung, 2015). 개인은 일가정 양립시 이점을 경험하면서 자원을 비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다루게 되어(Greenhaus & Powell, 2006), 자신의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일양육을 병행하며 얻는 긍정적 정서는 배우자가 자신의 요구에 순조롭게 반응하도록 하고(Liu & Cheung, 2015),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지각하면서 배우자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내가 일양육에서 경험하는 이점은 우울에 대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 아내의 일양육 이점(3.50점)에 비해 남편의 일양육 이점(3.74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편은 일을 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지각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데 있어 강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는 현실에 처해있다(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2017; 이주희, 이은희, 2000; Hammer et al., 2005). 이처럼 직장 기혼 여성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여(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2017)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양육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가려져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즉, 아내와 남편이 동일한 이점을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보다 큰 책임감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일양육이 주는 즐거움, 보람 등이 적게 지각되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일양육 갈등은 우울에 대하여 모두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발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역시 남편과 아내의 일양육 갈등이 자기의 우울을 높

이는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애·황혜원, 2010; 최규련, 1993). 아내의 일양육 이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일양육 갈등에서 나타난 점은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있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에 비해 우울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가족 갈등의 긍정적 전이효과에 비해 일가족 갈등의 부정적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기존 선행연구(Hammer et al., 2005)와 일치한다.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나타난 점으로 보아, 맞벌이 부부의 우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양육 갈등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여 양육의 즐거움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과 양육의 병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원인을 감소시키려는 적극적인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짧은 학교 수업시간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생긴다(Barnett & Garies, 2006). 부모는 새로운 돌봄제공자나 학원 등의 사교육 서비스를 찾게 되고, 다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초등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등가제약모델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을 때, 효과크기의 경로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경우는 모두 남편의 효과크기가 아내보다 높은 공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즉, 남성이 일양육으로 인한 이점이나 갈등을 지각하는 것이 여성보다 자신 및 배우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남성의 효과크기가 여성보다 큰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김경애·황혜원, 2010; 이주희·이은희, 2000; 최규련, 1993)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료인 한국아동패널의 특성상 8년간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종단연구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남성들에 비해 자녀의 양육에 더욱 세심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추후 연구가 진행되면 논의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양육 갈등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자기효과가 크게 나타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자녀양육에 있어 남편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맞벌이 가구의 남편들은 아내보다 근무시간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통계청, 2016), 아내에 비해 남편은 적절한 양육방법이나 양육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김경애·황혜원, 2010), 우울에 대한 자기효과가 아내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들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 여성에 비해 많고, 추가적으로 가족의 필요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책임감과 상충하게 된다(Hammer et al., 2005). 남편의 양육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상호작용기술을 학습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학교, 사이버 상담공간의 확대를 통해 남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가족 양립 척도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Work-family strains and gains)이다(Marshall & Barnett, 1993). 이 척도는 일양육 척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양육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본 척도는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주로 일에서 가족으로의 전이를 다루고 있다. 일가족 연구에서는 '일에서 가족으로의 전이'(work to family spillover)인지, '가족에서 일로의 전이'(family to work spillover)를 구분하는 만큼, 추후에는 일과 가족의 전이의 방향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PIM을 통해 아내와 남편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양육의 긍정적 측면(이점)과 부정적 측면(갈등)을 중심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양육 이점은 우울과의 부적 상관을, 일양육 갈등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일가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항상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소정, 2016; 하여진, 201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한 모델에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일가족 양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역동을 동시에 알아보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동과 부모 및 교사를 다룬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이다. 이는 자녀의 학령기 진입이라는 가족발달의 변화 시점에서 보다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가족 양립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한다. 즉, 일가족 양립의 맞벌이 부부간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애·황혜원(2010).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1), 143-168.

김보은·조영일·유지영·최은실·김혜영(2016). 성인기와 노년기별 기혼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6**(1), 473-496.

김성국·박수연·이현실(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5**(3), 267-275.

김소정(2016).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일가족갈등과 일가족촉진의 통합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7**(3), 161-185.

김재엽·최수찬·최보라·김혜영(2009). 기혼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장-가정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10), 51-61.

김필숙·이윤석(2015). 맞벌이 기혼 남녀 관리자들의 일-가족 갈등. **한국인구학, 38**(4), 63-88.

김효선·김옥선(2010). 다중역할의 상호향상 효과. **경영학연구, 39**(2), 375-407.

손영빈·최은영. (2009). 맞벌이 부부의 가정과 직장 간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개인특성 및 가족과 직장지원의 조절효과 중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9-60.

송혜림(2014).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균형 실태: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8**(3), 41-59.

이수미·이숙현(2010). 취업모의 다중역할의 질과 심리적 건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67-90.

이은희·이종목(2000). 맞벌이 부부간의 일-가족 갈등의 교차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1), 140-141.

이주희·이은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287-303.

전명숙·양난미(2013). 학령기 아동을 키우는 전일제 취업모들의 일-가족 갈등과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 282-282.

조윤진·유성경(2012). 기혼 취업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의 관계에서 문제-중심 대처와 우울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441-463.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통계청(2016). 2016 일 가정 양립 지표. 대전: 통계청.

하여진(2017). 기혼취업여성 일-가족 양립에 따른 전이유형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55**(1), 13-26.

하현숙·김득성(1996).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309-326.

황혜원·신정이(2009).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1), 45-71.

Barnett, R. C., & Gareis, K. C. (2006). Parental After? School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101-108.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10), 781.

Barnett, R. C., Marshall, N. L., Raudenbush, S. W., & Brennan, R. T. (1993). Gen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udy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94.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

Hammer, L. B., Cullen, J. C., Neal, M. B., Sinclair, R. R., & Shafiro, M. V. (2005). The longitudinal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positive spillover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2), 138.

Kenny, D. A.(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Kenny, D. A., & Cook, W. (1999). Partner effects in relationship research: Conceptual issues, analytic difficulties, and illustr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6*(4), 433-448.

Liu, H., & Cheung, F. M. (2015). The moderating role of empathy in the work - family crossover process between Chinese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3), 442-458.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Work-family Balance and Depression of Dual-Earner Couples: Actor Effects and Partner Effects

Kyuyoung Cho, Shinkyuong Kim, and Hyo Jeong 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the relationships among dual-earner couple's work-family balance and depression using APIM(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Work-family Balance was measured by work-parenting gains and work-parenting strains. Using 8th(2015) PSKC(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study included 606 couples raising children who are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 1 shows relationships between work-parenting gains and depression. Wives' level of work-parenting gains was not associated with depression of their own nor their spouse. However, husbands' level of work-parenting gains was associated with their spouses' as well as depression of their own. In other words, husbands' higher work-parenting gains led to lower depression of their own and their spouse.

The result 2 shows relationships between work-parenting strains and depression. Wives' level of work-parenting strains was associated with their spouses' as well as depression of their own. Also, husbands' level of work-parenting strains was associated with their spouses' as well as depression of their own. In other words, wives' and husbands' higher work-parenting strains led to higher depression of their own and spouse.

Keywords: Work-family Balance, Depressio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PIM, Actor Effects, Partner Effects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과 우울: 부부의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토론문

차승은 (수원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가족원들간의 상호성을 탐색한 연구전통에 기반을 둔 연구이다. 가족상호성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때문에 동일한 현상에 대해 일가족 갈등, 일가족 균형, 일가족 양립, 일가족 전이(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 등 다양한 개념을 빌려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일과 양육의 양립 역시 이러한 상호성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많은 가족상호성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이 연구 내용에도 현재 제시되고 있지만, 연구자들의 지적에 몇 가지 점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가족의 상호성 연구에서 일과 가족을 병행함에 있어서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대부분 갈등이나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전이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룸으로써 일과 가족이 결코 서로 갈등적 체계가 아니라 상호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부각시킨다.

둘째, 일과 가족 상호성 연구는 주로 개인 내에서 두 개의 개별화된 체계를 넘나드는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상대방효과 즉, cross over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다. 그런데, 가족상호성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족역할을 병행하는 두 배우자가 서로 어떻게 협상하고, 조절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배우자 효과가 실제로 어느정도 개인의 일-가족 경험을 구조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연구가 그 부분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최근 들어 일가족 갈등과 같은 일-가족 양립 어려움이 우울, 스트레스, 만성질환과 같이 부정적인 건강결과물과 연계된다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연구

는 소규모 조사연구로서 여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부부가 아닌 일반 남자와 여자 대상자를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 연구 결과를 다시 가족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추론해야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는 부부 606쌍, 전국규모 대규모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가구단위조사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의 제한점을 상당히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탄탄한 모델링 기법으로 모형검증을 통해 일과 가족을 통해 겪는 경험과 배우자의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개인의 건강함(우울)과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가 연구논문으로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자만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와 개념 해설에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왜 전이(spillover)라는 말을 사용했고, 어떤 연구에서 일-가족양립이라는 말을 활용했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척도는 일-가족 양립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일-양육 이점(갈등)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것이 기존에 연구에서 사용한 일-가족 전이나 갈등 척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 척도 설명에서 개별 문항 중 대표적인 예시 몇 개를 제시해 주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남성은 일-양육의 이점이 우울을 낮추는 기제가 작동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이러한 이점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즉, 남성은 일과 가족을 양립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성에게는 이 시너지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연구들이 주로 일-가족 갈등에 관한 연구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차승은 한경혜(2004) 연구(일・가족 역할의 보상/비용과 일・가족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남녀 차이를 중심으로)에서 일가족 긍정적 전이가 남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에게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남성에게 생계부양자이자 아버지는 정체성 강화 효과를 갖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일하는 엄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성들 스스로 죄책감, 그리고 일터의 경험이 엄마 경험과 모순된 가치를 생산한다는 해석이 있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경험과 모형과 부정적 경험 모형을 구분해서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이러한 경험에서 무엇이 상쇄되고 무엇이 부모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main driver 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즉, 긍정적 경험이 우세한가 혹은 부정적 경험이 더 우세할까?

두 가지 경험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일-가족 양립의 결과물로서 우울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일-가족 양립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이러한 긍정적 경험들이 긍정적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도 매우 필요하다. 종속변수에 생활만족이나 행복, 심리적 복지와 같은 긍정적 차원을 추가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긍정적 경험의 효과가 아버지 편향적으로 나타난 것 역시, 종속변수가 우울이었기 때문에 갈등적 측면에 대한 모형이 더 설득력 있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모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다섯째, 일-가족역할의 부정적 경험에서 아내와 남편 모두 상대방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보다는 상호관련성을 나타낸다. 즉, 선후관계를 알아볼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 연구는 패널자료인 만큼, 추후 누적된 부정적 경험과 건강의 선후관계 그리고 과연 아내의 우울이 먼저인지 혹은 남편의 갈등사항과 우울이 먼저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흥미진진한 연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본다.

여섯째, 이 모형은 주요 변수의 통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모형 검증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모형적합도면에서 뿐 아니라, 이러한 결과수치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변수 가운데, 자녀의 수, 혹은 어린자녀의 연령, 도움을 주는 주변인의 존재여부(조부모, 도우미), 그리고 직장 만족도 등이 조금 더 통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 간의 관계: 성별 간 다집단 분석

박지은[1] 이주아[2] 정혜민[3]

요 약

이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기를 거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며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적응의 중요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첫째,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아동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의 양육행동만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며, 실행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증진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이 자녀 성별에 따라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름을 인식하고 자녀 성별에 따라 적절한 부모교육 및 학습지도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행동, 학습준비도, 실행기능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2)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Ⅰ. 서론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기를 거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은 이전과 달라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이 시기 부모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 이후 학업성취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인식하기에(이주아·박지은·정혜민, 2017), 자녀의 학교적응 차원에서 학습준비에 열을 올린다. 여기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학습준비란 학습의 기초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준비도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지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학습준비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학습준비가 되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일까?

아동의 초등학교 초기 적응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정서 및 행동 조절능력, 즉 실행기능을 가장 주요한 기제로 언급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자신의 입장 및 정서를 조절할 수 있고 질서 있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아동이 학교에서 또래관계나 학업측면으로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송현주, 2011)는 것이다. 실행기능에는 앞서 언급한 정서 및 행동 조절능력과 함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 초등학교라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동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아동이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려 한다. 아직 어린 아동임을 고려하여 가정환경요인을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예측함으로써 가족관계 요인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학교적응에 빼놓을 수 없는 학업 관련 변수인 학습준비도가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요인에 어떤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실행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한다.

최근 몇 년간 딸 바보, 아들 바보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며 때 아닌 부성애 바람이 불어 미디어에서는 아빠 육아를 주제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방영 중이다. 화면 속 자녀를 바라보는 아빠들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자상함과 사랑이 묻어나고 자녀의 양육에 누구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적이고 위엄 있던 아버지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현대 시대의 변화된 아버지 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족 부양의 의무를 최우선으

로 하여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인식하였으며, 일차적인 양육주체로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머니의 특권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산업화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 왔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며 가정은 핵가족 형태로 바뀌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증가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분되던 부모역할의 분담 형태 또한 변화되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관심과 역할의 요구가 커지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자녀가 성장함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와 질적으로 다르며(Lamb, Pleck & Levine, 1985),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적지만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만큼은 크다고 알려져 있다(장영애·이영자, 2008). 이에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와는 별개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재조명(권기남, 2014)하고 깊이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가치관에 따라 양육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며, 아동기에 접어든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자녀가치란 아버지가 출산과 양육을 통해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녀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 지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치를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 자체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자녀가 주는 정서적 안정에 높은 가치를 두는 정서적 자녀가치로 개념화 하였으며, 이런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가치는 아버지가 양육에 임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김수연·김다혜·김연하, 2017)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양육 참여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외, 2017).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삶의 보람으로 느끼고 정서적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 양육에 관심이 높고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강란혜, 2000)를 뒷받침하며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에 대한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비교적 허용적인 자세로 잘못된 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훈육하며 애정적으로 대하는 양육방식을 의미하는 반면,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정해 놓은 규칙에 자녀가 순응하도록 지도 및 훈육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기의 학습준비도와 초등학교 입학 후 실행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 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다(이주아 외, 2017).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고 아이의 행동에 합리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아동은 아버지로부터 사회·인지적 기술을 학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습을 발달시킬 기초 능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습준비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를 별개의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제적 양육행동은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로 인지되어(이선이·이여봉·김현주, 2008)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데 결과는 예상 외로 긍정적이다. 이는 자녀 스스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학업과 사회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박영신·김의철, 2004; 이주아 외, 2017),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이주아 외, 2017; 정갑순, 20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기를 벗어나 아동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준비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준비는 아동의 학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언어적, 신체적 능력 이외에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사회·정서능력에서의 발달적 성숙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박희숙, 2012), 학교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에서의 초기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로서, 학습부진아의 조기발견과 부족한 기능영역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초기 학습에서의 성공이 후기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지현·박혜원, 2010; 정계숙, 1988)는 결과로 초기 학습수행을 위해 학습준비도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밖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 시, 학습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적응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초등학교 입학 시,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학교적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후 비행청소년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박연정·정옥분, 2008; Bowman, 2006)를 통해 아동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이루어지는 학

습준비의 중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탄탄한 학습준비는 이후 아동의 실행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초등학교에 진학한 1학년 아동이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는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부 반응을 억제하며 규칙을 따르는 능력이 실행기능의 지표가 되고 아동의 학습 및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Espy et al., 2004; Gatherocole, Brown, & Pickering, 2003)와 같은 맥락이다. 실행기능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행기능은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적 실행기능은 학업성취나 학습관련 기술 등 인지적 측면을 더욱 높게 예측(Brock, Kaufman, Nathanson & Grimm, 2009; Blair & Razza, 2007)하는 반면, 정서적 실행기능은 사회적 능력, 친사회성, 또래관계와 같은 정서 및 사회성 관련된 요소들과 더욱 높은 관계가 있는 것(Blair, Denham, Kochaoff & Wihpple, 2004; McIntyre, Blacher & Baker, 200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준비도의 사회정서발달과 인지발달이 실행기능의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가정 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수행의 관심을 바탕으로 아동기에 접어든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초등학교로의 전이기와 초등학교 초기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학습준비도 및 실행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 및 실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 및 실행기능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매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0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종단 패널연구로, 2008년도에 출생한 2,078명의 신생아를 출생 이후부터 이들의 양육과 발달,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연구 자료이다. 또한 한국아동패널은 특정 영역과 주제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 행동, 의식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아동의 삶의 궤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3년도에 조사한 6차년도(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 및 양육행동), 2014년도에 조사한 7차년도(아동의 학습준비도), 2015년도에 조사한 8차년도(아동의 실행기능)의 총 3개 연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 및 실행기능 관련 문항에 모두 응답한 987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만 6세로 평균 87.6개월이었으며, 성별은 남아 504명(51.1%), 여아 483명(48.9%)이었다. 아버지 연령은 201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30세 미만이 4명(0.4%), 30세부터 40세 미만이 595명(60.6%), 40세 이상이 382명(38.3%)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415명(42.4%)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258명(26.1%)로 뒤를 이었다. 이후 전문대졸 187명(19.1%), 대학원 졸 117명(11.9%), 중졸 이하 2명(.2%)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30명(3.0%),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337명(34.1%),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이 412명(41.7%), 6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이 126명(12.8%), 8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2명(4.3%), 1,000만 원 이상이 40명(4.1%)에 해당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집단	구분	분류	빈도(%)
아동	성별	남	504(51.1)
		여	483(48.9)
	월령	평균	87.6개월
부모	연령	30세 미만	4(.4)
		30세 - 39세	595(60.6)
		40세 이상	382(38.3)

집단	구분	분류	빈도(%)
	학력	중졸 이하	2(.2)
		고졸	258(26.1)
		전문대졸	187(19.1)
		대졸	415(42.4)
		대학원 이상	117(11.9)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30(3.0)
		200 - 399만 원	337(34.1)
		400 - 599만 원	412(41.7)
		600 - 799만 원	126(12.8)
		800 - 999만 원	42(4.3)
		1,000만 원 이상	40(4.1)

2. 연구도구

가. 정서적 자녀가치

아버지의 자녀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친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2005)의 자녀가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가치 척도는 정서적 가치(4문항), 도구적 가치(4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2개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자녀가치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보고용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신뢰도는 α=.82이었다.

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척도는 총 12문항이며, 온정적 양육(6문항), 통제적 양육(6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 값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여 온정적 양육 5문항, 통제적 양육 5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부모 보고용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양육 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온정적 양육의 경우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통제적 양육의 경우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신뢰도는 온정적 양육 α=.86, 통제적 양육 α=.82 이었다.

다. 학습준비도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Murphy와 Burns(2002)가 개발한 학습준비도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준비도 척도는 총 22문항이며, 사회 정서 발달(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8문항), 의사소통(3문항),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5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교사 보고용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학습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사회 정서 발달의 경우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교사 등 어른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학습에 대한 태도의 경우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수업 활동에 열정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의사소통의 경우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대화에 참여한다',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의 경우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상상놀이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신뢰도는 사회 정서 발달 α=.74, 학습에 대한 태도 α=.85, 의사소통 α=.85,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α=.81 이었다.

라. 실행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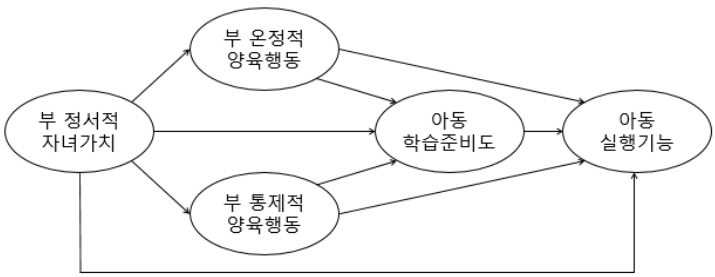
아동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송현주(2014)가 개발한 집행기능 곤란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행기능 척도는 총 40문항이며, 계획-조직화 곤란(11문항), 행동통제 곤란(11문항), 정서통제 곤란(8문항), 부주의(10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부모 보고용 3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3점으로 측정되었다.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모든 문항을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실행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계획 조직화 곤란의 경우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지 못한다.', 행동통제 곤란의 경우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정서통제 곤란의 경우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자주 울컥한다.', 부주의의 경우 '잘

잊어버린다.', '주변이 늘 어질러져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신뢰도는 계획-조직화 α=.87, 행동통제 α=.85, 정서통제 α=.89, 부주의 α=.89이었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선행연구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아버지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매개로 실행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 실행기능 간의 구조관계를 확인하였다.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를 통해 변수들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특성 및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뒤, 본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으나,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χ2보다는(Kline, 2010) NFI, CFI, RMSEA 지수를 고려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NFI와 CFI는 .90 이상일 때 모형이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RMSEA는 .06 이하는 모형이 매우 적합하고, .08이하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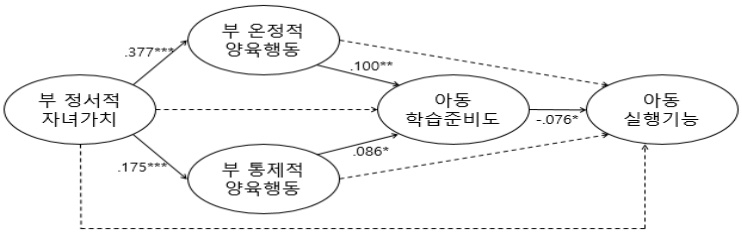
주요 변인들의 기초통계 분석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기 전 분석 자료가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1.35에서 .68 사이었고, 첨도는 -.04에서 3.02 사이로 확인되었다.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을 초과할 경우 정규분포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Kline, 2010),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 적용에 필요한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초통계

변인		M(SD)	왜도	첨도
부 정서적 자녀가치		4.47(.56)	-1.35	3.02
부 양육행동	온정적	3.60(.63)	-.13	.32
	통제적	3.43(.60)	-.14	.40
아동 학습준비도		3.56(.35)	-.87	.77
아동 실행기능		1.43(.33)	.68	-.04

2.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 및 실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 및 실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기저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 검증을 통해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양육행동와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매개로 아동의 실행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df=198)=734.71$, TLI=.931, CFI=.941, RMSEA=.052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에서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가는 직접경로, 아버지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아동의 학습준비도로 가는 직접경로, 아동의 학습준비도에서 실행기능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반해,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에서 아동의 학습준비도, 실행기능으로 가는 직접경로, 아버지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아동의 실행기능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뒤, χ^2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p<.05, **p<.01, ***p<.001

[그림 2] 기저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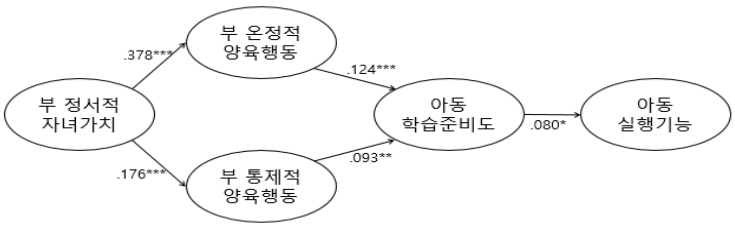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χ^2=737.64, df=202, TLI=.932, CFI=.941, RMSEA=.052). χ^2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두 모형의 χ^2차이는 2.94로 유의수준 0.05에서 임계치 9.49보다 작아 수정모형과 가설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더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3〉 기저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기저모형	734.71***	198	.932	.941	.052
수정모형	737.64***	202	.932	.941	.052

***p<.001

각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영향력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매개로 아동의 실행기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자녀가치를 정서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지며, 이는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 수준을 차례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p<.05, **p<.01, ***p<.001

[그림 3] 수정모형

수정모형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ing)을 실시하였고,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정모형에 존재하는 총 4개 간접경로에서의 95% 신뢰구간 하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 즉,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 수준이 아버지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검증 결과

	총효과(β)	직접효과(β)	간접효과(β)	95% CI
부 정서적 자녀가치 → 부 온정적 양육행동	.378	.378		
부 정서적 자녀가치 → 부 통제적 양육행동	.176	.176		
부 정서적 자녀가치 → 아동 학습준비도	..063		.063	.036-.094
부 정서적 자녀가치 → 아동 실행기능	.005		.005	.001-.011
부 온정적 양육행동 → 아동 학습준비도	.124	.124		
부 온정적 양육행동 → 아동 실행기능	.010		.010	.001-.021
부 통제적 양육행동 → 아동 학습준비도	.093	.093		
부 통제적 양육행동 → 아동 실행기능	.007		.007	.001-.018
아동 학습준비도 → 아동 실행기능	.080	.080		

3.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양육행동 및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 이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의 자료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요인 구조가 동일한지 검증하는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아의 경우 $\chi^2(df)$=475.004(202), TLI=.930, CFI=.939, RMSEA=.052, 여아의 경우 $\chi^2(df)$=510.971(202), TLI=.923, CFI=933, RMSEA=.056으

로 나타나, 두 집단의 형태동일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의 변수 간 요인부하량에 제약을 가하여,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제약모형인 형태동일성 모형 간의 χ^2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동일성 검증은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χ^2통계량 차이($\Delta\chi^2$)를 구해 그 차이가 p<.05 수준에서 유의한지 확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두 모형 간 χ^2차이는 22.997(17)로 p<.05 수준에서 임계치인 27.59보다 적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아와 여아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남녀 아동의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Delta\chi^2$	Δdf
기저모형 (형태동일성)	985.978***	404	.927	.936	.038 (.035-.041)	22.997	17
제약모형 (측정동일성)	1008.975***	421	.929	.935	.038 (.035-.04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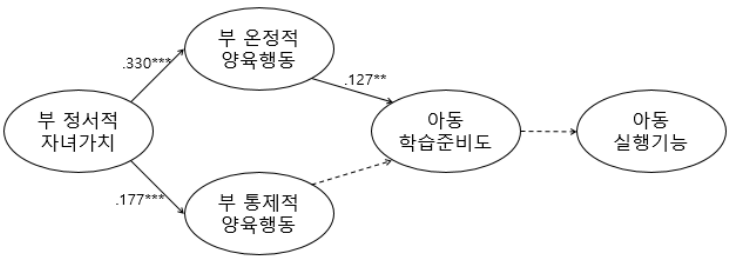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 집단의 변수 간 경로에 제약을 가하여,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구조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의 χ^2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와 같이 두 모형 간 χ^2차이는 51.008(22)로 p<.05 수준에서 임계치인 33.92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의 구조모형에서 경로과정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 집단을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6〉 남녀 아동의 구조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Delta\chi^2$	Δdf
기저모형 (측정동일성)	1008.975***	421	.929	.935	.038 (.035-.041)	51.008	22
제약모형 (구조동일성)	1059.983***	443	.929	.932	.038 (.035-.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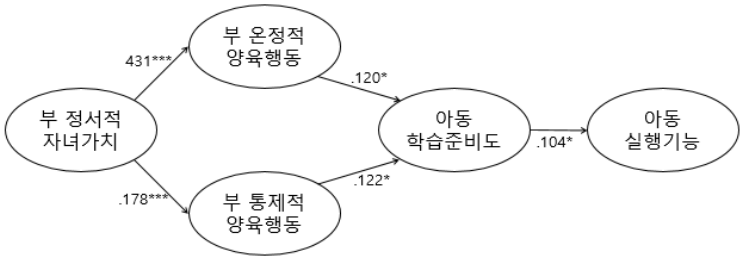
***p<.001

남아와 여아의 집단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남아의 경우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남아의 학습준비도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남아의 학습준비도에 이르는 경로와 남아의 학습준비도에서 실행기능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남아의 학습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그림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여아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p<.01, ***p<.001

〔그림 4〕 남아의 구조모형



*p<.05, ***p<.001

〔그림 5〕 여아의 구조모형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매개로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이들의 구조적 관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발달의 전이기를 통과하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이 자녀 발달의 역할 수행자임을 인식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다름을 인식하여 부모교육 및 학습지도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아동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 전후의 아버지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 및 실행기능을 시간의 흐름으로 살펴보아 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의의가 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아버지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아동의 실행기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대할수록 아버지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지고 따라서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은 향상된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반응하면 학습 발달의 기초능력이 구축된다는 선행연구들과(이주아 외, 2017; 석지연, 2012; 박희숙, 2012; 전은옥·최나야, 2015; Downer, 2005)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온정적이고 반응적,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이는 가정 내에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따라서 자녀의 학습준비도, 실행기능 등 학업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이전 연구들이(이윤정·공영숙·임지영, 2014; 황혜련·송현주, 2013; Schroeder & Kelly, 2009) 이 결과를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인식하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녀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빈도가 높아 계획하기, 조직하기 등과 같은 능력을 활성화시키는데 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윤정 외, 2014; Schroeder & Kelly, 2010). 또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매개로 실행기능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한국사회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으로 생각된다.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 사랑을 권위적이거나 엄격한 아버지의 역할 수행으로 인식하고(이주아 외, 2017) 아동들도 이러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학업과 사회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양육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한다(박영신·김의철, 2004; 정갑순, 2002). 추가적으로 아버지의 감독, 합리적 설명, 일

상생활에의 통제나 훈육 등이 아동이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조절능력을 발휘하여 높은 성취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황혜련·송현주, 2013). 하지만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지는 않는데,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불친절할 때 학습준비도가 낮아지고 또한 아동의 억제능력 등의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학습관련변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연구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박미영, 2006; 허영림, 2006). 따라서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매개로 하여 실행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여아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남아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학습준비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실행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한 통제적 양육행동도 남아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여아는 학습준비도와 인지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이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과(강혜선, 1988; 김경미, 2009; 이경화, 1991; 오혜진, 2011; 조경진·안선희, 2015; 하수정·박성연, 2011) 맥락을 같이한다. 즉, 아버지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여아의 자존감을 높여주고(박영애·정옥분, 1996) 이는 학업관련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여아 자녀에게 학업이나 진로계획 등의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 등을 강요하거나 조언이나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여아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Youniss, 1982). 또한 여아는 아버지의 학업에 대한 성취지향적 양육행동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적어 자아존중감이 발달할 수 있고 따라서 학업과 인지발달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혜선, 1988; 이석호·이사라, 2012)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항상 여아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여아 자녀에게 지나치게 온화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여아의 지적성취가 낮을 수 있어 아버지와 여아 사이의 적당한 정서적 거리 유지를 강조한 연구(Lamb, Pleck & Levine, 1985) 및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여아의 자기 효능감을 낮게 하고 이는 학업과 연결되어 학습준비도나 인지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오혜진, 2011)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는 온정적 양

육행동을 매개로 학습준비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아버지가 남아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행동이나 정서적인 격려와 애정을 보일 때, 남아의 학습준비도, 성취동기, 학업완벽주의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과 일맥상통한다(김경미, 2009; 김정숙, 2007). 남아는 동성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규칙을 정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등의 인지적 기술을 배워 이를 학습준비도에 적용하고 이는 실행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송연주, 2016). 추가적으로 문화에 따라서도 비슷한 결과가 존재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남아 자녀에게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김광웅·이인수, 1998) 미국에서도 자녀가 남아일 경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적극적이고 많은 관심을 보여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Harris & Morgan, 1991). 하지만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남아의 학습준비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실행기능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남아의 경우 학습과 관련된 기본능력인 주의집중과 주의지속, 학습태도 등이 여아보다 늦어 협력, 자기조절, 과제수행이 낮다는 이전 연구들을(조경진·안선희, 2015; 송진영, 2008; 이명란, 1998; McBryde, Ziviani & Cuskelly, 2004) 고려하여 아버지 양육행동과 남아의 실행기능 관계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남아의 학습준비도 및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아버지는 과도한 노동과 업무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고 따라서 같은 동성인 남아와도 실질적인 애착관계를 맺지 못함에 따라 남아는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을 잃어 학습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최영미, 2001)를 참고해야 한다. 이처럼 자녀와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남아에게 학습에 대한 관심을 저해하고 이것이 낮은 학습준비도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동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서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나 서로의 활동 및 관심 공유가 모녀관계보다는 부자관계가 돈독하고(이선이·이여봉·김현주, 2008) 아버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자로 남아를 간주하고 기대하며 또한 남아도 엄격한 학습지도 같은 양육행동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들(이주아 외, 2017; 정갑순, 2002)을 고려하여 이 연구결과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으로 인해 여아와 남아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이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인지기능 성숙도가 빠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발달능력에 따라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여아는 남아보다 타인의 도

움을 잘 받아들이고 집중해서 활동하며 학습흥미도가 높아 학습준비도나 실행기능에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난진홍, 2017; 이수현·황혜정, 2014; 정선교·안선희, 2006; 조경진·안선희, 2015)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의 차이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또는 다른 요소로 인해 존재하는 것인지에 관한 추후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동성 부모자녀와 이성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가정 내에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요성과 역할을 밝힌 것이며(하수정, 2010)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기 자녀들의 인지적 능력에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녀 성별에 따라 부모의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름을 인식하여 자녀 성별에 따라 적절한 양육행동이 필요하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자녀 관계나 동성의 부모자녀 관계 및 성별을 구별하지 않은 부모자녀 관계가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주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같은 성과 다른 성의 자녀관계가 아동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역할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필요함을 밝히며 유능한 딸과 아들의 성장에 아버지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이 자녀 성별에 따라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적인 가정환경 속에서는 자녀가치, 양육행동, 학습준비도 및 실행기능에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하수정, 2010).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주는 영향과 상대적인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아동기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만을 알아보았는데 아동의 학교적응도를 함께 살펴본다면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이 성별에 따른 아동기 자녀의 학습준비도, 실행기능, 학교적응의 세 변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의 전이기를 준비하는 유아와 유아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란혜 (2000).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의 비교: 직업관과 자녀관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2), 119-133.

강혜선 (1988).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딸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권기남 (2014). 아버지의 e-learning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유아의 행복감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2), 5-24.

김경미 (2009). 부모의 양육행동, 남녀 아동의 완벽주의 및 성취동기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광웅·이인수 (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1.

김나영 (2002). 고등학생 딸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와 아버지 특성과의 관계: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수연·김다혜·김연하 (2017).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기치 및 미래 기대와 양육분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1), 201-214.

김정숙 (2007). 아버지 역할 수행이 중학생의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채연 (2017).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과 주의력결핍, 기관적응, 그리기표상능력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난진홍 (2017). 어머니 취학신념,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교사 협력에 따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학교준비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미영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연정·정옥분 (2008).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개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1), 23-47.

박영신·김의철(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박영애·정옥분 (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 34(1), 321-340.

박희숙 (2012). 유아학습준비도 관련 변인 탐색: 가족의 외적환경과 가족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4), 139-157.

석지연 (2012).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송연주 (2016).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ADHD 성향 남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낙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7(3), 129-151.

송진영 (2008). 유아의 행동문제, 자기조절력,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송현주 (2011).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과 학교적응.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2), 31-39.

송현주 (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오혜진 (2011).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여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알파걸 집단과 일반 여학생 집단 간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경화 (1991). 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딸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농어촌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명란 (1998). 유아의 읽기·쓰기 능력과 학습준비도 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석호·이사라 (2012).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딸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29-48.

이선이·이여봉·김현주 (200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통제적 양육행동: 5개국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31(2), 45-76.

이수현·황혜정 (2014).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2), 385-410.

이윤정·공영숙·임지영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26.

이주아·박지은·정혜민 (2017).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학업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상대방 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7(4), 453-477.

장영애·이영자 (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전경찬 (199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학업성취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은옥·최나야 (2015).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관계: 기관적응의 매개효과.한국영유아보육학, 94, 93-119.

정갑순 (2002). 부모, 부자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정계숙 (1988).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성취동기, 가정 및 지역환경과의 관계(I). 사대논문집, 13, 109-127.

정선교·안선희 (2006).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217-236.

조경진·안선희 (2015). 가정환경의 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3(3), 229-239.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최영미 (2001). 아버지 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최지현·박혜원 (2010).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13-124.

하수정 (2010). 아버지의 양육태도, 학령기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가 여아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하수정·박성연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 학령기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가 여아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1), 133-149.

한누리 (2014). 유아의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3), 25-49.

허영림 (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6.

황혜련·송현주 (2013). 아동기 실행기능과 부모양육태도. 재활심리연구, 20(2), 149-167.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Blair, C., & Razza, R. P. (2007). Relating effortful control, executive function, and false-belief understanding to emerging math and literacy ability in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8*(2), 647-663.

Blair, K. A., Denham, S. A., Kochanoff, A., & Whipple, B. (2004). Playing it cool: Temperament,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behavior in preschool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6), 419 - 443.

Bowman, B. (2006).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B. Bowman & E. K. Moore (Eds.),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on cultural diversity.* National Black Child Development Institute, Inc.

Brock, L. L., Rimm-Kaufman, S. E., Nathanson, L., & Grimm, K. J. (2009). The contributions of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related behaviors, and engagement in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ly, 24*(3), 337-349.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Sage.

Downer, J. T., & Mendez J. L. (2005). AfricanAmerican father involvement and preschool children's school readines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6*(3), 317-339.

Espy, K. A., McDiarmid, M. M., Cwik, M. F., Stalets, M. M., Hamby, A., & Senn, T. E. (2004). The contribution of executive functions to emergent mathematic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6*(1), 465-486.

Gathercole, S. E., Brown, L., & Pickering, S. J. (2003). Working Memory assessments at school entry as longitudinal predictors of National Curriculum attainment levels.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0*(3), 109-122.

Harris, K. M., Morgan, S. P. (1991). Fathers, sons, and daughters: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3), 531-544.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Guildford Press.

Lamb, M. E., Pleck, J. H., & Levine, J. A. (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The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B. S.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229-266), NY: Plenum.

McBryde, C., Ziviani, J., & Cuskelly, M. (2004). School readiness and factors that influence decision making.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11*(4), 293-208.

McIntyre, L. L., Blacher, J., & Baker, B. L. (2006). Transition to school: Adaptation in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0*(5), 349 - 361.

Murph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 (2005).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15*(1), 5-14.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Schroeder, V. M. & Kelley, M. L. (2009). Association between family environment, Parenting practices and executive functioning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ADH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2), 227-235.

Schroeder, V. M. & Kelley, M. L. (2010).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s related to executive functioning in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0), 1258-1298.

Youniss, J. (1982).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Chicago and London.

·교신저자: 이주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leejoo5@snu.ac.kr

The Relationships among Father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Executive Function: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Ji Eun Park, Joo Ah Lee, Hye Min, Chung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father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executive function, while taking into account gender differences. The study made use of 6th, 7th, and 8th year data from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and the participants numbered 987 fathers and their children. Data were analyzed upon the Stur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ple Group Analysis using SPSS 22.0 and AMOS 21.0.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ther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warm and controlled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behavior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between fathers' emotional value and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executive functi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revealed that some path weighs appeared differently by gender. For boys, father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rough parenting behavior; however, there was no effect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For girl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executive function through both parenting behavior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Behavior, School Readiness, Executive Function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와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 간의 관계: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토론문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행동,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의 관계에 대해 살핌으로서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초등학교 1학년은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발달 시기로 알려져 있고 이때 아버지의 역할에 따라 그 적응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아버지 역할의 개선 혹은 개입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기존의 권위주의적 아버지상과는 달리 친근한 아버지, 양육의 참여자로서의 아버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흐름을 보임
아버지 양육 참여는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그 역할이 상이하며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최근의 흐름을 고려하여 볼 때 연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기에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관련 변수 중에서 자녀가치, 양육행동을 투입하여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을 살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심리적 기여도에 따른 아동에의 영향을 함께 살필 수 있음

□ 본 토론문에서는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구성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함

1) 자녀가치가 학습준비도,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2) 서론 부분이랑 선행연구가 합쳐있는데 일반적인 논문의 구성상 서론에 명확하게 연구 배경과 문제제기 후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 구성상 깔끔할 것으로 보임
3) 주 연구 대상이 '아버지' 와 '자녀' 임. 서론 앞 부분에서 아버지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화두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4) 매개 변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분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론을 정당화하고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이론적 검토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성별 차이가 유의미함을 도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제언으로 성역할을 고려한 양육행동의 필요성을 제시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6) 연도를 달리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성정혜[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조사(PSKC)의 6차, 7차, 8차년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상호관계를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초기값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의 불안/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잠재성장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어머니 우울, 부모 양육행동, 유아 불안/우울

I. 서론

유아기는 신체 및 운동기능, 사회정서, 인지, 의사소통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써(Lyons Ruth et al., 1990), 인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모든 기반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발달과정 중 유아들은 적응과정에서 어려

1)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움을 겪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Werner, 1995). 하지만, 이러한 유아들 중 일부는 환경으로부터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문제행동에 빠지게 되는데(Skalicka et al., 2015), 최근 유아기의 문제행동들 중 우울이나 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by, 2010; Yoo & Lee, 2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아분리불안장애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6년 545명에 달하였고 그 중 5~9세가 전체의 55.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KPA NEWS, 2017), 우울증 진단을 받은 4~14세 아동이 2014년에는 6,341명, 2015년에는 5,402명, 2016년에는 5,698명으로 1년에 약 6,000명 안팎의 소아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정책뉴스, 2017).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서는 어머니와 분리된 생후 6개월 된 유아에게서도 우울증 증상이 발견되었다(아시아엔, 2017).

유아기에 나타나는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기의 학업문제나 비행,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이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개입되지 않으면 성인기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Feil, Severson & Walker, 1998). 이러한 유아의 불안,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도와 지속성이 약화된다면,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지만(Kauffman, 2005), 약화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Campbell(2002)의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였는데, 그 결과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이후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불안/우울을 시간적 변화에 따른 차원에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유아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유아의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 환경인 부모는 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지원한다(김선희, 2016). 특히 다수의 연구들은 유아의 우울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우울에 주목하고 있다(Turney, 2012; Weissman & Jensen, 2002). Weissman 등(1997)의 4년에 걸친 임상연구에서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를 둔 자녀들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장애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으며, Gotlib와 Goodman(2002)의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 중 약 40%정도는 불안이나 우울장애, 반항성장애와 같은 정신의학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정서적 안정 이론(emotional security theory)에 의하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은 그들이 속해있는 가족 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 즉 정서적 안정감은 아동이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자 할 때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와 그를 둘러싼 세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를 지지해주고 안전기반을 제공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우울감에 빠져 정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녀의 정서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이론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ummings, Cheung & Davies,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살펴볼 것이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애정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양육기술의 손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게 된다(Gordon et al., 1989). Adam과 Gunnar, Tanaka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지닌 어머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일관되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여 자녀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도현심 등(2012)의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덜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어 자녀의 정서적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인지적 발달 및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따라 유아의 불안, 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이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이미애, 김광웅, 1995). 또한 부모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높은 지시성과 신체적·언어적 처벌을 사용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불안과 우울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2005), Olsen과 Ceballo, Park(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심리적인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정서적·행동적 문제행동이 쉽게 일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최근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뿐만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2016)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독립적인 측면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Verhoeven 등(2010)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와 차별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종합하자면,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불안/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이 지속될 경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감소될 수 있으며, 유아의 불안/우울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유아기에 나타나는 불안/우울의 변화와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때 더욱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발견될 수 있다. 종단연구를 사용하면 효과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유지되는지 알 수 있으며, 효과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다(Gollob & Reichardt, 1987).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통해서 특정한 처치가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측정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MacKinnon et al, 2008),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 Lagged Modeling)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이전 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에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우울 초기치·변화율과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치·변화율 간 부모의 양육행동 초기치·변화율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0세 유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8차년도(2015년) 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는 전국적으로 표집된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로써, 다른 어떤 자료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함에 유용할 것으

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중 6차(2013년), 7차(2014년), 8차(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1,176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2014년)			N(%)
가구 특성	거주지역	서울권	163(13.9)
		경인권	311(26.4)
		대전/충청/강원권	171(14.5)
		대구/경북권	146(12.5)
		부산/울산/경남권	225(19.1)
		광주/전라권	160(13.6)
자녀 특성	성별	남아	622(52.9)
		여아	554(47.1)
	출생순위	첫째	523(44.5)
		둘째	500(42.5)
		셋째	138(11.7)
		넷째	13(1.1)
		다섯째 이상	2(0.2)
어머니 특성	연령	25세-29세	20(1.7)
		30-34세	343(29.2)
		35-39세	637(54.1)
		40세 이상	176(15.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7(27.0)
		전문대 졸업	382(32.5)
		대학교 졸업	445(37.8)
		대학원 졸업	32(2.7)
아버지 특성	연령	25세-29세	2(0.2)
		30-34세	153(13.0)
		35-39세	555(47.2)
		40세 이상	466(39.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8(27.0)
		전문대 졸업	262(22.3)
		대학교 졸업	529(45.0)
		대학원 졸업	67(5.7)
전체			1,176100)

2. 측정도구

가. 어머니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와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등(2002)이 개발한 Kessler 우울 척도(K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국 보건 면접 조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다는 것은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6차 .911, 7차 .928, 8차 .920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의 양육행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이 개발한 양육행동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통제적(부정적) 양육행동과 온정적(긍정적)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통제적(부정적) 양육행동을 역채점 하여 평균값이 높을수록 온정적(긍정적)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2013년도 각각 .802, .876 2014년도 각각 .790, .860, 2015년도 각각 .790, .881로 나타났다.

다. 유아의 불안/우울

유아의 불안/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0, 2001)가 개발한 CBCL 1.5-5와 CBCL 6-18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 2010)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CBCL 1.5-5(한국판 영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와 한국판 CBCL 6-18(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을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식 3점 척도로 각 문항 T점수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6차 .716, 7차 .719, 8차 .722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 시간적 흐름에 따른 영향력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적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붓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Tucker & Lewis, 1973), CFI(Bentler, 1990), RMSEA(Byme, 1998; Steiger & Lind, 1980)를 사용하였다. RMSEA 값은 .1이하이면 보통, .08 이하이면 양호, .05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 TLI와 CFI는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된다(홍세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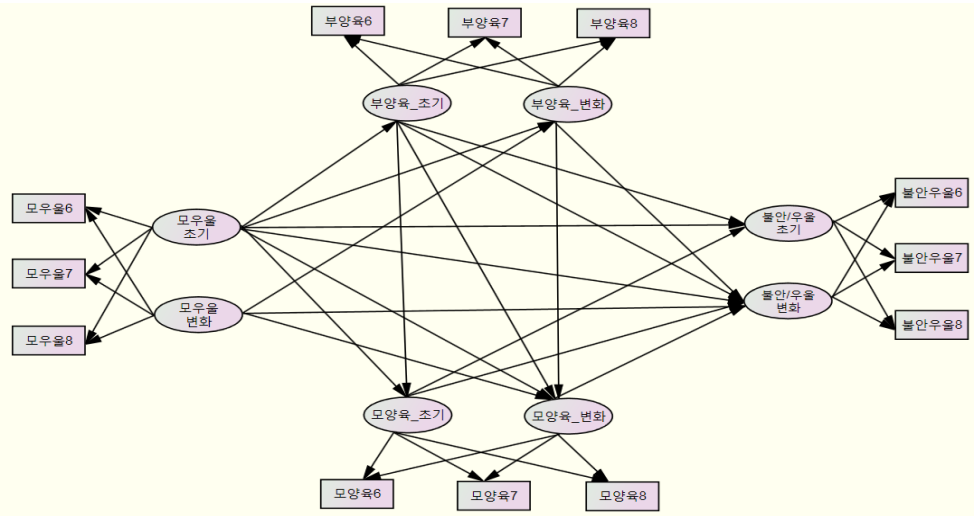
4. 연구모형

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모형: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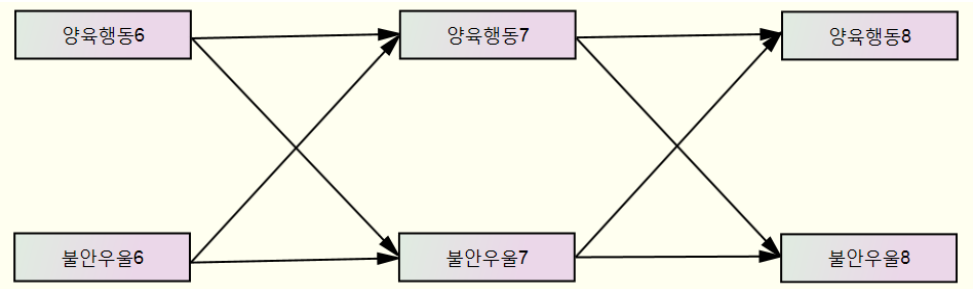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 1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이 부모의 양육행동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모형: 연구모형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88〕 연구모형 1



〔그림 189〕 연구모형 2

Ⅲ. 연구결과

1. 요인별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각 시점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6차(2013년)	7차(2014년)	8차(2015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우울	1.907(.717)	1.886(.733)	1.799(.716)
어머니 양육행동	3.074(.326)	3.076(.337)	3.077(.336)
아버지 양육행동	3.087(.381)	3.093(.368)	3.096(.362)
유아의 불안/우울	53.124(5.152)	53.130(5.124)	53.501(5.165)

2. 변인별 분석모형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 변화정도를 기초로 관련성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 <표 2>에 제시된 세 시점의 평균변화패턴을 바탕으로 각 요인에 대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변수의 경우에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증가-감소 또는 감소-증가의 형태를 보이는 변수의 경우에는 무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체계적인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매 시점에서 발생한 변화는 무선오차(random error)로 간주하였다(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표 3> 각 요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χ^2	TLI	CFI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어머니 우울	무변화	48.735	.962	.950	1.867*		.264*	
	선형변화	3.771	.991	.997	1.915*	-.053*	.351*	.051*
어머니 양육행동	무변화	12.415	.995	.994	3.076*		.069*	
	선형변화	1.703	.998	.999	3.075	.002	.069*	.005*
아버지 양육행동	무변화	8.171	.997	.996	3.093*		.079*	
	선형변화	3.227	.994	.998	3.089*	.004	.088*	.006*
유아의 불안/우울	무변화	73.754	.939	.919	53.218*		13.327*	
	선형변화	2.447	.995	.998	53.102*	.163*	22.275*	3.844*

세 시점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을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은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모든 변인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

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요인 별 분석모형 결과를 토대로 4가지 변인(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요인 별 분석결과에서 모든 모형에서 변화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에 대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을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는 .976, CFI는 .987, RMSEA는 .037(HI: ..046, LO: .028)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최종모형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최종모형 1의 모수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어머니 우울 초기 → 아버지 양육행동 초기	-.131	.021	-.276
어머니 우울 초기 → 어머니 양육행동 초기	-.144	.020	-.318
아버지 양육행동 초기 → 어머니 양육행동 초기	.344	.039	.361
어머니 우울 초기 →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	2.570	.337	.404
어머니 우울 변화 → 유아의 불안/우울 변화	6.012	2.997	6.798
아버지 양육행동 초기 → 유아의 불안/우울 변화	-.861	.432	-.094
어머니 양육행동 초기 →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	-1.684	.750	-.120

초기치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활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 초기값이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

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초기값이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변화율을 중심으로 한 종단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종모형 1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어머니 우울6 초기값 → 어머니 양육행동7 초기값 → 유아의 불안/우울8 초기값	.334*
아버지 양육행동6 초기값 → 어머니 양육행동7 초기값 → 유아의 불안/우울8 초기값	-.643*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결과

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연구모형 2를 분석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기본모형의 적합도(모형1)를 시작으로 모형2부터 모형6까지는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7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기본모형	7.276	1	.955	.997	.073
모형2: 양육행동(A)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9.796	2	.936	.996	.087
모형3: 불안/우울(B)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2.942	3	.960	.995	.068
모형4: 불안/우울에 대한 양육행동(C)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4.512	4	.972	.994	.057
모형6: 양육행동에 대한 불안/우울(D)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6.243	5	.978	.994	.051
모형7: 양육행동과 불안/우울의 오차 공분산(E) 사이에 동일성 제약	18.940	6	.980	.993	.049

모형1의 값을 중심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매 시점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모형7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의 각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최종모형 3의 모수추정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양육행동6	→	양육행동7	.527*	.018	.537
불안/우울6	→	불안/우울7	.494*	.018	.525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1.458*	.276	-.098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023*	.025	-.352
양육행동7	→	양육행동8	.527*	.018	.501
불안/우울7	→	불안/우울8	.494*	.018	.459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023*	.025	-.349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1.458*	.276	-.090

* $p < .05$

유아의 불안/우울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전 유아의 불안/우울이 1.45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 유아의 불안/우울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023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우울은 낮았으며, 불안/우울이 낮을수록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아지면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유아의 불안/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아의 불안/우울이 높아지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다시 유아의 불안/우울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최종모형 3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282*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248*

* $p < .05$

나.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연구모형 3을 분석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기본모형의 적합도(모형1)를 시작으로 모형2부터 모형6까지는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7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기본모형	10.816	1	.917	.994	.091
모형2: 양육행동(A)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1.066	2	.915	.994	.083
모형3: 불안/우울(B)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1.473	3	.960	.995	.063
모형4: 불안/우울에 대한 양육행동(C)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1.503	4	.976	.995	.049
모형6: 양육행동에 대한 불안/우울(D)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3.229	5	.980	.995	.044
모형7: 양육행동과 불안/우울의 오차 공분산(E) 사이에 동일성 제약	14.172	6	.984	.995	.040

모형1의 값을 중심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매 시점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모형7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7의 각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최종모형 3의 모수추정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양육행동6	→	양육행동7	.467*	.018	.474
불안/우울6	→	불안/우울7	.506*	.018	.539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723*	.245	-.070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005*	.001	-.046
양육행동7	→	양육행동8	.467*	.018	.468
불안/우울7	→	불안/우울8	.506*	.018	.469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005*	.001	-.043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723*	.245	-.050

* $p < .05$

유아의 불안/우울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전 유아의 불안/우울이 .723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 유아의 불안/우울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005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최종모형 3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137*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176*

* $p < .05$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우울은 낮았으며, 불안/우울이 낮을수록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높아지면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유아의 불안/우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아의 불안/우울이 높아지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다시 유아의 불안/우울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어머니의 우울 및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초기치 값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았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아진다는 김춘경, 조민규(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Lovejoy 등(2000)의 연구에서 우울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보고하였는데,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에게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아들은 욕구좌절이나 분노를 누적시키게 되어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여 분노와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상태에 빠지게 된다(Davis & Cummings, 1994).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불안/우울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다룰 때 어머니의 우울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상담 및 치료현장에서 유아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머니의 우울 감소를 위한 부모상담을 병행하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아질 수 있으며, 높아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규칙과 예절을 교육하고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등 통제적이고 훈육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의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부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어머니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의 질이 떨어지게 게 된다. 이로 인해 유아들은 자신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여 불안이나 우울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양육이 어머니를 지지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통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과 애정으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간 직접효과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감소하였다. 이는 부부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진다는 김희화(2008)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부는 부모로의 전환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비하게 된다(Cowan and

Cowan, 1995). 이 과정에서 부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정립과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Bouchard & Lee, 2000). 하지만 우울한 어머니의 경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되어 부부 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아버지의 역할과 양육행동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녀양육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어머니의 우울을 살펴보아야 하며, 유아교육 현장이나 상담현장에서 부모들을 도와주기 위한 의사소통 증진 및 부모역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6세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은 7세 유아의 불안/우울을 매개로 8세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아졌으며, 낮아진 유아의 불안/우울로 인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Barnes 등(2000)의 종단적 연구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높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어 유아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발달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고(Shreeber, Hops & Davis, 2001),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문제를 감소시키게 된다. 유아의 낮은 불안과 우울은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증진시켜주게 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질을 높여주게 된다.

다음으로 6세 유아의 불안/우울은 7세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8세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의 불안/우울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낮아졌으며, 낮아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유아의 불안/우울은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부모의 통제적이고 학대적인 양육행동이 어떻게 자녀의 문제행동을 강화시키는지를 설명하는 Patterson(1982)의 강압이론(coercion theory)과 일치한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고 문제행동을 하게 되

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이유진, 박경, 2005). 이로 인해 부모는 유아가 불안이나 우울이 높아 또래관계에서나 가정에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되면 자신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초기의 통제적인 양육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언어적·신체적 처벌을 사용하는 통제적이고 학대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유아의 불안과 우울을 높아지게 한다.

이러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불안/우울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아의 불안/우울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나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다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유아의 불안/우울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유아교육현장과 부모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지적인 접근과 유아의 불안/우울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에 횡단적 접근을 넘어서서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종단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종단매개효과검증은 기존의 횡단모형에서 반영하기 어려웠던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의 시간적 선형성을 고려하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이전 상태까지 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횡단 연구들에 비해 방법론적으로 더욱 엄밀하게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불안/우울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울이 나타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의 문제행동 중 불안/우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실시하여 유아의 불안/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대부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3차 년도의 자료만으로 변화율을 제시한

다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3차 년도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한 변화율을 토대로 결과를 분석한다면 더욱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우울은 어머니의 우울에 국한되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비롯한 아버지의 우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이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희(201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5), 421-446.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춘경·조민규(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6, 33-56.

김희화(2008). 아버지의 부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5), 181-195.

도현심·김민정·최미경·김상원·조수정(2012).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145-164.

박지영·강성단·권경숙(2010). 유아의 기질, 또래유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39-162.

아시아엔 2017. 9. 7. [당신 곁의 우울증] 6개월 유아한테서도 발견…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연은모·윤해옥·최효식(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오경자·김아영(2009).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부모용. 서울: 휴노컨설팅.

오경자·김아영(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유숙경·이승희(2012). K-CBCL 1.5-5 와 Gottman 의 양육방식 유형에 의한 유아의 정서행동문제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의 관계. 정서· 행동장애연구, 28(2), 1-22.

이미애·김광웅(1995). 아동기 기질과 부모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 10, 109-125.

이수진·홍세희·박중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이유진·박경(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5(2), 39-57.

정문자·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5(5), 11-27.

정책뉴스 2017. 9. 4. 늘어나는 소아 우울증, 이렇게 대처하세요.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학가정학회, 37(10), 123-133.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school-age forms profiles*. Burlington, VT: Aseba.

Barnes, G. M., Reifman, A. S., Farrell, M. P., and Dintcheff, B. A. (2000). The effects of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a Six-Wav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175-186.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 246.

Bouchard, G., and Lee, C. M. 2000. “The marital context for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1), 37-54.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Campbell, S. B. (2002). *Behavior problem in preschool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Cowan, C. P., and Cowan, P. A. 1995. “Interventions to eas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Why the are needed and what they can do". *Family Relations 44,* 412-423.

Cummings, E. M., Cheung, R. Y. M., & Davies, P. T.(2013).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parental depression, negative expressiveness, emotional insecurity, and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s.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44*, 698-708.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Feil, E. G., Severson, H. H., & Walker, H. M. (1998). Screening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elays: The early screening project.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1*(3), 252-256.

Finkel, S. E. (1995). *Causal analysis with panel data*. Thousand Oaks, CA: Sage.

Goodman, S. H., & Gotlib, I. H. (2002).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Mechanisms of risk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auffman, J. M. (2005).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Englewood cliff, NJ: Merrill.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et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KPA NEWS 2017. 7. 27 어린이 '불안장애', 지난해 545명...'5~9세' 절반 넘어.

Kuczynski, L., & Kochanska, G. (1995). Function and content of maternal demands: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early demands for competent action. *Child Development, 66*(3), 616-628.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and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561-592.

Luby, J. L. (2010). Preschool Depression : The Importance of Identification of Depression Early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9*(2), 91-95.

Lyons Ruth, K., Connell, D. B., Grunebaum, H. U., & Botein, S. (1990). Infants at social risk: Maternal depression and family support services as mediators of infant development and secur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1*(1),

85-98.

MacCallum, R. C., Kim, C., Malarkey, W. B., & Kiecolt-Glaser, J. K. (1997). Studying multivariate change using multilevel models and latent curv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2*(3), 215-253.

Muthén, B. O. (1991). Multilevel factor analysis of class and student achievement component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28*(4), 338-354.

Olson, S. L., Ceballo, R., & Park, C. (2002). Early problem behavior among children from low-income, mother-headed families: A multiple risk perspectiv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4), 419-430.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Skalická, V., Belsky, J., Stenseng, F., &Wichstrøm, L. (2015). Preschool Age Problem Behavior and Teacher‐Child Conflict in School: Direct and Moderation Effects by Preschool Organization. *Child development, 86*(3), 955-964.

Steiger, J. H., & Lind, J. C. (1980). *Statistically-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Turney, K. (2012). Pathways of disadvantage: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Social Science Research, 41*, 1546-1564.

Verhoeven, M., Junger, M., Van Aken, C., Deković, M., & Van Aken, M. A. G. (2010). Parenting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Bidirectionality during toddler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93-105.

Weissman, M. M., & Jensen, P. (2002). What research suggests for depressed women with children.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3*(7), 641-647.

Weissman, M. M., Warner, V., Wickramaratne, P., Moreau, D., & Olfson, M.(1997). Offspring of depressed parents: 10years later. *Arch Gen Psychiatry, 54*, 932-940.

Werner, E. E. (1995).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3), 81-85.

Yoo, S. K., & Lee, S. H. (2012). Relationships between child's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and mother's parenting style based on K-CBCL 1.5-5 and Gottman's types of parentins styl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8*(2), 1-22.

The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o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to infant's anxiety/depression: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ung, Jung-Hy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i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to infant's anxiety/depression. To analyze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anxiety/depress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Latent Growth Modeling were used. The data of this study are Pan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s 6th, 7th, and 8th longitudinal data that are researched by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First, the results analyzed by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revealed that mother's parenting behavior had significant partly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to infant's anxiety/depression. Also mother's parenting behavior had significant completely mediating effect on the father's parenting behavior to infant's anxiety/depression. Second, the result fro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howed that the longitudinal mediated effect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anxiety/depression. The study result suggested a program to reduce infant's anxiety/depression and parenting education with infant children.

Key words: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infant's anxiety/depression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토론문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종단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여 유아의 불안/우울을 시간의 변화 따라 살펴보고,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불안/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 논문이 아직 미완의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인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원고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론에서 유아의 불안/우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있어서 유아와 아동기 전반의 우울에 대한 논의가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아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에 대한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유아 대상 연구의 필요성 등을 강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방법론 측면에서 연구자께서 사용하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주로 사용되지만, 각각의 방법이 가진 장점과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본 발표문에서 두 분석 방법의 차이를 간략하게 기술하셨지만, 각각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분석 방법이 함께 제시되었을 때 연구 결과가 어떻게 상호 보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면 본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시간적 변화에 따라 검증하는 것인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은 적합하나, 자귀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우 분석에서 매개변인인 양육행동과 종속변인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만을 고려한 모형 도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해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면 어머니 우울, 부모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변인을 모두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가 다르므로 두 분석 방법에서 같은 변인이 투입된다면 각각의 결과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지금 분석하신 방법을 유지하신다면, 현재 제시하신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도출 근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행동을 단일 잠재변인으로 사용하셨다면, 양육행동 내 통제적, 온정적 두 하위요인을 각각 잠재변인으로 해서 모델을 구성한다면 부모 양육행동에 대해 설명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제한된 분량의 발표문이라 연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술하지 못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결과에서 잠재성장모형 결과에서 변화율에서 종단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두 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의 비교 등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또한 결론에서 논리적 전개가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관련 선행 연구를 제기하며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는 결론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유아의 불안/우울에 있어서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점 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향후 좋은 연구로 발전되길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Session 2 ◈

제 6 주제

언어 발달

사회: 이희선 (가천대학교 교수)

1.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vocabular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Korea children at 3 and 7 years of age**
   김수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지선 (Western Sydney University 교수)

2. **말늦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
   이수향 (나사렛대학교 교수)
   홍경훈 (나사렛대학교 교수)

3. **어머니의 산전과 산후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귀옥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vocabular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Korea children at 3 and 7 years of age

김수진[1)] 도남희[2)] 김지선[3)]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류된 세 집단의 유아들이 3세와 7세에서 수용/표현 어휘발달에 차이가 있는가를 한국아동의 종단적 발달 자료를 통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어휘발달을 기술통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3세 유아의 수용어휘와 표현 어휘는 모두 연령에 증가하면서 두 배 이상의 어휘력 증가를 보였다. 모학력에 따른 어휘력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어휘 차이는 7세의 표현어휘에서 뚜렷한 경향이 있었다. 한편 형제순서에 따른 어휘력의 발달을 보았을 때는 첫째 아동이 둘째나 셋째보다 높고, 둘째가 셋째보다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수용어휘와 표현어휘를 보면 여아의 점수가 3세에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7세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수용어휘, 표현어휘, 어휘발달,

In any given age group, the language ability of individuals varies (Fenson, Dale, Reznick, Bates, Thal, & Pethick, 1994). The issue of why and how such variability occurs, particularly in early childhood, has been at the centre of many studies of language development. This is partly because infants' language ability provides the basic platform upon which subsequent language and academic performance develops (Burchina, Peisner-Feinberg, Pianta, & Howes, 2002; Hoff 2013).

1)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2)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Western Sydney University 교수

Longitudinal studies are pivotal to understanding variability in individual ability, as these provide a basis for examining the factors that modulate developmental progress. Through such studies, evidence can be obtained on how children's language abilities and competencies develop in relation to individual resources and conditions;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 variability emerges early in life; and the trajectories of these abilities in later academic performance and learning. Despite a substantial number of longitudinal as well as cross-sectional studies, more evidence is needed from a range of cultural, societal and educational settings to identify demining factors.

One of the factors that have been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variability of childhood language development is socioeconomic status (SES), i.e., one's access to social, financial and, educational resources, and one's social standing, privileges, and prestige in relation to such access (Duncan, Magnuson, & Votruba Drzal, 2015; Entwisle & Astone 1994; Mueller & Parcel 1981). Low SES Children, in general, perform significantly below their peers from high SES families in verbal measures (Arriaga, Fenson, Cronan, & Pethick, 1998; Bowey 1995; Fernald, Marchman, & Weisleder, 2013; Hart & Risley 1995, 1999; Rodriguez & Tamis-LeMonda 2011; Walker, Greenwood, Hart, & Carta, 1994). Childhood SES is typically indexed by parental education, occupation, and/or income (Bradley & Corwyn 2002; Ensminger, Fothergill, Bornstein, & Bradley, 2003) and it is well-established that maternal education level is the most effective predictor of childhood language (and other cognitive) development (Hoff, Laursen, & Bridges, 2012; Magnuson, Sexton, Davis-Kean, & Huston, 2009).

SES-related differences in language abilities emerge from infancy (even in the first year of life, Halle, Forry, Hair et al, 2009; Vanormeligen & Gillis, 2016) and remain stable or widen over time (Fernald et al. 2013; Halle et al. 2009; Walker et al. 1994). Disparities in SES thus allow predictions to be made about academic trajectori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and provide a basis to identify at risk individuals (Burchinal et al. 2002; Entwisle & Alexander 1999; Hart & Risley, 1995). In this regar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most prominent SES-related disparity at an early age is in children's development of expressive and receptive

vocabulary. For example, it has been shown that 18 months old infants from low SES families have smaller expressive vocabularies compared to their peers from high SES families (Fernald et al. 2013). This difference in expressive vocabulary between low and high SES children is also observed at age of three, with low SES children producing half the number of words (Hart & Risley, 1995). These early SES differences have been found across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Layzer & Price 2008), the UK (Blanden & Machin 2010) and Australia (Taylor, Christensen, Lawrence, Mitrou, & Zubrick, 2013), and indicate the important role that word knowledge plays in subsequent language development.

Several suggestions have been made about what drives SES-related differences in early language development (Hoff et al, 2012; Pace, Luo, R., Hirsh-Pasek, K., & Golinkoff, 2017; Weinert, Attig, & Roßbach, 2017). While factors related to an individual's capacity to learn remain controversial, it is clear that SES-related differences exist in terms of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and environment.For example, SES is associated with the quantity of language input, the quality of child-caregiver interactions, and differences in language learning opportunities via access to age appropriate materials(Cartmill, Armstrong, Gleitman et al. 2013; Goldin-Meadow, Levine, Hedges et al. 2014). The idea here is that SES related differences in linguistic input translate into differences in languag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Hoff-Ginsberg & Shatz, 1982). Moreov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participating in language exchange through child-directed interaction with caregivers strengthens speech processing skills and hence, improves ability to learn from future language encounters(Rowe2012;Weisleder & Fernald, 2013). Also, gaining expertise in language allows further autonomous exploration of educational resources available in the environment.

More general SES-related differences in the child's early environment can also affect language development. Such factors include differential exposure to stressors. For example,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 low SES homes stressors such as violence, household chaos, separation from family members, and instability (Evans 2004) and depression in mothers, are more prevalent (Vericker, Macomber, & Golden, 2010). Children exposed to such stressors are at an increased risk of

having reduced language and cognitive skills as well as lowe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Blair & Raver 2012; Shonkoff, Garner, Siegel et al. 2012). For example, mothers with high levels of stress and depression talk and interact with their children less often than do low stressed, non-depressed mothers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As mentioned above, low levels of language input and poor quality interactions with children, have the potential to slow vocabulary growth and language development (Pan, Rowe, Singer, & Snow, 2005).

In sum, individual language developments are affected not only by genetic factors that influence learning (Oliver & Plomin, 2007), but also by early experience, as indicated by properties associated with SES being related to variation in language outcomes. SES related differences in language development may stem from interactions between learning aptitude and the environment that could act as a driver of expressive and receptive language development when enriched or delay development when poor.

The Current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nd parents' SES has been well established in studies conducted primarily in western countries. Whether such relationship can be demonstrated in more collectivist, community focused cultures remains to be confirmed. As such, the current study examined language development in Korea children.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s longitudinal study colle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The longitudinal study named a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is an ongoing project of KICCE, the aim of which is establishing a nationwide database on Korean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relevant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and family resources, child welfare services and policies. Based on a research model developed in 2006 and a pilot study conducted in 2008, PSKC launched in 2008 by sampling new infants (N = 2150) born in nationwide medical institutes. In order to reduce sampling bias, a 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method was used so that the participant infants can b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young Korean population.

The PSKC was conducted annually until 2015, the year at which the child participants reached the age to start elementary school, and then biennially from 2017 onwards. These data include measures of, for example, children's linguistic and social development, par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family background, the use of child-care support services, and local community support. In addition to the annual routine data collection, approximately 10% of the child participants in the panel study were given an in-depth follow-up at the mean age of 1, 5 and 7 years; this included observational study, an interview, and a computer-based test.

The focus of the current study was on the change in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size (used as a proxy of language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aged 3 to 7 years whose SES backgrounds differ. The selection of these ages was made based on studies that report significant SES related differences in child development when children are 3 years of age (Brooks-Gunn & Duncan 1997; Hart & Risley 1995, 1999). Up to age 3, a child's family still is the first and often only developmental environment. In contrast, at age 5/7, social and educational contact occurs daily with a child exposed to additional language input and social interaction. Thus, any change across ages 3 to 7 as a function of SES differences may relate more to the impact of the environment outside of the home. It should be noted that most of the panel study participants (more than 95%) attended kindergarten/preschool during the period of age 5/7.

A special interest of the current study i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low versus high SES children are at increased risk of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This information will be useful for identifying groups at risk, as well as for understanding factors that relate to language development more generally.

METHOD

Participants

Participants were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1,445 children (51% boys, 49% girls) recruited in the PSKC longitudinal study administered/conducted by KICCE. The mean ages of children were 3 years (Time 1) and 7 years (Time 2) when the data used in the current study were collected. The infant participants were sampled by using a 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method so that they could b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population of young Korean children in an unbiased way.

Procedure

The PSKC data were mainly collected by interviewers trained by KICCE who visited the sampled household. During the household visit, the interviewers conducted a survey, administered developmental tests, and observed/recorded the sampled child. A standard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Oh & Kim 2009) was given to the caregiver to fill out during the interviewers' visit. Information regarding the child's temperament and social skills,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and household income was collected via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CAPI).

Variables of interest

Language ability: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score

PSKC data on children vocabulary proficiency was measured with use of REVT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 Kim, 2009). REVT is a norm-referenced test developed to assess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bilities of Korean speakers ranging from infants to adults; as such, the REVT items consist of vocabulary at different levels of difficulty.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s consist of 370 items. The receptive subtests include 185 items that assess comprehension of basic vocabulary. The remaining 185 expressive items consist of a picture labeling task. The total number of correct answers determined the child's raw score. Children were awarded 1 point for

correct items. The total scores were also translated into standard scores based on age. Consequently, the final scores provided receptive score (RS), expressive score (ES), and the developmental category based on the normative data: (~-1SD: typical development), 1(-1SD~-1.5SD: borderline), 2(-1.5SD~-2SD: at risk), 3(below -2SD: delayed).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data, which was collected in the in 7th year of PSKC, include 8 levels from 'no education' to 'PhD'. However, considering the sparse distribution at the levels of 'no educati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raduate', and 'post-graduate degree', the current study only included mother's education at 3 levels - (1) high school graduate & lower, (2) college graduate, and (3) university graduate & higher.

Household income

Household income data was collected in the 3rd year of the panel study in the survey where the child's parents were given an open question and a closed one that required one of three categorical responses. In the present study, household income was classified into (1) upper, (2) middle, or (3) lower.

Birth order & gender

Given that language development can be affected by a child's birth order (Hoff-Ginsberg, 1998) and gender (Huttenlocher, Haight, Bryk et al, 1991; Kaushanskaya, Gross, & Buac, 2013),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se two variables as well as house income and mother's education on RS and ES each.

<Table 1> Number of children that contributed data as a function of Household Income and Maternal Education (rows) and gender and Birth Order (columns)

Household Income	Boys			Total	Girls			Total	Grand Total
	1st	2nd	3rd_more		1st	2nd	3rd_more		
Upper									
High_school -	15	12	5	32	22	17	3	42	74
College	12	21	11	44	21	18	6	45	89
University +	35	29	9	73	30	39	4	73	146
Total	**62**	**62**	**25**	**149**	**73**	**74**	**13**	**160**	**309**
Middle									
High_school -	57	43	18	118	49	47	16	112	230
College	54	47	16	117	46	47	10	103	220
University +	76	72	12	160	61	63	19	143	303
Total	**187**	**162**	**46**	**395**	**156**	**157**	**45**	**358**	**753**
Lower									
High_school -	24	8	3	35	21	17	4	42	77
College	26	8	2	36	14	14	2	30	66
University +	20	15	5	40	12	13	1	26	66
Total	**70**	**31**	**10**	**111**	**47**	**44**	**7**	**98**	**209**
Grand Total	**319**	**255**	**81**	**655**	**276**	**275**	**65**	**616**	**1271**

Results

The results were examined by testing whether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ies of children aged 3 and 7 varied as a function of gender, birth order, mother's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Table 2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ocabulary scores, and it can be seen that children's receptive vocabulary and the expressive vocabulary increased more than two times from 3 to 7 years old.

<Table 2>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ccording to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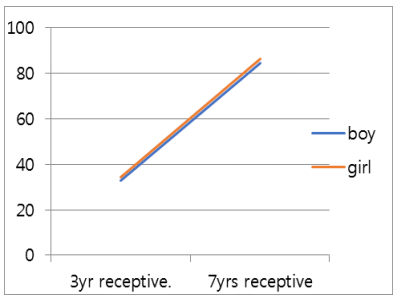
	M	SD
3yrs receptive	33.58	15.78
7yrs receptive	85.40	14.66
3yrs expressive	29.92	13.69
7yrs expressive	87.32	13.26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score according to the gender and age of the ch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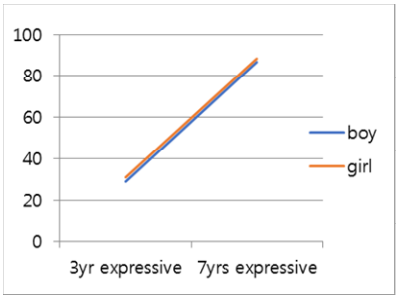
The descriptive statistics according to gender are shown in <Table 3>, <Figure 1, 2>. Girls score were higher than boys in both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t 3 and 7 years of age.

<Table 3>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ccording to the gender at the age of 3 and 7

		gender	Mean	SD
3yrs	receptive	boys	32.82	16.00
		girls	34.41	15.49
7yrs	receptive	boys	84.57	14.82
		girls	86.30	14.44
3yrs	expressive	boys	28.80	13.91
		girls	31.13	13.34
7yrs	expressive	boys	86.53	13.44
		girls	88.17	13.03



<Figure 1> receptive voca. by gender



<Figure 2> expressive voca. by g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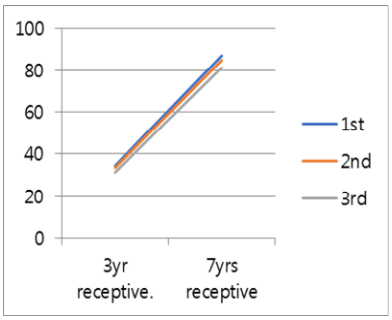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of 3 and 7 years old according to birth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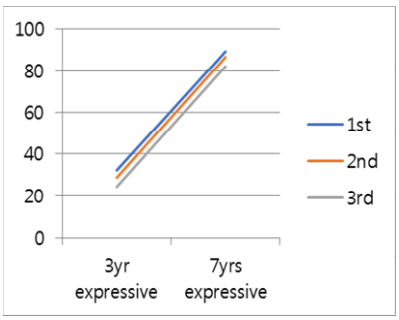
The descriptive statistics according to birth order are shown in <Table 4>, <Figure 3, 4>. In both 3 and 7 years old, there was a tendency that the first child were higher than the second or third in both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nd the second higher than the third. The difference in the expressive vocabulary was larger than the receptive vocabulary.

< Table 4>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of 3 and 7 years old according to birth order

		Birth order	Mean	SD
3yrs	receptive	1st	34.22	15.25
		2nd	33.48	16.17
		3rd	31.37	16.33
7yrs	receptive	1st	86.91	15.57
		2nd	84.82	13.53
		3rd	81.37	13.87
3yrs	expressive	1st	32.37	14.50
		2nd	28.68	12.55
		3rd	24.46	12.07
7yrs	expressive	1st	89.10	13.22
		2nd	86.74	12.92
		3rd	82.19	13.18





<Figure 3> receptive voca. by birth order <Figure 4> expressive voca. by birth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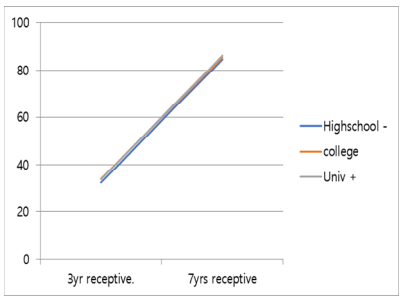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of 3 and 7 years old according to mother's education

<Table 5>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according to mother's education (see also <Figure 5> and <Figure 6>). There is no apparent differences according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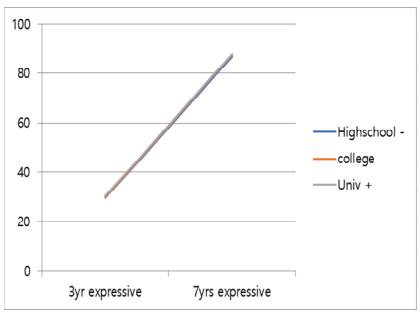
mother's education level on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t the age of 3 and 7.

< Table 5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of 3 and 7 years old according to mother's education

		Mother's edu.	Mean	SD
3yrs	receptive	Highschool -	32.61	15.71
		College	34.27	16.02
		Univ +	33.80	15.64
7yrs	receptive	Highschool -	84.44	15.97
		college	85.45	14.61
		Univ +	86.10	13.61
3yrs	expressive	Highschool -	29.42	13.23
		college	29.70	14.44
		Univ +	30.47	13.47
7yrs	expressive	Highschool -	86.56	13.08
		college	87.47	13.64
		Univ +	87.78	13.11



<Figure 5> receptive voca. by mother's education



<Figure 6> expressive voca. by mother's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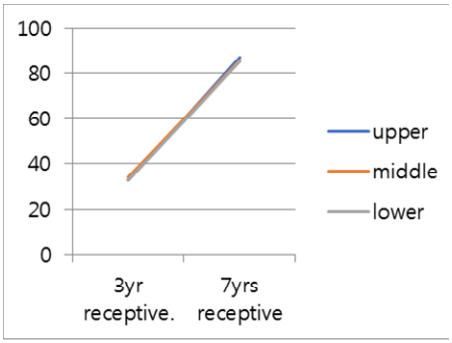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t 3 and 7 years old

<Table 6> and <Figure 7 and 8> show the descriptive statistics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level. There is no clear differences according to house income level in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t the age of 3, but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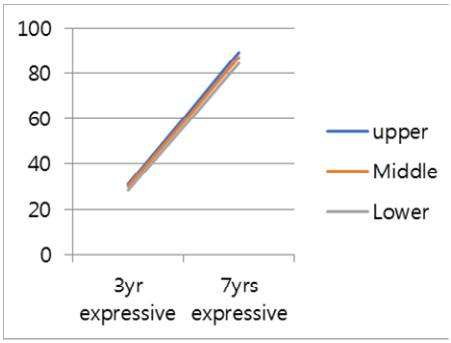
vocabulary of the 7 years old tended to be better as the family had high income.

<Table 6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level at 3 and 7 years old

		income	M	SD
3yrs	receptive	upper	32.63	14.77
		middle	34.17	15.81
		lower	32.85	16.97
7yrs	receptive	upper	86.89	16.03
		middle	85.65	14.22
		lower	85.40	13.77
3yrs	expressive	upper	30.72	13.64
		Middle	30.13	13.63
		Lower	28.04	13.88
7yrs	expressive	Upper	89.36	15.78
		Middle	87.27	12.32
		Lower	84.59	12.12



<Figure 7> receptive voca. by family income



<Figure 8> expressive voca. by family income

Multivariate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by factor

Table 4 shows the results of repeated measure MANOVA with gender, birth order, mother's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as between participants' factors and age within participants'. There is a significant age difference in receptive vocabulary(F (1,1216)=9028.38***,p<.001),and inexpressive vocabulary(F(1,1216)=7910.17***,p<.001).

< Table 7 > Multivariate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by factors

Source		SS	df	MS	F	p
Gender	3yrs receptive	990.490	1	990.490	3.968*	.047
	7yrs receptive	142.381	1	142.381	.672	.412
	3yrs expressive	736.001	1	736.001	4.100*	.043
	7yrs expressive	280.819	1	280.819	1.656	.198
Birth order	3yrs receptive	134.584	2	67.292	.270	.764
	7yrs receptive	3058.647	2	1529.323	7.222*	.001
	3yrs expressive	5505.239	2	2752.620	15.335*	.000
	7yrs expressive	4938.560	2	2469.280	14.561*	.000
Mother's education	3yrs receptive	966.404	2	483.202	1.936	.145
	7yrs receptive	246.459	2	123.230	.582	.559
	3yrs expressive	202.289	2	101.145	.563	.569
	7yrs expressive	249.419	2	124.710	.735	.480
Income	3yrs receptive	11.131	2	5.566	.022	.978
	7yrs receptive	1761.634	2	880.817	4.160*	.016
	3yrs expressive	940.355	2	470.178	2.619	.073
	7yrs expressive	977.453	2	488.726	3.676*	.049

* p<.05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for the 3 years ol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but not for the 7 years old. There is a significant effect of birth order for the vocabulary of 3 and 7 years old. According to mother's education level,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cores of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ies of 3 years old and 7 years ol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of the 3 years old depending on the household income,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ressive and the receptive vocabulary of the 7 years ol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age and income (Wilks' Lambda F (2,1249)=5.11**,**p<.01). All other interaction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Table 8> shows the results of Duncan's post hoc test according to birth order and household income. The birth order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third in the vocabulary of 7 years old. In the expressive vocabulary,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second and third.

According to income facto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7 years ol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 Table 8>Analysis of variance according to the birth order and income of post hoc test

	7yrs receptive	3yrs expressive	7yrs expressive
Birth order	1st>2nd.3rd	1st>2nd>3rd	1st>2nd>3rd
Income	up.mid>mid.low		up>mid>low

Correlation between scores by age

We examined how vocabulary scores of 3 years old correlate with those of 7 years old. The results are shown in <Table 9>. The correlation between 7 years old expressive and receptive vocabulary was the highest, r = .65. The receptive vocabulary score of 3 years old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at of 7 years old, r = .32 (R2 = 10%). Expressive vocabulary of age 3 and 7 was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r = .50 (R2 = 10%).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vocabulary was higher than between the receptive vocabulary.

<Table 9> correlation among vocabulary scores

	3yrs receptive	3yrs expressive	7yrs expressive
7yrs receptive	.324**	.457**	.649**
3yrs receptive		.499**	.348**
3yrs expressive			.499**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bilities of 3 and 7 years old children differ as a function of the family SES (in terms of household income and mother's education) as well as birth order and gender. To summarize the results, there was no clear effect of the mother's education on children's vocabulary development, while the high household income was associated

with large vocabulary only in the 7 years old. A significant effect of birth order on vocabulary development for both ages.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for the 3 years old but not for the 7 years old.

The finding of no effect of mother's education is surprising, particularly given that it is well-established that maternal education level is the most effective predictor of childhood language development (Hoff et al, 2012; Magnuson et al, 2009). The current finding may be related with the rapidly increasing availability of more sophisticated young infant-targeted teaching programs at child care centres and via media (such as television and internet). In interpreting the current finding,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lowest educational level included in the current study is basically high-school completion. It could b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gh-school education and the above may be too small to be noticeable in the effect of education on how mothers raise infants (at least in Korea).

The current study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SES (as defined by household income, not by maternal education) and vocabulary development at the age of 7. There was no such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at the age of 3, which contrasts findings of other studies, e.g., Hart and Risley (1995) reported significant difference in expressive vocabulary between low and high SES children at age of three; and Fernald et al (2013) found that this difference was observed even in 18 months old infants. Despite the contrast, the current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general claim that SES-related differences in language development emerge from early childhood and remain stable or widen over time (Fernald et al. 2013; Halle et al. 2009; Walker et al. 1994).

With regard to what the observed association of SES (income) with the vocabulary development,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association was due to purely different language experiences/environments resulted from SES-related differences. This is particularly questionable for the current results as the genetic aspect (such as parents and children IQs) has not been taken into account in the design of the current study. This necessitates further investigation.

The current study found a significant effect of birth order on the vocabulary development with the first born more advanced than the second born who is more

advanced to the later born. This is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For example, Hoff-Ginsberg(2008) also observed that the first-born children were more advanced in lexical(and grammatical) development than the later-born ones. Hoff-Ginsberg, who also observed that the later-born children were more advanced in the social conversation development, interpreted that the birth order effects reflect differences i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associated with birth order; and suggested that language experience plays a nontrivial role in language development. In this regard, it can be suggested that later-borns' early language development is "different" rather than "disadvantaged"(Pine,1995).

Finally, there was a gender effect in vocabulary development at the age of 3 with girls superior to boy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that supported the general claim that girls are better in using language and language development (Jang & Lee, 2006; Kaushanskaya, Gross, & Buac, 2013; Leaper, Anderson, & Sande, 1998; Yoon & Kim, 2004). However, the current study did not observe any gender difference at the age of 7, contrasting the general claim and this age related differences in the gender effect guarantees further investigation.

In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found from a longitudinal data that similar to children using other languages such as English, German, French, etc, Korean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at the early age is affected by family SES (as defined by household income as well as birth order and gender). This is an important first step in conducting more advanced investigation with use of the Korean longitudinal database in the research area, including further studies to follow up the current findings as discussed above.

REFERENCES

Arriaga, R. I., Fenson, L., Cronan, T., & Pethick, S. J. (1998). Scores on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of children from lowand middle-income families. Applied Psycholinguistics, 19(2), 209-223.

Blair, C., & Raver, C. C. (2012). Chil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adversity:

experiential canalization of brain and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67(4), 309.

Blanden, J., & Machin, S. (2010).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in early years assessments. Children of the 21st Century - The First Five Years, 153-168.

Bowey, J. A. (1995). Socioeconomic status differences in preschool phonological sensitivity and first-grade reading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3), 476.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371-399.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Future of Children, 7, 55 - 71.

Burchinal, M. R., Peisner-Feinberg, E., Pianta, R., & Howes, C. (2002). Development of academic skills from preschool through second grade: Family and classroom predictor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5), 415-436.

Cartmill, E. A. Armstrong, B., Gleitman, L. R.,Goldin-Meadow, S.,Medina,T.N.,&Trueswell,J.C.(2013). Quality of early parent input predicts child vocabulary 3years late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0(28), 11278-11283.

Duncan, G. J., Magnuson, K., & Votruba Drzal, E. (2015). Children and socioeconomic statu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

Ensminger, M. E., Fothergill, K. E., Bornstein, M. H., & Bradley, R. H. (2003). A decade of measuring SES: What it tells us and where to go from here.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13, 27.

Entwislea, D. R., & Astone, N. M. (1994). Some practical guidelines for measuring youth's race/ethnicity and socioeconomic status. Child Development, 65(6), 1521-1540.

Entwisle, D. R., Karl, A. L., Pianta, R. C., & Cox, M. (1999).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Research, Policy, Training, and Practice.

Evans, G. W. (2004).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poverty. American psychologist, 59(2), 77.

Fenson, L., Dale, P. S., Reznick, J. S., Bates, E., Thal, D. J., Pethick, S. J., ... & Stiles, J. (1994). Variability in early communicative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185.

Fernald, A., Marchman, V. A., & Weisleder, A. (2013). SES differences in language processing skill and vocabulary are evident at 18 months. Developmental science, 16(2), 234-248.

Goldin-Meadow, S., Levine, S. C., Hedges, L. V., Huttenlocher, J., Raudenbush, S. W., & Small, S. L. (2014). New evidence about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based on a longitudinal study: Hypotheses for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st, 69(6), 588.

Halle, T., Forry, N., Hair, E., Perper, K., Wandner, L., Wessel, J., & Vick, J. (2009). Disparities in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 Birth Cohort (ECLS-B). Washington, DC: Child Trends, 1-7.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Paul H Brookes Publishing.

Hart, B., & Risley, T. R. (1999). The Social World of Children: Learning To Talk. Paul H. Brookes Publishing.

Hoff, E. (2013). Interpreting the early language trajectories of children from low-SES and language minority homes: Implications for closing achievement gaps. Developmental psychology, 49(1), 4.

Hoff, E., Laursen, B., & Bridges, K. (2012). Measurement and model building in studying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 development. The Cambridge handbook of environment in human development, 590-606.

Hoff-Ginsberg, E. (1998). The relation of birth or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o children's language experience and language development. Applied Psycholinguistics, 19(4), 603-629.

Hoff-Ginsberg, E., & Shatz, M. (1982). Linguistic input and the child's acquisition of language. Psychological bulletin, 92(1), 3.

Huttenlocher, J., Haight, W., Bryk, A., Seltzer, M., & Lyons, T. (1991). Early vocabulary growth: Relation to language input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236.

Jang Y. G., & Lee G. Y.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and early vocabulary acquisition. Children's Journal, 27 (6), 263-276.

Kim, Y., Hong, K., & Kim, K.(2009). Content and reliability analyses of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4(1), 34-45.

Kaushanskaya, M., Gross, M., & Buac, M. (2013). Gender differences in child word learning.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82-89.

Layzer, J., & Price, C. (2008). Closing the gap in the school readiness of low-income childre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Leaper, C., Anderson, K. J., & Sander, P. (1998). Moderators of genders effects on parents' talk to their children: A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3-27.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561-592.

Magnuson, K. A., Sexton, H. R., Davis-Kean, P. E., & Huston, A. C. (2009). Increases in maternal education and young children's language skills. Merrill-Palmer Quarterly, 55(3), 319-350.

Mueller, C. W., & Parcel, T. L. (1981). Measures of socioeconomic status: Alternatives and recommendations. Child Development, 13-30.

Oh, K. J., & Kim, Y. A. (2009). CBCL 1.5-5 manual revised edition. Seoul: Huno Consulting.

Oliver, B. R., & Plomin, R. (2007). Twins' Early Development Study (TEDS): A multivariate, longitudinal genetic investigation of language, cognition and behavior problems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Twin Research and Human Genetics, 10(1), 96-105.

Pace, A., Luo, R., Hirsh-Pasek, K., & Golinkoff, R. M. (2017). Identifying pathway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Linguistics, 3, 285-308.

Pan, B. A., Rowe, M. L., Singer, J. D., & Snow, C. E. (2005). Maternal correlates of growth in toddler vocabulary production in low income families. Child development, 76(4), 763-782.

Pine, J. M. (1995). Variation in vocabulary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birth order. Child Development, 66(1), 272-281.

Rodriguez, E. T., & Tamis LeMonda, C. S. (2011). Trajectories of the home learning environment across the first 5 yea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vocabulary and literacy skills at pre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82(4), 1058-1075.

Rowe, M. L. (2012).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 directed speech in vocabular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83(5), 1762-1774.

Shonkoff, J. P., Garner, A. S., Siegel, B. S., Dobbins, M. I., Earls, M. F., McGuinn, L., ... & Committee on Early Childhood, Adoption, and Dependent Care. (2012). The lifelo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toxic stress. Pediatrics, 129(1), e232-e246.

Taylor, C. L., Christensen, D., Lawrence, D., Mitrou, F., & Zubrick, S. R. (2013). Risk factors for children's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from four to eight years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PLOS one, 8(9), e73046.

Vanormelingen, L., & Gillis, S. (2016).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on mothers' volubility and responsiveness in a monolingual Dutch-speaking sample. First Language, 36(2), 140-156.

Vericker, T., Macomber, J., & Golden, O. A. (2010).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living in poverty: opportunities to identify and serve. Urban Institute.

Walker, D., Greenwood, C., Hart, B., & Carta, J. (1994). Prediction of school outcomes based on early language production and socioeconomic factors. Child development, 65(2), 606-621.

Weinert, S., Attig, M., & Roßbach, H. G. (2017). 5. The emergence of social disparities–Evidence on early mother–child interaction and infant development from the German 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NEPS). Childcare, Early Education and Social Inequalit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89.

Weisleder, A., & Fernald, A. (2013). Talking to children matters: Early language experience strengthens processing and builds vocabulary. Psychological science, 24(11), 2143-2152.

Yoon H. R., & Kim Y. T. (200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and infant language development by gender. Language Hearing Impairment Research, 9 (1), 30-44.

“한국 아동의 수용표현어휘발달 종단연구” 토론문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취학 전후 아동의 언어발달은 영유아기에서부터 아동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인지 및 사회정서의 제 발달과 밀접히 연관된 매우 중요한 발달 기초로, 이후 생애발달의 적응과 성취, 웰빙을 예측하는 주요 기제이다. 본 연구는 만 3세와 7세 시점의 수용· 표현 어휘력의 점수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 아동의 취학 전후 언어발달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비교적 명료한 연구 가설에 기초하여, 한국 아동의 취학 전후 어휘력 발달이 가구의 소득수준과 부모의 학력, 출생순위, 성별과 같은 아동·가족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3-7세 시점 간에 2배 이상의 어휘력 점수 증가를 보임으로써 양호한 언어발달의 궤적을 보이는 가운데, 모 학력에 따른 아동의 어휘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의 소득에 의한 사회경제적 집단 구분에 의해서는 7세의 표현어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 시점 모두에서 아동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어휘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른 여아의 상대적으로 높은 어휘력 점수는 취학전 3세 시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의 논의대로 언어발달에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는 IQ와 같은 부모의 지적능력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은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특징적인 결과로 보인다. 본 고에 제시된대로 영유아기의 높은 기관 이용률과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등의 프로그램 효과일수도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과 TV등의 영유아 매체 노출의 증가, 그리고 아동패널에서 부모의 학력 편차가 크지 않은 점도 유의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3, 7세 시점의 어

휘력 수준에 모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음은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좀 더 상세한 분석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

2016년 아동패널 보고서의 8차년도(초등1년) 자료 분석에 의하면, 전체 패널 아동의 69.4%만이 수용어휘력 정상발달 범주에 속하고(유의요망 16.6%, 발달의심 14.0%), 79.5%가 표현어휘력 정상발달 범주에 해당하고 있다(90p). 아동의 수용어휘력은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발달 의심에 해당하는 남아의 비율이 유의하게 많다. 즉, 여아, 외동아와 첫째아, 고학력 어머니의 자녀, 고소득 가구의 아동이 언어를 이해하는 수용 어휘력에서 나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의 어휘력 검사가 만 3, 5, 6, 7세 (부분적이나마) 이루어지고, 그 외에도 영아기 언어발달 평정과 4-5세 시점에 교사의 언어발달 관찰 응답, 6세 시점에 발화능력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므로, 이를 언어발달의 제 측면(어휘, 구문/문법, 조음, 대화와 소통, 읽기/쓰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즉 가용한 연간자료에 기초하여 종단분석의 통계적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언어발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참조하고, 데이터를 범주화 하여 적용한 것과 실제 연속데이터로 적용할 때의 차이 등(예: 가구소득, 어휘력점수)에 대한 유의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가구소득의 상-중-하 집단 구분에 의한 차이가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가구의 SES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에서도 보다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상대적인 저소득이 갖는 상대적 결핍과 격차의 문제인지, 혹은 빈곤이라는 절대적인 취약 환경의 특성이 갖는 결핍(높은 우울감, 스트레스 수준)이 낳는 지체와 부족의 문제인지,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추후 보다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패널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남아-여아 간 성차에 대해, 그리고 동일한 부모의 유전적 소인 하에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언어발달의 유의한 차이를 양육환경과 언어경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지 모두 중요한 발달 기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추후 연구를 통해 언어발달에의 조기 개입과 지원이 적절한 시점에 이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분석을 기대한다.

말늦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

이수향[1)]　　홍경훈[2)]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언어능력이 학령초기 사회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평균연령 3세2개월)에서 표현어휘발달검사(REVT) 점수로 말늦은 아동과 일반아동으로 나누고, 8차년도 자료(평균연령 7세4개월)에서 대상 아동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 점수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CBCL 검사의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3개 광역 점수 중 말늦은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총점, 외현화 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8개 증후군 척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말늦은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문제와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에서 차이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느린 언어발달은 학령초기 사회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말늦은 아동, 언어발달, 사회정서 발달

Ⅰ. 서론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발달을 시작한다.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자신의 연령에 맞는 발달적 이정표를 따라가게 된다. 영유아 시기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은 매우 빠르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신체 운동발달이나 인지발달, 또 사회성 발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진다(Bates & Snyder, 1987). 때문에 이 시기 한 영역의 발달 지체는 다른 영역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언어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문제를

1)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2)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가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기 표현어휘의 수가 또래 연령에 비해 지체되는 아동을 표현어휘지체(expressive vocabulary delay) 혹은 말늦은 아동(late talkers)이라고 한다 말늦은 아동에 관한 연구 연구들을 보면 말늦은 아동으로 정의하는 준거는 매우 다양하다. 홍경훈・김영태(2005)는 연구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말늦은 아동이란 (1) 18-23개월 사이의 아동으로 명료한 어휘가 10개 미만이거나 (2) 2-3세 사이의 아동으로 표현어휘수가 50개 미만이거나 두 낱말 조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는 (3) 18개월에서 3세 사이의 아동으로 표준화된 표현어휘발달검사에서 10퍼센타일(%ile) 또는 -1SD 미만을 나타낸 아동들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표현어휘 습득의 속도는 개인차가 커서 일반적으로 3세까지 말늦은 아동의 연령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늦은 아동에 대한 연구는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왔다.

말늦은 아동은 2세 아동의 15%에서 출현한다고 한다(Desmarais et al., 2008). 말늦은 아동 중 또래 아동의 발달을 따라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Whitehorse et al(2011) 연구에 따르면 2 세 때 말늦은 아동이었던 아이들 중 약 70-80 %가 그 다음 해에 적절한 언어 기술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하지만 Rescorla(2011)는 언어학습장애에서 표현언어지체는 점점 중요성이 더 커지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발달 초기 언어능력이 이후 학습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습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도 언어는 영향을 미친다.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되는데 이를 통해서 영유아들은 의사소통상대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간다. 언어발달이 느린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소통을 개시하는 빈도가 적다고 한다. Vigil et al.(2005)은 말늦은 아동과 전형적 발달 아동의 부모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는데 말늦은 아동들의 부모는 더 많이 개시하고, 더 많이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말늦은 아동들의 의사소통개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행동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 언어와 사회 - 정서 발달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표현 언어의 부족이 유아를 내재화 외현화 문제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rwin 등(2002)은 언어발달 초기 표현 언어의 어려움은 사회 정서적 조정 능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부모 -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말늦은 아동은 전

형적 발달 아동에 비해 더 우울하고 심각하며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Carson et al.(1998)의 연구에서도 언어 발달 지체 아동은 불안과 우울, 위축 및 수면장애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다. Horwitz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30 개월 정도의 말늦은 아동은 행동 문제를 경험하고 사회적 능력의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Whitehouse et al.(2011)은 2세 때의 표현 언어 지체가 그 자체로 아동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적 문제의 위험 요소는 아니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말늦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종단 관찰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말늦은 아동은 표현의 어려움 때문에 2세 때 임상적으로 중요한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나타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특히 말늦은 아동이 또래 아동의 발달을 따라가게 되면 또래아동과 사회 정서적인 발달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고, 이것이 4-5 세 회복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말늦은 유아의 언어 기술이 나이가 들면서 향상되면, 사회 - 정서적 행동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말늦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과 관련한 국외의 연구들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말늦은 아동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말늦은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나 예측변인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윤경(2011)은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의 언어 및 의사소통능력과 인지, 운동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에서 언어발달지체 33명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의 인지, 운동, 사회적 발달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는 모든 영역에서 일반 유아에 비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유아 시기 언어발달의 문제는 모든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유아기 언어문제가 아동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는 언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 양육행동,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은 영유아기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곽금주・김민화・한은주, 2004). 아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사회의 규칙과 권위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영유아기의 빈곤, 학대, 환경적 위험,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부적절한 주거와 보육환경은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이봉주・김선숙・김낭희,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적 관찰 자료를 통해 유아기 언어문제가 아동기 사회정서 발

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유아기의 언어능력과 아동기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만 3세 아동(4차년도)의 표준화된 어휘검사결과를 토대로 말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류하고, 만 7세가 되었을 때(8차년도)의 아동행동평가척도 점수를 비교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말늦은 아동과 일반아동 집단은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

2. 말늦은 아동과 일반아동 집단의 아동행동평가척도 점수에는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종단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 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및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ttp://panel.kicce.re.kr).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매해 실시될 예정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2011년 4차년도 자료와 2015년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4차년도에 대상아동의 연령은 만 3세 2개월이고 8차년도는 만 7세 4개월이다. 4차년도 수용・표현어휘력검사를 실시한 전체 대상은 1,754명이다. 전체 아동의 월령 평균은 38개월(표준편차 1.75)이다. 성비는 남아가 51%, 여아가 49%, 출생순위는 첫째가 46%, 둘째 이상이 54%이었다. 4차년도 자료를 통해 말늦은 아동(late talker)과 일반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8차년도 자료에서 대상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 관련이 있는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점수를 확인하였다.

홍경훈・김영태(2005)의 연구에 따라 구체적인 말늦은 아동의 준거는 다음과 같다:

(1) 36개월 전후 측정한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의 표현어휘력 검사 결과 또래의 10%ile 이하에 속하는 아동 (2) 신경, 청각, 인지, 정서 등의 다른 발달 영역에서는 뚜렷한 결함이 보고되지 않은 아동.

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가. 언어검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동의 언어발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REVT)를 사용하고 있다. REVT(김영태 외., 2009)는 2011년 4차년도부터 측정되어 오고 있다. REVT는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각각 측정하는 검사로 부모 보고가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접 검사이다.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검사로 표현어휘 문항은 전체가 18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 REVT의 표현어휘력 점수를 사용하여 준거에 따라 말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나. 사회 정서적 발달 측정

CBCL 6-18(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은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개발한 척도를 국내에서 번역, 표준화(오경자, 김영아, 2010)한 것으로, 총 120문항의 문제행동척도 문항과 14개의 적응척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는 부모 보고에 의한 아동 행동을 측정하는 매우 타당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2015년 5차년도 자료부터 CBCL 검사를 측정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드는 만 7세 때의 CBCL 점수를 사용하여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CBCL의 문제행동척도 문항 점수는 총 문제행동(Total behavior), 내재화 행동(intenalizing behavior), 외현화 행동(externalizting behavior) 등 3대 광역 점수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내재화 행동(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과 외현화(규칙위반, 공격행동) 및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 등 8개 증후군 척도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다. 공변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많은 연구에서 언급된 어머니의 학력, 가계소득, 어머니의 음주 및 흡연 여부,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우울, 스트레스)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말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 두 집단의 어머니의 학력, 가계소득,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고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공변인으로 처리하였다.

라. 자료의 통계처리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말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 및 사회 정서적 발달 변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위해서는 카이제곱 검정과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사회 정서적 발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아동행동평정척도의 점수 분석에서는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말늦은 아동와 일반 아동 분석 결과

가. 말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

4차년도 REVT 검사 중 표현 어휘력 점수를 기준으로 말늦은 아동으로 확인된 아동은 총 280명이다. 비교 집단인 일반 아동은 모두 1370명으로 두 집단의 성별 및 출생순위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말늦은 아동 집단은 남아의 비율이 62.5%로 48.7%인 일반 아동에 비해 높았다. 출생순위에서는 말늦은 아동 집단의 셋째 이하의 비율이 16.8%로 일반 아동 집단의 9.8%에 비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카이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 아동과 말늦은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

		일반아동 N(%)	말늦은아동 N(%)	χ^2
성별	남	667(48.7)	175(62.5)	17.753**
	여	703(51.3)	105(37.73	
출생순위	1st	654(47.7)	119(42.5)	13.210*
	2nd	581(42.4)	114(40.7)	
	3rd 이하	135(9.8)	47(16.8)	
총		1370	280	

*$p < .05$, **$p < .01$

나. 일반 아동과 말늦은 아동 집단의 통제변수 분석

<표 2>에는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두 집단의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 두 집단 모두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43.9%와 3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가계소득에서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55.7%와 56.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음주습관에 대한 결과는 전혀 마시지 않거나 월 1회 이하로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집단 모두 70%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흡연여부는 두 집단 모두 99%가 비흡연자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집단에 따라 어머니의 학력, 가계소득, 음주 및 흡연여부에 대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어머니의 학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말늦은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이 높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낮았다.

<표 2> 어머니 교육수준, 가계소득, 어머니 음주 및 흡연습관

		일반아동 N(%)	말늦은아동 N(%)	χ^2
모 학력	고졸이하	338(24.8)	91(32.8)	11.576*
	초대졸	276(20.3)	60(21.7)	
	대졸	598(43.9)	106(38.3)	
	석사졸 이상	150(11.0)	20(7.2)	
	전체	1362명	277명	
가계소득	200만원이하	148(10.8)	42(15)	16.931
	201~300	406(29.7)	94(33.6)	
	301~400	356(26.0)	66(23.6)	
	401~500	236(17.2)	31(11.1)	
	501~600	117(8.5)	23(8.2)	
	601만원이상	106(7.6)	24(8.6)	
	전체	1369명	280명	

		일반아동 N(%)	말늦은아동 N(%)	χ^2
모 음주	전혀마시지 않음	444(33.3)	93(34.3)	0.719
	월1회이하	482(36.2)	96(35.3)	
	월2~ 4회	326(24.5)	67(24.7)	
	주2회이상	80(6.1)	15(5.5)	
	전체	217명	1332명	
모 흡연	비흡연	1315(98.9)	267(98.9)	0.05(1.0)
	흡연	17(1.3)	3(1.1)	
	전체	270명	1332명	

$p < .05$

어머니의 우울 및 스트레스 점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의 우울 및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어머니의 우울 및 스트레스 점수

	일반아동		말늦은 아동		t
	N	M(SD)	N	M(SD)	
모 우울 점수	1334	2.0(0.8)	270	2.0(0.8)	-.354
모 스트레스 점수	1334	2.8(0.6)	271	2.8(0.7)	1.22

다. 말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CBCL 점수 분석 결과

말늦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총 문제행동 점수, 내재화 문제 점수, 외현화 문제 점수 등을 비교하였다. <표 4> 에는 두 집단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 외현화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 있다. 일반 아동 집단은 모든 점수에서 말늦은 아동의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집단별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점수 기술통계

	문제행동총점 M(SD)	내재화 M(SD)	외현화 M(SD)
일반아동 (N=1198)	14.4(12.6)	3.7(3.9)	4.0(4.1)
말늦은아동 (N=275)	16.7(18.9)	3.9(5.4)	4.9(5.0)

집단에 따른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학력을 공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집단에 따른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점수의 차이는 문제행동 총점과 외현화 점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5, p<0.01).

<표 5> 집단별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점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람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문제행동 총점	.992 p=0.008	1036.818	1	1036.818	5.323*
	내재화		10.226		10.226	.572
	외현화		146.913		146.913	7.207*

이러한 결과가 8개 증후군 척도에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재화(불안, 위축, 신체증상), 외현화(규칙, 공격) 및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기타문제 등에 대한 점수를 비교하였다. <표 6>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말늦은 아동의 8개 증후군 척도 평균점수가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집단별 8개 증후군 척도 점수 기술통계

	불안	위축	신체 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 집중	규칙	공격	기타 문제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일반아동 (N=1198)	2.0(2.2)	0.8(1.3)	0.8(1.3)	1.8(1.8)	1.0(1.4)	2.0(2.2)	1.0(1.3)	3.0(3.1)	1.9(2.0)
말늦은아동 (N=275)	2.1(2.7)	0.9(1.6)	0.9(1.9)	2.2(2.5)	1.1(2.3)	2.6(2.7)	1.3(2.3)	3.6(4.0)	1.9(2.6)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학력을 공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집단에 따른 CBCL 하위영역별 점수 중 사회적미성숙(F = 9.627), 주의집중(F = 13.325), 규칙(F = 5.740), 공격(F = 6.373) 영역의 문제행동 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p < 0.05). 나머지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집단별 CBCL 8개 증후군 척도 점수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람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불안	.983 p=0.002	1.173	1	1.173	.216
	위축		1.934		1.934	1.105
	신체증상		.524		.524	.248
	사회적미성숙		35.567		35.567	9.627*
	사고문제		2.473		2.473	.974
	주의집중		71.583		71.583	13.325*
	규칙		13.780		13.780	5.740*
	공격		70.705		70.705	6.373*
	기타		.782		.782	.176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말늦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3세 때 어휘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말늦은 아동을 분류하고 대상아동들의 7세 때 아동행동평가척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어머니의 학력, 가계소득, 어머니의 음주 및 흡연 습관,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우울, 스트레스) 변인들 중 말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어머니의 학력이었다. 말늦은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이 낮았다. 둘째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한 아동행동척도 점수 중 3대 광역 점수인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점수에서 말늦은 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에 비해 점수가 더 높았다. 이 중 문제행동총점, 외현화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8개 증후군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아동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어머니 변인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언어발달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어휘발달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장유경 외, 2003).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김현미 & 도현심, 200)4. 이처럼 다양한 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의 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말늦은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이

어머니의 학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후 말늦은 아동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머니 변인에 대해 더 세부적인 요인들을 파악하여 집단의 특성을 밝혀낸다면 말늦은 아동 위험군을 더 빨리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기의 언어발달의 문제가 이후 아동기 사회 정서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에서는 일반 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총점과 외현화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유아기의 언어발달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보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Carson et al., 1998, Horwitz et al, 2003). 종단적 관찰을 한 Whitehouse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2세 때의 CBCL 점수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말늦은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의 CBCL 점수는 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Whitehouse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문제행동총점과 외현화 점수의 경우는 말늦은 아동 집단이 5세, 8세, 10세 때 측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8개 증후군 척도 점수를 통해 더 세부적인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말늦은 아동 집단은 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등에서 일반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내재화 점수에 포함되는 불안, 위축, 신체증상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3대 광역점수의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내재화 점수에서는 두 집단이 차이가 없었다. 이는 Irwin et al.(2002)의 선행연구에서 언어발달지체 아동이 더 우울하고 심각하다는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기 때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말한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7세 학령초기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은 본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기 말늦은 아동으로 분류된 아동들이 학령초기 사회 정서적 발달에서 일반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부족한 언어능력은 학령초기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발달 영역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언어가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언어와 사회정서 발달의 관계를 종단적 관찰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말늦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을 알아봄으로써 말늦은 아동에 대한 조기 중재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단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나타내는 점수로

좀 더 다양한 측정 점수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다.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한 번의 종단 관찰 자료가 아니라 여러 번의 관찰 자료를 사용한다면 표현어휘발달과 사회정서발달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곽금주, 김민화, & 한은주. (2004).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아기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아동학회지, 25(5), 111-128.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 이주연. (2009).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현미, &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오경자, 김영아 (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

이봉주, 김선숙, & 김낭희(2010), 한국 아동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이윤경. (2011).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의 언어 및 의사소통능력과 인지, 운동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6, 1-12.

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 성현란. (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1.

홍경훈, & 김영태. (2005). 종단연구를 통한 '말늦은아동 (late-talker)'의 표현어휘발달 예측요인 분석.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0, 1-24.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panel.kicce.re.kr

Bates, E., & Snyder, L. (1987). The cognitive hypothesis in language develop--ment. In I. Uzgiris & J. Hunt (Eds.),

Carson,D. K., Klee,T., Perry, C. K.,Muskina, G.,& Donaghy, T. (1998). Compa--risons of children with delayed and normal language at 24months of age on measures of behavioral difficultie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9, 59 - 75.

Desmarais, C., Sylvestre, A., Meyer, F., Bairati, I., & Rouleau, N. (2008).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haracteristics of late-talking

todd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43, 361 - 389.

Irwin, J. R., Carter, A. S., & Briggs-Gowan, M. J. (2002). The social - emotional development of late-talking toddle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 1324 - 1332.

Rescorla, L. (2011). Late talkers: Do good predictors of outcome exist?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17, 141 - 150.

Whitehouse, A. J. O., Robinson, M., & Zubrick, S. R. (2011). Late talking and the risk for psychosocial problem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ediatrics, 128, 324 - 332.

Vigil, D. C., Hodges, J., & Klee, T. (2005). Quantity and quality of parental language input to late talking toddlers during play.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21, 107 - 122.

·교신저자: 이수향, 나사렛대학교 교수, suhyang@kornu.ac.kr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Late Talkers

Suhyang Lee and Gyunghun Ho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late talkers are at increased risk for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during childhood.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Late Talkers vs Typical Development children) according to scores of expressive vocabulary test conducted when they are 3 years and 2 months old. Late talkers were defined as toddlers who scored at or below the 10th percentile on the expressive vocabulary test. The Child Behavior Check list was used to measure problem child behavior. It was conducted when they are 7 years and 4 months old. Then CBCL scores of two groups were compared. Potential confounders included maternal and family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Late talkers(n =275) had higher Child Behavior Checklist scores (representing poorer behavior) than typical development group (n = 1198) in total,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cales. 2) In detail, LT showed higher scores in social immaturity, attention problem, rule violation, and aggressive behavior than TD. In conclusion, difficulty of early language development has a negative effect on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school-aged.

Key words: late talkers, language development, socio emotional development

“말늦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 토론문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영아 보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질적인 보육과 가정육아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사례의 종단적 추이를 통해서 예방적 요인 추출의 시사점을 찾기 위한 연구라 하겠다. 특별히 말늦은 아동의 추적은 더욱 정책적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한다.

첫째, 말늦은 아동(late talker)에 대한 개념 정의에 맞는 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지연의 현장을 보이는 아동은 말늦은 아동을 포함하여 언어발달지연(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 언어발달지연 위험군(at risk) 아동, 발달장애를 동반한 언어지연(중복언어장애) 등의 아동들에 해당한다. 말늦은 아동은 전체의 약 15% 정도 차지한다고 하였다. 청력손상이나 인지, 행동장애, 또는 신경학적 결함 없이 표현언어발달이 지체된 3세 이전의 영유아로서 24개월경에 표현어휘 수가 50개 미만인 경우로서 18-23개월 표준화된 검사에서 10%ile 미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 참여자인 4차년도 아동의 연령은 만 3세 2개월(38개월)로서 기준치보다 월령이 높아서 말늦은 아동이라는 정의에 적합한가의 문제이다. 즉, 38개월경의 표현어휘의 낮은 연구 대상자들 중에는 언어발달지연 혹은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등을 동반한 아동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말늦은 아동(late talker)의 분류기준에 맞는 검사결과가 없는 상황이므로, “말늦은 아동(late talker)”이라고 하기보다 “아동의 낮은 표현어휘력”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K-CBCL검사(Child Behavior Checklist) 결과를 사회정서적 발달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소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행동문제를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의 두 범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치는 영역별 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성 발달

과 정서적 발달의 전반을 다루지는 못하기에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확대 해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행동문제”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낮은 표현 어휘력의 만 3세 유아가 초등 저학년에 보이는 행동문제”로 보다 구체화된 연구제목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성별과 출생 순위에서 남아와 셋째이하의 출생 순위에 있는 아동이 낮은 표현 어휘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향후 어떠한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할 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남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다양한 개입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다둥이 가족 정책에 언어발달 증진을 위한 개입과 지원을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여러 변인들이 낮은 표현 어휘력과 관련이 있음을 연구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학교육이 어머니의 자녀와의 언어발달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비약이 있으나, 자녀의 언어발달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부모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자녀의 어휘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다고 한다(곽금주, 2005). 국내 2008년 이지연과 곽금주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수입, 학력, 가정환경이 만 3세 아동의 언어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일반아동집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연구자의 보다 심층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정서 상태는 상호작용의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최민희, 2014),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는 자녀의 어휘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자녀의 표현어휘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대해 분석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보면 어떨까 한다. 예를 들어, 낮은 표현어휘력의 아동들의 모의 우울점수, 스트레스 점수 간의 상관여부를 분석한다든지, 낮은 표현 어휘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변인들의 설명력을 분석하여 볼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낮은 표현어휘력 점수를 가진 3세아의 초등 저학년 행동문제를 살펴본 결과, 외현화 점수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의 어려움, 규칙 준수의 문제, 공격성 문제 등은 다른 내재적 행동문제들에 비해 표현어휘력이 낮았던 아동들이 더 많은 문제들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내재적 행동들에 비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훈육 문제를 유발하기가 쉽

다. 따라서, 아동 학대 예방과 청소년 비행문제 예방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영아기의 가족을 위한 육아지원과 부모교육, 영아보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영유아보육, 부모교육, 특수교육 및 아동학의 발달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다양한 육아정책을 세우는 것에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곽금주(2005), 한국영아의 발달 연구, 학지사

이지연, 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최민희(2014), 부모의 우울여부에 따른 12~15개월 부모-영아 간 상호작용 특성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어머니의 산전과 산후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귀옥[1)]　　이미리[2)]

요약

본 연구는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의 변화과정과 생후 6개월, 14개월,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간의 종단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3개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1. 산모의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의 발달과정은 어떠한가? 2. 6개월, 14개월,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과정은 어떠한가? 3. 산모의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과 영아의 6개월, 14개월, 2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종단적 영향은 어떠한가? 2008~2010년 한국아동패널 자료에서 출산 1개월 전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는 537명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Kessler 우울증 척도(K6)와 K-ASQ(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s)의 영아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영역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반복측정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의 평균은 U자 형태의 변화를 나타냈다. 둘째, 생후 6개월, 14개월,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평균 또한 U자 형태의 변화를 나타냈다. 셋째, 출산 1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은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은 14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출산 전 어머니 우울증은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출산 1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은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그리고 출산 4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은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산전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고, 산후 우울증만 영아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산후 우울증 관리의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영아, 어머니, 산전 우울증, 산후 우울증, 의사소통 능력, 발달

1)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2)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Ⅰ. 서론

우울증은 산모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으로 생후 첫 해 동안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진단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O'hara & Swain, 1996), 선진국에서는 산모의 19%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한다(Gavin, Gaynes, Meltzer-Brody, Gartlehener, & Swinson, 2005). 우리나라에서는 산모의 우울증 발생빈도가 산전인 경우 15.63%이며(최인애, 이경숙, 신의진, 박진아, 2012), 산 후 우울증으로 고통을 경험할 우려가 있는 여성은 12.4%, 산후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은 24.2%(박영주, 신현정, 유소신, 천문희, 문소현, 2004), 실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산모는 17.56%였다(최인애, 이경숙, 신의진 외 2012). 이는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산 후 우울증 발병 시기는 Miller(2002)의 연구에서는 4주에서 6개월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고, Downey 와 Coyne(1990)의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 후 첫 3개월간 집중적인 발병시기라고 보았으며, 신나리는(2010) 출산 후 4주 이내에 산모에게 생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산 후 우울증은 산후 초기를 중요시기라고 볼 수 있다. 초기뿐 아니라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1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이승휘, 전성일, 김영이, 이정호, 최영민, 이기철, 1998), 산전에 비해 산후 4주시점에 감소하다가 4개월 시점에 다시 증가하였다(신나리, 2010). 이는 한 번 출현했던 산모의 우울증은 어느 시점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산후 우울증의 전반적인 경로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로 이영환(2012)은 2008년~2010년의 세 시점에 걸쳐 어머니가 지각하는 우울증을 측정한 결과 우울증의 경로는 이전 시점의 우울증이 이후 시점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정, 김균희(2014) 연구 또한 우울증 위험 집단 어머니의 경우 출산 후 5년간 우울증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우울증 증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임을 보여주며 산모의 우울증이 언제 발생하여 산후 언제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 발전되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산전 우울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산전 우울증과 산후 우울증의 초기 시점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산전, 산후 우울증은 신체나 생리적인 호르몬 변화로 오는 경우와 심리적, 사회적 변화인 어머니로서의 역할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여정희, 2006). 이 같은 산전과 산후 우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도 하지만, 양육스트레스나 가

족 구성원 간의 육아 책임 관련 갈등 문제로 산후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다.

출산 전 우울증의 원인은 가족 수입, 임신 계획유무, 임산부의 건강지각, 결혼 만족도, 가족의 지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권미경, 2007), 출산 후 우울증의 원인은 본인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결혼 적응과 결혼 만족도, 산후 스트레스와 이전 우울증 경험여부가 있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가족지지, 부부관계의 질 및 남편의 지지도가 주요 원인이었다(김균희, 김현정, 이완정, 2014; 김지양, 김정규, 2008; 박영주 신현정, 유호신 외, 2004; 여정희, 2006; 조희원, 우주영, 2013; O'hara, & Swain, 1996). 이와 같이 출산 전과 출산 후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어머니 자신의 문제와 결혼 상태, 가족 및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횡단적 연구 뿐 아니라 종단적 연구에서 어머니 우울증에는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와 자녀 돌봄에 대한 개입 및 자녀의 기질이 영향을 주었고(박경자, 김현경, 김혜숙, 2011),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다(이완정, 김균희, 2014). 이와 같이 산모의 출산 전과 후의 우울증에 대해 횡단적과 종단적 연구 모두 어머니 우울증 원인을 가족과 남편에게 원인을 찾았다면 어머니 우울증 또한 또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신생아는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지면 어머니가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영아는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Grace, Evindar, & Stewart, 2003; Preston & Scaramella, 2006).

어머니의 우울증이 아동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주지만(김준경, 김숙희, 2016; 홍수종, 권지원, 2014; 최인애, 이경숙, 신의진 외, 2012; Murray & Cooper, 1996; Prenoveau, Craske, West, Giannakakis, Zioga, Lehtonen, Davies, Netsi, Cardy, Cooper, Murray, & Stein, 2017) 그 중 중요 영역은 언어 영역이다. 언어는 생애 초기 발달하는 가장 복잡한 발달 중 하나로 음운, 어휘, 의사소통 능력, 문법 등과 같은 언어의 중요 요소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Quevedo, Silva, Godoy, Jansen, Matos, Pinheiro, & Pinheiro, 2012). 언어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의사소통 능력 영역이다(박성연, 서소정, 2005). 그러나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영아의 사인과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회피적으로 반응하여 부모-자녀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고(박찬화, 이윤선, 2015), 이로 인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우울증과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은 관련이 깊은 변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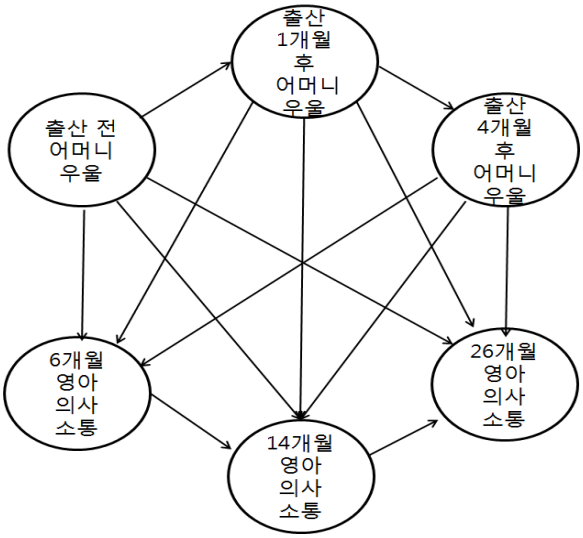
어머니 우울증과 영아의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다양한 발달 영역 중 의사소통 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김현옥, 2013), 산전-산후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는 일반 집단 어머니에 비해 질문하기, 위로하기, 의도 표현하기 등과 같은 화행 능력이 낮아 이로 인해 그 자녀들은 화행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조숙환, 주금정, 2010). 또한 박찬화, 이윤선(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증이 유아기 자녀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 우울증감은 가정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에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어머니 우울증이 유아의 어휘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부정적 가정환경을 매개하여 유아의 어휘력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력 문제 또한 의사소통 능력에 중요 요소로서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이 부족하다면 결국에는 의사소통 능력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증과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요인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단적으로 계속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출산 전, 출산 후 1개월, 출산 후 4개월 시점의 우울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생애 초기 3년간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 두 변인 간의 종단적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 산전산후 우울증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며, 우울증 어머니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개입과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산모의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의 발달과정은 어떠한가?
2. 6개월, 14개월,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과정은 어떠한가?
3. 산모의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과 영아의 6개월, 14개월, 2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종단적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에 따른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산전 산후 어머니 우울증과 의사소통 능력발달의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2008년도부터 2010년에 이르는 1~3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8년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 출생한 신생아 2150명을 표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우울증은 1차 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검사되어 출산 직전 한 달 동안의 우울증을 검사한 병원조사, 신생아가 1개월 시점에 되었을 때 검사한 전화조사와 출산 후 아기가 만 4개월이 되었을 때 검사한 가구방문 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150명 중 우울증 측정점수가 정상범위인 사람은 1524명, 경도와 중등도 우울증에 해당하는 사람은 435명, 중도 우울증에 해당하는 사람은 102명이었고 나머지는 89명은 결측이었다. 그 중 출산 전 한 달 동안 경도/중등도 우울증과 중도 우울증에 해당하는 537명 어머니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고, 표 1에 연구대상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특성	내용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연령	19-30세	231	43.6	-
		31-40세	298	55.5	-
		41-43세	5	0.9	-
		합계	537	100	-
	직업	관리자	3	0.6	-
		전문가	74	13.8	-
		사무직	43	8.0	-
		서비스직	8	1.5	-
		판매직	14	2.6	-
		장치・기계 조작 조립직	3	0.6	-
		단순노무직	2	0.4	-
		군인	1	0.2	-
		무응답	8	1.5	-
		결측	381	70.9	-
		합계	537	100	-
	학력	고등학교 이하	187	34.9	-
		전문대	138	25.7	-
		대학교	176	32.8	-
		석사 이상	30	5.0	-
		무응답	6	0.6	-
		결측	0	1.1	-
		합계	537	100	-
아동	성별	여아	264	49.2	-
		남아	273	50.8	-
		합계	537	100	-
	첫해 연령 (08년도)	4-11개월	537	100	5.59(1.25)
		합계	537	100	-
	둘째 해 연령 (09년도)	12-18개월	472	87.9	14.12(1.07)
		결측	65	12.1	-
		합계	537	100	-
	셋째 해 연령 (10년도)	23-32개월	441	82.1	26.36(1.45)
		결측	96	17.9	-
		합계	537	100	-

표 1의 어머니 특성 중 연령을 살펴보면, 30대 298명(55.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 10~20대 231명(43.6%), 40대 5명(0.9%)순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전문가가 74명(1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무직 43명(8.0%), 판매직 14명(2.6%), 서비스직 8명(1.5%) 순이며, 관리직과 장치・기계 조작 조립직은 3명(0.6~%)으로 같았다. 그 다음은 단순 노무직 2명(0.4%), 군인 1명(0.2%) 순이었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가 가장 많은 187명(34.9%)이며, 그 다음은 대학교 졸업 176명(32.8%), 전문대 졸업 138명(25.7%), 석사 이상 졸업 30명(5.0%) 순이었다.

영아 특성 중 성별은 여아 264(49.2%), 남아 273명(50.8%)이었다. 영아 연령 특성은 첫해인 08년도 아동의 연령은 범위는 4~11개월로 평균 5.59(1.25)개월이며, 둘째 해 09년도 아동의 연령 범위는 12~18개월로 평균 14.12(1.07)개월이며, 셋째 해 10년도 아동의 연령 범위는 23-32개월로 평균 26.36(1.45)개월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연도별 연령은 각 년도의 평균연령을 대표해서 08년도는 6개월, 09년도는 14개월, 10년도는 26개월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도구

가. 어머니 우울증

어머니 우울증은 Kessler 우울증 척도로 측정되었고,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불안하셨습니까?', '무기력하셨습니까?',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너무 슬퍼서 뭐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로 구성된다. 각 문항의 대답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으로 구성된다. 점수범위는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음을 의미한다. 검사 결과 6~13점은 정상 수준이며, 14~18점은 경도/중등도 우울증 수준이며, 19~30점 이상은 중도 우울증 수준을 나타낸다. 출산 전 어머니 우울증에 해당하는 Cronbach's α는 .47이고, 출산 1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에 해당하는 Cronbach's α는 .83이고, 출산 4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에 해당하는 Cronbach's α는 .91이다.

나.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K-ASQ(Korean Age & Stage

Questionnaire)이다. 이 도구는 1980년도 미국 Oregon대학에서 개발되어 4개월부터 60개월 영아에게 적용할 수 있다. 본 도구는 하위 5개 영역인 의사소통 능력,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역별로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 중 의사소통 능력 문항은 6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에 대해 부모는 '예(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로 구성되며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 되었고 각 영역별 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6개 문항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0점이다.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도구의 Cronbach's α는 .61이고,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도구의 Cronbach's α는 .60이고,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도구의 Cronbach's α는 .63이다.

3. 분석 방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과 반복측정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어머니 산전 산후 우울증과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간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성은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 별로 수치 본포의 형태를 확인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다변량 정규 분포성 검증을 확인하고자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변인별로 왜도는 2보다 작고, 첨도는 4보다 적어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산모의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의 발달은 반복측정분석을 사용하였고, 6개월, 14개월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적 변화 또한 반복측정분석을 사용하였다. 산모의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과 영아의 6개월, 14개월, 2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종단적 영향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계수의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고,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카이검증을 이용하지 않고, CFI, TLI와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판단 기준은 CFI와 TLI값의 경우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이고, .80 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하였고, RMSEA의 경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우종필, 2012).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와 같다. 출산 전 우울증 평균점수는 2.76(0.45), 출산 1달 후 우울증의 평균점수는 1.73(0.67)으로 떨어지며,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의 평균점수는 2.35(0.75)로 증가하였다. 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평균점수는 8.89(1.47), 14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평균점수는 8.18(1.89), 2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평균점수는 8.63(1.80)이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M(SD)*	왜도	첨도
출산 전 우울증	537	2.33	4.5	2.76(0.45)	1.48	2.27
출산 1개월 후 우울증	426	1.00	5.0	1.73(.0.67)	1.22	2.18
출산 4개월 후 우울증	490	1.00	5.0	2.35(0.75)	0.32	0.18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513	2.50	10.00	8.89(1.47)	-1.53	2.01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472	0.83	10.00	8.18(1.89)	-0.96	0.41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435	0.00	10.00	8.63(1.80)	-1.55	2.27

〈표 3〉 측정모형에서의 변인 간 상관

변수	1	2	3	4	5	6
1. 출산 전 우울증	1					
2. 출산 1개월 후 우울증	.14**	1				
3. 출산 4개월 후 우울증	.21**	.26***	1			
4.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02	-.01	-.13**	1		
5.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01	-.11*	-.02	.13**	1	
6.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03	.05	-.01	.03	.06	1

*p<.05, **p<.01, ***p<.001

어머니의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과 영아의 6개월, 14개월, 26

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증과 출산 1개월 후 우울증 간 상관은 .14(p<.01), 출산 4개월 후 우울증과의 상관은 .21(p<.01)로 모두 정적상관이 있었다.

출산 1개월 후 우울증과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은 .26(p<.001)으로 정적 상관이 있었고,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는 -.11(p<.05)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은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13(p<.01)의 부적상관이 있었다. 6개월 영아의 의아소통 발달과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간에는 .13(p<.01)의 정적상관이 있었고, 나머지 변인간에는 상관이 없었다.

2. 어머니 출산 전 후 우울증의 발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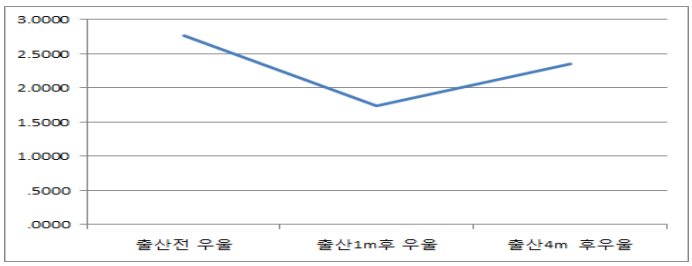
어머니의 출산 전 ,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의 발달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결과는 Mauchly의 W나 엡실런 값이 1에 가까우면 구형성가정을 만족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의 Mauchly의 W 값이 .907로 1에 가까운 값을 가져 구형성가정을 모두 만족하여 일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고, 어머니 출산 전후 우울증의 변화는 그림 2와 같다.

〈표 4〉 출산 전 후 어머니 우울증의 차이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우울증	130.887	2	65.44	246.38***

***p<.001

어머니의 출산 전 ,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의 발달적 과정은 각 연도별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246.38, p<.001), 그래프는 U자의 선형모양으로 나타났다(F=384.506, p<.001).



〈그림 2〉 어머니의 출산 전 후 우울증의 변화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증 점수는 2.76으로 가장 높았고, 출산 1개월 후 우울증 점수는 1.73으로 떨어졌다가 출산 4개월 후 우울증 점수는 2.35로 다시 높아졌다. 이를 통해 출산 전과 후의 우울증의 변화에 출산 1개월이 중요 시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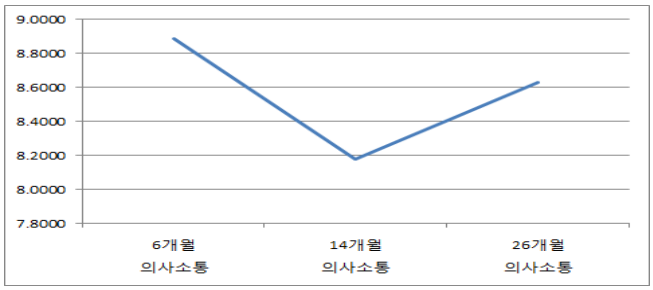
영아의 6개월, 14개월, 2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결과는 Mauchly의 W나 엡실런 값이 1에 가까우면 구형성가정을 만족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의 Mauchly의 W 값이 .963로 1에 가까운 값을 가져 구형성가정을 모두 만족하여 일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고,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변화는 그림 3과 같다.

〈표 5 〉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차이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130.001	2	65.00	23.79***

***p<.001

영아의 6개월, 14개월, 2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과정은 각 연도별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23.79, p<.001), 그래프는 U자의 선형모양으로 나타났다(F=33.28, p<.001).



〈그림 3〉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변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6개월 때 8.89로 가장 높았고, 14개월에는 8.18로 떨어졌다가 26개월에는 8.63으로 다시 높아졌다.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도 14개월에 중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어머니의 출산 전후 우울증과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간의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출산 전과 후의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본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카이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 카이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엄격하여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CFI, TLI 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우종필, 2012).

어머니 출산 전과 후 우울과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측정모형 검증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적합성으로 χ^2=1012.25(df=581)로 나타났고, CFI는 .883, TLI는 .874, RMSEA는 .041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CFI, TLI 모두 .80을 넘고, RMSEA는 .50을 넘지 않아 연구모형에 적합도가 만족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머니 출산 전 후 우울증과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측정모형 검증

	χ^2	df	CFI	TLI	RMSEA
초기모형	1012.25***	581	.883	.874	.041

*** p<.001

구조 모형 검증 결과에 따른 경로계수와 그림은 표 7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오차	표준화된 회귀계수	p
출산 전 우울증	→	출산 1개월 후 우울증	-.114	.123	-.063	.354
출산 전 우울증	→	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116	.066	.147	.077
출산 전 우울증	→	14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099	.111	-.069	.375
출산 전 우울증	→	2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040	.086	.033	.646
출산 1개월 후 우울증	→	출산 4개월 후 우울증	.336	.061	.303	***
출산 1개월 후 우울증	→	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046	.031	.105	.133

경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오차	표준화된 회귀계수	p
출산 1개월 후 우울증	→	14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169	.063	-.211	**
출산 1개월 후 우울증	→	2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032	.044	.047	.470
출산 4개월 후 우울증	→	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066	.029	-.166	*
출산 4개월 후 우울증	→	14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069	.049	.095	.157
출산 4개월 후 우울증	→	2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037	.037	-.060	.329
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	14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410	.176	.226	*
14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	26개월 의사소통 능력 발달	.054	.058	.064	.35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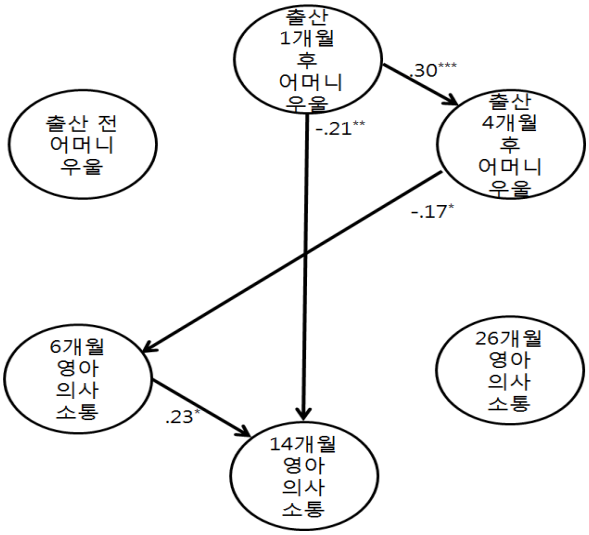
표 7에서 출산 전 어머니 우울증은 출산 1개월 후 우울증과 6개월, 14개월,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출산 1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이 높을수록, 출산 4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이 높아지며(β=.30, p<.001),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은 낮아졌다(β=-.21, p<.01).

출산 4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이 높을수록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은 낮아졌다(β=-.17, p<.05).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이 높을수록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은 높아졌다(β=.23, p<.05).

즉, 어머니의 출산 1개월 후 우울증이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에 정적 영향을 주며,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부적 영향을 주고, 출산 4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은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은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림 4> 출산 전과 후 어머니 우울증과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간 구조모형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의 변화과정과 생후 6개월, 14개월,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 간의 종단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모의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4개월 후 우울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출산 전 우울증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출산 1개월 우울증 평균 점수가 낮아졌다가 출산 4개월 후 우울증 평균 점수는 다시 높아졌다. 이는 신나리(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1개월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유지하다가 4개월에는 우울증 점수가 증가하였다. 신나리(2010) 연구에서 4집단으로 구분하여 해석한 내용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1개월에 우울증 점수가 감소하는 집단은 전반적으로 비우울증 수준을 유지하는 어머니가 많아서 나타난 현상이며, 산전 우울증 점수가 높아도 이 시기에는 비우울증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 4개월에 다시 우울증 점수가 높아진 것은 단순히 우울증이 한 번만 나타났다가 사라 진다기 보다는 출산 후 계속적인 육아와 가사일로 인해 우울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 1개월 시기가 출산 후 어머니의 우울증 변화에 중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출산 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 후 1개월에 조기개입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외부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우울을 극복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생후 6개월, 14개월,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생후 6개월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14개월에는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 점수가 떨어졌다가 26개월에는 다시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 의사소통 능력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적어 실질적으로 비교가 어려우나 신애선, 김영실(2016)의 연구와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다. 신애선, 김영실(2016)의 연구에서는 각 개월수를 10~18개월과 22~30개월로 정의하여 10~18개월 영아는 22개월과 30개월 영아와 비교했을 때 이해어휘 비율은 낮아지고, 표현어휘 비율은 높아졌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도 언어발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 점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발달의 차원과 상이한 결과로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발달에는 계속적인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닌 다지고 주춤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주춤하는 이 시기가 의사소통 발달에 중요 변화 시기라는 걸 보여준다.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다.

셋째, 어머니의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와 출산 4개월 후 우울증과 생후 6개월, 14개월,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의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산 전 어머니의 우울증은 출산 후 1개월 어머니의 우울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출산 1개월 후 어머니의 우울증은 출산 4개월 후 어머니의 우울증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이영환(2012)과 이완정과 김균희(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출산 후 생긴 우울증은 그 이후 우울증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를 통해 산후 우울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산후 우울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점수는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점수는 2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앞의 연구문제 2번에서 14개월이 의사소통 능력 평균 점수가 낮아졌었는데 이 시기의 변화가 발달의 중요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뒷받침 해 주는 근거이다. 즉 이전 발달이 다음 발달에 당연히 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깨고 14개월까지만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다시 한 번 14개월이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중요 시

점임을 강조하였다.

출산 전 어머니의 우울증은 영아의 6개월, 14개월, 26개월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출산 1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은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 출산 4개월 후 어머니 우울증은 6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출산 전 우울증은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출산 후 어머니의 우울증은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주어 산전 우울증 보다는 산후 우울증이 영아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박찬화, 이윤선(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양육스타일이나 자아효능감을 거쳐서 의사소통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산 후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어머니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중요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산전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고, 산후 우울증만 영아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산후 어머니 우울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김현옥(2013) 연구에서 어머니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해 주는 변수로 양육신념을 들었다. 즉, 어머니가 우울이 있어도 바른 양육신념을 갖고 있다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바르게 갖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다음 연구의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 전 우울증 점수가 14점 이상인 어머니만을 선별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출산 후 1개월이나 출산 후 4개월에 우울증 점수가 정상일 수도 있어 시기별 우울증 점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산후 우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주는 영향만 살펴보았는데,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이외 여러 발달 영역에 어머니의 우울증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우울증을 출산 전, 출산 1개월 후, 출산 3개월 후 우울

증만 살펴보았지만 1년 후와 2년 후와 같이 장기적으로 우울증의 변화와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우울증 척도는 출산 전 우울 문항의 신뢰도 점수가 낮았으며,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척도의 삼년간 문항의 신뢰도 점수도 모두 낮았다. 척도의 신뢰도 문제를 보완할 적절한 도구 선정도 추후 연구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미경(2007). 임신 중 우울증과 모-태아상호작용. 아동간호학회지. 13(4), 416-426.

김균희, 김현정, 이완정(2014). 발달위험군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333-346.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12).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준경, 김숙희(2016). A Structural Analysis among Marital Conflict, Mothers' Depression and Toddlers' Sleep Problems depending on Temperament Types of Toddlers. 육아정책연구소 7회 학술대회 자료집, 269-291.

김지양, 김정규(2008). 산후우울증감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연구: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3(1), 111-140.

김현옥(2013). 어머니의 우울증이 영아의 심리, 정서적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3(1), 1-21.

박경자, 김현경, 김혜숙(2011). A latent Growth model of Maternal depression: Predictors and effects on infant's developmental outcomes. 육아정책연구소 2회 학술대회 자료집, 369-380.

박성연, 서소정(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박영주, 신현정, 유호신, 천문희, 문소현(2004). 산후우울증 예측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4(5), 722-728.

박찬화, 이윤선(2013). 어머니 우울증이 유아기 자녀의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소 4회 학술대회 자료집, 140-166.

박찬화, 이윤선(2015).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감과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능력 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113-134.

신나리(2010). 산전 후 우울증변화-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한 단기종단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회 학술대회 자료집, 313-329.

신애선, 김영실(2016). 10~18개월 영아 어휘력 발달의 종단연구: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적 몸짓과 기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1), 273-295.

여정희(2006). 출산 후 6개월 여성의 산후우울증 정도와 예측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4), 355-362.

우종필(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이승휘, 전성일, 김영이, 이정호, 최영민, 이기철(1998). 출산 후 여성의 우울증성향과 영아 기질, 양육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의 연관성. 신경정신의학, 37(1), 95-103.

이영환(2012).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의 종단관계 연구: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간의 비교. 육아정책연구소 3회 학술대회 자료집, 117-132.

이완정, 김균희(2014). 어머니의 우울증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 분석: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5회 학술대회 자료집, 271-290.

조숙환, 주금정(2010). 산전-산후 우울증 성향 어머니의 6개월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특성과 영아의 언어발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08-309.

조희원, 우주영 (2013). 산후 우울증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모형.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5(3), 549-573.

최인애, 이경숙, 신의진, 박진아(2012). 어머니 산전 산후 우울증 수준에 따른 어머니와 영아의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발달, 25(3), 125-148.

홍수종, 권지원 (2014). 출산 전후 산모의 우울증이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소 5회 학술대회 자료집, 63-79.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Gavin, N. I., Gaynes, B. N., Meltzer-Brody, S., Gartlehener, G., &

Swinson, T. (2005). Perinatal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of prevalence and incidence. *Obsterics and Gynecology, 106*(5), 1071-1083.

Grace, S. L., Evindar, A. & Stewart, D. E. (2003) The effect of postpartum depression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and behavior: a review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6*(4), 263-274.

Miller, L. J. (2002). Postpartum depression. *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7*(6), 762-765.

Murray, L., & Cooper, P.(1996). The impact of postpartum depression on child development.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8*(1), 55-63.

O'hara, M. W., & Swain, A. M. (1996). Rates and risk of postpartum depression -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8*(1), 37-54.

Prenoveau, J. M., Craske, M. G., West, V., Giannakakis, A., Zioga, M., Lehtonen, A., Davies, B., Netsi, E. Cardy, J., Cooper, P., Murray, L, & Stein, A.(2017). Maternal Postnatal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ir Associa tion With Child Emotional Negativity and Behavior Problems at Two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53*(1), 50-62.

Preston, S. L. S. & Scaramella, L. V. (2006) Implications of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or early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1), 65-83.

Quevedo, L. A., Silva, R. A., Godoy, R., Jansen, K., Matos, M. B., Pinheiro, T. K. A., & Pinheiro, R. T. (2012). The impack of maternal post-partum depression o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at 12 month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8*(3), 420-424.

·교신저자: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meeryl@knsu.ac.kr

Effects of mothers' pre and post-natal depression on infants' communication development

Lee, Kwiok and Lee, Meery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mothers' pre- and post-natal depression on infants' communication development longitudinally. Using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from 2008 to 2010, 537 mothers who experienced prenatal depression and their infants were selected.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suggested: 1) How is the process of mothers' depression development at 1 month before delivery, 1 month after delivery, and 4 months after delivery? 2) How is the process of infants' communication development at 6 months, 14 months, and 26 months of age? 3) How ar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mothers' pre- and post-natal depression on infants' communication development? The K6 and K-ASQ were used to measure mothers' depression and infants' communication development. Finding are as follows: 1) A U-shape was found in the development of mothers' depression from 1 month before delivery to 4 months after delivery. 2) A U-shape was found from infants' 6 months to 26 months of age. 3) Mothers' depression at 1 month after delivery positively affected on their depression at 4 months after delivery. Infants' communication development at 6 months of age positively affected on their communication development at 14 months of age. Mothers' pre-natal depress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on infants' communication development. However, mothers' post-natal depression significantly affected on infants' communication development at 6 months and 14 months of age.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 programs for mothers' post-natal depression at the beginning stage are required to improve child communication competency.

Key words: mother, infant, pre-natal depression, post-natal depression, communication development

“어머니의 산전과 산후 우울증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

박찬화 (금융감독원 푸르니 어린이집 원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어머니의 우울은 특히 산전과 산후에 많이 발생하고 산후 우울이 만성우울로 발전하기도 한다(Sohr-Preston & Scaramella, 2006). 산후 우울은 여성이 어머니로서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성심리학적 관점의 논의가 요구되는 주제이다(이경숙, 2012).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증상이 지속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산전 우울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산후 우울로 발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의 초기 시점의 변화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우울증 변화의 시점에 맞춰 적절한 중재가 필요함을 제안한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다양한 생리적, 환경적 매카니즘을 통해 나타나는 어머니의 산전과 산후 우울, 또는 만성 우울은 자녀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자녀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의 지체는 어머니의 우울이 산전, 산후 또는 유아기 중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Sohr-Preston & Scaramella, 2006). 임신 중 어머니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은 태아의 생리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 인지적 결핍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전 우울은 임신 18주에서 32주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산전 우울을 보이는 어머니의 코티솔 수준이 태아의 생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쳐 (Field et al., 2004) 산전 우울 증상이 없었던 산모의 영아보다 민감한 영아가 될 수 있다(Sohr-Preston & Scaramella, 2006).

특히 환경적 자극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하는 영아기에 있어서 어머니의 산후 우울은 자녀에게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여 진다. 산후 우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뜻함, 함께 책읽기, 긍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

과 같은 양육행동을 덜 하게 한다(Cummings, Keller, & Davies, 2005; Paulson et al., 2006). 산후 우울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는 덜 긍정적이고 친밀함이 부족한 상호작용을 하며, 자극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자극을 거의 주지 않고, 언어적 상호작용과 놀이 상호작용을 덜 하는 경향을 보인다(Campbell, Cohn, & Meyers, 1995; Righetti-Veltema, Bousquet,& Manzano, 2003).

영아는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감각 기관을 사용하여 적절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성인, 특히 어머니는 영아의 의사소통적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김명순, 2010). 이 연구에서는 6개월, 14개월 23개월 세 시점에 우울증세가 있는 어머니를 가진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점수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 발달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6개월과 23개월에 비해 14개월의 점수가 낮은 U자형을 보인 것은 연령과 의사소통능력은 비례할 것이라는 예상에 벗어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그 원인에 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어머니의 산후 우울이 산후 1개월 때보다 산후 4개월 때 우울증상이 호전된 것처럼 산후 6개월 때 어머니의 우울과 14개월과 23개월 때 어머니의 우울 점수의 패턴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산후 시기별 어머니의 우울 증상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한 후속 연구를 이끄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어머니의 우울은 특히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Field, 1995).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는데 이는 의사소통하려는 영아의 동기와 흥미를 감소시키며 각성수준을 증가시킨다(Gauvain, 2001). 그리고 영아와 말할 때 얼굴표정의 변화가 적고 목소리의 톤이 단조로운 경향이 있으며(Breznitz, 2001), 영아의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훨씬 효과적인 아기말(motherese)을 덜 사용한다(Kaplan, Bachorowski, Smoski, & Hudenko, 2002). 또한 자녀에게 말을 덜하고 자녀가 언어를 산출하려는 시도에 반응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은 영아의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연구들(Rollins, 2003; Tamis-LeMonda, et al., 2001)에 의하면 어머니가 영아에게 반응적이며 최적의 양육을 제공할 때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은 상상놀이, 함께 책읽기와 같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내며 이는 어머니에게 유아의 인지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에 어머니 자신의 우울은 유아의 인지적, 언어적 기술을 확장시키는 놀이와 함께 책읽기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한다(Sohr-Preston & Scaramella, 2006).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산전과 산후 우울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영아의 언어발달의 지체를 예방하기 위해 어머니의 산후 우울에 대해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산전과 산후 2년 이내 어머니의 우울과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추이를 살펴보고,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어머니의 우울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적절한 연구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보완할 점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 어머니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언급은 많으나 어머니의 우울증이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문헌연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인 K-ASQ는 진단검사로 해당 개월에 따라 적용문항이 다르므로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해당 개월의 원점수에서 K-ASQ 해당 개월의 평균점수를 뺀 편차점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김명순·김의향·이유진(2007). 영아의 차례 맡기와 어휘습득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7**(3), 301-314.

이경숙(2012). 산후우울 어머니의 영유아 자녀 양육기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8-158.

Breznitz, Z. (2001). Verbal indicators of depression.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19*, 351 - -363.

Cummings, E. M., Keller, P. S., & Davies, P. T. (2005). Towards a family process model of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on symptons: Exploring multiple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 479-489.

Field, T. (1995).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8*, 1-13.

Field, T., Diego, M., Hernandez-Rief, M., Vera, Y., Gil, K., Schanberg, S., et al. (2004). Prenatal maternal biochemistry predicts neonatal biochemi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oscience, 114*, 933 - -945.

Gauvain, M. (2001). *The social context of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Kaplan, P. S., Bachorowski, J., Smoski, M. J., & Hudenko, W. J. (2002).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although competent learners, fail to learn in response to their own mothers'infant-directed speech. *Psychological Science, 13*, 268 - 271.
Paulson, J. F., Dauber, S. E., & Leiferman, J. A. (2006). Individual and combined effects of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on on parenting behavior. *Pediatrics, 118*, 659-668.
Righetti-Veltema, M., Bousquet, A., & Manzano, J. (2003). Impact of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on mother and her 18-month-old infant.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 75-83.
Rollins, P. R. (2003). Caregivers' contingent comments to 9-month-old infants: Relationships with later language. *Applied Psycholinguistics, 24*(2), 221-234.
Sohr-Preston, S. & Scaramella, L. (2006) Implications of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or early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 65 - 83.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 Baumwell, L. (2001).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achievement of language milestones. *Child Development, 72*(3), 748-767.

제8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2호-304호, 306, 401-405호
Tel. 02-398-7700 www.kicce.re.kr